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재단

로

동북아역사논총

47호 2015. 3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특집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인식 -檀君부터 準王까지

김성환 |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11

박대재 | 고조선의 정치체제 57

배진성 | 美松里型土器文化의 動態와 分布圈 99

논문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최재도 | 漢城의 高句麗國 再檢討 139

이경화 | 일제강점기 목포 유달산의 弘法大師像과 88靈場 171

한운석 | 유럽통합을 위한 역사교육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

특별 기고

윤세병 | 동아시아 수업과 평화 인식 241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281

Contents

Special Issue A New Understanding of Gojoseon: From Dangun(檀君) to Junwang(準王)

Kim Sunghwan ▮ The Transmission of Ancient Joseon's Founding Myth and the Perception of Ancient Joseon 11

Park Daejae ▮ The Government System of Old Joseon 57

Bae Jinsung ▮ The Movement and Distribution of Misong-ri Type Pottery Culture 99

Articles

Choi Jaedo ▮ The review of Goguryeo in the Hanseong 139

Lee Kyunghwa ▮ The Kukai image and 88 sacred places on Yudal Mountain of Mokpo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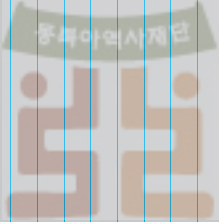
Han Unsuk ▮ History Teaching for European Integration: With Special Attention to Germany 201

Featured Contribution

Yoon Sebyong ▮ Teaching East Asian History and Peace Recognition 241

특집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인식
—檀君부터 準王까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문

고조선이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국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고조선의 개국 연대나 첫 도읍지 등 기초적인 문제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고조선에 대한 역사 기록이 체계적으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조선에 관한 가장 오래된 국내 기록은 『帝王韻紀』와 『三國遺事』이다. 특히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는 『魏書』와 「古記」에 전하는 단군왕검의 조선 개국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자세히 인용되어 있다. 「고기」에 의하면 고조선은 중국의 요임금 때인 기원전 2000년대 후반에 평양지역에서 개국하였다고 한다. 또한 『삼국유사』보다 먼저 나온 『三國史記』 고구려본기에서도 평양이 仙人王儉의 터라고 하여, 평양에 단군왕검의 고조선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고려시대의 기록에는 평양지역에 위치했던 고조선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 고문헌 가운데 고조선을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管子』이다. 『관자』는 춘추시대齊나라 재상 관중의 저작이라 전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관중의 학문을 숭상한 전국시대 제나라 稷下학자들이 편찬한 것이다. 『관자』에는 文皮의 산지로 유명한 發朝鮮이 보이는데, 山東의 제나라와 교류한 것으로 보아 발조선은 산둥과 인접한 요동지역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後漢 應劭의 『漢書』 지리지 주에는 遼東郡 險瀆縣이 조선왕의 舊都라고 하였고, 후한 荀悅의 『漢紀』에도 조선과 漢의 경계가 遼水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요동이 고조선의 중심지 내지 범위였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魏略』에 전하는 기원전 280년대 말 燕將 秦開의 조선 침공 기록과 그 직후의 사정을 전하는 『戰國策』에 燕의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다는 기록을 통해 볼 때 기원전 3세기 이후 요동이 고조선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史記』에서 기원전 195년 이후 위만조선의 중심지인 王險城이 列

水 즉 대동강 유역의 평양에 위치했다고 전하는 것도 공감되는 사실이다. 기원전 108년 한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고지에 낙랑군, 진번군, 임둔군, 현도군을 설치하였다. 한군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 범위가 위만조선의 영역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문헌에 의하면 위만조선 이전 고조선의 중심지가 평양이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 요동지역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해 평양설, 요동설, 이동설 등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동설은 기원전 3세기 초 연장 진개의 조선 침공을 계기로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에서 평양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비파형동검문화의 중심지가 요동지역이었다가, 그를 계승한 세형동검문화(초기철기문화)의 중심지는 평양지역으로 바뀐다는 고고학적 이해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이동설은 요동~서북한 지역에서 비파형동검문화가 세형동검문화(초기철기문화)로 전환하는 시점이 기원전 3세기보다 빠르다는 점과 두 지역의 청동기문화를 과연 동일한 집단의 이동에 의한 연속으로 볼 수 있는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연장 진개의 침공 지역은 조선의 중심지가 아니라 그 ‘西方’이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요동지역과 평양지역 고조선 사이의 관계가 동일한 집단의 이동에 의한 연속이 아니라면 두 지역의 고고학적 양상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파형동검문화 단계에는 요동지역의 집단이 중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선진세력으로 성장하였다면, 세형동검문화(초기철기문화) 단계에는 요동지역을 대신해 평양지역의 집단이 새로운 세력으로 대두하게 된 것이다.

중국 고문헌인 『山海經』에는 燕에 의해 멸망한 貊國과 列陽 즉 列水유역에 있던 朝鮮이 구별되어 보인다. 이에 따라 맥국과 조선은 각각 요동지역과 평양지역의 중심세력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제와 교류했던 발조선은 요동의 맥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발과 맥은 서로 통한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요동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 세력과 평양지역의 세

형동검문화(초기철기문화) 세력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고조선 논쟁의 핵심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사와 고고학 분야에서 각각 2주제씩 총 4주제를 정해 고조선 문제에 새롭게 접근해 보았다.

첫 번째,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은 경기도박물관의 김성환 선생님께서 집필을 맡아주셨다. 고조선의 건국신화가 고구려, 고려를 통해 전승되면서 변형 내지 확장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고려 후기의 고조선 인식이 당시의 도참설이나 對元관계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제왕운기』에 보이는 遼瀋지역에 대한 역사 회고 인식이 고조선 이래 遼瀋지역이 世守疆域이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혔다.

두 번째, 「고조선의 정치체제」는 필자 본인이 집필을 맡았다. 고조선의 왕호가 고유 왕호인 '왕검'에서 기원전 4세기 후반에 중국식 왕호인 '왕'으로 변화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무렵 고조선의 정치발전단계가 군장사회에서 초기국가로 성장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고조선의 관제로 보이는 卿과 大夫, 博士, 兄(加)에 대해 검토하여, 위만조선 이전 고조선시기에 이미 지배체제를 갖춘 국가 단계에 이르렀음을 밝혔다. 특히 최근 중국 요동 북부의 開原에서 알려진 '兄'명 銅刀를 통해, 고구려의 관제인 '兄'이 고조선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보았다. 자료가 부족한 고조선의 관제에 대한 시론이라는 점에서 학계의 많은 질정이 기대된다.

세 번째, 「美松里型土器文化의 動態와 分布圈」은 부산대학교 배진성 교수께서 집필을 맡아주셨다. 이 글에서는 미송리형토기가 요동반도와 요북지역에서 거의 동시기에 각기 지역색을 가지고 발생하였다고 보면서, 두 지역과 그 사이 동산유적 일대, 압록강~청천강유역, 대동강유역의 5개 권역을 미송리형토기문화권으로 설정하였다. 이 문화권은 어떤 통일된 문화권이나 정치체가 아니라 공통성 속에서 권역별 다양성과 독자성을 유지한 지역문화권으로 이해되었다. 미송리형토기문화의 분포 양상으로 보아 요동지역이 전국시대 이전 고조선의 중심 지역으로 보이며, 그중에서도 二道河子나 誠信村 석관묘와 같은 최고 유력자 분묘가 확인되는 요북지역이 가장 중심 권역이었을 것으로 파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김성환 | 경기도박물관 학예부장



고조선이 우리 역사의 시원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상한과 관련한 논의를 비롯하여 영역·도읍지, 고조선의 범주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고조선 멸망 이후 건국신화와 전승의 계승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고려 후기의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고조선 건국신화는 고조선과 관련한 현전 最古의 자료임에 분명하지만, 1차 사료로 활용하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 고조선 건국신화는 고조선 이후 각 시대의 정치·사회·문화상과 연동하면서 많은 변천이 있었다. 두 자료 역시 그중의 일부였다. 특히 《삼국유사》의 편목 중 하나인 ‘고조선[왕검조선]’은 고려 후기의 신진사대부들이 주축이 되어 건국된 신왕조 ‘조선’의 상대 개념이 아니라, 魏滿朝鮮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제왕운기》에서도 위만조선에 앞서 단군의 ‘전조선’과 기자의 ‘후조선’을 편목하고 있다.

※ 투고: 2014년 8월 13일, 심사 완료: 2015년 1월 30일, 게재 확정: 2015년 2월 23일

이제까지 고조선과 관련한 역사인식 측면의 연구는 그 시조인 단군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¹⁾ 여기에는 단군·기자·위만의 삼조선 체계가 정립된 조선 초기 이후 근대 학문의 수용과 더불어 단군과 그 신화에 대한 일제 관학자들의 부정론을²⁾ 극복하려는 노력과³⁾ 단군이 우리 역사의 출발이라는 의미를 넘어

- 1) 고조선과 단군 연구의 방향과 내용들은 1993년 북한의 소위 단군릉 발굴과 2000년 대 초반 중국의 동북공정을 전후로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면서 급변했다. 단군 연구는 신화 자체에 대한 접근, 신화와 역사의 관계, 전승 내용과 인식론 등의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연구사를 정리한 최근의 논저들은 다음과 같다. 윤이홍 외, 1994, 『檀君; 그 理解와 資料』, 서울대학교출판부(1997, 증보); 이필영, 1996, 『檀君神話認識의 諸問題-學史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9, 한국고대사학회; 이형구, 1999, 『檀君과 古朝鮮史 연구의 현황과 과제』, 『단군학연구』 1, 단군학회; 조법중, 1999, 『古朝鮮關聯研究의 現況과 課題-단군인식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1, 단군학회; 조법중, 2012, 『단군 연구사 검토 및 역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이은봉, 1999, 『단군신화 연구의 경향과 과제-종교적 측면에서』, 『단군학연구』 1, 단군학회; 이기동, 2000, 『북한에서의 단군연구와 그 승양운동』, 『한국사시민강좌』 27, 일조각; 김두진, 2000, 『단군에 대한 연구의 역사』, 『한국사시민강좌』 27, 일조각; 김성환, 2008, 『단군 연구사의 정리와 방향: 단군릉 발굴 이후 역사학 분야 성과를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18, 단군학회 등 참조. 최근 중국학계에서는 동북공정을 진행하면서 고조선도 중국 동북지방사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고조선 건국신화에 대한 그들의 관점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 연구 각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단군은 실존 인물이 아니며, 단군신화는 중국신화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중심 논점이다. 여기에서도 고조선을 중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그대로 노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비판은 서영대, 2012, 『중국학계의 단군 연구와 그 비판』, 『고조선단군학』 27, 고조선단군학회 참조. 한편 단군릉 발굴 이후 그 능과 그곳에서 출토된 인골을 단군의 실체로 파악한 북한학계의 결과는 전대준·최인철의 『조선단대사(고조선사)』(2010, 과학백과사전출판사)로 요약되었다.
- 2) 那珂通世, 1894, 『朝鮮古史考』, 『史學雜誌』 5-4, 東京大史學會; 白鳥庫吉, 1894, 『檀君考』, 『學習院輔仁學會雜誌』 28(1970, 『白鳥庫吉全集』 3 재수록); 白鳥庫吉, 1894, 『朝鮮의 古傳說考』, 『史學雜誌』 5-12, 東京大史學會; 今西龍, 1910, 『檀君의 傳説につきて』, 『歴史地理』(朝鮮號), 日本歴史地理學會; 今西龍, 1929, 『檀君考』, 『靑丘學叢』 1(1937, 『朝鮮古史の研究』 재수록); 신종원 엮음, 2005,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참조.
- 3) 신채호, 최남선 등의 선형적 연구가 대표적이다. 申采浩, 1948, 『朝鮮上古史』, 종로서원; 崔南善, 1927, 『檀君及其研究』, 『朝鮮及朝鮮民族』 1(李基白 編, 1990, 『檀君神話論集』, 새문사 재수록); 崔南善, 1941, 『三國遺事解題』, 『新訂三國遺事』; 崔南善, 1954, 『檀君古記箋釋』, 『思想界』 1954년 2월호, 사상계사 등 참조.

민족의 시조로 확장·강화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⁴⁾ 그런데 고조선의 역사계승인식에 대한 그간의 연구에는 단군이 고조선보다 강조됨으로써 그 역사성이 일부 희석되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단군신화, 단군인식의 측면에서 검토되어 온 시대별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고조선 건국신화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조선 멸망 이후 역사성을 상실하고 전해졌던 건국신화가 고려 전중기 이후 어떻게 역사성을 회복했는지, 그 내용은 어떠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고구려에서 고조선 건국신화에 대한 전승의 측면을 살피고자 한다.⁵⁾ 이에 고구려고분벽화 중에서 이미 그 가능성이 검토되어 온 각처총·장천1호분의 고평과 호랑이, 수목상배 등의 장면을 고조선 건국신화의 모티브와 관련하여 수용하고, 특히 장천1호분의 聚戲 장면을 고구려의 제천의례인 동맹과 관련짓고자 한다. 즉 동맹에서 선행되었을 고구려의 고유신앙 체계에 용해된 고조선 건국신화의 단편을 확인하여 고려 전중기 이후 비로소 보이는 고조선→(부여)→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계승인식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이다. 둘째, 고려 전중기 도참사상에 착종되어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전해지던 고조선 건국신화의 모습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물론 그 내용이 역사성과 일정한 거리가 있지만, 水母木幹이라는 고려 초 地脈에 대한 인식이 水德에서 木德으로의 지향이라는 운수론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조선 건국신화의 잔상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고조선 건국신화를 읽는 방식과 체계가 확연하게 다른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중심으로 고려 후기에 고조선 인식이 재정립

4) 특히 일제강점기의 이 같은 경향을 '단군민족주의(Dangun Nationalism)'로 규정한다. 신용하, 1980, 「신채호의 애국계몽사상」, 『한국학보』 20, 일지사; 한영우, 1980, 「1910년대의 역사서술」, 『한국문화』 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참조. 한편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단군민족주의의 출현을 조선시대까지 소급하기도 한다. 정영훈, 1995, 「한국사 속에서의 '檀君民族主義'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28-2, 한국정치학회, 33~55쪽; 정영훈, 2013, 「한민족의 정체성과 단군민족주의」, 『민족문화논총』 5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93~137쪽.

5) 논의 과정에서 부여, 또는 범부여계의 건국신화와 고조선 건국신화의 관계를 먼저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에 대한 검토는 향후를 기약한다.

되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 이후 성리학 수용의 주체인 신진사대부들이 설정했던 개혁의 방향이 새롭게 정립된 고조선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조선에서 출발하는 역사계승인식은 당시 대내외적 시대인식의 결과였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런 가운데 아사달산신이라는 고조선 시조의 사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역사적 실존인물로서의 인식방법인 檀君墓와⁶⁾ 후계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점에도 유의하고자 한다. 넷째, 요동이라는 고조선의 영토와 관련하여 고조선 인식이 고려 말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중국과 요·금, 특히 원과의 관계에서 축소되었던 영토인식에서 벗어나 공민왕 때 파사부를 둘러싼 다툼과 요동정벌 등이 고조선의 고토 수복이라는 관점에 토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다.

II. 고구려에서 고조선 건국신화의 전승

중국 先秦 시대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단편적인 고조선 관련 기록,⁷⁾ 《사기》·《한서》 등에서 중국 입장으로 정리된 한·조선의 전쟁 기록⁸⁾ 등은 고조선의 역사적 위치를 드러내는 자료임에 틀림없다. 고조선의 특산물, 교역과 이로 인한 마찰, 전쟁 등은 고조선이 중국의 외교 대상 중에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6)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단군묘·단군릉 전승에 대해서는 김성환, 2009, 『朝鮮時代 檀君墓 認識』, 경인문화사; 김성환, 2009, 『日帝強占期 檀君陵修築運動』, 경인문화사 참조.

7) 송호정, 2012, 「先秦文獻에 기록된 古朝鮮 사회와 주민집단」, 『역사와 담론』 61, 호서사학회, 223~250쪽.

8) 김병준, 2008, 「漢이 구성한 고조선 멸망 과정: 『사기』 조선열전의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50, 한국고대사학회, 5~50쪽.

《시경》 韓奕⁹⁾편의 韓이 위만에게 멸망한 조선으로 파악됨으로써 고조선에 대한 이해의 단면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자료들만으로 고조선사를 구성할 수는 없다. 더욱이 고조선 건국신화에 대해서는 이후 13세기 후반 《삼국유사》·《제왕운기》의 출현 이전까지 그 내용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신화의 특성상 그 내용과 의례는 당시부터 반복되고 변화하며 고조선의 고토에서 그 유민들에게 전해졌을 것이다.¹⁰⁾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의 건국사실은 《魏書》라는 자료를 근거로 천명되고 있다. 《삼국유사》에서 이루어진 분주를 견어내면 보다 분명하다. “이천 년 전에 壇君王儉이 阿斯達에 도움을 세우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고 했는데 요임금과 같은 때”¹¹⁾라는 기록이다. 《위서》의 성격에 대한 제반 견해 중에서¹²⁾ 그 소재가 《삼국유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편찬 주체는 魏滿朝鮮과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다.¹³⁾ 최소한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건국사실은 완결성을 갖추어 자료에 서술되고 있었다. 하지만 남아 있는 자료에서는 건국신화의 단편조차 전혀 찾을 수 없다.

- 9) 후한 때인 2세기에 王符는 《潛夫論》에서 《詩經》 韓奕편의 韓侯·韓城을 위만에게 침공을 당한 조선으로 파악했다. 《潛夫論》 권9, 〈志氏姓〉 “昔周宣王時 亦有韓侯 其國地近燕 故詩云 普披韓城 燕師所完 其後韓西亦姓韓 爲衛滿所伐 遷居海中”. 한편 선진 시대의 조선 관련 기록을 민족주의 시각으로 읽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성규, 2003, 「고대 중국인이 본 한민족의 원류」, 『한국사시민강좌』 32, 일조각, 105~160쪽; 심재훈, 2007, 「상쟁하는 고대사 서술과 대안 모색 - 『詩經』 韓奕편 다시 읽기」, 『동방학지』 13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51~300쪽.
- 10) 서영대, 2009, 「한국 고대의 제천의례」, 『한국사시민강좌』 45, 일조각, 1~24쪽; 서영대, 2010, 「고대사회의 종교와 습속」, 『한국사』, 한길사 참조.
- 11)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조선[왕검조선].
- 12) 《삼국유사》 고조선조 소재 《魏書》의 성격에 대해서는 僞書論, 중국의 《魏書》와 관련한 견해, 위만조선의 사서와 관련한 견해 등이 제출되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두 번째 견해에 동의하고 있는데, 특히 박대재는 魏收의 古本 《魏書》로 추정했다. 박대재, 2001, 「《三國遺事》古朝鮮條 인용 《魏書》論」, 『한국사연구』 112, 한국사연구회, 1~31쪽.
- 13) 위만조선의 사서와 관련한 견해는 丁仲煥, 1977, 「三國遺事 紀異篇 古朝鮮條에 引用된 魏書에 對하여」, 『大邱史學』 12·13, 대구사학회; 田中俊明, 1982, 「檀君神話の歴史性をめぐって - 史料批判の再檢討」, 『韓國文化』 4-6 참조.

이후 고조선은 고구려 동명왕이 壇君의 아들임을 단언하고 있는 《삼국유사》〈왕력〉의 기록에서¹⁴⁾ 역사계승 문제와 관련하여 확인된다. 이것은 건국신화의 측면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로 북·동부여의 건국신화를 빼놓을 수 없다. 고조선과 북·동부여 건국신화는¹⁵⁾ 帝釋·上帝·天帝라는 하늘과 직접 연결된 구조를 가진다. 북·동부여가 고조선의 故地에서 토대하였듯이 해모수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환웅을 연상할 수 있다. 또 해모수가 하백녀를 얻은 곳이 태백산이었고, 고구려의 주몽을 잉태한 곳과 관련된 장소는 熊神山(熊心山)·熊心淵이었다. 두 신화가 장소를 공유하고 있다. 북부여 건국신화가 고조선 건국신화의 일정한 영향 아래에 있었고, 이들은 후대에 교섭하면서 전해졌다. 《삼국유사》에서 하백의 딸을 매개로 단군과 부루·주몽이 각기 부자와 형제 관계로 맺어져 있음도¹⁶⁾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제왕운기》에서는 《동명본기》를 인용하여 줄본을 중심으로 주몽과 영역 다툼을 벌였던 비류국왕 송양이 仙人의 후손임을 밝힌 사실에 근거하여 비류국 또한 단군의 후손으로 추측하고 있다.¹⁷⁾ 또 이에 근거하여 송양 세력을 고구려의 소노부와 관련시켜 그 지역에 선주했던 비류국을 단군의 후예로 적극적으로 파악하기도 한다.¹⁸⁾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계승 문제에서 고구려의 주몽 집단을 배제하는 이해다. 그런데 《제왕운기》의 이 기록에서 “이 또한 단군의 후예로 의심된다[此亦疑檀君之後也]”의 ‘亦’은 부가적인 의미로, ‘疑’는 “확신

14) 《삼국유사》 권1, 왕력, 고구려 “第一 東明王 甲申立 理十一八 姓高 名朱蒙 一作 鄒蒙 壇君之子”.

15) 《동국이상국전집》 권3, 고을시, 〈동명왕편〉; 《삼국유사》 권1, 기이2, 〈북부여〉·〈동부여〉·〈고구려〉 참조.

16)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구려 참조.

17)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漢四郡及列國紀〉 참조.

18) 조법중, 2005,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단군 인식 검토 - 한국 고대 동물송배전 통과와 관련성을 중심으로 -」, 『단군학연구』 12, 단군학회, 365~386쪽; 조법중, 2005, 「한국 고대사회의 고조선·단군인식 연구 - 고조선·고구려시기 단군인식의 계승성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3, 한국고대학회, 147~172쪽; 최일례, 2010, 「고구려인의 관념에 보이는 단군신화의 투영 맥락」, 『韓國思想과 文化』, 한국사상문화학회 참조. 이 같은 논의의 단편은 김기흥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김기흥, 2001, 「高句麗 建國神話의 검토」, 『한국사연구』 113, 한국사연구회, 24쪽.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여러 단군의 후예 이외에 송양 세력도 단군의 후예일 것이다”라는 정도로 해석된다.¹⁹⁾ 따라서 단군의 후예를 송양으로만 국한하는 견해는 제한적이다. 범부여계의 건국신화에서 고조선 건국신화의 요소들이 교섭하고 있는 결과와도 배치된다. 고구려 동명왕이 壇君의 아들임을 단언하고 있는 《삼국유사》〈왕력〉의 기록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분명한 것은 하늘과 직접 연결된 고구려 왕실의 신성관념에는 天神의 후손인 단군전승이 긴밀하게 연동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단군전승을 ‘仙人’에 주목하여 송양 세력에만 국한시켜 이해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제석·상제로 대표되는 하늘과 연결된 고조선 건국신화에서 고조선 왕실의 신성관념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이후 부여뿐만 아니라 고구려 왕실의 그것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계승문제에 대한 논의는 범부여계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해모수·해부루의 북부여·동부여 신화는 이런 점에서 유의해야 하며, 그 결과로 고조선→부여→고구려로 이어지는 보다 합리적인 인식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5세기 전·중반에 조영된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서 각저총과 장천1호분 벽

19) 송양 세력이 계루부 왕실의 승인 아래 별도의 종묘와 사직을 운영했던 고구려의 전 왕족인 연노부[소노부]와 관련된다면, 그들과 왕실의 관계를 봉건제와 유사한 이중 구조로 관련지을 수 있으나 단언하기 어렵다. 최근에 宗國(?) 계루부를 중심으로 그 아래의 那部制 운영을 염두에 둔 견해가 제출되기도 했다. 윤상렬, 2014, 「고구려 前期 신성관념의 성립과 정착과정」, 『高句麗渤海研究』 48, 고구려발해학회, 53~56쪽.

20) 고구려 대무신왕의 모계가 多勿國王 松讓의 딸인 松氏(《삼국사기》 권14, 고구려본기2, 대무신왕 참조)임을 근거로 고구려가 혈연적으로도 고조선의 정통성을 계승했음을 추측한 견해가 있다. 윤상렬, 2014, 위의 글, 64~66쪽 참조. 《삼국유사》 왕력편에 고구려 동명왕을 가리켜 ‘壇君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대무신왕이 자신의 위상을 소급한 소산으로 파악한 것이다. 또 대무신왕이 왕자 시절에 부여왕 대소가 보낸 사신에게 고구려 왕실의 先祖가 神靈之孫임을 밝히고 있는 사실(《삼국유사》 권13, 고구려본기1, 유리왕 28년 8월 참조)에 대해서도 그 선조의 성격을 天神의 神性和 관련하여 이해하고, 범위를 遠祖라 부를 수 있는 고조선과 부여의 왕실까지 넣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윤상렬, 2014, 앞의 글 참조). 그렇지만 주몽을 단군의 아들로 설정한 것 자체가 지니는 신성성은 송양 또는 다른 세력의 신성성을 차용하는 것과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함이 자명하다.

화의 일부 모티브는 고조선 건국신화와 관련하여 주목된다.²¹⁾ 각저총에서 자색나무를 등대고 있는 곰과 호랑이의 모습은 《삼국유사》의 고조선 건국신화에서 神壇樹에서 환웅에게 사람이 되고자 비는 곰과 호랑이를 닮아 있다. 장천1호분에서 자색나무 뿌리 아래 굴을 파고 무언가를 쥐고 있는 곰의 모습 또한 동굴에서 금기하고 있는 곰[웅녀]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전체 벽화의 구성에서 이들을 어떤 맥락으로 읽어야할지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삼국유사》에 서술되어 있는 고조선 건국신화의 모티브를 반영하고 있다. 또 장천1호분의 수목송배의 모습은 《제왕운기》에서의 고조선 건국신화와 관련하여 접근할 수 있다. 단군이 檀雄의 손녀와 檀樹神의 아들이라는 신화의 내용에서 그러하다. 특히 화면 중앙에서 수목송배를 중심으로 의례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큰 백마가 고구려의 제천의례인 동맹을 주관하는 국왕을 상징하는 것이라면,²²⁾ 고조선 건국신화는 이후 어떤 형태로든지 의례를 통해 구현되어 고구려 사회에서 동맹제에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고구려에서는 5세기 전·중반까지 고조선 건국신화가 일정하게 유통되고 있었다.

21) 齊藤忠, 1987, 「集安角抵塚壁畫の熊と虎の畫」, 『東アジア葬制の研究』第一書房(김진광 역, 2009, 「집안시 씨름무덤 벽화의 곰과 범 그림」,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1989, 「角抵塚の角抵(相撲)・木・熊・虎とある畫面について」, 『壁畫古墳の系譜』第三章(『日本考古學研究』2), 學生社; 강릉남, 1996, 「단군에 대한 고구려사람들의 이해와 송배」, 『력사과학』1996-2 참조. 또 고구려 건국신화로서 주몽신화가 4~6세기 고구려고분벽화의 주요 소재였음은 김기흥, 앞의 글, 25쪽 참조.

22) 김성환, 2013,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고조선 인식의 검토」, 『한국고대사탐구』1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59~97쪽. 고구려 동맹에서의 의례는 다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그 성격은 '엄숙형'과 '축제형'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영대, 2003, 「高句麗의 國家祭祀 - 東盟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120, 한국사연구회, 1~32쪽; 조우연, 2011, 「고구려 祭天儀禮의 전개」, 『高句麗渤海研究』41, 고구려발해학회, 37~71쪽; 이준성, 2013, 「고구려 國中大會 東盟의 구성과 축제성」, 『역사와 현실』87, 한국역사연구회, 305~332쪽 등 참조. 특히 장천1호분의 벽화는 왕실의 신성성을 위한 엄숙형과 어우러짐을 위한 난장적 행사들을 함께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 장천1호분의 여러 놀이 장면들을 『隋書』에서 확인되는 聚戲(『隋書』권81, 東夷傳, 高麗 참조)와 관련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이준성, 위의 글, 326~327쪽.

고구려 국왕은 동맹제의에서 천신과 함께 國城의 동쪽에 있던 大穴에 모시던 隧神은 물론, 靈星神·日神·可汗神·箕子神 등의 제의를 주관했다.²³⁾ 제천 의례를 통해 하늘에서 출발하는 건국신화의 신성성을 확인하고 고구려의 신앙 체계에서 기능했던 일신·가한신²⁴⁾·기자신 등을 아울렀다. 적극적이지 못하지만, 고조선에서 고구려로의 역사계승인식이 은연중에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억측은 고구려 시조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기록을 정점으로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적인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고조선의 고토에서 그 유민들에게 전해졌던 건국신화는 첫 단계에서 부여 건국신화와 교섭했을 것이고, 이후 부여 건국신화는 고구려 건국신화와 교섭하며 착종된 형태로 고구려에 전승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고구려 건국신화에 고조선의 건국신화가 변전된 형태로나마 차용되었음을 뜻한다. 하지만 고조선 건국신화는 부여와 고구려 건국신화에 용해되면서 고조선에 대한 역사성과 의미를 점차 상실해 갔다. 따라서 고구려에서는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상징 요소 등을 중심으로 막연하게 고조선의 역사계승성이 존재했지만, 건국신화는 고구려의 건국신화에 침식되어 후대로 내려올수록 변개와 탈락·보입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삼국사기》에서 고구려의 평양에 대한 선인왕검의 기억은²⁵⁾ 그것이 고구려 당대의 기록이든, 고려 중기의 것이든 관계없이 그간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고조선 건국신화를 전하는 자료의 출처는 《고기》와 《본기》로 특정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서 그 내용은 건국시조의 출생담과 영웅담을 근간으로 하는 다른 나라의 건국신화와 달리 단군의 先系에 맞추어져 있다. 삼국의 건국신화들과 비교할 때, 그 선계가 하늘과 직접 연결된

23) 《구당서》 권199, 열전 제149, 상, 동이, 고려 “其俗多淫祀 事靈星神·日神·可汗神·箕子神 國城東有大穴 名神隧 皆以十月 王自祭之”.

24) 고구려의 동맹에서 제사를 지냈던 可汗神과 단군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한영우, 1983, 「高麗와 朝鮮前期의 箕子認識」, 『朝鮮前期社會思想研究』, 지식산업사 참조.

25)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동천왕 21년 참조.

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시조의 역할에서 고조선의 단군은 삼국의 시조들보다 지극히 간략하다. 고조선 멸망 이후 건국시조를 중심으로 하던 고조선 건국신화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그것은 고조선 건국신화가 고구려 건국신화에 용해되어 가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풍부했던 건국의 신성담은 주몽과 비교되면서 삭제 또는 변개되었을 것이고, 일부는 주몽에게 덧씌워졌을 것이다.

《고기》의 고조선 건국신화는 단군의 출생, 건국과 천도, 어국, 최후, 수명을 포함함으로써 내용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그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본기》 역시 마찬가지이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시조의 출생부터 고조선 멸망까지의 내용은 다른 건국시조의 출생배경과 비교하여 소략하다. 전승 과정에서 전자의 내용이 많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완결된 사서 형태로 고조선 역사를 전하는 자료가 이들 자료의 저술 당시에는 전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이미 고구려 당시에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되는 고조선 건국신화의 모티브들과 이후 고구려 건국신화 등을 비롯하여 고구려 관련 전승에 용해되어 나타나는 단편적인 기록들은 이런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고조선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희미해졌지만, 건국신화의 단편이 여러 곳에 산견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26) 《고기》와 《본기》의 저술 시기 및 성격 등에 대해서는 여러 성과가 제출되었지만, 그 시기의 상한은 고려 전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李康來, 1996,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참조.

Ⅲ. 도참을 통해 전해진 고조선 건국신화

고려시대에 고구려의 문화전통이 그 고토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었음²⁷⁾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동명왕은 삼국의 시조 중에서 초기부터 유일하게 고려의 국가제사에 포함되어 있었다.²⁸⁾ 고려의 고구려 역사계승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구려 문화는 고조선·부여의 그것과 교섭과 착종을 거듭하며 형성되었다. 그런 가운데 고조선 문화는 고구려 문화에 용해되어 역사성을 상실하면서도 그 잔상을 이어갔다.

고조선은 고려 전중기까지 고려에 앞선 역사체제에서 분명하게 인식되지 못했다. 삼국시대에 각국의 역사편찬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고조선이 삼국의 역사계승인식과 적극 연결되지 못했음도 물론이다. 단지 고구려를 중심으로 그 단편의 내용과 장소들이 기억되었다. 그리고 도참과 관련하여 그 전승양상들이 확인될 뿐이다.²⁹⁾ 고려 태조는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평양(서경)을

27) 노명호, 2012, 『고려태조 왕건의 동상-황제제도·고구려 문화 전통의 형상화』, 지식산업사 참조.

28) 김창현, 2005, 「고려시대 평양의 동명승배와 민간신앙」, 『역사학보』 188, 역사학보, 103~135쪽; 채미하, 2009, 「고려시대 東明에 대한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4, 동북아역사재단, 143~176쪽. 후삼국 통일로 초기부터 표방되었던 一統三韓 의식과 달리 삼국의 왕릉과 사당에 대한 관심은 현종 8년(1017)에 비로소 나타난다. 《고려사》 권4, 현종 8년 12월 참조.

29) 9세기 후반 일본에 수입되어 있던 제반 서적의 상황을 알려주는 《日本國現在書目録》(《本朝現在書目録》)라는 자료가 있다. 이 자료는 일본 平安 중기의 학자인 藤原佐世(828~898)가 奉勅하여 편찬한 것으로, 여기에서 《高麗國記》(4권)라는 서명이 확인된다(《續群書類從》 권884, 《本朝現在書目録》, 土地家 참조). 그런데 《고려국기》는 《산해경》, 《括地志》, 《西域記》 등과 함께 土地家로 분류되어 있다. 자세한 추론이 어렵지만, 고구려 말에 유통되었던 《고구려비기》의 존재를 염두에 둘 때, 이 자료는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의 인문과 지리, 도참적인 내용 등을 중심으로 唐에서 저술되어 9세기 중후반에 일본에 수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日本國現在書目録》의 소개에 대해서는 孫猛, 2006, 「淺談《日本國現在書目録》」 (tangsong.blog.hexun.com.tw/1993873_d.html) 참조. 이 자료는 기호철 선생님이 제공해 주셨다. 감사드립니다.

“水德이 調順하여 고려 지맥의 근본이 되는 곳으로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라고 인식하여 천도를 추진했다.³⁰⁾ 定宗도 태조를 계승하여 도참에 따라 서경으로 천도하려 했다.³¹⁾ 태조와 정종의 서경에 대한 관심의 배경 중에 하나가 도참에 있었다는 사실은 고구려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오던 고조선과 단군에 대한 전승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특히 고려 전기에 단군전승이 도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고종 21년(1234)에 남경이 고조선의 도읍 명칭으로 짐작되는 阿思達에 비정되고 있는 것³²⁾과 달리, 숙종 1년(1096)에 《道說記》와 《神誌秘詞》를 근거로 三京制의 운용과 남경 창설을 건의했던 金謂磾의 언설과 예종 때 道說說로 같은 건의를 했던 殷元中에게서는³³⁾ 이 같은 이해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평양에서 평양신³⁴⁾으로의 숭배, 묘청 팔성당에서 호국백두악태백선인·구려평양선인³⁵⁾ 등 옛 고조선과 고구려 영역에서의 지역 신격으로,³⁶⁾ 더 나아가 도참과 연계되어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통해 전하는 《고기》·《본기》·《단군기》·《단군본기》 등의

30) 《고려사》 권2, 태조 15년 5월 갑신 및 26년 4월 혼요 참조.

31) 《고려사》 권2, 정종 4년 3월 병진 참조.

32) 《고려사》 권23, 고종 21년 7월 갑자 참조.

33) 《고려사》 권122, 열전35, 方技, 〈金謂磾〉 참조.

34) 平壤神은 西京神·平壤君으로도 불렸다. 西京神의 사례는 《고려사》 권4, 현종 원년 11월 신묘, 平壤神은 《고려사》 권53, 지7, 오행1, 명종 17년 11월 경신, 平壤君은 《고려사》 권30, 충렬왕 19년 10월 무신 참조.

35) 《고려사》 권127, 열전40, 반역1, 묘청 참조.

36) 구려평양선인을 비롯하여 평양신의 신격을 단군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필자의 견해(김성환, 1999, 「高麗時代 平壤의 檀君傳承」, 『문화사학』 10, 한국문화사학회, 123~142쪽)와 달리 구려평양선인은 동명왕으로, 평양신은 군사적으로 서경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성황신으로 파악하여 구체적으로는 태조 때의 공신인 김락으로 이해하는 견해(김창현, 위의 글, 129~131쪽)도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고려 왕실의 운수관과 관련한 문제로 종합적인 검토는 후고를 기약한다. 다만 고려의 지맥이 水母木幹이라는 도선의 선언은(《고려사》, 서문, 〈고려세계〉 참조) 이후 고려사회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의 하나로 작용했고,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한 고려의 도참적인 운수관이 水德에서 木德으로의 지향을 시도하는 가운데 고려를 부정하는 역모와 연결되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고려는 말기까지 水德을 표방한 한 왕조였고, 木德으로의 지향은 여성혁명의 논리였다.

자료 역시 그 같은 자료 중에 일부였거나, 그 영향을 받은 자료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기》·《본기》의 저술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어렵지만, 그 시기를 고려 전기 이전으로 소급하기 어렵다. 특히 《삼국유사》의 〈고조선〉과 〈북부여〉에 인용되고 있는 《고기》가 같은 성격의 자료라고 할 때, 〈북부여〉에서 천제인 해모수가 내려온 곳인 흘승골성의 위치를 요나라 醫州로 비정하고 있음³⁷⁾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고기》의 성립연대가 최소한 12세기 초반 이전이었음을 뜻하며, 아울러 또 다른 단군 관련 자료인 《단군기》³⁸⁾의 성립이 《고기》 이전 또는 같은 시기라는 사실을 동반한다.

문제는 《고기》와 《본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고조선 건국신화에 있다. 이들은 고조선의 고토에서 고구려를 거쳐 고려까지 전해지며 각각의 왕조와 지역에서 제반 요소와 연동하며 변화했겠지만, 두 자료의 신화는 내용과 구조부터 완전히 다르다. 물론 《고기》도 神壇樹가 중요한 제재이지만, 내용에서 《고기》가 수조신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면 《본기》는 수목승배가 중심이다. 구조에서 《고기》가 부계 중심의 3대 구조인 반면, 《본기》는 비부계의 5대 구조다. 그런데 《본기》는 고려시대의 양측적 친속 관념³⁹⁾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왕실의 〈고려세계〉와 다르지 않다.⁴⁰⁾ 이것은 희미해진 고조선의 역사성 속에서도 신화의 내용은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버전과 달리 다양하게 전개되었고, 전승이 지속되면서도 다른 요소들과 교섭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교섭은 고려시대에도 계속되었다.

37) 《삼국유사》 권1, 기이1, 〈북부여〉 참조.

38)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魏書》에 의지하여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확인되는 《단군기》·《단군본기》의 출현을 고려 이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광수, 1988, 「高麗朝의 高句麗繼承意識과 古朝鮮認識」, 『역사교육』 43, 역사교육연구회, 99~100쪽.

39) 노명호, 1987, 「高麗社會의 兩側的 親屬組織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40) 《고려사》 권1, 고려세계; 김성환, 2006, 「고려시대 단군관의 역사적 정립」, 『백산학보』 75, 백산학회 참조.

《본기》의 건국신화는 정치적인 목적과 명분에 몇 차례 이용되었다. 12세기에 들어와 인종 때 이자겸의 난과 명종 때 이의민의 난은 ‘十八子之讖’에 기대어 자신들이 왕이 될 것이란 참설에 근거하고 있었다.⁴¹⁾ 이 난에는 다른 참설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⁴²⁾ 그 핵심은 ‘十八子’, 즉 ‘木子’→‘李’씨가 왕이 된다는 것에 있었다. 고려의 운수관을 水德에서 木德으로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다. 《본기》에서 檀樹神의 아들로 설정되고 있는 단군[木子]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신화가 도참과 착종하면서 반역의 명분으로 이용되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⁴³⁾ 고려 전중기에 《본기》의 신화가 반역의 명분으로 등장하다 보니 이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고려 조정의 입장에서 《본기》의 신화는 자연 금기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다른 한쪽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언 또는 도참의 기능을 강화해 갔을 것이다. ‘십팔자지참’이 고려 말에 ‘木子得國讖’으로 변형되어⁴⁴⁾ 신왕조의 건국에 이용되고 있음은 그 사례다.

《고기》의 건국신화는 그 전승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뚜렷하지 않다. 도참과의 관계도 그렇다. 그렇다고 《고기》가 도참과 무관한 자료라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별도로 검토할 문제이지만, 《본기》를 대체하며 《고기》의 고조선 건국신화가 전면 등장한 배경에는 강화로 천도한 이후 몽고와의 관계에서 국왕 친행을 요구하는 유례가 없던 강압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

41) 《고려사》 권127, 열전40, 반역1, 이자겸; 《고려사》 권128, 열전41, 반역2, 이의민 참조.

42) 대표적인 것이 고려 왕실의 신성관념인 용손은 12대가 지나면 기운을 다한다는 ‘龍孫十二盡說’, 고려의 도읍인 개경의 지기가 다해 이를 다지기 위한 연기비보의 ‘開京地氣衰旺說’ 등이다.

43) 필자는 앞서 고조선의 도읍이었던 아사달이 고종 21년(1231)에 ‘개경지기쇠왕설’과 연계되면서 남경으로 비정되어 도참에서 변혁의 길지로 주목되고 있는 사실을(《고려사》 권23, 고종 21년 7월 갑자 참조) 고려의 운수관과 관련하여 설명한 바 있다(김성환, 2000, 「高麗 前·中期의 檀君認識」, 『백산학보』 57, 백산학회). 그런데 이 문제는 단지 도참에 근거한 운수관뿐만 아니라 고려 왕실의 삼경제 운용에 대한 제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44) 《고려사》 권137, 열전50, 우왕 14년; 《고려사》 권54, 지8, 오행2, 금, 우왕 14년 참조.

로 보인다. 원종 5년(1264) 마리산 참성에서의 국왕 親醮가 그것인데, 도참에 능했던 白勝賢의 참설에 기대어 설행되었다.⁴⁵⁾ 이때 제사장으로서 국왕의 모습은 강조되었고, 이것은 《고기》의 ‘壇君’과 직접 연결되었다고 추측된다. 그리고 《고기》의 건국신화를 《삼국유사》에 서술하여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천명한 一然 또한 이때 江都에 있으면서 그 내용을 견문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⁴⁶⁾

고려 전중기에는 현재보다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고조선 관련 전승이 있었다. 고려시대에 고조선 건국신화의 내용을 전하는 자료로 현재 확인이 가능한 것은 대략 3종이다. 앞서 살펴본 《고기》와 《본기》가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승휴가 《제왕운기》의 원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석제 환인→□→檀君으로 이어지는 부계 중심의 3대 구조다.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어 조심스럽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고기》와 같고, 내용은 《본기》에 닿아 있다고 보인다.⁴⁷⁾ 그렇지만 그 자료들의 대부분은 고조선의 역사성을 상실하고 대체로 평양·구월산 등에서 신격으로 기능했고, 도참과 결탁하여 급격한 사회적 변혁을 요구하는 기제로 이용되었다. 이것이 고조선의 건국신화가 전승될 수 있는 하나의

45) 《고려사》 권26, 원종 5년 6월 경술; 《고려사》 권126, 열전36, 백승현 참조. 마리산 참성 초례는 이후 매년 봄가을로 국왕을 대신하는 향사의 섭사로 진행되었다. 김철웅, 2008, 「조선전기의 塹城醮禮」, 『도교문화연구』 28, 한국도교문화학회, 267~294쪽; 김철웅, 2012, 「강화도 참성(塹城) 초례문(醮禮文)의 분석」, 『동아시아古代學』 28, 동아시아고대학회; 김성환, 2012, 「강화도 단군전승의 성격」, 『역사민속학』 39, 한국역사민속학회, 7~40쪽; 김성환, 2013, 「1358년(공민왕 7) 李穡의 摩尼山 紀行과 塹城壇 醮禮」, 『역사민속학』 42, 한국역사민속학회, 7~35쪽 참조.

46) 이에 대해서는 별고 「고려 원종의 塹城壇 親醮와 壇君」에서 상세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47) 이승휴가 《제왕운기》의 본문에서 신고 있는 부계 중심 3대 구조의 신화는 단군 출생을 모티브로 하는 건국신화의 분류에서 《본기》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구월산 三聖祠를 중심으로 전해지던 전승내용이 檀因(桓因)天王→檀雄(桓雄)天王→檀君天王的 계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6월 14일(을미); 《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6월 28일(기축); 《성종실록》 권15, 성종 3년 2월 6일(계유) 참조. 그 내용은 《고기》나 《본기》와 차이가 있었을 것이지만, 알 수 없다.

요건이었지만, 역사적 사실과는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⁴⁸⁾ 고려 전중기는 고조선 건국신화의 원형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 전승의 주류는 《고기》보다 오히려 《본기》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Ⅳ. 고조선 건국신화의 재발견과 인식의 재정립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지니는 의의는 고려 역사가 고조선에서 출발한다는 역사인식을 토대로 고조선 이후 고려까지의 역대 왕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했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두 자료의 고조선 인식론은 출발부터 차이가 있었다. 《삼국유사》는 고조선과 魏滿朝鮮의 2조선 체계의 인식론에서, 《제왕운기》는 전조선과 후조선, 위만조선의 3조선 체계의 인식론에서 출발한다.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의 개국과 기자의 동래가 고조선이란 하나의 틀에서 이해되었던 반면에, 《제왕운기》에서는 분리되어 이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은 그 시조였던 왕검을 관칭하여 왕검조선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단편이나마 고조선[古朝鮮, 故朝鮮]의 용례는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다. 먼저 《사기》와 《한서》에서 고조선을 ‘조선’으로 기록하였고, 이는 구체적으로 위만조선을 의미했다.⁴⁹⁾ 그런 고조선은 한이 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故地에 설치했던 군현 중에 하나인 낙랑군과 관련하여 《후한서》에서 비로소 故朝鮮國으로

48) 조선 건국 이후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인 세조 이후 《고조선비사》 등 고조선 관련 자료가 급서로 지목되어 회수의 명이 내려진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세조실록》 권7, 세조 3년 5월 26일(무자); 《예종실록》 권7, 예종 1년 9월 18일(무술); 《성종실록》 권1, 성종 즉위년 12월 9일(무오) 참조.

49) 《사기》 권115, 〈조선열전〉 및 《한서》 권95, 西南夷兩粵朝鮮傳 제65, 〈朝鮮〉 참조.

기록된다.⁵⁰⁾ 이것은 앞선 두 자료의 조선에 대한 서술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리고 6세기 말 이후 자료에서 그 도읍이었던 평양성이 王險城과 관련되어 이해되었다.⁵¹⁾ 이 시기 고조선은 古朝鮮으로도 기록되었다.⁵²⁾ 그런데 이들 자료에서의 고조선 역시 《사기》·《한서》에서 기록되었던 조선, 즉 위만조선을 가리킨다. 고조선 멸망과 관련한 당대의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사기》·《한서》에서의 조선이 이후 자료들에서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故’ 또는 ‘古’를 반영하여 고조선으로 인식되었음을 뜻한다. 이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고조선 인식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⁵³⁾ 다른 자료에서 조선은 기자의 동래와 관련하여 서술되었다. 523년에 제작된 魏의 〈王基墓誌銘〉이 대표적이다. 여기에서 그의 출자는 주 무왕으로부터 조선에 봉해진 기자에게서 비롯되었다고⁵⁴⁾ 서술되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대내외에서 이미 조선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그 개념은 지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역사문화적인 측면 또한 내포되어 있었다. 당은 고구려 멸망 후 보장왕과 그 손자 寶元을 朝鮮王·朝鮮郡王으로 봉했고,⁵⁵⁾ 8세기 초 高慈와 泉男山의 묘지명에서 동명이나 주몽의 후손인 그

50) 《후한서》 권1하, 光武帝紀 제1하, “建武六年(30)初 樂浪人王調據郡不服 樂浪郡故朝鮮國也 在遼東”; 《한서》 권28하, 지리지 제8하, “樂浪郡 武帝元封三年開 莽曰樂鮮 屬幽州 應劭曰 故朝鮮國也 師古曰 樂音洛 浪音狼”.

51) 《자치통감》 권178, 隋紀2, 高祖文皇帝, 開皇18년(598) 6월 병인 및 《통전》 권185, 변방1, 동이 상 참조.

52) 《사기》 권6, 진시황본기 제6, 26년 “…… 地東至海暨朝鮮【正義】暨 其記反 朝音潮 鮮音仙 海謂渤海南至揚·蘇·台等州之東海也 暨及也 東北朝鮮國 括地志云 高驪治平壤城 本漢樂浪郡王險城 卽古朝鮮也”; 《사기》 권25, 律書 제3, “…… 歷至孝文卽位 將軍陳武等議曰 南越·朝鮮【正義】潮仙二音 高驪平壤城 本漢樂浪郡王險城 卽古朝鮮地 時朝鮮王滿據之也”.

53)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신라 “按兩漢志 樂浪郡距洛陽東北五千里 注曰屬幽州 故朝鮮國也”; 《삼국유사》 권 제1, 기이 제1, 〈樂浪國〉 “前漢時 始置樂浪郡 應邵曰 故朝鮮國也”.

54) 《魏故處士王君墓誌銘》 “君諱基 字洪業 樂浪遼城人也 …… 其先出自有殷 周武王剋商 封箕子於朝鮮 子孫因而氏焉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北朝—』, 北京圖書館金石組編, 法仁文化社, 誌 147).

55) 《구당서》 권199, 동이열전 제149, 고구려;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들의 출신지는 ‘조선’ 또는 ‘요동의 조선’으로 기록되었다.⁵⁶⁾ 반면에 우리 자료에서 조선은 9세기 말부터 ‘我邦’을 지칭하는 용례로 확인된다. 신라 진성여왕 4년(890)에 건립된 충주의 <月光寺圓朗禪師大寶禪光塔碑>에서 사용된 조선의 용례,⁵⁷⁾ 896년 왕건의 아버지인 세조가 궁예에게 신왕조의 지향이 “조선·속신·변한의 영역을 아우르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음은⁵⁸⁾ 이를 의미한다.⁵⁹⁾ 조선은 삼한과 비교하여 폭넓은 범위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我邦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조선과 고구려의 역사계승성이 희미하게 작용하고 있었다.⁶⁰⁾

고려 이전 중국과 삼국은 그 관계에서 기자와 위만의 이미지 대비를 통해 대외정책의 큰 틀을 운영하였다. 특히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사대와 정벌이라는 조선에 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기자와 위만에 대비시켰다.⁶¹⁾ 그런 가운

참조.

- 56) <大周故□□將軍行左豹韜衛郎將贈左玉鈐衛將軍高公墓誌銘并序>(『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唐—』, 北京圖書館金石組編, 法仁文化社, 誌 6154) 및 <泉男産墓誌銘>(국사편찬위원회, 1995, 『韓國古代金石文資料集(Ⅰ)』—高句麗·百濟·新羅—, 428~436쪽).
- 57) <月光寺圓朗禪師大寶禪光塔碑> “…… 其詞曰 □□□□□沙 達摩兮傳心中華 散滿兮山盈谷溢 周流兮地角天涯 圓通兮無形無相 任用兮非實非花 強字兮玄珠法印 強名兮迦葉盧遮 朝鮮兮東接扶桑 昔賢兮稱茲福□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83~493쪽).
- 58) 《고려사》 권1, 태조 총서 참조.
- 59) 비록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세조[龍建]의 이런 언급에 대해 조선을 시원으로 하는 한민족의 역사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고려는 초기부터 조선을 시원으로 하는 역사인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金光洙, 1986, 『高麗建國期 一國家意識의 理念的 基礎』, 『高麗史의 諸問題』, 삼영사 참조.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조선의 범주는 단군을 시조로 하는 《삼국유사》 수준의 고조선과 일정한 거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60) 《삼국사기》에서는 신라 6부의 조상을 조선의 유민으로 서술하고 있다.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혁거세거서간 1년 참조. 《삼국유사》에서는 《通典》에 근거하여 조선 遺民들이 70여국으로 나뉘어 마한·변한·진한을 이루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삼국유사》 권1, 기이1, <七十二國> 참조.
- 61) 龍朔 연간(661~663)에 당이 고구려를 침구했을 때 중군했던 張素智의 墓誌銘(697)에서 조선은 삼한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당의 고구려 정벌을 한의 [위만]조선 정벌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려고 한듯하다. <□周故上柱國張府君墓誌銘并序>

데 이후 위만의 이미지는 탈락되어 가고, 기자의 이미지는 확대되었다. 고려 인종 원년(1123) 송나라 외교사절의 한 사람이었던 서공의 《고려도경》과 인종 4년(1126)에 중국에서 제작된 〈華夷圖〉에서는 고려 역사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고 있다.

고려의 선조는 주나라 무왕이 조선에 봉한 기자 胥餘[箕는 封地, 胥餘는 기자의 이름이다로, 성은 주이다. 周·秦을 지나 한 고조 12년에 이르러 연나라 사람 위만이 망명할 때 무리를 모아 椎結하고 와서 오랑캐를 복속시켜 차차 조선 땅을 차지하고 왕 노릇을 했다. 子姓이 나라를 차지한 지 8백여 년 만에 衛氏의 나라가 되었고, 위씨가 나라를 차지한 지 80여 년이었다(《신화봉사고려도경》 권1, 건국, 始封).

遼海의 동쪽지역은 기자가 조선에 봉해진 것으로 인해 한나라 때는 낙랑 등의 4군이 설치되었다. 고려는 요동의 동쪽으로 천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東晉 이후 평양에 도읍하며 대대로 중국의 봉작을 받고 正朔을 승습했다(〈華夷圖〉(齊 阜昌 7년),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遼·附西遼·附齊)』, 北京圖書館金石組編, 各 1022-1).

이들 자료는 기자를 중심으로 고려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에 불과하다. 이런 인식은 고려 역시 마찬가지였다. 외교적 수사라는 관점이 깔려 있지만, 金富佶(1071~1132)은 고려가 “예전부터 漢庭에 내속되어 있어 조선의 옛 일을 잊지 말기를 희망한다”⁶²⁾고 했고, 묘청 일파가 인종의 서경 행차 때 龍堰宮에서 개최한 잔치의 치어에서도 기자의 유훈을 강조⁶³⁾하고 있다. 道 鄭沆(1080~1136)은 고려가 “대대로 기자가 봉해진 곳을 守土하고 있

“君諱素智 …… 龍朔季中屬三韓作梗 憑凌鯤海之隅 九種孤恩旅狃狼河之外 君乃負霜戈 而報國直下朝鮮帶月羽以從軍 先權玄免 遂以謙自牧 不論大樹之功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唐-』, 北京圖書館金石組編, 法仁文化社, 誌 1662).

62) 《동문선》 권39, 表箋, 〈聘問〉(金富佶) 참조.

63) 《동문선》 권104, 致語, 〈西京龍堰宮大宴致語〉(金富佶) 참조.

다”⁶⁴)고 했고, 김부식(1075~1151)은 고려가 “예부터 기자의 수봉한 곳으로, 위로는 신라 때부터 大漢에 신속하여 본국에 이르렀다”⁶⁵)고 인식하였다. 〈華夷圖〉에서 소중화를 언급하고 있는 이규보(1168~1241)의 이해도⁶⁶)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한·당 이래 중국의 여러 국가와 삼국·고려의 관계에서 기자의 동래와 조선후로 봉해졌다는 이해는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었고, 이것은 중국과 고려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고려의 속악 중에 하나인 〈西京〉에서 고조선이 기자의 封地였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⁶⁷)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1095년 숙종이 즉위하면서 문종의 아들인 朝鮮國公 燾과 扶餘公 燾, 辰韓候 愉, 樂浪伯 瑛 등을 포상하는 조치에서⁶⁸) 조선에서 비롯하여 부여, 진한 등으로 연결되는 역사인식의 단편을 읽을 수 있다. 인종 2년(1124) 이자겸과 그 부인은 ‘朝鮮國公’과 ‘조선국대부인’에 책봉되었다.⁶⁹) 그렇지만 이를 단군에서 비롯하는 고조선과⁷⁰) 선불리 관련지을 수 없다.

그런데 고려 전기에 이미 서북한 지역에서 단군이 지역의 신격으로 좌정하고 있었음도 확인된다. 구월산 三聖堂의 부속시설이었던 祈雨龍壇에서는 이미 목종 9년(1006) 이전에 비를 빌기 위한 국가제도가 〈祈雨龍壇儀注〉라는 규

64) 《동문선》 권31, 表箋, 〈賀年起居表〉(鄭沆) 참조.

65) 《동문선》 권34, 表箋, 〈謝許謁大明殿御容表〉(金富軾) 참조.

66) 《동국이상국집》 권17, 고을시, 「題華夷圖長短句」 “萬國森羅數幅牋 三韓隈若一微塊 觀者莫小之 我眼謂差大 今古才賢袞袞生 較之中夏毋多愧 有人曰國無則非胡戎雖大猶如芥 君不見華人 謂我小中華 此語真堪採”.

67) 《고려사》 권71, 지25, 樂2, 속악, 〈西京〉 “古朝鮮卽箕子所封之地 其民習於禮讓 知尊君親上之義 作此歌 言仁恩充暢 以及草木 雖折敗之柳 亦有生意也”.

68) 《고려사》 권11, 숙종 즉위년 10월 경진 참조.

69) 《고려사》 권15, 인종 2년 7월 갑신 및 권127, 열전40, 이자겸 참조.

70) 이자겸과 그 부인의 봉호가 조선국이었다는 점에서 고조선과의 관련성, 특히 이자겸 조상들의 고향이 구월산이 위치한 信州이고, 부인 최씨(최사추의 딸) 역시 고죽국으로 비정되는 해주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자를 단군조선, 후자를 기자 또는 단군조선과 관련하여 추측하기도 한다. 김창현, 2007, 「고려중기 예종·인종의 통치와 관료집단의 성격」, 『한국인물사연구』 8, 한국인물사연구회, 118~119쪽, 주 31) 참조.

정에 따라 운영되었고,⁷¹⁾ 서경신·평양신이라는 평양의 신격으로 현종 원년(1010) 이전부터 자리하고 있었음은 이미 서술한 바와 같다. 이때 단군은 기자 이전의 역사적인 존재로, 기자 이전의 조선이 어느 정도로 기억되고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단군기》·《단군본기》·《고기》 등의 자료를 통해 그 일단을 읽을 수 있을 뿐이다. 특히 《고기》·《단군본기》가 그 신화를 포함한 건국부터 멸망까지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고구려 동명왕의 이야기처럼 민간에서 일정 부분 전해져 오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고조선 멸망 이후 13세기 중엽까지 역사성의 대부분이 탈락된 상태에서 전해지던 고조선과 단군에 대한 기억은 급변하는 고려의 대내외 상황 속에서 주목되었고 회복되기에 이르렀다. 국내의 정치 상황은 장기적인 몽고와의 전쟁과 강화로의 천도, 무인집정으로 이름뿐인 왕권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속되는 흉년과 전염병의 창궐 등으로 전국 각처에서 민란이 발생했고, 고려 이전인 삼국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움직임도 각 지역에서 나타났다.⁷²⁾ 더욱이 삼국 부흥의 움직임은 태조 이래 ‘一統三韓의 역사적 명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제국으로 자리한 원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도록 강요받았다. 그것은 다원적 천하관을 지닌 황제국 고려의⁷³⁾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원종 5년(1264)에 선행된 마리산 초례의 명분이었던 ‘三韓變爲震旦’은⁷⁴⁾ 이 같은 국내외의 상황을 일소할 수 있는 기제였다.⁷⁵⁾ 물론 여

71) 《성종실록》 권15, 성종 3년 2월 계유 참조. 이에 대한 주목은 강만길에 의해 이루어졌다. 姜萬吉, 1969, 「李朝時代の 檀君認識」, 『李弘植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참조.

72) 민현구, 1989, 「고려중기 삼국부흥운동의 역사적 의미」, 『한국사시민강좌』 5, 일조각, 82~108쪽; 이정신, 2000, 「12·13세기의 삼국부흥운동」, 『한신인문학연구』 1, 한신대 인문학연구소, 63~89쪽 참조.

73) 盧明鎬, 1997, 「東明王篇과 李奎報의 多元의 天下觀」, 『진단학보』 83, 진단학회; 盧明鎬, 1999, 「高麗時代의 多元의 天下觀과 海東天子」, 『한국사연구』 105, 한국사연구회, 3~40쪽 참조.

74) 《고려사》 권26, 원종 5년 6월 경술; 《고려사》 권123, 열전36, 폐행, 〈백승현〉 참조.

75) 이에 원종은 봉은사에 모셔져 있던 태조 御眞을 찾아 그 대응책을 먼저 고하였다. 《고려사》 권26, 원종 5년 6월 을사 참조.

기에는 대내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양, 기복의 목적 때문에 도참의 적극적인 연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 움직임은 삼한에 머물러 있던 고려의 역사인식을 고조선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명종 23년(1193) 《舊三國史》에서의 〈동명왕본기〉가 이규보에게 더 이상 괴력난신으로 ‘鬼’나 ‘幻’이 아니라 ‘聖’이며 ‘神’이었듯이⁷⁶⁾ 그 인식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로 확대되었고, 고려는 이미 고조선 때부터 중국과 別乾坤이었음⁷⁷⁾ 천명되었다. 고려 조정은 원의 세계제국 질서 속에서 사직을 존속시키기 위해 부마국 체제의 종속관계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확대된 역사인식을 통해 고려사회의 결속력을 공고히 하고 자국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며 이를 정리할 수 있었다.

고구려 건국신화보다 풍부한 神異 사실로 민간에 전해지던 내용들은 더 이상 괴력난신으로 이해되지 않았다.⁷⁸⁾ 《삼국유사》의 기이편 서문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삼국의 시조가 신이한 데서 나온 것이 더 이상 괴력난신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은⁷⁹⁾ 단적인 증거다. 동명왕 전승과 함께 민간에서 《고기》·《단군본기》 등을 통해 고구려 이전의 전승으로 전해오던 다양한 내용의 단군전승은 이제 역사적 사실로 수용되었고,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고려 역사의 출발로써 정립되었다. 일연과 이승휴가 위만조선 이전의 역사적 존재로 조선을 주목하여 고조선[전조선·후조선]을 설정하고 이를 일정한 체계에서 인식하려고 했던 것은 이 같은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두 자료의 찬자인 일연과 이승휴의 도참에 대한 입장이다. 도참과 교섭하며 전해졌던 《본기》 전승이 이후 고조선 건국신화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

76) 《동국이상국전집》 권3, 고을시, 〈東明王篇并序〉 참조.

77)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참조.

78) 반고가 개벽한 무인년부터 금나라 貞祐 7년(1219, 고종 6)까지 49,600여 년의 역사를 읊었다고 하는 吳世文의 《歷代歌》 역시 이런 분위기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유사》 권제3, 탐상제4, 〈迦葉佛宴坐石〉 참조.

79)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敍 참조.

다. 그렇지만 이들의 도참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일연의 경우에는 예종 때 十員殿 왼쪽의 小殿에 모셔진 부처 어금니 사리가 중국에서 고려로 오게 된 연유를 송 휘종의 불교 숭봉에 대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국민들의 도참 유포에서 찾고 있고,⁸⁰⁾ 수나라 양제가 환생했다는 연개소문과 관련한 기록에서 고구려의 관직명인 蘇文을 설명하면서 도참 관련 자료인 《神誌秘詞》를 언급하고 있다.⁸¹⁾ 이승휴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경계를 위해 지은 〈村居自戒文〉에서 국가의 안위, 조정의 득실과 함께 도참의 雜言을 입에 올리지 말 것을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⁸²⁾ 고작이다.

그런데 이승휴가 경계한 것은 도참 자체였기 보다는 이에 대한 논의 과정과 실행에 따르는 사회 혼란이었다. 그는 〈自戒文〉에서 역대 고려왕실을 중심으로 나라의 쇠운·중흥을 명분으로 지속된 연기비보책이 도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폐단을 지적했다. 그는 고려의 관인으로서 도참과 관련한 태조 이래의 각종 연기비보책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만연을 방관할 수도 없었다.⁸³⁾ 이것은 일연에게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고려 태조의 출생지인 광명사는⁸⁴⁾ 일연의 활동에서도 중요한 곳이었다. 그는 충렬왕 8년(1282)에 내전에서 국왕을 만난 후 광명사에 머물렀고,⁸⁵⁾ 이곳에서 국왕의 질환 퇴치를 위한 법회를 설행한 후 국존에 올랐

80) 《삼국유사》 권3, 제4 탑상, 〈前後所將舍利〉 참조.

81) 《삼국유사》 권3, 제3 흥법, 〈寶藏奉老普德移庵〉 참조.

82) 《동안거사집》, 잡지, 〈村居自戒文〉 참조.

83) 이승휴 역시 고려왕실의 출발을 용손에서 찾았고(《동안거사집》 행록4, 〈是月二十有八日 是皇帝聖節日也 ……〉), 《제왕운기》에서 〈고려세계〉를 상세하게 읊었다. 이것은 그가 용손과 관련한 고려왕실의 신성인식의 효용성을 긍정하였고, 龍孫十二盡說과 연계된 각종 풍수도참도 이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송악, 특히 왕건의 출생지[廣明寺]를 지리산천왕인 성모가 도선을 시켜 명당임을 알려주었다고 서술한 것에서 도참의 기능에 대한 이승휴의 이해를 짐작할 수 있다(《제왕운기》, 〈본조군왕세계연대〉 참조).

84) 광명사는 “고려 태조의 古基이자 도선의 지장을 심은 곳”이었다. 《속동문선》 권21, 錄, 〈遊松都錄〉(蔡壽, 1449~1515) 참조.

85) 《고려사》 권29, 충렬왕 8년 10월 임인 및 12월 을미 참조.

다.⁸⁶⁾ 즉 일연 역시 고려사회에서 도참의 기능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었다.

일연과 이승휴는 도참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고 있었고, 후자를 경계하였다. 도참과 관계를 유지하며 전승되어 온 고조선 건국신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고려 이전 역사의 실체를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의 역사인식체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단웅천왕의 손녀가 낳은 단군이 건국한 전조선의 역사를 고려 역사의 시원으로 설정한 《제왕운기》의 〈전조선기〉와 고조선의 전승지역을 고려사회에서 선가와 관련된 곳이거나 도참의 술사에게 길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으로 비정한 《삼국유사》의 〈고조선〉은 이런 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한편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중국 요임금의 그것과 비교하고 御國·享國의 햇수, 도읍의 변천, 사후 등을 서술하고 있는 것은 단군의 고조선 통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요건들이다. 또 단군과 부루·주몽의 혈연관계 설정은 후대 국가와의 역사계승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후자에서는 《제왕운기》가 《삼국유사》보다 진전된 인식을 보여준다는 지적은 일찍부터 있었다.⁸⁷⁾ 《제왕운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고조선 건국부터 신라를 통합한 태조 18년(935)까지의 역년을 3288년으로 산출하여⁸⁸⁾ 고려가 고조선 건국부터 후대의 여러 왕조를 계승·통합한 국가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또 단군부터 공민왕 12년(1363)까지의 역년을 3600년으로 파악한 백문보⁸⁹⁾ 통해 볼 수 있듯이 고조선과 단군은 기자 이전의 역사적 존재로서 분명하게 인식되었다. 이런 점에서 평양지역에 국한된 것이지만, 충숙왕 12년(1325)에 제작된

86) 《고려사》 권29, 충렬왕 9년 정월 갑술 및 3월 경오 참조. 광명사는 숙종 때 승려 光器·주부 孫彌·진사 李震光 등이 음양서를 조작하다 발각된 곳이기도 하다. 《고려사》 권11, 숙종 6년 3월 경진 참조.

87) 신라[尸羅]·고구려[高禮]·남북옥저·동북부여·穢貊을 모두 단군의 후손으로 파악하고 있음에서 그렇다.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前朝鮮紀〉 참조. 이승휴는 삼한·부여를 서술하면서 이들 국가의 世系가 모두 단군에서 이어졌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88)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新羅紀〉 참조.

89) 《고려사》 권120, 열전25, 백문보 참조.

〈趙延壽墓誌銘〉에서 삼한에 앞선 역사적 존재로서 仙人王儉이 천 여 년을 넘게 장수하고 그 遺民이 당대까지 이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음은 거듭 주목되어야 한다.⁹⁰⁾

이 같은 분위기에서 소극적이거나 고조선 건국시조로서 단군의 최후에 대한 이해도 재검토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었다. 아사달산신이라는 단군의 최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괴력난신으로 치부되었던 신이한 사실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존재의 일반적인 최후와는 사뭇 달랐다. 현재적인 관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아사달산신이라는 최후만으로 고조선 사회의 역사성을 밝혀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건국신화에서 시조의 출생부터 최후까지의 여러 내용들은 신성함을 증명하기 위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단군의 최후인 아사달산신 역시 마찬가지다.

그 가운데 부루와 주몽을 단군의 아들로 언급하고,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을 단군의 아들로 단언한 것은 고조선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아사달산신으로의 최후는 아무리 건국신화의 신성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후계에 대한 전승과 부정함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역적인 사례이지만 구월산 三聖堂에서 天王으로 모셔졌던 檀因·檀雄·단군의 신격 중에 단군만 ‘父王’으로 호칭되었던 사실은⁹¹⁾ 이미 고려 후기 이전에 삼성당에서의 전승이 단군에 대한 역사적 이해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 역사의 출발인 고조선 시조로서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용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달산신은 삼국 시조의 최후인 승하 또는 薨, 그리고 능묘 조성과 분명 다른 전개였다.⁹²⁾

90) 〈趙延壽墓誌銘〉(金龍善 編, 1993,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참조.

91) 《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6월 기축, 李先齊 상소 참조. 이 상소는 조선 전기의 상황을 반영하지만, 삼성당의 제반 내용은 고려 후기까지 소급할 수 있다.

92) 고려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면서 箕子神을 국가제사로 정비하고 箕子墓를 탐색한 것은(《고려사절요》 권6, 숙종 7년 10월 참조) 고구려의 신앙체계에 용해되어 전해지던 기자 인식이 보다 진전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과의 관

고조선의 도움으로 알려진 평양 부근의 檀君墓 전승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이것은 단군이 역사적 실존인물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형성될 수 없는 유적이다.⁹³⁾ 단군묘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그 전거는 諺傳이었다.⁹⁴⁾ 언전이란 그만큼 자료적 신뢰가 적다는 의미이지만, 전승의 범위와 지속성을 담보하기도 한다. 이보다 앞서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단군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앞 시기에서의 단군묘 전승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⁹⁵⁾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의 이 기록은 세조 2년(1456) 《팔도지리지》의 편찬을 위한 선행 작업인 《평안도지리지》에 따른 것이었다. 그렇다면 강동현에서의 단군묘 존재는 전승의 범위와 관계없이 이미 고려시대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오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계를 고려한 측면이 함께 작용하고 있지만, 서경에서의 고구려 관련 전승과 유적 정비의 과정에서 기자에 대한 인식 또한 정비되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자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단군과 관련한 전승 또한 점차 확인되고 이해되었을 것이다. 고려시대 기자 숭배와 인식에 대해서는 한영우, 1982, 「高麗~朝鮮前期의 箕子認識」, 『한국문화』 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56쪽; 이강한, 2010, 「1325년 箕子祠 祭祀 再開의 배경 및 의미」, 『한국문화』 5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26쪽; 최봉준, 2013, 「李穀의 箕子 중심의 국사관과 고려·원 典章調和論」, 『한국중세사연구』 36, 한국중세사학회, 305~337쪽 참조. 한편 箕子墓에 대한 전승이 숙종 7년(1102) 이전부터 古記類의 관계기록에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 견해도 있다. 박광용, 1980, 「箕子朝鮮에 대한 認識의 변천」, 『한국사론』 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참조.

93) 김성환, 2009, 『朝鮮時代 檀君墓 認識』, 경인문화사, 12쪽. 역시 승천해서 내려오지 않은 고구려의 동명왕을 남겨진 玉鞭으로 龍山에 장사했다는 《구삼국사》의 기록(《동국이상국집》 권3, <동명왕편> 및 《제왕운기》 권하 참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동명왕의 용산 장례에 대한 전승의 형성은 고구려 왕실이 천손의식을 공식화한 이후, 특히 장수왕의 평양 천도 이후일 것으로 추측한 견해도 있다. 이원배, 2009, 「고구려 시조명 ‘東明’의 성립과정」, 『한국사연구』 146, 한국사연구회, 13~20쪽.

9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5, 강동현, 고적 참조.

95) 《세종실록지리지》에서 강동현의 고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皇帝墓의 기록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그것과 비교하면, 전자에서는 황제묘와 단군묘에 대한 정보를 착중하여 황제묘에 함께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성환, 2009, 「세조의 평양 巡幸과 檀君墓」, 『한국사학사학보』 19, 한국사학사학회(김성환, 2009, 위의 책 재수록) 참조.

단군묘의 등장은 고려 후기에 고려 역사의 출발로서 재정립된 고조선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확장된 결과였다. 그렇다고 이 유적이 《삼국유사》·《제왕운기》의 출현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단군·해모수·해부루·주몽 신화의 교섭, 그리고 그 결과라고 생각되는 혈연을 강조하는 의제적 부자관계의 설정 등과 관계된 것이었다. 안향이 충선왕의 원나라 친행을 부루의 도산 조화에 비유하고 있음과⁹⁶⁾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승휴가 요동에서 부여 부마대왕묘의 존재를 언급한 것은 13세기 말~14세기 초에 고조선에 대한 여러 전승들이 역사적 사실로 치환되고 있다는 증거다. 고려 왕조의 기자 숭배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와 함께 단군묘 전승 또한, 고려 왕조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고려 전중기에 이미 도참 등과 관련한 일부 계층과 민간에서 형성·확대되고 있었을 것이다.⁹⁷⁾ 그리고 고려 후기 고조선이 재인식되는 과정과 함께 전승의 폭을 넓혀갔을 것이다.

V. 고조선의 고토인 遼東에 대한 지평의 확장

고조선의 영역으로서 요동은 중국 측 자료에서 극히 단편들이 확인된다. 그렇지만 이 조차도 고조선에 대한 역사성을 상실해가면서 망각되었고, 대중국 관계의 부침은 그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삼국사기》에서 선인왕검에 대한 기록이 고려시대의 서경을 지칭하는 평양과 관련하여 서술되고 있거나,⁹⁸⁾

96) 《회헌실기》 권1, 시, 〈侍從忠宣王如元感喟〉 참조.

97) 김성환, 2008, 「단군전승과 檀君墓 - 고려시대 단군묘 전승의 가능성 모색」, 『역사민속학』 28, 한국역사민속학, 7~37쪽 참조.

98) 한편 성종 9년(990)에 국왕은 서경을 순시한다는 교서를 내리면서 서경을 遼城으로 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려사》 권3, 성종 9년 9월 기묘 참조). 이때의 遼城은 고조선, 고구려의 도읍으로써 요동의 평양에 대한 잔상으로 추측된다.

《삼국유사》에서 단군의 출생지부터 도읍지·산신지 등이 서북한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음은 그런 측면에서 위축된 고조선 역사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는 《제왕운기》 또한 벗어날 수 없다. 이 두 자료가 다원적 천하관을 지니고 황제국 체제를 운영하던 고려 전중기와 달리 원의 부마국 체제에 편입된 충렬왕·충선왕 때 편찬되었다는 사실은 요동에 기초하는 고조선의 영역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⁹⁹⁾

12세기 전반에 서긍은 《고려도경》에서 고려의 영역에 대해 “남쪽은 遼海로 막히고 서쪽은 遼水와 맞닿았으며, 북쪽은 옛 거란 땅과 연속되고 동쪽은 금나라와 맞닿았다”고 그 대략을 서술했다. 예전에는 요와 경계를 하다가 요의 침공으로 압록강에 來遠城을 쌓아 요새로 삼았다고 하여 영역이 축소되었음도 밝히고 있다.¹⁰⁰⁾ 이미 고려의 북방 영역이 상당 부분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 요동을 둘러싼 거란과 고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구려 역사와 영역의 계승 문제였다. 성종 12년(993)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와 소손녕의 담판은 유명한 사례이지만,¹⁰¹⁾ 이후에도 이 문제는 양국의 외교에서 중심 사안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국의 역사 인식은 요동이 고구려의 영역이었음을 뛰어넘지 못했다.¹⁰²⁾ 역사계승인식의 문제였다.

이승휴는 원종 14년과 15년(1273~1274) 2차례에 걸쳐 원나라 사행을 하였다. 이때 그는 사행 과정에서 遼河의 강변에 전하고 있던 扶餘의 駙馬大王墓

99) 그렇다고 이들 자료가 <동명왕편>에서 이어지는 다원적 천하관을 전면 폐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100) 《고려도경》 권3, 성읍, 封境 참조. 그는 “압록강 서쪽에 또한 白浪·黃岩 두 강이 있고 頗利城에서 2리쯤 가다가 합류하여 남쪽으로 흐르는데, 이것이 遼水”라는 서술로 미루어 압록강을 요수로 파악하고 있다(위와 같음). 또 고려 역사의 시원을 기자 800여년, 위만 80여년으로 서술하였다. 《고려도경》 권1, 건국, 始封 참조.

101) 고려의 북방 영역과 역사계승인식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는 추명엽, 2005, 「고려전기 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한국역사연구회, 14~46쪽; 허인욱, 2008, 「高麗의 歷史繼承에 대한 契丹의 認識變化와 領土問題」, 『한국중세사연구』 24, 한국중세사학회, 105~135쪽; 박재우, 2013, 「고려전기 영토관념과 邊境」, 『한국중세사연구』 35, 한국중세사학회, 173~213쪽 등 참조.

102) 박재우는 이 역시도 관념적인 것이었다고 하여 ‘영토관념’이란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박재우, 위의 글 참조.

를 지나며 賈耽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큰 평원의 남쪽 압록은 부여의 옛 땅이니 북부여는 요하의 강변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 개국은 대개 後朝鮮부터 지금에 이르렀을 것이다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漢四郡及列國紀〉).

그가 본 자료는 가탐의 《고금군국지》였을 것으로 보이며, 부여 부마대왕묘를 북부여 왕실과 관련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승휴가 인식하고 있던 고조선[그의 이해에서는 전조선]의 영역관과 역사계승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북부여의 영역을 요하 일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부여는 《제왕운기》의 〈전조선기〉에 인용되어 있는 《본기》에서 단군의 후손으로 이승휴가 거론하고 있는 나라에서 빠져 있다.¹⁰³⁾ 하지만 그는 다른 곳에서 《단군본기》를 인용하여 단군이 비서갑 하백녀와 혼인하여 동부여의 부루를 낳았다고 서술하였다. 그는 역사계승인식의 문제에서 부여를 고조선[전조선]의 갈래로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父子’의 의제적 혈연관계로 설정하고 있음은 부여가 고조선과의 관계에서 후대의 다른 국가와 달리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음을 뜻한다. 이 같은 기준은 부루와 주몽을 단군의 아들로 서술하고 있는 《삼국유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¹⁰⁴⁾

부여와 후조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위의 언급은 다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승휴는 단군이 102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은나라 무정 8년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164년 후에 기자의 후조

103) 물론 〈漢四郡及列國紀〉에서 열국의 범위에 부여는 大國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 위와 같음.

104) 필자는 다른 연구에서 단군·해모수·부루·주몽 사이의 혈연적 관계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면, 고조선 이후의 국가들은 하나의 계통 아래에서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고조선-북부여-동부여로 연결되는 부루 계열, 고조선-북부여-고구려-백제로 이어지는 동명 계열, 고조선-삼한, 신라 계열, 또는 단군-해부루-우태-비류로 이어지는 비류 계열 등이 그것이다. 김성환, 2008, 앞의 글 참조.

선이 전조선을 이었음을 서술했다.¹⁰⁵⁾ 《삼국유사》와 달리 164년의 공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부여의 개국은 대개 후조선부터였을 것”이라는 서술에서는 전조선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부여로 계승되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승휴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단군의 전조선-부여-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계승인식을¹⁰⁶⁾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원나라의 부마국 체제에서 고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존의식은 고려의 사직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건국에 대한 ‘鬼’나 ‘幻’의 신이한 사실들이 ‘聖’과 ‘神’으로 재탄생하고, 중국과 天文도 다른 요하 동쪽의 별천지였던 고려가 조선을 이어 소중화로 알려졌다는 사실이¹⁰⁷⁾ 세삼 강조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는 고조선의 옛 영역인 요하 일대를 실제 지배하고 있던 원나라의 영향 아래 왕위계승권 자체도 그들에게 좌지우지되던 때였다.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고려왕들의 원나라 親行이 강요되었다. 특히 원과의 관계에서 성리학을 수용한 신진사대부들은 원 제국 질서에 편입되어 있다는 세계인식과 同文意識, 원 황실의 부마국으로서 왕권조차 위협받던 위기감에 대응하기 위한 자존의식과 독자적인 東人認識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도 원나라 세조는 고려에 영역·인구 등을 제외한 문화 등의 방면에서 ‘不改土風’을 보장하였다.¹⁰⁸⁾ 고려는 이를 중요한 논거로 확대해석하

105)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전조선기〉 참조.

106) 이승휴는 주몽이 盖斯水를 건너 마한의 王儉城에서 개국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고구려기〉 참조. 고구려의 마한계승인식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조법중, 1998, 「高句麗의 馬韓繼承 認識論에 대한 檢討」, 『한국사연구』 102, 한국사연구회, 47~74쪽; 김병곤, 2008, 「崔致遠의 三韓觀 再考」, 『한국사연구』 141, 한국사연구회, 51~82쪽 참조.

107)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地理紀〉 참조.

108) 원이 속국의 本俗을 인정해주는 통치방식인 ‘不改土風’에 대해서는 김호동, 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부 참조. 또 이를 둘러싼 원의 고려의 통치방식에 대해서는 森平雅彦, 2008, 「事元期高麗における在來王朝體制の保全問題」, 『東北アジア研究』 別冊1號, 島根縣立大學 東北アジア地域研究セクター 참조.

며 이후 지속적으로 강요된 원의 요구에 대응하였다.¹⁰⁹⁾ 원이 고려에 인정하는 ‘토평’과 고려에서 해석하는 ‘토평’의 범위는 자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고,¹¹⁰⁾ 고려왕조는 이를 고려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수호하는 근거로 적극 활용하였다.¹¹¹⁾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고려 역사의 상한으로 고조선이 재정립되면서도 그 영역이 대체로 서북한 지역을 경계로 한정되고 있는 것에는 이런 관계가 작용하고 있었다.

이색은 “중국 요임금 무진년에 나라를 세운 朝鮮氏가 대대로 중국과 교통했지만 신하를 칭하지 않았고, 주 무왕의 봉함을 받은 殷太師 역시 신하를 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¹¹²⁾ 사실 이 시기의 箕子不臣說은 원 세조의 유훈인 불개토평에 기댄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인식의 확대에 따라 고려 역사의 시원으로서 고조선은 주목될 수 있었지만, 그 영역이었던 요동은 고려의 옛 영역으로 적극 인식되기 어려웠다. 그것은 원나라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압록강 서변에 위치해 있던 婆娑府를 경계로 고려와 원이 지니고 있던 영역의 변화 모습을 담고 있는 이색의 이해에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색은 공민왕 3~4년(1354~1355)에 파사부를 원과 고려의 경계로, ‘華’와 ‘夷’의 경계로 이해하고 있었다. 1354년 여름 원의 전시에서 합격한 후 귀국길에 지었던 시 〈파사부〉에서 그는 당요의 무진년에 시작하여 臣僕하지 않던 고려의 역사를 읊으면서도 “鴨江東岸是吾土”라 하여 압록강을 경계로 양국의 영토가 구분된다는 축소된 영역인식을 보여주고 있다.¹¹³⁾ 이것은 이듬해 3월 서장관으로 원에 가면서 파사부에서 다시 지은 시에서 “長吟豈獨華夷辨”

109) 이익주, 1995, 「高麗·元 관계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참조.

110) 이때 고려에서 이해하고 있던 토평의 범위는 고려 전기에 崔承老가 올린 시무 28조 중에서 중화제도로의 변화를 건의하면서 개혁 대상이 되었던 토평과 일치한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일정 부분은 상통한다. 《고려사》 권93, 열전6, 〈최승로〉 참조.

111) 최종석, 2013, 「조선초기 국가 위상과 警教自由」, 『한국사연구』 162, 한국사연구회, 3~44쪽 참조.

112) 《목은문고》 권9, 〈送使符賣選詩序〉 참조.

113) 《목은시고》 권3, 시, 〈婆娑府〉 참조.

라 하여 그곳이 ‘華夷’의 경계지역이었음을 읊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¹¹⁴⁾ 그런데 공민왕의 반원정책이 실행되고 압록강 이서의 8站을 공략하여 파사부 등 3참을 깨뜨려 회복한 후인 1359년 겨울에 지은 시에서는 “近聞賊在婆娑府”라 하여 파사부가 고려의 영역에서 이해되었다.¹¹⁵⁾

더욱이 원이 쇠퇴의 조짐을 확실하게 보이고 그 영향력을 상실해가면서 이런 상황은 반전의 기미를 보이게 된다. 요동 수복을 명분으로 하는 東寧府 정벌이 그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선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고려는 기자를 계승한 나라라고 인식되었고,¹¹⁶⁾ 그 영역인 요동 역시 마찬가지였다.¹¹⁷⁾ 그런데 遼瀋 지역은 고려 말에 고려의 역사적 영역으로 점차 주목되었다. 그 중심에는 “조선의 苗裔를 이었다[祖朝鮮之苗裔]”는¹¹⁸⁾ 조선에서 이어지는 고려의 역사계승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비록 이 사례에서 조선이 기자를 지칭한다고 하더라도 삼한에 머물러 있던 고려 전중기의 역사인식은 후기에 조선으로 확대되어 있었다. 즉 공민왕 19년(1370) 11월의 동녕부 정벌의 목적은 고려의 옛 영역인 遼瀋의 회복에 있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정벌의 당위성을 고유하면서 “요심은 본래 우리나라의 경계[國界]이고 그 백성들은 우리나라의 백성”이라고 밝혀¹¹⁹⁾ 원 간섭기에 위축되어 있던 요동에 대한 인식이 이때 이르

114) 《목은시교》 권3, 시, 〈婆娑府〉 참조.

115) 《목은시교》 권5, 시, 〈聞在賊婆娑府〉 참조.

116) 《고려사》 권7, 문종 9년 7월 정사 “都兵馬使奏 契丹前太后皇帝 詔賜鴨江以東爲我國封境 …… 於是 致書東京留守曰 當國 襲箕子之國 以鴨江爲疆 ……”; 권 21, 신종 2년 5월 신축 “王受金詔於大觀殿 詔曰 胙土尙規 所以就傳於國政 象賢立德 亦惟安享於世封 粵箕子之故區 寔卞韓之舊壤 根本固而所庇者久 枝葉茂而其承者蕃 享茲世及之休 ……”.

117) 《고려사》 권9, 문종 26년 6월 갑술 “金梯還自宋 帝附勅五道 …… 其五日 …… 箕子啓封 肇於遼左 ……”.

118) 《고려사》 권44, 공민왕 2년 6월 임자. 이와 같은 의미인 “世守朝鮮”(《고려사》 권 42, 공민왕 19년 5월 갑인), “國祖朝鮮”(《고려사》 권135, 열전 48, 신우 11년 9월) 등이 명 황제의 조서에서 확인된다. 또 조선이 이후 78개의 소국으로 나뉘었다는 고려의 인식(《고려사》 권45, 공양왕 원년 12월 계해; 《고려사》 권118, 열전1, 제신, 趙浚 참조)도 마찬가지다.

119) 《고려사》 권114, 열전, 〈池龍壽〉 참조. 요심 지역의 고려 백성에 대한 관심은 충렬왕과 공민왕 때 단편적으로 확인된다. 《고려사절요》 권20, 충렬왕 8년 8월; 《고려

리 咨文과 榜諭을 통해 선언되고 있다.¹²⁰⁾ 그 영역의 역사적 계승성이 고조선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가 요임금과 함께 건국되고 기자를 거치면서 遼河, 즉 遼瀋이 대대로 우리 강역”이었음이 분명하게 표명되었다.¹²¹⁾ 이것은 전통적으로 고조선의 故地에 설치한 한나라의 군현 중에 하나인 玄菟를 염두에 두었던 사실¹²²⁾의 확대임과 동시에 遼瀋이 고구려의 영토라는 사실에서 머무르지 않고 고조선의 영역이며, 고려는 그런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사실에 토대한 것이었다. 이 같은 고려 말의 확대된 영역인식과 아울러 고조선에서 비롯하는 개략적인 고려의 역사는 공민왕 때 개벽 이래 역대 제왕의 흥폐와 강역 離合의 사실을 정리했다는 羅興儒의 〈中原及本國地圖〉에 일정 부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¹²³⁾ 또 나홍유의 〈본국지도〉는 조선 태조 5년(1396) 李詹이 저술한 《동국사략》에서의 고조선 서술과 그 영역의 대략이 그려져 있었을 〈高麗圖〉¹²⁴⁾와도 일정 부분 연결된다.¹²⁵⁾

사》 권31, 충렬왕 23년 2월 기해; 《고려사》 권 32, 충렬왕 28년 8월 을유; 《고려사》 권39, 공민왕 8년 11월 갑진 참조.

120) “요심은 원래 우리나라의 舊界”, “遼陽은 원래 우리나라의 國界”라는 《고려사》의 기록도 마찬가지이다. 《고려사》 권42, 공민왕 19년 12월 정사 참조.

121) 《고려사》 권114, 열전27, 〈池龍壽〉 참조.

122) 고려 전기에 후당·후진·후주·송나라에서는 고려국왕을 책봉하는데 ‘玄菟州都督’을 상설하였고(《고려사》 권2, 태조 16년 3월 등 참조), 고려 역시 玄菟의 封疆을 계승했음을 밝혔다(《고려사》 권4, 현종 즉위년 12월, 병신 참조). 반면에 遼에서는 고려국왕의 책봉에 ‘玄菟州都督’을 제외하고 있으나, 여전히 玄菟는 대대로 고려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고려는 고구려의 주몽과 玄菟를 계승”했음이 언급되기도 하였다(《고려사》 권8, 문종 11년 3월 을유 및 19년 4월 계사 참조). 이것은 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려사》 권33, 충선왕 2년 7월 을미 참조).

123) 《고려사》 권114, 열전27, 羅興儒 참조.

124) 《동문선》 권92, 序, 〈三國圖後序〉 참조.

125) 이에 대해서는 별도 「조선 초기 《동국사략》의 고조선 인식」에서 다루고자 한다.

VI. 맺음말

고조선의 존재는 중국 선진 시대의 자료에서 그 단편들이 확인될 뿐이다. 위만 조선과 관련한 자료로 추측되는 《魏書》를 통해 역사적 사실이 간명하게 정리되었지만, 그 역사상은 구체적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신화를 재연하는 의례의 반복 등을 통해 일정한 신앙체계에서 그 유민들에게 전승되었을 고조선 건국신화는 이후 같은 영역에서 건국된 범부여계, 특히 고구려 건국신화와 교섭하면서 단편적인 내용들이 전해질 수 있었다. 고구려왕이 주관하던 제천의례인 동맹을 그린 것이라고 파악되는 장천1호분의 수목송배 모티브는 고구려의 신앙체계에 고조선의 문화적 습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고조선을 중심으로 한 역사성과 의미들은 점차 상실되었고, 그 내용은 고구려 문화에 침식되어 계속적인 변개와 탈락·보입 등이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단군과 부루·주몽의 의제적 혈연관계, 태백산·웅신산 등 장소의 공유성 등은 그 잔편에 불과하다.

고구려의 고토 일부와 함께 역사계승인식을 가지고 있던 고려에서 고구려의 문화전통은 곳곳에 전해지고 있었고, 고구려 문화전통에는 고조선의 그것이 융해되어 있었다. 단군을 시조로 하는 고조선은 고려 전중기까지 고려에 앞선 역사체계로 분명하게 인식되지 못했지만, 고구려의 옛 영역을 중심으로 그 잔편과 장소들이 기억되고 있었다. 평양과 구월산 등에서 단군은 고구려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신격으로 모셔지고 있었고, 도참과 밀착되어 그 전승을 유지했다. 특히 수목신앙을 내용으로 하는 《본기》의 단군전승은 수덕의 운수관을 가진 왕조였던 고려를 목덕의 왕조로 바꾸기 위한 반란의 명분으로 이용되었다. 여기에서 역사성은 거의 탈락되어 있었지만, 하늘과 연결된 신성한 계보, 건국자의 신성성에 가탁한 예언의 기능 등은 보강되어 고조선 건국신화는 전승될 수 있는 요건을 확보하였다. 그렇지만 그 원형은 역사적 사실과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후한서》의 ‘故朝鮮國’ 용례 이후 ‘故朝鮮’과 ‘古朝鮮’은 중국 및 우리 자료

에서 간헐적으로 등장했다. 중국과 삼국은 그 관계에서 기자와 위만의 이미지 대비를 통해 대외정책의 틀을 운영했다. 그런 가운데 위만의 이미지는 점차 탈락되었고 기자의 이미지는 확대되었다. 이 틀은 《고려도경》과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제작된 〈華夷圖〉에서 확인되듯이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한·당 이래 중국의 여러 국가와 삼국·고려의 관계에서 기자의 동래와 조선후로 봉했다는 이해는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런데 고려가 세계제국인 원나라의 부마국 체제로 편입되면서 고려의 입장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은 보다 강화되어야만 했다. 앞 시기의 다원적 천하관을 바탕으로 지어진 〈동명왕편〉에 흐르는 자주적인 분위기는 새로운 현실인식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였고, 도참에 토대를 둔 ‘三韓變爲震旦’의 변전론은 삼한 이전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저술은 그 결과였다.

두 자료는 고조선의 인식론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고조선에서 출발하는 역사인식을 토대로, 이후 고려까지의 역대 국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神異한 이야기가 더 이상 괴력난신으로 치부되지 않고, ‘聖’과 ‘神’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에는 원 세조가 고려에 밝힌 ‘不改土風’의 유지도 일정한 작용을 하였다. 특히 두 자료의 찬자인 일연과 이승휴가 도참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고 후자를 경계하면서, 도참과 관계를 유지하며 전승된 단군전승에서 고조선 역사의 실체를 발견하고 이를 도참과 분리시키려 했다는 점은 주목되어야 한다. 아사달산신이라는 단군의 최후에 대한 이해도 고조선에 대한 역사 인식이 재정립되면서 새롭게 전환되었다. 건국시조의 최후가 산신이라는 점은 고조선의 역사성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조선의 도읍으로 알려진 평양 부근의 檀君墓 전승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단군묘 역시 재정립된 고조선 인식의 결과였다.

고조선 멸망 이후 고조선에 대한 역사성 상실과 대중국 관계의 부침 속에 그 영역에 대한 인식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삼국유사》에서 그 공간적 범위가 서북한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제왕운기》에서 그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서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런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승휴는 요하 강변에서 전해지던 부여의 부마대왕묘와 그곳에서

참고문헌

자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국이상국전집》, 《동문선》, 《동안거사집》, 《목은문고》, 《목은시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속동문선》, 《신증동국여지승람》, 《오주연문장전산고》, 《제왕운기》, 《청장관전서》, 《회현실기》.

《세종실록》, 《단종실록》,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구당서》, 《사기》, 《선화봉사고려도경》, 《자치통감》, 《潛夫論》, 《통전》, 《後漢書》.

국사편찬위원회, 1995, 『韓國古代金石文資料集(I)』-高句麗·百濟·新羅-.

金龍善 編, 1993,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北京圖書館金石組編,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北朝-』, 法仁文化社.

北京圖書館金石組編,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唐-』, 法仁文化社.

北京圖書館金石組編,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遼·附西遼·附齊), 法仁文化社.

저서

김성환, 2002, 『高麗時代의 檀君傳乘과 認識』, 경인문화사.

김성환, 2009, 『朝鮮時代 檀君墓 認識』, 경인문화사.

김호동, 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부.

노명호, 2012, 『고려태조 왕건의 동상-황제제도·고구려 문화 전통의 형상화』, 지식산업사.

신종원 엮음, 2005,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申采浩, 1948, 『朝鮮上古史』, 종로서원.

윤이흠 외, 1994, 『檀君; 그 理解와 資料』, 서울대학교출판부(1997, 증보).

전대준·최인철, 2010,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논문

강릉남, 1996, 「단군에 대한 고구려사람들의 이해와 숭배」, 『역사과학』 1996-2.

姜萬吉, 1969, 「李朝時代의 檀君認識」, 『李弘植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김광수, 1988, 「高麗朝의 高句麗繼承意識과 古朝鮮認識」, 『역사교육』 43, 역사교육연구회.

- 김기홍, 2001, 「高句麗 建國神話의 검토」, 『한국사연구』 113, 한국사연구회.
- 김두진, 2000, 「단군에 대한 연구의 역사」, 『한국사시민강좌』 27, 일조각.
- 김병곤, 2008, 「崔致遠의 三韓觀 再考」, 『한국사연구』 141, 한국사연구회.
- 김병준, 2008, 「漢이 구성한 고조선 멸망 과정: 『사기』 조선열전의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50, 한국고대사학회.
- 김성환, 2012, 「강화도 단군전승의 성격」, 『역사민속학』 39, 한국역사민속학회.
- 김성환, 2013,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고조선 인식의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1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김창현, 2005, 「고려시대 평양의 동명승배와 민간신앙」, 『역사학보』 188, 역사학보.
- 김창현, 2007, 「고려중기 예종·인종의 통치와 관료집단의 성격」, 『한국인물사연구』 8, 한국인물사연구회.
- 김철웅, 2008, 「조선전기의 塹城醮禮」, 『도교문화연구』 28, 한국도교문화학회.
- 김철웅, 2012, 「강화도 참성(塹城) 초례문(醮禮文)의 분석」, 『동아시아古代學』 28, 동아시아고대학회.
- 盧明鎬, 1997, 「東明王篇과 李奎報의 多元의 天下觀」, 『진단학보』 83, 진단학회.
- 盧明鎬, 1999, 「高麗時代의 多元의 天下觀과 海東天子」, 『한국사연구』 105, 한국사연구회.
- 민현구, 1989, 「고려중기 삼국부흥운동의 역사적 의미」, 『한국사시민강좌』 5, 일조각.
- 박광용, 1980, 「箕子朝鮮에 대한 認識의 변천」, 『한국사론』 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박대재, 2001, 「《三國遺事》古朝鮮條 인용《魏書》論」, 『한국사연구』 112, 한국사연구회.
- 박재우, 2013, 「고려전기 영토관념과 邊境」, 『한국중세사연구』 35, 한국중세사학회.
- 서영대, 2003, 「高句麗의 國家祭祀 - 東盟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20, 한국사연구회.
- 서영대, 2009, 「한국 고대의 제천의례」, 『한국사시민강좌』 45, 일조각.
- 서영대, 2012, 「중국학계의 단군 연구와 그 비판」, 『고조선단군학』 27, 고조선단군학회.
- 송호정, 2012, 「先秦文獻에 기록된 古朝鮮 사회와 주민집단」, 『역사와 담론』 61, 호서사학회.
- 심재훈, 2007, 「상쟁하는 고대사 서술과 대안 모색 - 『詩經』 韓奕편 다시 읽기」, 『동방학지』 13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윤상렬, 2014, 「고구려 前期 신성관념의 성립과 정착과정」, 『高句麗渤海研究』 48, 고구려발해학회.

- 이강한, 2010, 「1325년 箕子祠 祭祀 再開의 배경 및 의미」, 『한국문화』 50,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이기동, 2000, 「북한에서의 단군연구와 그 숭앙운동」, 『한국사시민강좌』 27, 일조각.
- 이성규, 2003, 「고대 중국인이 본 한민족의 원류」, 『한국사시민강좌』 32, 일조각.
- 이익주, 1995, 「高麗·元 관계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정신, 2000, 「12·13세기의 삼국부흥운동」, 『한신인문학연구』 1, 한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이준성, 2013, 「고구려 國中大會 東盟의 구성과 축제성」, 『역사와 현실』 87, 한국역사연구회.
- 이필영, 1996, 「檀君神話認識의 諸問題－學史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9, 한국고대사학회.
- 丁仲煥, 1977, 「三國遺事 紀異篇 古朝鮮條에 引用된 魏書에 對하여」, 『大邱史學』 12·13 합집, 대구사학회.
- 조법중, 2005,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단군 인식 검토－한국 고대 동물숭배전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조선단군학』 12, 고조선단군학회.
- 조법중, 2012, 「단군 연구사 검토 및 역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조우연, 2011, 「고구려 祭天儀禮의 전개」, 『高句麗渤海研究』 41, 고구려발해학회.
- 채미하, 2009, 「고려시대 東明에 대한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4, 동북아역사재단.
- 최종석, 2013, 「조선초기 국가 위상과 聲敎自由」, 『한국사연구』 162, 한국사연구회.
- 추명엽, 2005, 「고려전기 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한국역사연구회.
- 한영우, 1982, 「高麗~朝鮮前期의 箕子認識」, 『한국문화』 3,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허인옥, 2008, 「高麗의 歷史繼承에 대한 契丹의 認識變化와 領土問題」, 『한국중세사연구』 24, 한국중세사학회.
- 今西龍, 1910, 「檀君의 傳說につきて」, 『歴史地理』(朝鮮號), 日本歴史地理學會.
- 今西龍, 1929, 「檀君考」, 『靑丘學叢』 1(1937, 『朝鮮古史の研究』 재수록).
- 那珂通世, 1894, 「朝鮮古史考」, 『史學雜誌』 5-4, 東京大史學會.
- 白鳥庫吉, 1894, 「檀君考」, 『學習院輔仁學會雜誌』 28(1970, 『白鳥庫吉全集』 3 재수록).
- 森平雅彦, 2008, 「事元期高麗における在來王朝體制の保全問題」, 『東北アジア研究』

別冊1號, 島根縣立大學 東北 アジア地域研究センター.

田中俊明, 1982, 「檀君神話の歴史性をめぐって－史料批判の再検討」, 『韓國文化』
4-6.

齊藤忠, 1987, 「集安角抵塚壁畫の熊と虎の畫」, 『東アジア葬制の研究』 第一書房(김
진광 역, 2009, 「집안시 씨름무덤 벽화의 곰과 범 그림」,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孫猛, 2005, 〈淺談‘日本國見在書目錄’〉(tangsong.blog.hexun.com.tw/1993873_
d.html).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 초록]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김성환

단편적으로 중국 선진 시대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고조선 관련 기록을 제외하고 고조선은 멸망 이후 그 존재조차 잊혀갔지만, 고조선 건국신화는 이후 다른 국가의 건국신화와 교섭·착종되며 단편적으로 전해졌다. 그 중심에는 부여계 국가들이 있었고, 고조선 건국신화는 각저총에서의 곰과 호랑이, 제천의례인 東盟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이는 장천1호분에서의 수목송배 모티브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구려에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내용은 고구려의 사회문화적 요소에 침식되어 점점 변개와 탈락 등이 심해졌다.

고구려의 역사계승성을 지니고 있던 고려의 곳곳에서는 고구려의 문화전통이 전해지고 있었고, 거기에는 고조선의 문화전통이 용해되어 있었다. 고조선은 고려 전중기까지 고려에 앞선 역사체제로 분명하게 인식되지 못했다. 단지 그 단편의 내용과 장소들이 옛 고구려 지역을 중심으로 기억되었다. 평양과 구월산에서 단군은 지역의 신격으로 모셔졌다. 그리고 도참사상과 밀착되어 전승이 유지되었다. 고조선의 역사성은 거의 탈락되었지만, 하늘과 연결된 신성한 계보, 건국자의 신성성에 가탁한 예언의 기능 등은 보장되었다.

《후한서》의 ‘故朝鮮國’ 용례 이후 ‘故朝鮮’과 ‘古朝鮮’은 중국 및 고려의 자료에서 간헐적으로 등장한다. 고려 이전에 중국과 삼국은 그 관계에서 기자와 위만의 이미지 대비를 통해 대외정책의 큰 틀을 운영하였다. 그런 가운데 위만의 그것은 탈락되고 기자의 이미지가 확대되었다. 이 틀은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원나라의 부마국 체제로 편입된 이후 고려의 입장에서 자국의 자주성과 독립성은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앞 시기의 다원적 천하관은 당연히 계승되었고, 도참에 토대를 둔 ‘三韓變爲震旦’의 변전론은 삼한 이전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저술을 가능하게 하였다. 여기에는 원 세조가 고려에 밝힌 ‘不改土風’의 유지도 일정한 작용을 하였다. 특히 일연과 이승휴는 도참의 역기능을 경계하면서도 그 관계에서 전승되어 온 고조선 건국신화에서 역사적 실체를 발견하고 이를 도참과 분리시키려 하였다. 아사달산신으로의 좌정이라는 단군의 최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방식도 고조선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재정립되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았다. 고조선의 도움으로 알려진 평양 부근의 檀君墓 전승은 이런 배경에서 형성되었다. 단군묘의 등장은 고려 역사의 출발로서 재정립된 고조선 인식이 확장된 결과였다.

고조선에 대한 역사성 상실과 대중국 관계의 부침 속에 그 영역에 대한 인식 역시 위축되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는 그 공간적 범위가 서북한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영역에 대한 적극적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승휴의 단편에서 확인되듯이 遼瀋 지역에 대한 고조선-부여-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 계승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말 원나라와의 관계에서 ‘華’와 ‘夷’의 경계였던 파사부가 공민왕의 반원정책 이후 고려의 舊界이자 國界로 이해되었던 것은 요심 지역이 고조선 이래의 世守疆域이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었다.

주제어

고조선, 고조선 건국신화, 고구려 전통문화, 《삼국유사》, 《제왕운기》, 遼瀋

[ABSTRACT]

The Transmission of Ancient Joseon's Founding Myth and the Perception of Ancient Joseon

Kim Sunghwan

In contrast to documents dealing with Ancient Joseon as a developed nation, fragmentary though the record may be, Ancient Joseon's destruction seems to have been left out of all written records. Yet, the myth surrounding Ancient Joseon's founding has been fused with that surrounding the rise of subsequent nations and, thus, pieces of its content were able to be transmitted down through the ages. The surviving mythology seems to be centered in the Buyeo period, particularly in the northern and eastern regions of the nation. Also, in the Gakjeochong tomb(which displays a portion of a Goguryeo tomb mural portraying a wrestling match) one can see the images of a bear and a tiger as well as images of the Dongmaeng royal festival, including similar scenes on the first of the Jangcheon tomb murals which also show the images of a bear and forest deities. From this we can gather that the myth was also passed down to Goguryeo. Still, during this process, the central historical fact and meaning within the legends of Ancient Joseon's founding was corroded and gradually lost with the influence of Goguryeo's own myth, the original elements changing and being dropped as it was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Goryeo inherited the historical succession of Goguryeo, and Goguryeo's cultural traditions were spread throughout its ancient territories. Ancient Joseon's cultural traditions, therefore, were fused

with those of Goguryeo. Ancient Joseon could not be clearly perceived within the historical framework of Goryeo's early and middle periods. It could only be recalled in fragments of literary content and in locations centered in Goguryeo. Tangun was enshrined as a regional deity in Pyeongyang and on Guwolsan mountain. The historicity of Ancient Joseon might seem to have been almost entirely eradicated, but the sacred pedigree and connection to heaven of its builders were strengthened through the function of the divinations appropriated for this purpose. Combining the faith surrounding the founding of Ancient Joseon with the science of divination was a necessary factor of the founding's transmission to future generations, but this meant that its integrity could not be preserved and that the legends could only continue to be further separated from historical fact.

Subsequent to the recording of Gojoseon-guk(故朝鮮國) in *Houhanshu*, 'Gojoseon(故朝鮮, 古朝鮮)' makes intermittent appearances in Chinese and Goryeo documents. Before this, Goryeo carried out a foreign policy within the framework of a contrast in the display of the images of Gija and Wiman. As time passed, Wiman's image was omitted and Gija's was expanded, a policy that continued throughout the Goryeo period. Rather than emphasizing Goryeo's sense of independence, however, this policy should be considered as belonging within the context of its status in Yuan China's system of rule by son-in-law("Buma nation" rule). The earlier period of hegemony had been passed down, and on the earlier basis of divination the transformation theory "Samhan will transform into Jindan(三韓變爲震旦)" awakened interest in the history prior to the Samhan period and made possible the compilation of *Samguk yusa* and of *Jewang ungi*. Here, also, an "admonition not to change established Goryeo tradition(不改土風)" by

Kublai Khan and Yuan China had a definite effect. On this point, especially, Ilyeon(一然) and Yi Seung-hyu(李承休), who wrote *Samguk yusa* and *Jewang ungi*, respectively, knew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inherent in divin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as they guarded against the latter while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ends of national founding and the divination stories, they tried to discover the true history behind the myth of the rise of Ancient Joseon that had been passed down by separating it from the divination narrative.

The Asadalsan mountain deity, the latest of the traditional methods to understand Tangun, has undergone a recent transformation even as it has changed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toward Ancient Joseon. It was formed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transmission of the legend of Tangun's grave in the vicinity of Pyeongyang, which was said to be the capital of Ancient Joseon. The appearance of the legend was a result of the expanded historical consciousness of Ancient Joseon within the nation, which had thus recently started to consider Ancient Joseon to be the starting point of Goryeo's history.

Between the loss of the sense of Ancient Joseon's history and the vicissitudes in its relations with China, the nation's consciousness of its sacred territories withered. *Samguk yusa* and *Jewang ungi* limit their descriptions of the sacred locations to the northwestern region and are unable to provide a positive understanding of these territories. Even so, from these works one can confirm the existence of a historical consciousness remembering and connecting Ancient Joseon, Buyeo, and Goguryeo with the Liaochen(遼瀋) region from fragments of Yi Seung-hyu's writings. Still, Kublai Khan's admonition extended only to the traditional and cultural sphere within the context of Goryeo's

relationship with the Yuan dynasty. As far as that relationship between Goryeo and the Yuan dynasty went, after King Gongmin's anti-Yuan policies took effect in the Posuofu(婆娑府) region, which formed the border between the "Hua(華)" and the "Yi(夷)", Goryeo's former ancient borders were immediately re-recognized as its present rightful borders based on the region of Liaochen being recognized since the time of Ancient Joseon as having to be defended by every generation.

Keywords

Ancient Joseon, Ancient Joseon's founding myth, Goguryeo's cultural tradition, *Samguk yusa*, *Jewang ungi*, Liaochen(遼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조선의 정치체제

박대재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부교수



I. 머리말

朝鮮 초기 『朝鮮經國典』과 『高麗史』地理志에서 前朝鮮(檀君)－後朝鮮(箕子)－衛滿朝鮮의 三朝鮮說이 제시된 이래 국내 학계에서는 古朝鮮史의 흐름을 대체로 이와 같이 3단계로 이해하고 있다. 근대 이후 箕子朝鮮의 실체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면서, 그 대신 ‘韓氏朝鮮’,¹⁾ 또는 ‘濊貊朝鮮’²⁾ 등이 대안 용어로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三朝鮮說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와 달리 학계 일각에서는 기자조선의 존재를 아예 부인하고 고조선(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의 2단계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것은 기자조선의 역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三國遺事』에서 古朝鮮(王儉朝鮮)과 衛滿朝鮮으로

※ 투고: 2014년 8월 13일, 심사 완료: 2015년 2월 3일, 게재 확정: 2015년 2월 23일

1) 李丙燾, 1935, 「三韓問題의 新考察」, 『震檀學報』 3;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2) 金貞培, 1973,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高麗大學校 出版部.

구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³⁾ 국내에서 고조선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인 13세기 말의 『삼국유사』에서 ‘古朝鮮’이란 용어를 ‘魏滿朝鮮(衛滿朝鮮)’과 구분해 사용하였다는 점은 일단 의미 있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내용을 보면 그 속에 단군과 함께 기자가 아울러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고조선을 꼭 단군조선으로만 제한해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王儉朝鮮’이라는 注記에 주목하면, 고조선이 왕검조선 즉 단군조선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기자의 東來와 단군의 避隱을 함께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위 ‘기자조선’ 시기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삼국유사』의 ‘고조선’은 단군만이 아니라 단군과 기자의 시대를 아우른 개념이다.⁴⁾

‘위만조선’이라는 말과 대칭되는 ‘왕검조선’이 그 의미에서는 ‘고조선’보다 더욱 선명하고 구체적이다.⁵⁾ 그런데 구체적인 왕검조선 대신 다소 모호한 성격의 고조선을 표제어로 한 것은 아마도 「古記」의 내용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전승 자료인 「고기」에서 단군과 기자를 함께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다소 애매하지만 ‘고조선’이라 제목을 붙이면서도 ‘위만조선’에 대칭되게 ‘왕검조선’이라고 주기한 것이다.

「魏書」와 「고기」의 ‘壇君王儉’이라는 표현에 주목하면 ‘왕검조선’은 단군조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위만조선’이 건국자의 이름을 붙여서 국명으로 한 것처럼 ‘왕검조선’도 왕검이 세운 조선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위만조선과 같이 고유명사인 단군을 붙여 ‘단군조선’이라 하지 않고, 임금을 뜻하는 일반명사인 왕검을 붙여 ‘왕검조선’이라고 한 것이 주목된다.

‘왕검’에 대해서는 일찍이 尊勝·長上의 뜻이 있는 ‘알(암)’과 大人·神聖人

3) 李基白, 1988, 「古朝鮮의 國家 형성」, 『韓國史市民講座』 2, 一潮閣, 2쪽. 一然 자신이 ‘古朝鮮’이란 제목에 주기하여 ‘王儉朝鮮’이라고 함으로써 고조선이 곧 단군조선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이해한다.

4) 金貞培, 2010, 「고조선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68쪽.

5) 이상호, 1963, 「단군고」, 『고조선에 관한 토론 논문집』, 과학원출판사, 176쪽.

의 뜻이 있는 ‘가(갸)’가 결합한 王者의 칭호로 특히 巫君의 稱謂로 추정된 바 있다.⁶⁾ 더 나아가 왕검은 권위와 권력을 표시하는 존칭·존호로, 단군은 祭主(巫君)의 의의가 많은 반면 왕검에는 정치적 君長의 의의가 더 많다고 파악한다.⁷⁾ 한편 왕검은 고조선의 고유 군장 호칭인 ‘검’과 중국식 한자어인 ‘왕’이 결합된 첩어라고 이해되기도 한다. 즉 중국식 왕호가 출현하기 전부터 이미 고조선에서 정치적 대군장을 가리키는 고유어로 ‘검’이 있었는데, 이후 한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자어와 고유어를 병기하여 ‘왕검’이라고 했다는 것이다.⁸⁾ 아무튼 학계는 왕검이 고유명사보다는 정치적 군장을 가리키는 일반명사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왕검조선의 왕검은 일반명사인 반면, 위만조선의 위만은 고유명사라는 점에서 두 용어에 차이가 있다. 『삼국유사』의 찬자가 고조선에 대해 명확하게 ‘단군조선’이라 주기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왕검조선’이라 한 것은 그 속에 단군과 기자가 함께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왕검은 단군과 기자를 아우른 정치적 군장이라는 점에서 포괄적인 ‘왕검조선’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삼국유사』에서는 조선시대 이후의 3조선설과 달리 기자(기자조선)의 시대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해방 이후 국내학계에서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시각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고조선관은 「魏書」의 조선 기록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조선조에서 제일 먼저 인용된 「위서」에는 단군왕검의 朝鮮 개국만 전할 뿐 기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⁹⁾ 그 다음 인용된 「古記」에는 단군의 개국과 移都

6) 崔南善, 1928, 「壇君及其研究」, 『別乾坤』 1928년 5월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편, 1973, 『六堂崔南善全集』 2, 玄岩社, 249쪽.

7) 李丙燾, 1976, 앞의 책, 34쪽.

8) 서영수, 2005, 「고조선의 국가형성 계기와 과정」, 『北方史論叢』 6, 고구려연구재단, 65쪽.

9) 『三國遺事』 卷1 紀異 古朝鮮, “魏書云 乃往二千載有壇君王儉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 與高同時”. 현전하는 『三國志』의 魏書(魏志)와 魏收의 『魏書(北魏書)』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魏書』의 성격에 대해서는 박대재, 2001, 「『三

에 이어 기자의 朝鮮 被封과 단군의 避隱 등이 함께 서술되어 있다. 세 번째 인용된 「唐裴矩傳」에는 기자조선과 漢郡縣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대체로 단군, 기자, 한군현의 시대 순서에 따라 세 문헌을 차례로 인용한 것인데, 기자조선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이 가운데 제일 앞에 인용된 「위서」를 제일 존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의 고조선 용어 속에는 단군과 기자가 함께 용해되어 있다. 기자조선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단군과 함께 왕검조선의 시대로 함께 서술하고 있다. ‘기자조선’의 역사적 실체는 이미 학계에서 충분히 비판되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지만,¹⁰⁾ 그렇다고 하여 고조선이 단군조선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고조선은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사이에 있던 과도기의 조선까지 포함한다. 이 과도기를 ‘기자조선’대신 어떤 다른 용어로 개념화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인데,¹¹⁾ 이 글에서 다루는 고조선의 정치체제는 바로 이 과도기에 있었던 고조선의 국가적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고조선의 정치체제에 대한 논의는 『史記』朝鮮傳에 보이는 위만조선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이루어져 왔다.¹²⁾ 자료가 부족하다보니 고조선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고, 위만조선 단계를 중심으로 王 밑에 大夫, 博士, 裨王, 相, 將軍, 大臣 등이 존재했다고 개설해왔다.¹³⁾

하지만 위만조선 이전의 고조선에도 중앙집권체제는 아니지만 미숙하나마

國遺事』古朝鮮條 인용 魏書論, 『韓國史研究』 112 참조.

10) 箕子東來(箕子朝鮮)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박대재, 2010, 「箕子 관련 商周青銅器銘文과 箕子東來說」, 『先史와 古代』 32 참조.

11) 「기자조선」에 해당하는 위만조선 앞의 조선을 ‘準王朝鮮’이라고 부르는 입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吳江原, 2013, 「청동기~철기시대 요령·서북한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東洋學』 53). 하지만 마지막 왕의 이름을 따서 국명이나 시대구분 용어로 사용한 것은 유례가 드물고, 준왕 재위 시기만을 가리킨다고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한계가 있다.

12) 金光洙, 1994, 「古朝鮮 官名の 系統的 理解」, 『歷史教育』 56; 盧泰敦, 1998, 「衛滿朝鮮의 政治構造－官名 분석을 중심으로－」, 『汕紘史學』 8.

13) 유 엠 부천(이항재·이병두 옮김), 1990, 『고조선－역사·고고학적 개요－』, 소나무, 368~374쪽;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91, 『조선사·부여사·구려사·진국사』 (조선전사 개정판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10~114쪽.

초기국가(early state)의 정치체제가 존재했음을 시사해주는 자료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고조선의 관명으로 문헌에 보이는 卿, 大夫, 博士 등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遼東 鐵嶺(開原) 지역 출토 문자자료인 ‘冗’의 성격을 시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극적으로 다루어 오던 고조선의 정치체제에 대한 논의가 조금이나마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I. 정치발전단계와 왕호

기존에 고조선의 정치발전단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지배자 호칭의 변화를 중심으로 단계지어 이해되었다. 마치 신라에서 居西干, 次次雄, 尼師今, 麻立干, 王으로 왕호가 바뀐 것처럼 고조선에서도 단군왕검, 기자, 왕으로 왕호가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서, 단군왕검은 성읍국가 단계, 기자는 연맹왕국 단계라고 구분하였다.¹⁴⁾

이와 같은 성읍국가-연맹왕국 설에서는 ‘기자’를 중국의 箕子와 구분하여 고대 우리나라 고유의 왕호가 ‘기즈’였다고 보는 해석¹⁵⁾을 주목한다. 그러면서 하나의 성읍국가에 불과했던 초기의 고조선이 후기에 방대한 영토를 지닌 연맹왕국으로 성장한 시기는 중국 전국시대 燕의 전성기였던 기원전 4세기보다 이전의 어느 시기인 것만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고대국어에서 고유 왕호가 과연 ‘기즈’였는지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고,¹⁶⁾ 여기서는 일단 기원전 4세기 이

14) 李基白, 1988, 앞의 글, 17~18쪽.

15) 李基文, 1982, 「百濟語 研究와 관련된 몇 問題」, 『百濟研究』, 知識産業社, 260~265쪽. 李基文은 『日本書紀』에서 백제의 왕을 ‘kisi’로 새긴 사실과 光州板『千字文』에 왕의 새김이 ‘기즈’라 적혀 있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周書』에 백제의 왕호로 보이는 「韃吉支」의 吉支와 kisi/기즈가 같다고 추정한다(李基文, 1998, 『新訂版 國語史概說』, 태학사, 50쪽).

16)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中世 國語 자료인 崔世珍의 『訓蒙字會』(1527년 편찬)에는

전에 성읍국가와 연맹왕국의 두 단계를 설정하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전국시대 燕이 왕을 칭한 기원전 323년 무렵에 고조선 역시 ‘王’을 칭하였는데 이는 연맹왕국 단계의 지배자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늦어도 기원전 4세기 말 이전에 고조선이 성읍국가에서 연맹왕국으로 성장하였다고 보기도 한다.¹⁷⁾ 그런데 여기서 기원전 323년 무렵 고조선의 稱王이 연맹왕국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연맹왕국이 이미 성립되었고 이때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였다는 것인지 서술이 모호하다.

이것은 단군왕검과 중국식 왕호 사이에 무리하게 ‘기즈’ 왕호 단계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오는 혼선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서 보았듯이 『삼국유사』의 왕검은 단군과 기자의 단계를 포괄하는 군장 호칭으로 이해된다.

최근의 성읍국가-연맹왕국 설에서도 지배자 호칭의 변화를 기준으로 고조선의 정치발전을 3단계로 구분해 본다. 제정일치시대의 군장이었던 단군왕검이 다스리던 성읍국가시대의 檀君朝鮮, 韓으로 불리던 대군장이 지배하던 연맹왕국시대의 韓朝鮮, 중국식 왕호를 쓰던 집권적 영역국가시대의 大古朝鮮으로 단계를 구분해 보는 것이다.¹⁸⁾ 최근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先고조선왕국 시기(기원전 9세기 이전), 고조선왕국 전기(기원전 8~6세기), 고조선왕국 중기(기원전 5~4세기), 고조선왕국 후기(기원전 3~2세기)로 발전과정을 구분한다.¹⁹⁾

위 논지에서는 앞선 논자의 ‘기즈’ 단계에 해당하는 왕호로 ‘한’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삼국유사』에 보이는 왕검조선의 ‘왕검’이 임금을 뜻하는데, 특히 왕검의 검은 중국식 왕호가 출현하기 전부터 고조선에서 사용하던 고유 왕호이며 韓, 汗, 干과 같은 용어로 정치적 大君長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님금 왕”으로 뜻을 새기고 있다(박성훈 편저, 2013, 『訓蒙字會 注解』, 태학사, 377쪽). 따라서 光州板 『千字文』의 “기즈 왕”은 방언이거나, 箕子에서 비롯된 漢化된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17) 李基白, 1976, 『韓國史新論』(改訂版), 一潮閣, 27쪽; 李基白·李基東, 1982, 『韓國史講座』 I (古代篇), 一潮閣, 58쪽.

18) 徐榮洙, 1988, 「古朝鮮의 위치와 강역」, 『韓國史市民講座』 2, 一潮閣, 39쪽.

19) 서영수, 2005, 앞의 글, 63~66쪽.

그러면서 『詩經』 韓奕편에 보이는 周 宣王代(기원전 9~8세기) 韓侯의 '韓'도 이와 관련된다고 보고 있다.²⁰⁾

그러나 韓(汗, 干)과 '검'을 고조선의 고유 왕호로 본 추론의 단서가 '王儉'이라는 점에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에 따르면 단군왕검의 조선도 '검조선' 즉 '韓朝鮮'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단군(왕검)조선과 한조선의 왕호가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汗(可汗)이 최고 군장 칭호로 사용된 것은 서기 3~4세기 鮮卑族부터이며 그 전에는 '單于'라는 호칭이 쓰였다²¹⁾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韓'을 기원전 4세기 이전의 토착 군장 호칭으로 보기는 어렵다.

『詩經』 韓奕편에 보이는 韓은 일찍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박되었듯이, 우리 고대의 韓과는 무관한 황하 유역에 위치하고 있던 周의 侯國으로 이해된다.²²⁾ 韓奕편 韓의 위치에 대해서는 後漢 鄭玄 이래 陝西說과 河北說이 복잡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韓城과 인접한 梁山과 汾水의 지명을 통해 볼 때 韓侯는 陝西 韓城 주변에 위치했던 제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²³⁾ 따라서 韓奕의 韓은 지명으로 보아야 하며, 후대 알타이 제어의 토착 군장호인 汗(可汗), 干과 연결시켜 보기는 어렵다.

이상 기즈조선설, 한조선설은 모두 '기즈'와 '한'을 고조선의 고유 왕호로 보면서, 단군조선(왕검조선)과 기원전 4세기 이후 중국식 왕호 사이에 중간 단

20) 서영수, 2005, 앞의 글, 92쪽. 이는 『詩經』 韓奕편의 韓을 알타이계통 언어에서 君長 또는 大君長을 汗(Han) 또는 可汗(Kahan)이라고 한 것이 漢字化된 것이라고 본 尹乃鉉, 1986, 「古朝鮮의 社會性格」, 『韓國古代史新論』, 一志社, 160쪽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21) 羅新, 2009, 「匈奴單于號研究」, 『中古北族名號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7쪽. 문헌상 '可汗'호를 붙인 最早의 君主는 402년 柔然 杜崙(豆代可汗)이다('可汗號之性質', 앞의 책, 3~4쪽).

22) 黃義敦, 1956, 「詩經의 解說」, 『東國史學』 4-1, 94~96쪽; 金貞培, 1968, 「辰國과 韓에 관한 고찰」, 『史叢』 22·23합; 2000,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신서원, 218~222쪽.

23) 박대재, 2013, 「『詩經』의 追와 貊」,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경인문화사, 38~44쪽.

계를 설정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앞서 검토하였듯이 왕검, 기즈, 한은 모두 고유 왕호라는 점에서 단계가 구분되지 않고, 특히 韓은 汗(可汗)과 같은 고유 왕호라고 보기 어렵다. 기원전 4세기 말 중국식 왕호 이전 단계의 군장 호칭을 ‘왕검’이라고 일괄해 보면 좋을 것이다. 즉 고조선에서 왕호의 발전과정은 고유 왕호(왕검) 단계와 중국식 왕호 단계로 구분되는 것이다.

단군은 제의적 성격, 왕검은 정치적 성격의 군장으로 각각 구분해 보는 견해도 있지만,²⁴⁾ 단군과 왕검이 결합되어 ‘단군왕검’으로 칭해진다는 점에서, 檀君(檀君)이나 王儉은 모두 제의적 성격이 강한 巫君으로 이해²⁵⁾하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왕검의 성격과 관련하여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川王조에서 平壤을 ‘仙人王儉之宅’이라고 한 것이나, 고려후기 平壤趙氏 「趙延壽墓誌」에서도 ‘平壤之仙 仙人王儉’이라고 한 점도 주목된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에 단군이 仙人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거니와,²⁶⁾ 나아가 단군왕검과 마찬가지로 선인과 왕검이 결합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仙人이라면 중국 道教의 神仙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新羅 崔致遠의 「鸞郎碑序」에서 보이듯이 花郎과 관련된 독자적인 仙敎의 개념도 전해진다. 단군과 仙人을 통해 보면 그와 결합된 왕검 역시 제의적·종교적 성격의 군장 호칭으로 보인다.

고조선에서 제의적 군장으로부터 정치적 왕호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3세기 중엽 曹魏 魚豢에 의해 편찬된 『魏略』에 보이는 기원전 323년 무렵 朝鮮侯가 燕의 영향을 받아 왕호를 자칭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A. 옛날 箕子의 후예인 朝鮮侯는 周나라가 쇠약해지자 燕나라가 스스로 높여 王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는 것을 보고, 朝鮮侯도

24) 李丙燾, 1976, 앞의 책.

25) 崔南善, 1928, 앞의 글.

26) 서영대, 2009, 「단군 인식의 변천」, 『고조선 연구 100년 - 고조선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학연문화사, 64쪽.

역시 스스로 王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燕나라를 맞아 공격하여 周王室을 높이고자 하였는데, 그 大夫 禮가 諫하므로 중지하였고, 禮를 서쪽으로 보내 燕나라를 설득하게 하니, 燕나라도 멈추고 침공하지 않았다.²⁷⁾

중국의 戰國時代인 기원전 334년 齊와 魏가 會盟하고 왕호를 서로 칭한 역사적 사건 이후, 戰國의 稱王이 확산되면서 기원전 323년에는 燕·韓·中山國 등이 왕호를 칭하기에 이른다.²⁸⁾ 바로 이 무렵 朝鮮도 燕의 영향을 받아 왕호를 칭하였던 것이다.

위 기록에서 箕子의 후예인 朝鮮侯가 尊周의 명분을 내세워 稱王하며 燕을 침공하였다는 것은 중화주의적 서술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원전 1세기 이후 기자조선설이 정착된 이후에 편찬된 중국사서이다보니 당시 조선의 지배자들 기자의 후손이라고 부회한 것이다. 이러한 중화주의적 부회를 배제하고 보면, 燕이 稱王한 기원전 323년(燕易王 10년) 무렵 고조선도 燕과 대등한 정치적 수준에서 稱王하며 대립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원전 323년에 있었던 조선의 稱王은 부족사회가 국가형태를 이루게 된 것을 선포하는 중대한 정치적 변화로 이해된다.²⁹⁾ 즉 고조선이 燕과 대등하게 왕호를 취하며 ‘大夫’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나, 燕과의 전쟁도 불사하는 외교적 강경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고조선의 세력이 戰國 7雄의 하나인 燕에 비견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³⁰⁾ 기원전 4세기 후반에 등장한 고조선의 왕은 기존의 제사장에서 탈피하여 한 단계 성장한 정치적 군장

27) 『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裴松之注 所引, “魏略曰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不攻”.

28) 戰國의 稱王 등 주요 사건의 연대에 대해서는 藤田勝久, 1997, 『史記戰國史料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를 참고하라.

29) 千寬宇, 1975, 「三韓의 成立過程」, 『史學研究』 26; 1989, 千寬宇,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30) 金貞培, 1986,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고려대학교 출판부; 金貞培, 1997, 「고조선의 국가형성」,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93쪽.

으로 이해된다.³¹⁾

당시 고조선이 연을 공격할 만한 군사 준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면, 고조선의 왕은 기원전 4세기 후반에 그 아래에 일정한 규모의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왕을 단군왕검과 같은 제의적 군장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王의 밑에 大夫라는 官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군사조직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의 통치자는 제의적 군장을 지나 국가(state) 단계의 정치적 지배자 즉 왕(king)의 수준에 해당한다.³²⁾

기원전 4세기 후반에 齊·燕 등 戰國 大國의 稱王은 단순한 호칭의 변경이 아니라 각 제후가 국내체제 안정 및 국력신장을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영역국가의 전제군주로서 권위와 권력을 과시하고 나아가 王天下의 열망을 표출한 결과라고 이해된다.³³⁾ 이와 마찬가지로 고조선이 기원전 4세기 말 燕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王號을 칭했던 것도 명실상부한 영역국가의 군주로서 그 권위와 권력을 드러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의 초기 정치체들을 기록한 중국 문헌들은 각 정치체의 지도자에 대해 王, 侯, 君長(渠帥) 등으로 칭호를 구분해 쓰고 있다. 이러한 호칭의 구분이 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발전단계를 추적하는 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³⁴⁾ 기원전 4세기 후반 '朝鮮王'의 등장은 戰國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고조선의 정치적 발전을 시사해주는 객관적인 근거이다.

최근 고조선이 燕의 稱王 이전에 먼저 稱王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³⁵⁾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서기전 4세기 이전부터 고조선이

31) 金炳坤, 2000, 「古朝鮮 王權의 成長과 支配力の 性格 變化」, 『東國史學』 34, 46~48쪽.

32) 박대재, 2005, 「古朝鮮의 '王'과 國家形成」, 『北方史論叢』 7.

33) 李春植, 1986, 『中國 古代史의 展開』, 신서원, 149쪽; 李成九, 1989, 「春秋戰國時代의 國家와 社會」, 『講座 中國史』 I (古代文明과 帝國의 成立), 지식산업사, 134~135쪽.

34) 金貞培, 1997, 「초기국가의 성격」,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32~33쪽.

35) 박영해, 1999, 「고조선 대외관계의 몇 가지 특징」, 『단군과 고조선』, 살림터, 374쪽.

이미 중국의 ‘왕’에 비견되는 칭호를 쓰다가 이 무렵에 중국식 왕호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³⁶⁾ 그러나 현존 사료에 의하는 한 조선의 칭왕은 燕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연동된 변화로 보인다.

조선왕이 등장하는 기원전 4세기 말 이전 고조선의 정치발전단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 일각에선 初期國家로서의 古朝鮮小國 형성(기원전 12세기 말~기원전 9세기), 古朝鮮小國의 성장과 小國聯盟의 형성(기원전 8세기~기원전 5세기), 古朝鮮王國의 성장과 小國併呑의 전개(기원전 5세기 말~기원전 4세기 말) 등 발전단계를 세분하여 소국-소국연맹-왕국(소국병합)의 3단계로 보기도 한다.³⁷⁾

여기서 고조선소국의 형성을 기원전 12세기 말로 본 근거는 이주민의 등장과 비파형동검의 사용 시기라는 점 때문이다. 즉 기원전 12세기를 전후한 무렵 殷末 周初에 중국으로부터 이주민들이 중국의 동북지역으로 이주해 왔고 그들 중 일부는 고조선의 영역이나 그 부근까지 진출하여 고조선의 주민들을 자극하고 압력을 가하게 됨에 따라 청동기(비파형동검)를 제작·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村落(酋長)社會를 벗어나 한 단계 발전한 小國 또는 城邑國家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⁸⁾

비파형동검이 고조선 관련 청동기문화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비파형동검의 등장이 곧 고조선의 국가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조선의 정치발전을 밝히는 데 고고학 자료를 참고할 수 있지만 그보다 역사적인 문헌사료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고조선의 정치발전단계를 小國-小國聯盟-王國 등으로 세분해 보기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할 만한 사료가 단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사료에 나타나는 왕호의 발전과정과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을 종합 비교해 보면, 고구 왕호(왕검)-비파형동검 단계(기원전 4세기 이전)와 중국식 왕

36) 윤상열, 2007, 「고조선의 天下觀에 관한 試論」, 『史學研究』 88, 374~375쪽.

37) 李鍾旭, 1993, 『古朝鮮史研究』, 一潮閣.

38) 李鍾旭, 1993, 앞의 책, 71쪽.

호(왕)–세형동검 단계(기원전 4세기 이후)의 2단계로 고조선의 정치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魏略』에 보이는 朝鮮侯의 존재에 주목하여 고조선 사회가 小國(고인돌사회), 侯國(조선연맹체, 기원전 5~4세기) 단계를 거쳐, 기원전 3세기 이후에 본격적인 고대국가 단계로 성장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³⁹⁾ 이에 따르면 稱王이 곧 고조선의 비약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朝鮮侯國'이 맹주가 되어 주변 소국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맹체 단계로서 본격적인 고대국가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기원전 4세기 후반 朝鮮侯國의 '王'은 주변에 산재한 지역집단의 연맹장이며, 大夫는 왕의 보좌 역할을 한 미숙한 초기의 직위라고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⁰⁾ 그리고 고조선이 본격적인 고대국가 단계로 성장한 것은 기원전 3세기 이후 戰國 燕의 철기문화가 한반도 서북지방으로 파급되면서 가능했다고 본다.

위의 견해는 『魏略』의 기록 중에 '稱王'보다는 '朝鮮侯'에 더 주목해 보는 것이다. 하지만 '朝鮮侯'는 그 앞에 나온 '箕子'와 연결된 표현으로 尊周의 명분과 함께 중화주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이 기록의 초점은 '朝鮮侯'보다 당시 朝鮮이 稱王하며 燕과 대립하였다는 점에 있다. 즉 기원전 4세기 후반 조선의 지배자가 侯보다 한 등급 위의 王을 자칭하며 한 단계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조선의 정치발전은 왕호에 따라 초기의 고유 왕호인 '왕검'에서 기원전 4세기 후반 이후 중국식 왕호인 '왕'으로의 변화로 단계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정복국가 내지 교역에 기반한 고대국가로서의 면모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해되고 있다.⁴¹⁾ 하지만 위만조선 이전 고조선의 국가 단계 여부에 대해선 학계의 시각이 갈라져 있다. 위만조선만 국가 단계로 보는

39) 송호정, 2003,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40) 송호정, 2003, 앞의 책, 281~283쪽.

41) 金貞培, 1977, 「衛滿朝鮮의 國家的 性格」, 『史叢』 21·22합, 57~73쪽; 崔夢龍, 1983, 「韓國古代國家形成에 대한 一考察－衛滿朝鮮의 例－」, 『金哲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61~77쪽.

입장⁴²⁾이 아직 학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위만조선만을 국가 단계로 보는 입장은 위만조선 이전에는 아직 관직체제 등 지배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이해한다. 하지만 위만조선 이전 고조선 시기에도 미숙하지만 초기적인 官制가 갖추어져 있었다. 왕호의 변천뿐만 아니라 관제의 존재를 통해서 고조선의 국가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기왕의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 왔던 고조선의 정치체제로서 관제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Ⅲ. 官制의 구성과 성격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원전 323년 무렵 고조선 지배체제의 중추에는 ‘王’이 있었다. 당시 朝鮮王의 성격을 연맹체의 盟主가 아니라 초기국가 단계의 國王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그 관료로 보이는 大夫 禮의 존재이다.

그동안 고조선의 官制에 대한 논의는 주로 衛滿朝鮮 시기의 官制인 相, 裨王, 將軍, 大臣 등의 성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를 통해 위만조선의 국왕은 幕僚的 文武 近臣 집단을 형성하고 집권적 체제를 구축해갔다고 보거나,⁴³⁾ 발전된 관료 체제에 의거해 전국에 대한 전제권력을 행사하여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였다고 이해하기도 하였다.⁴⁴⁾ 반면 위만조선의 왕은 초월적인 권력자는 아니며 고구려 초기 部的 장인 相加와 유사한 성격의 相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존재였다고 보거나,⁴⁵⁾ 또는 연맹집단 중에서 가장 큰 집단의 우두머

42) 崔盛洛, 1992, 「鐵器文化를 통해 본 古朝鮮」, 『國史館論叢』 33, 41~71쪽; 崔夢龍, 1997, 「衛滿朝鮮」, 『韓國古代國家形成論』, 서울대학교출판부, 208쪽.

43) 金光洙, 1994, 앞의 글, 18~19쪽.

44) 박득준, 1999, 『고조선의 력사 개관』, 사회과학출판사, 112쪽.

45) 盧泰敦, 1998, 앞의 글; 盧泰敦, 2000,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102~103쪽.

리였다고 보기도 하였다.⁴⁶⁾

이러한 위만조선의 지배체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은 그에 앞선 고조선의 관제를 이해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집권체제로 보건 연맹체제로 보건 그 기원을 기원전 4세기 후반 朝鮮王과 大夫의 관계에까지 소급해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고조선과 대외교섭이 가장 잦았던 국가는 燕과 齊였다. 燕은 지금의 北京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동쪽으로 조선과 인접하였고, 齊는 臨淄를 중심으로 山東半島에 위치하면서 조선과 渤海를 끼고 마주보고 있었던 만큼 그들의 발달된 문명이 조선에 미친 영향은 컸을 것이다. 고조선의 정치체제도 대개 이들 전국시대 大國의 영향을 받아 王 밑에 卿, 大夫와 將軍職을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⁴⁷⁾

특히 국경이 인접해 있던 조선과 연은 기원전 323년 燕王의 東進과 기원전 280년대에 있었던 燕將 秦開의 朝鮮 西方 침공에서 보듯이 주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반면, 조선과 齊는 渤海를 사이에 두고 燕을 후방에서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우호적인 교류 관계를 유지하였다.⁴⁸⁾

아래에서는 고조선의 관명으로 사료에 보이는 大夫, 博士를 중심으로 그 기원과 성격을 살펴보고, 아울러 최근 遼東 북부 鐵嶺 지역에서 새롭게 알려진 기원전 5세기 무렵의 문자자료인 ‘뎨’을 고조선의 관제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_ 卿과 大夫

기원전 323년 朝鮮王은 燕王이 고조선을 침략하려고 하자 燕과 일전을 준비

46) 宋鎬晷, 2002, 「衛滿朝鮮의 정치체제와 삼국 초기의 부체제」, 『國史館論叢』 98, 19~24쪽.

47) 李丙燾, 1976, 앞의 책, 56쪽.

48) 박대재, 2006, 「古朝鮮과 燕·齊의 상호관계」, 『史學研究』 83; 박대재, 2014, 「古朝鮮과 齊의 해상교류와 遼東」, 『韓國史學報』 57 참조.

했으나, 大夫 禮의 朝鮮王에 대한 諫言과 燕王에 대한 설득으로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朝鮮王의 휘하에 있었던 大夫는 고조선의 국가적 성격을 시사해주는 중요한 관제이다.⁴⁹⁾

기원전 2세기 후반 위만조선의 右渠王代에 辰國으로 망명한 朝鮮相 歷谿卿⁵⁰⁾의 존재로 미루어보면, 고조선에는 大夫와 함께 卿도 왕권강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⁵¹⁾ 고조선의 卿·大夫는 지방에 일정한 封土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諸侯的 존재로 이해되기도 한다.⁵²⁾

歷谿卿의 성격에 대해서는 인명으로 볼 것인지 관명으로 볼 것인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朝鮮相을 관명, 歷谿卿을 인명으로 보아 1인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⁵³⁾ 각각 관명으로 보아 2인으로 추정하기도 한다.⁵⁴⁾ 尼谿相의 尼谿와 같이 歷谿가 지명일 수 있고, 路人, 韓陰, 王峽, 參, 長 등 다른 고조선 인명을 미루어 보아 역계명은 인명보다는 지명에 관명이 붙은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만약 1인이라면 지방(역계)의 군장(卿)이면서 동시에 중앙(조선)에서 相으로 활동하던 高位者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歷谿卿을 지명+관명의 구조로 파악한다면, 고조선에서 대부와 동시에 경의 존재도 비정할 수 있다.

周代 봉건제에서 王·公·侯 등의 爵號는 天子를 중심으로 하여 列國 사이에 형성된 상하질서이며, 卿·大夫 등은 列國 내부의 상하질서이다.⁵⁵⁾ 즉 公卿

49) 한편 『魏略』의 朝鮮侯를 朝鮮의 諸侯(渠帥)로 해석하여 大夫를 朝鮮王 휘하의 관료가 아니라 고조선 내 제후국(渠帥國)의 관료로 보는 견해도 있다(尹乃鉉, 1994, 『고조선연구』, 一志社, 550쪽).

50) 『三國志』 卷30, 東夷傳 韓 所引 魏略, “初 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亦與朝鮮貢[眞]蕃不相往來”. 원문에는 ‘貢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眞蕃(番)의 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과 진번으로 본다면, 朝鮮相과 歷谿卿을 구분해 朝鮮相은 朝鮮과, 歷谿卿은 眞蕃과 각각 관련된 세력이라고 구분해 볼 수도 있다.

51) 金光洙, 1994, 앞의 글, 9쪽.

52) 윤상열, 2007, 앞의 글, 377~378쪽.

53) 노태돈, 2000, 앞의 글, 100쪽.

54) 윤상열, 2007, 앞의 글, 377쪽.

55) 하일식, 2000, 「삼국시대 관등제의 특성에 대하여 - 爵制·官位制와의 비교 -」, 『韓國古代史論叢』 9, 117쪽.

大夫는 官員의 등급을 나타내는 內爵인 반면 公侯伯子男은 諸侯간의 고하를 나타내는 外爵인 것이다.⁵⁶⁾

『위략』에 의하면 朝鮮侯는 마치 周王室의 제후와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이에 고조선의 군장이 周王室과의 관계 속에서 侯 작위를 받고 제후국임을 표방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도 한다.⁵⁷⁾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朝鮮侯’나 ‘尊周’의 표현은 前漢 이후의 箕子東來說에서 파생된 후대의 중화주의적 부회이다.

西周 때 제후의 封國 내에 卿·大夫가 있어 제후로부터 領地인 ‘采邑’을 하사받았다. 춘추시대에 이르면 각 국의 爵位에 卿, 大夫, 士가 있었고 매 등급은 上·中·下로 나누어졌으며, 전국시대에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었다. 한편 戰國 秦의 경우 독자적인 20등급의 爵制를 정비하여 官大夫, 公大夫 등을 새로 설치하였다. 이러한 先秦代의 爵位의 大夫는 秦漢 이래로는 포상으로 수여되었고, 그보다 관직으로서의 大夫가 다양하게 분화되어 御史大夫, 諫大夫, 太中大夫, 光祿大夫 등의 諸大夫가 각 관사에서 특정한 직무를 담당하였다.⁵⁸⁾

기존 연구에서는 고조선의 大夫에 대해 先秦代의 爵位의 성격으로 보는 견해⁵⁹⁾와, 秦漢 이후의 官職的 존재로 보는 입장⁶⁰⁾으로 시각이 나뉘어 있다. ‘侯(王)-大夫’라는 전국시대 제후국 체제와 유사한 양상에서 先秦代의 大夫로 볼 수도 있지만, 또한 大夫 禮가 朝鮮王에게 諫官으로 역할하고 있으므로 諫諍을 담당한 漢代의 諫大夫나 諫議大夫와 유사한 職官으로 볼 여지도 있다. 아울러 朝鮮王의 대부는 간관뿐만 아니라 使臣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고조선의 대부는 爵位的 성격과 함께 職官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大夫의 爵·職을 겸한 이중적 성격은 전국시대 大夫의 과도기적 성

56) 閻步克, 2002, 『品位與職位』, 中華書局, 74~75쪽.

57) 李丙燾, 1976, 앞의 책, 67쪽.

58) 王天有(이상천 譯), 2006, 『중국고대관제』, 학교방, 21~58쪽.

59) 李鍾旭, 1993, 앞의 책, 151쪽.

60) 리지린, 1963,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365쪽.

격과 연결되기도 한다. 고대 중국에서 작위로서 대부는 춘추시대에 가장 흥성했다. 작위로서의 대부는 일정한 官人和 군사력을 갖추고 자기 封邑과 宗族을 다스린 자치적인 封君이자 族長이었다. 대부의 작위적 성격은 전국시대에도 지속되었지만, 다른 한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전국시대에 官僚制가 발달함에 따라 작위 외에 관인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다.⁶¹⁾ 이것은 秦漢代 대부가 작위보다 직관의 성격을 더 띠게 되는 장기적인 과정에서 볼 때 그 사이의 과도기적 성격에 해당한다.

전국시대의 대부가 가지는 성격은 크게 작위와 관직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작위와 관련해서는 上大夫(國大夫, 長大夫, 列大夫; 魏, 趙, 齊), 中大夫(魏, 趙, 齊), 五大夫(秦, 魏, 趙, 楚), 公大夫(魏, 秦), 上官大夫(楚) 등이 보이는데, 특히 秦에서는 20등급 爵制에서 大夫(제5급), 官大夫(제6급), 公大夫(제7급), 五大夫(제9급) 등 4등급의 대부가 확인되며 이들을 ‘大夫層’이라고 총칭하였다. 다음으로 관직으로서 대부는 中大夫令(中大夫; 秦, 魏, 齊), 監大夫, 郡大夫(守大夫), 都邑大夫(都大夫; 齊), 邑大夫(三晉) 등이 보인다.⁶²⁾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대부를 비교해 보면, 춘추시대에는 지방 수장으로서 독립적 성격이 강한 반면 전국시대에는 수장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되고 중앙 군주(국왕)에 대한 家臣으로서 관료제도에 편입된 존재로 변화된다. 전국시대 대부의 개념이 작위, 관직, 귀족, 지식인에 대한 총칭 등으로 복잡하게 나타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과도기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

전국시대의 대부 가운데 특히 ‘中大夫’는 작위와 관직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존재로 대부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史記』

61) 劉澤華, 1987, 「戰國大夫辨析」, 『史學集刊』 1987-1, 13쪽.

62) 劉澤華, 1987, 앞의 글, 13~15쪽. 이 밖에 군주 이하 관료와 귀족층에 대한 總稱으로 大夫와 관련된 卿大夫, 士大夫, 顯大夫, 子大夫, 散大夫, 命大夫(命大夫) 등이 보인다. 이 가운데 ‘士大夫’는 춘추시대까지만 하여도 ‘大夫士’로 표현된 경우가 많았는데, 전국시대에 이르러 ‘士大夫’로 앞뒤가 서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은 전국시대에 들어와 士가 官人들의 出身 官職으로서 職官의 성격을 갖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춘추시대에는 大夫 아래 士 爵位라는 의미로 쓰였다면, 전국시대에는 大夫 이전에 거치는 出仕職으로서 士가 이해된 것이다.

秦始皇本紀에 의하면 秦國에 中大夫승이 보이는데, 『史記正義』에서는 이를 ‘奏官’이라고 하였다. 『漢書』百官公卿表에 의하면, 中大夫는 議論을 담당하였다. 전국시대의 중대부는 議官 외에 使臣, 近臣, 재정담당관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도 확인된다. 한편 中大夫는 춘추시대 이래 上大夫, 下大夫와 함께 작위의 하나로서 기능하기도 하였다.

전국시대 중대부의 성격은 고조선 대부 예의 활동 양상과 유사한 면이 있다. 고조선의 대부 역시 조선왕의 간관과 동시에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조선의 대부는 전국시대의 중대부와 비슷하게 爵位와 職官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던 존재로 이해된다. 이러한 특징은 고조선과 상호 작용했던 전국시대 연이나 齊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博士

『史記』朝鮮傳에 따르면 기원전 195년 직전 고조선의 準王이 망명객인 衛滿을 서쪽 변경에 거주시켜 藩屏으로 삼고 ‘博士’로 임명했다.

- B. 漢이 盧綰을 燕王으로 삼으니, 朝鮮은 燕과 溟水를 경계로 하였다. (盧)綰이 반란을 일으켜 匈奴에 들어가니 燕人 滿도 亡命하였는데, 胡服을 입고 동쪽으로 溟水를 건너 準에게 이르러 항복하였고, 서쪽 지방에 거주하면서 中國의 망명인들을 거두어 朝鮮의 藩屏이 되겠다고 準을 설득하였다. 準은 그를 믿고 총애하여 博士로 임명하고 畝를 하사하였으며, 100리 땅을 봉해주어 서쪽 변경을 지키게 하였다. 滿이 망명자들을 유인하여 무리가 점점 많아지자, 準에게 사람을 보내 거짓으로 고하기를 漢의 군사가 十道로 쳐들어오니 들어가 숙위하기를 청한다고 하고는 마침내는 準을 공격하였으니, 準이 滿과 싸워 대적하지 못하였다.⁶³⁾

63) 『三國志』卷30, 東夷傳 韓 所引 魏略, “及漢以盧綰爲燕王 朝鮮與燕界於溟水 及綰反 入匈奴 燕人衛滿亡命 爲胡服 東度溟水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收中國亡命 爲朝鮮藩屏 準信寵之 拜爲博士 賜以圭 封之百里 令守西邊 滿誘亡黨 衆稍多 乃

위 기록에 의하면 위만은 博士에 임명되면서 동시에 耒를 하사받고 100리의 땅을 분봉 받았다. 이와 같이 봉지를 받은 고조선의 박사는 당시 秦漢의 博士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위만이 받은 고조선의 博士에 대하여, 漢代 博士가 經學 教授를 전담하기 이전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국왕 자문역의 賢者的 개념으로서 정치적 계서를 초월한 특별 명칭이자 금속기술을 포함한 대륙 방면의 선진 문화에 밝은 사람에 대한 敬稱으로 보거나,⁶⁴⁾ 漢代의 박사와 동일한 직책으로 文教 관련 업무나 翻譯 등의 직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⁶⁵⁾ 그런데 위만은 서쪽 지방의 '藩屏' 역할을 수행하던 가운데 博士에 임명되었으며, 耒와 100리의 封土를 받는 등 제후와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조선의 博士를 지방통치와 관련한 職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⁶⁶⁾ 최근 고조선과 부여의 관계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大夫는 侯에게 딸린 使役의 성격의 관명으로 夫餘의 使役의 속성의 관명인 使者와 연결되는 반면, 博士는 諸侯의 성격의 관명으로 族長的 연원의 相 또는 將軍과 맥이 닿는다고 이해하기도 한다.⁶⁷⁾

고조선의 박사와 秦漢의 박사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領地의 분봉이다. 일반적으로 卿大夫는 采邑(食邑)을 분봉 받은 반면, 博士가 속한 士階級은 祿田(食田)을 지급받아 그로부터 租稅를 취하였다.⁶⁸⁾ 위만이 임명받은 고조선의 박사는 100리의 봉지를 耒와 함께 받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국시대의 卿·大夫와 유사해 보인다.

詐遣人告準 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滿戰 不敵也”.

64) 金光洙, 1994, 앞의 글, 4쪽 및 9~10쪽.

65) 리지린, 1963, 앞의 책, 362쪽.

66) 李丙燾, 1976, 앞의 책, 78쪽; 李鍾旭, 1993, 앞의 책, 185~187쪽; 尹乃鉉, 1994, 앞의 책, 546쪽; 趙法鍾, 1994, 「한국고대신분제연구」, 『國史館論叢』 52, 113쪽. 이 경우에도 박사를 지방관직 존재로 보는가(李丙燾, 趙法鍾), 아니면 제후직 존재로 보는가(李鍾旭, 尹乃鉉)로 입장이 나뉜다.

67) 문창로, 2009, 「夫餘의 官制와 그 계통적 접근」, 『韓國學論叢』 31, 15~16쪽.

68) 閻步克, 2002, 앞의 책, 82~83쪽.

중국에서 博士가 官職으로 확립되는 것은 秦代이지만, 그 명칭은 전국시대 宋, 魯, 魏 등에서 기원하였다.⁶⁹⁾ 『宋書』 百官志(上)에 의하면 박사는 六國 즉 전국시대에 종종 설치되어 古今通事를 관장하였다고 하며, 『史記』 龜策列傳과 循吏列傳에서는 전국시대 宋, 魯의 博士가 확인된다. 學官 博士로 처음 임명된 인물은 기원전 221~214년 秦의 叔孫通이었다. 이때부터 박사가 學官으로 역할하기 시작하였다. 秦의 學官 博士는 전국시대 齊의 稷下學宮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⁷⁰⁾

『說苑』 尊賢편에는 전국시대 齊의 博士로 淳于髡가 확인된다.⁷¹⁾ 순우곤(기원전 385~305년)은 전국시대 齊 宣王 때 활약한 직하 출신으로 학문이 깊었지만 익살과 다변으로도 유명했다. 순우곤의 변론은 『戰國策』, 『史記』 滑稽列傳에 보이며, 『孟子』 離婁(上)에도 맹자와의 논전이 전한다. 『史記』 秦始皇本紀 34년(기원전 213)조에서 丞相 李斯와 논쟁을 했던 「博士齊人淳于越」도 淳于髡와 관련된 인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전국시대 齊 稷下の 博士와 秦의 博士가 역사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博士는 秦代 이전에 이미 등장하였으며, 秦漢代에는 관직의 성격을 분명히 지니게 되었다. 춘추전국시대에 박사는 단순히 학자에 대한 범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전국 말에 이르면 학술 업무 외에 參謀나 顧問의 역할을 담당한 議政的 職能의 관직으로 정착되었다. 秦代에는 수십 인의 박사가 있었다고 하며, 議政官의 성격과 禮官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漢武帝 때(기원전 141~87년) 처음으로 五經博士를 두어 박사의 학술적 기능이 강화되었다. 대체로 秦漢代의 博士는 학술 업무나 顧問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또한 외부로 순행하여 시찰하는 업무도 담당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거쳐 三國 魏 이

69) 彭澤平·李茂琦, 1997, 「中國古代博士考略」, 『文史雜志』 1997-1, 64쪽.

70) 金德建, 1988, 「論稷下學派與秦漢博士的關係」, 『管子學刊』 1988-4, 37~38쪽. 이 글에서는 齊 稷下學宮 출신의 인물로 叔孫通, 伏生, 淳于越, 鮑白命之 등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매개로 齊의 稷下學宮과 秦의 學官 博士를 연결시켜 보고 있다.

71) 楊寬·吳浩坤 主編, 2005, 『戰國會要』(上), 上海古籍出版社, 518쪽, “博士淳于髡仰天大笑而不應(說苑尊賢)”.

후에는 訓敎 담당의 五經博士와 禮儀 담당의 太常博士로 크게 양분되었다.⁷²⁾

秦代 이후 박사는 학술적인 측면 외에 행정, 감찰, 군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관인이었다.⁷³⁾ 漢武帝 때에는 지방행정의 시찰 혹은 지방민의 위무에 박사를 파견한 사실도 확인된다.⁷⁴⁾ 따라서 漢武帝 이전의 시기에 博士가 지방을 순행하여 시찰하는 업무를 담당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즉 박사는 최고 통치권자의 명을 받아 지방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⁷⁵⁾ 準王이 위만을 박사로 임명하고 서쪽 지방의 통치를 위임한 것도 漢代 초기 박사의 지방관직 성격과도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여와 고구려의 使者는 어느 고위 관명보다도 앞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고조선 시기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⁷⁶⁾ 앞서 보았듯이 사자는 博士의 업무 중 하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고조선의 박사가 부여·고구려의 使者로 연결될 수 있는 배경도 없지 않다.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으로부터 받은 서변의 봉지는 馬韓王이 남하해 온 백제 濫祚王에게 할양했던 동북지역의 100리⁷⁷⁾와 비슷하다. 濫祚王은 馬韓王에게 神鹿 등 상서로운 물품을 받치는 의례적인 공납 관계로 예측되어 있었다. 준왕이 위만에게 임명한 박사 역시 의례적 성격의 관직이었다. 박사의 직능 가

72) 俞鹿年 編著, 1992, 『中國官制大辭典』, 黑龍江人民出版社, 305쪽; 安作璋·熊鐵基, 2007, 『秦漢官制史稿』, 齊魯書社, 409~424쪽.

73) 張晉藩 主編, 1992, 『中國官制通史』,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09~112쪽.

74) 『漢書』卷6, 武帝紀6 元狩 6年 6月, “詔曰 日者有司以幣輕多姦 農傷而未衆 又禁兼并之塗 故改幣以約之 …… 今遣博士大等六人分循天下 存問鰥寡廢疾 無以自振業者貸與之”.

『漢書』卷6, 武帝紀6 元鼎 2年 9月, “詔曰 …… 今京師雖未爲豐年 山林池澤之饒 與民共之 今水潦移於江南 迫隆冬至 朕懼其飢寒不活 江南之地 火耕水耨 方下巴蜀之粟致之江陵 遣博士中等分循行 論告所抵 無令重困”. 博士大 등과 博士中等은 박사의 官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75) 趙法鍾, 1994, 앞의 글, 113쪽.

76) 金光洙, 1994, 앞의 글, 17쪽.

77) 『三國史記』 권23, 百濟本紀1 始祖濫祚王 24년, “秋七月 王作熊川柵 馬韓王遣使責讓曰 王初渡河 無所容足 吾割東北一百里之地安之 其待王不爲不厚 宜思有以報之 今以國完民聚 謂莫與我敵 大設城池 侵犯我封疆 其如義何 王慙遂壞其柵.”

운데 하나로 儀禮祭祀를 관장하던 奉常(太常)의 屬官으로 諸陵의 제사를 담당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⁷⁸⁾ 이러한 박사의 祭官의 성격이 고조선의 박사가 국왕에게 의례적인 공납관계로 종속되어 있던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다.⁷⁹⁾ 한편, 위만이 조선의 서쪽 변방을 지키는 변병의 방위 책임을 맡았다는 점에서 박사의 군사적 성격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왕성에 들어가 준왕을 축출한 것을 보면 일정한 군사 조직을 통솔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고조선의 박사가 군사지휘관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고조선의 박사는 지방에서는 100리 정도의 지역에 대한 主宰權을 국왕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중앙의 국왕과는 의례적인 공납관계로 묶여 있었던 존재로 국왕에게 직속된 직위적 성격보다는 변방의 제후와 같은 작위적 성격을 좀더 많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秦代 이전 전국시대에 이미 齊, 魯, 宋, 魏 등에 博士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전국시대의 박사는 秦漢代의 學官 博士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고조선의 博士 역시 秦漢의 學官 박사와 다르다는 점에서 전국시대의 박사와 관련될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고조선과 우호적인 교류 관계에 있었던 齊에서 博士의 용례가 뚜렷하게 확인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국시대 大國이었던 秦, 楚, 齊, 燕, 韓, 趙, 魏 등 7국의 官制를 일별해 보면 齊에서 고조선의 관제로 보이는 大夫와 博士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齊의 稷下 출신 博士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보았고, 大夫로는 郡邑과 縣邑을 각각 관장하던 都大夫와 外舍(大夫)이 있었다. 특히 그 다음 위만조선 시기의 관재인 相과 將軍도 齊의 관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燕의 관제에서도 相과 將軍이 확인되지만 博士와 大夫는 보이지 않는다.⁸⁰⁾ 이런 특징에서 보면 고조선의 관제는 전국시대 齊의 관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판

78) 和田清 編, 1945, 『中國官制發達史』, 汲古書院, 48쪽.

79) 박대재, 2013, 「국가형성기의 복합사회와 초기국가」, 『先史와 古代』 38, 273쪽.

80) 李孔懷, 2007, 『中國古代行政制度史』, 三聯書店, 26~27쪽 〈戰國時期七國官制表 참조.

단된다.

3_ 兄(加)

기존 연구에서 兄은 주로 高句麗의 관제와 관련하여서 다루어져 왔다. 고구려의 관제에서 兄은 『三國志』 단계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고, 『魏書』에서 大兄·小兄이 처음 보이며, 『周書』에 이르러 太大兄·大兄·小兄 등 13관등 중 2~4관등으로 확인된다. 『魏書』 고구려전의 주요 내용은 北魏 李敖가 고구려 사행 후 보고한 자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그 시기는 延和 원년(432) 전후 무렵이다. 즉 5세기 전반의 기록부터 兄이 고구려의 관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고구려 관제에서 兄은 年長者, 家父長的 家族長의 의미로, 『三國志』 高句麗조에 보이는 優台(于台), 즉 '웃치'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각 加의 長이었던 相加 역시 부족연맹의 단계에서 고대국가 체제로 넘어갈 때에 家父長으로서 '兄'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재편하게 되면서 太大兄, 大兄, 小兄으로 분화하였다는 것이다.⁸¹⁾ 이에 따르면 고구려의 兄은 族長的 성격의 官等인 優台와 相加에서 연원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魏書』, 『周書』, 『翰苑』 所引 『高麗記』, 「中原高句麗碑」 등에 보이는 兄系 官位에 대한 분석을 통해, 太大兄(2等), 衣頭大兄(5等), 大兄(7等), 小兄(11等), 諸兄(12等) 등의 관등 서열이 대체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⁸²⁾

선행 연구를 통해 兄의 성격은 대체로 파악되었지만, 兄이 優台와 相加에서 기원하였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추론에 불과하다. 優台的 음운(웃치?)이 兄의 의미와 유사한 것 외에 상호 선후 관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兄이 초기 관제에서는 어떤 관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81) 金哲埭, 1956,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1975, 『韓國古代社會研究』, 지식산업사; 金哲埭, 1990, 서울대학교출판부, 234~235쪽.

82) 武田幸男, 1977, 「高句麗官位制とその展開」, 『朝鮮學報』 85; 武田幸男, 1989, 「高句麗官位制の史的展開」,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356~405쪽.

이와 관련하여 『魏書』 등의 大兄·小兄·諸兄 등의 ‘兄’이 『三國志』의 牛加·馬加·相加·古雛加 등의 ‘加’에 해당하는 관명이라는 白鳥庫吉의 추정⁸³⁾을 다시 주목해 볼 만하다. 白鳥庫吉은 夫餘와 高句麗의 ‘加’가 鮮卑諸族(東胡)의 尊稱인 ‘可汗’과 같은 계통의 군장 칭호라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⁸⁴⁾

그런데 可汗이 선비족 군장 칭호로 보이는 것은 385년 西秦을 건국한 隴西鮮卑 乞伏國仁의 시조 ‘乞伏可汗託鐸莫何’(紇干)이나,⁸⁵⁾ 慕容鮮卑 吐谷渾 樹洛干的 ‘戍寅可汗’(405~417년 재위)⁸⁶⁾ 등 4세기 이후의 기록부터이다. 부여와 고구려의 加는 『삼국지』 단계부터 보인다는 점에서 오히려 可汗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

부여·고구려의 加와 선비족의 可汗은 동일한 계통의 祖語로부터 갈라져 나왔거나, 또는 인접한 언어 사이의 상호 접촉에 의한 영향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加/可汗이 兄으로 변화된 것인데, 『宋書』 吐谷渾전에 의하면 선비족에서 兄을 ‘阿干’이라 불렀다고 한다.⁸⁷⁾ 따라서 加, 可汗, 阿干 등은 모두 兄을 의미하는 동일한 계통의 알타이 諸語로 이해할 수 있다.⁸⁸⁾ 부여·고구려어의 ‘加’가 중국 漢語의 ‘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근래 중국학계에서는 고구려의 ‘兄’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⁸⁹⁾ 그것은 『翰苑』 所引 『高麗記』의 고구려 관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주로 兄系 官位の 등급과 성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83) 白鳥庫吉, 1896, 「朝鮮古代官名考」, 『史學雜誌』 7-4; 白鳥庫吉, 1986, 『朝鮮史研究』, 岩波書店, 94쪽.

84) 白鳥庫吉, 1911, 「東胡民族考(4)」, 『史學雜誌』 22-1; 白鳥庫吉, 1970, 『塞外民族史研究(上)』(白鳥庫吉全集4), 岩波書店, 123~124쪽.

85) 『晉書』 卷125, 載記25 乞伏國仁.

86) 『晉書』 卷97, 四夷 西戎 吐谷渾 樹洛干.

87) 『宋書』 卷96, 列傳56 鮮卑吐谷渾, “鮮卑呼兄爲阿干”.

88) 羅新, 2009, 「高句麗兄系官職的內亞淵源」, 『中古北族名號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83~184쪽.

89) 高福順, 2007, 「高句麗官制中的兄與使者」, 『北方文物』 2007-2, 49~55쪽; 2008, 「『高麗記』所記高句麗中央官位研究」, 『高句麗與東北民族研究』 2008-1, 13~19쪽.

고구려의 兄系 관명은 『周書』와 『魏書』 등 北朝系 사서에만 보이는 반면, 南朝系 사서인 『梁書』에는 兄系 관명이 보이지 않고 相加, 古雛加 등 加系 관명만 보인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양서』의 기록은 『삼국지』와 范曄의 『후한서』와 같은 계통인데, 魏晉(南朝)의 ‘加’가 北朝에 이르러 ‘兄’으로 대치된 것이다.

이에 대해 『삼국지』의 ‘加’는 音借表記(音譯)이고, ‘兄’은 그 意譯으로 한 官稱의 異譯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翰苑』 소인 『高麗記』의 ‘大兄加’를 의역과 음역의 반복(첩어)으로 보면서, 고구려 내에서도 加의 의미를 ‘兄’으로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⁹⁰⁾ 북위 사신 李敖 등이 고구려 사행 이후 ‘加’를 鮮卑語의 ‘阿干’과 같은 의미로 파악하고 ‘加’를 意譯하여 ‘兄’이라고 기록한 이후 北朝系 사서에서 兄系 관등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원래 고구려의 加(兄)는 夫餘에서 온 것으로 부여가 동호의 관제에 영향을 받아 ‘加’가 官稱으로 성립하였다고 파악한다.⁹¹⁾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可汗’이나 ‘阿干’보다 ‘加’가 사료에 먼저 보인다는 점에서 可汗/阿干에서 加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이들이 모두 형을 의미하는 공통의 알타이 조어에서 분화되었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언어 간의 상호 영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夫餘의 加에서 기원한 고구려 초기의 古雛加, 大加, 小加가 太大兄, 大兄, 小兄 등으로 각각 전화된 것이며, 『三國史記』 烽上王 2년(293) 기록에 新城幸 北部 小兄 高奴子가 大兄을 加爵받는 것으로 보아, 이미 3세기 말에 兄系 官位로 전화·분화되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⁹²⁾ 『삼국지』 고구려전의 「大加-小加」⁹³⁾가 『魏書』 고구려전의 「大兄-小兄」⁹⁴⁾

90) 羅新, 2009, 앞의 글, 179쪽. 武田幸男은 ‘大兄加’의 加를 衍文으로 추정하였다.

91) 羅新, 2009, 앞의 글, 188쪽.

92) 范恩實, 2013, 「高句麗品位制與國家政治結構特徵」, 『夫餘興亡史』,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3~211쪽.

93) 『三國志』 卷30, 東夷傳 高句麗, “大加主簿頭著幘 如幘而無餘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94) 『魏書』 卷100, 列傳88 高句麗, “其官名有謁奢大奢大兄小兄之號 頭著折風 其形

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加와 兄의 선후관계나 대응관계를 엿볼 수 있다. 金哲堉의 연구에서도 ‘兄’의 기원으로 相加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優台에 더 주목하여 ‘加’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본다면 부여와 고구려의 초기 관제에 보이는 ‘加’는 兄의 의미에서 파생된 관명으로 이해된다. 이를 통해 부여·고구려어에서 형을 ‘가(ka)’라고 불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唐代 이후 漢語 口語에서 ‘兄’ 대신 쓰기 시작한 ‘哥’는 外來語로 추정되는데,⁹⁵⁾ 대체로 北朝 鮮卑語의 ‘阿干(akan)’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⁹⁶⁾ 그런데 음운상으로 漢語(口語)에서 兄을 칭하는 ‘哥’는 선비어의 ‘아간’보다 부여·고구려어의 ‘가’에 더 가까워 보인다. ‘加’와 ‘哥’의 中古漢音이 ‘ka’와 ‘kA’로 각각 再構⁹⁷⁾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상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加와 兄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加의 기원을 살펴보면, 부여의 관제에서 처음 보이는 加는 그에 앞서 고조선에서부터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은 최근 中國 遼寧省 開原市 八棵樹鎮 建材村에서 수습된 기원전 5세기 무렵 靑銅刀子의 ‘兄’자 명문을 통해 臆測해 볼 수 있다.

1981년 開原 建材村 墓地 조사에서는 고구려 積石墓群이 확인되었고, 1997년 재조사에서 청동기시대 石棺墓 35기가 새로 발견되었는데 ‘兄’銘 銅刀도 이때 수습·조사되었다. 石棺墓群은 建材村 북쪽 800지점의 배산 남쪽 기슭 해발 고도 200~240m에 분포하는데, 墓葬은 크고 작은 石堆과 石板으로 축조된 전형적인 석관묘의 형태를 보인다. 묘지 북쪽에 두 군데의 채석장이 있는데, 채석장 출입 산로에 의해 묘지가 위 아래로 양분되어 있다. 묘지는 동서 400m, 남북 300m 정도에 분포한다.

如弁 旁插鳥羽 貴賤有差”.

95) 王力, 1980, 『漢語史稿』下, 中華書局, 506~50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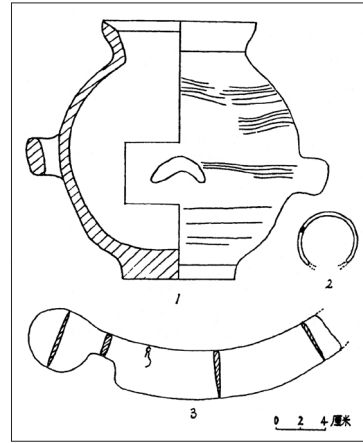
96) 胡雙寶, 1980, 「說“哥”」, 『語言學論叢』6, 商務印書館, 128~136쪽; 趙文工, 1999, 「唐代親屬稱謂“哥”詞義考證」, 『內蒙古大學學報』1999-1, 58~65쪽.

97) 中古漢音에 대해선 『東方語言學』(<http://www.eastling.org>)의 「中古音查詢」참고.

1997년 조사에서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한 3기의 석관묘(M10, M24, M26)를 정리했는데, 모두 9건의 청동기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石鋤 2건(M10, M24), 石刀 2건(M26), 石犁 1건(M26), 원형석기 1건(M26), 석기 잔편 1건(M26), 銅環 2건(M24) 등이다. 3기의 석관묘에서 출토된 유물 외에 촌민이 석관묘 묘지에서 수습한 유물로 陶壺 1건, 銅刀 1건, 銅環 1건이 있다.

陶壺는 鼓頸에 弦文이 시문되고, 다리 모양 橫耳와 입술 모양 손잡이가 각각 2개 붙은 전형적인 美松里型土器로 묘지 북쪽의 채석장 산로 건설 과정에서 확인된 석관묘에서 출토되었다. 미송리형토기의 口徑은 12.6cm, 높이 20.8cm, 最大腹徑 19.7cm, 底徑 9cm, 足高 1.5cm이다. 銅環 1건은 1987년 조사 때 채집되었는데, 직경(殘) 4.8cm로 1997년 M24에서 출토된 2건의 동환(6.2cm)보다 크기가 작다.

銅刀는 석관묘지 북쪽의 채석장 工人인 鄒長昆이 묘지 서쪽에서 수습한 것으로, 동도가 출토된 지점은 원래 墓葬(석관묘 추정)이었는데 산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훼손되었다. 銅刀는 雙范合鑄로 만들어졌으며, 등과 날 부분이 모두 弧形이고 자루는 편평한 장방형으로 끝에 원형의 납작한 손잡이가 붙어 있다. 동도의 끝부분은 결실되었고, 현존 길이 25.2cm, 너비 3.6cm, 두께 0.4cm이다. 동도의 柄部에 가까운 身部 등 쪽에 陰刻으로 문자부호가 새겨져 있는데 ‘兄’자로 隸定된다.⁹⁸⁾ 초기 보고자인 許志國은 이 銅刀의 연대를 銘文의 寫法에 기초해 西周晩期 혹은 그보다 조금 늦은 시기로 편년하였다.⁹⁹⁾



〈그림 1〉 建材村 石棺墓 收拾 遺物
(1. 美松里型土器, 2. 銅環, 3. ‘兄’銘 銅刀)

98) 許志國, 2000a, 「遼寧開原市建材村石棺墓群」, 『博物館研究』 2000-3, 64~67쪽.

99) 許志國, 2000b, 「遼寧開原市建材村發現刻銘青銅刀」, 『考古』 2000-5, 56쪽.

그런데 최근 ‘兄’銘 銅刀(이하 ‘兄’刀)를 소장하고 있는 鐵嶺市博物館의 副館長 周向永은 이 銅刀의 연대를 春秋戰國 교체기로 비정하면서, ‘兄’은 당시 遼北 東部 山地에 거주하던 토착민인 貊人의 首領을 가리키는 官名으로 추정하여 주목된다.¹⁰⁰⁾ 周向永이 ‘兄’刀를 기원전 5세기 貊人의 首長이 佩帶한 신분표지의 威勢品으로 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銅刀가 발견된 石棺墓地에서 濊貊族의 표지 유물인 美松里型 土器가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建材村 출토 미송리형토기는 형식상 늦은 단계인 춘추 만기의 양식이며, 토기가 출토된 석관묘의 구조도 大蓋石墓에 가까운 춘추·전국 교체기의 형식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근거는 ‘兄’이 貊族의 후신인 高句麗의 관명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魏書』, 『周書』 등의 高句麗傳에 보이는 大兄, 小兄, 太大兄과 함께 서울 아차산 제4보루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의 명문 ‘支都兄’, ‘冉牟兄’의 사례를 주목하면서, 고구려의 ‘兄’이 銅刀의 貊族 수장 명칭인 ‘兄’으로부터 기원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西周~춘추전국시대의 청동명문에서 ‘兄’刀와 같이 ‘兄’이 단독으로 확인되는 예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금문에서 ‘兄’자는 父兄, 兄弟, 諸兄, 兄某(日干) 등과 같이 宗族 호칭인 兄이나, 또는 ‘하사하다’는 의미의 ‘覓’자의 通假字로 보인다.¹⁰¹⁾ ‘兄’이 族徽의 일종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지만, 族氏銘文(族徽)에서 ‘兄’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거니와 춘추전국시대는 金文에서 族徽가 소멸되는 시기이다.¹⁰²⁾

甲骨文에 보이는 殷代 卜辭의 ‘兄’은 반드시 長幼의 分別만이 아니라 同世 親族 중 先死者 즉 먼저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사용되었다.¹⁰³⁾ 商代에

100) 周向永, 2005, 「遼寧開原建材村所出銅刀銘文涵義考」, 『北方文物』 2005-1(81), 11~14쪽.

101) 張亞初, 2001, 『殷周金文集成引得』, 中華書局, 349쪽.

102) 何景成, 2009, 『商周青銅器族氏銘文研究』, 齊魯書社, 附錄: 族氏銘文資料匯編 참조.

103) 李學勤, 1957, 「論殷代親族制度」, 『文史哲』 1957-11; 李學勤, 2007, 『李學勤早期文集』, 河北教育出版社, 76쪽.

兄은 연령상의 長幼 개념과 동시에 형제 중 先亡者에 대한 호칭으로도 쓰였던 것이다.¹⁰⁴⁾ 西周代의 兄弟는 親兄弟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從父 혹은 從祖의 諸兄弟(朋友)를 포함하는 同胞兄弟의 개념이었다.¹⁰⁵⁾ 西周代의 兄은 親兄만이 아니라 同族의 諸兄을 아우르는 광의에서 사용되었다.

西周 金文에서 兄은 神에게 祭祀를 올리는 사람을 뜻하며, 兄長의 의미도 家의 제사를 관장하는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⁰⁶⁾ 한편 『詩經』 鄘風에는 兄을 夫의 뜻으로 사용한 예도 확인된다.¹⁰⁷⁾ 남자성인을 夫라고 하며 여러 夫 가운데 우두머리를 大夫라고 하는데, 殷의 三勾兵 銘文에서 大兄과 함께 5명의 兄이 보인다.¹⁰⁸⁾ 이로 보아 大兄은 大夫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商周시대의 兄은 親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同世 宗族 가운데 연장자, 先死者, 또는 남자성인(夫)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商周金文 가운데 ‘兄’刀의 예와 같이 ‘兄’만 단독으로 쓰인 경우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고대 중국의 일반적인 ‘兄’ 호칭과 다른 용도에서 ‘兄’이 銅刀에 銘文되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兄’刀의 書體는 ○ 아래에 儿이 붙은 형태로 甲骨文이나 金文에서 보이는 서체와 많은 차이가 있다. 갑골문과 서주금문에서 兄은 기본적으로 口 아래에 儿이 붙은 형태이며, 춘추전국시대의 金文에서는 ‘女’나 ‘艾’자와 비슷한 형태로 변한다.¹⁰⁹⁾ 특히 요령지역과 인접한 戰國 燕系文字에서 ‘兄’이 ‘女’자와 비슷한 형태로 보인다는 점에서,¹¹⁰⁾ 建材村 銅刀의 ‘兄’이 중원계통 명문이 아님을

104) 葛志毅·張惟明, 1998, 「商周王位繼承制度新探」, 『先秦兩漢的制度與文化』, 黑龍江教育出版社, 52쪽.

105) 朱鳳瀚, 2004, 「西周貴族家族的規模與組織結構」, 『商周家族形態研究』(增訂本), 天津古籍出版社, 297쪽.

106) 白川靜, 2004, 『(新訂) 字統』, 平凡社, 235쪽.

107) 白川靜, 2002, 「身分と職掌」, 『文字講話』 I, 平凡社, 97쪽.

108) 白川靜, 2002, 앞의 글, 103, 121쪽.

109) 河琳儀, 1998, 『戰國古文字典－戰國文字聲系－』(上), 中華書局, 622쪽.

110) 대표적인 경우가 上海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平肩空首布에 보이는 ‘兄’字이다.(吳良寶, 2006, 『先秦貨幣文字編』, 福建人民出版社, 146쪽) 이 ‘兄’자에 대해 馬飛海·王慶正 主編, 1988, 『中國歷代貨幣大系』 1(先秦貨幣), 上海人民出版

추정할 수 있다.

‘兄’刀가 출토된 鐵嶺 開原지역은 최근 石棺墓와 美松里型土器의 출토 빈도가 증가하면서 기원전 5세기 이전 청동기시대에는 貊族이 분포한 지역으로 이해되고 있다.¹¹¹⁾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兄’刀는 貊族의 유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이후 고구려의 兄에까지 이어졌을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兄’刀의 兄이 고구려의 兄과 같은 성격의 官名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兄’刀와 같은 형식의 銅刀가 遼寧 撫順市 新賓縣 永陵鎮 色家村의 石棺墓에서 발견된 바 있다. 色家의 銅刀는 無銘이고 背부분에 弦文이 한줄 덧붙여져 背가 넓고 刃이 얇은 점 등 실용성이 높다는 것에서 ‘兄’刀와 차이가 난다.¹¹²⁾ 다시 말해 ‘兄’刀는 色家村의 銅刀에 비해 실용성이 떨어지는 장식성이 강한 銅刀라고 할 수 있다. 色家村 石棺墓는 1982년 撫順市博物館에 의해 조사되었는데, 夾砂紅陶罐 3건, 石斧, 石鏟, 石鏃, 石鏃, 銅刀 각 1건이 출토되었다. 동도는 쌍범합주품으로 길이 29.7cm, 刃의 너비(殘) 4.5cm, 손잡이의 길이 4cm, 너비 1.8cm, 두께 0.5cm로, ‘兄’刀와 같이 전체적으로 弧形을 띄며 손잡이 끝에 圓板이 붙어 있다.¹¹³⁾

色家村 銅刀와 같이 원판형 장식이 손잡이 끝에 붙은 弧形 匙柄銅刀는 遼寧省 建平縣 欒家營子 M901 목관묘에서도 출토되었다. 欒家營子 목관묘에서는 호형 시병동도가 비파형동검1, 김병두식1, 선형동부 1, 錘斧 1, 새김칼1, 銅鈴2, 鴨形銅飾44, 食刀柄銅刀1, 황금팔지1, 뼈유경식축4, 목걸이돌구슬 42개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¹¹⁴⁾

社, 105쪽 및 1077쪽에서는 ‘女’로 隸定하였으나 ‘兄’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11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鐵嶺市博物館, 2011, 「遼寧西豐縣東溝遺址及東溝墓群發掘簡報」, 『考古』 2011-5, 31~50쪽; 趙少軍, 2014, 「遼北地區青銅時代石構墓葬初步研究—以清河·寇河流域石棺墓爲中心—」, 『寶雞文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14-10, 42~53쪽.

112) 許志國, 2000a, 앞의 글, 69쪽.

113) 張波, 1984, 「新賓縣永陵公社色家發現石棺墓」, 『遼寧文物』 1984-6, 24쪽.

114) 李殿福, 1991, 「建平孤山子·榆樹林子青銅時代墓葬」, 『遼海文物學刊』 1991-2;

요령~길림지역 청동도자의 형식, 수량, 지속성 등에서 요서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월한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요동과 길림지역의 청동도자가 주로 요서지역의 기술적 영향 내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유추되는데, 新賓 色家の 銅刀가 동질의 조각성과 비실용성 면에서 그 지역의 토착집단이 요서지역(建平 爨家營子 M901)의 것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되기도 한다.¹¹⁵⁾

이와 같이 銅刀의 중심 분포지역을 요서지역으로 파악한다면 鐵嶺 開原에서 출토된 ‘兄’刀는 요서지역의 세력과 관련된 유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서지역의 주민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建平 爨家營子에서 ‘兄’刀와 같은 형식의 匙柄銅刀가 비파형동검 및 선형동부와 함께 출토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朝陽 十二臺營子 유적에서 대표적으로 확인되었듯이, 당시 요서지역이 비파형동검의 분포지역에 포함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즉 비파형동검의 분포 양상을 통해 볼 때 요서지역 역시 貊族의 분포 범위로 이해할 수 있다.¹¹⁶⁾ 따라서 ‘兄’刀의 성격을 비파형동검 및 미송리형토기와 연결해 맥죽과 관련해 이해하는 것도 완전히 무리는 아닌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부여·고구려의 ‘加’는 선비어의 ‘阿干’ 내지 ‘可汗’과 같은 계통의 알타이 제어로 이해된다. 그런데 『三國志』 烏丸鮮卑傳에서는 오환과 선비의 수장을 ‘大人’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오환과 선비의 전신인 東胡의 수장은 『사기』 흉노전에서 ‘東胡王’이라고 보인다. 선비어의 ‘아간’ 내지 ‘가한’은 『삼국지』 이후 4세기에 이르러서야 기록에 나타나며, 그 이전 동호와 선비·오환의 수장은 王이나 大人 등 한화된 용어로 표기되고 있다. 이러한 균장 호칭의 추이는 부여·고구려의 加가 동호나 선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보다

吳江原, 2003, 「遼寧~吉林地域 青銅刀子の 型式과 時空間的 様相」, 『古文化』 61, 79쪽 참조. 吳江原은 ‘兄’刀와 같은 형식의 匙柄銅刀가 유행한 시기를 기원전 9세기~기원전 7세기 무렵으로 편년하고 있다. 대체로 建材村 石棺墓를 조사한 許志國의 편년(西周中晩期)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15) 吳江原, 2003, 앞의 글, 87쪽.

116) 김정배, 2010, 「고조선과 비파형동검의 관계」,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435~438쪽.

에 맥 고유의 군장 칭호에서 기원하였음을 시사해준다.

물론 ㄹ이 漢語라는 점에서 ‘ㄹ’刀의 제작에 중국 문자문화의 영향이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ㄹ이 중국의 관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大夫나 博士와 다른 계통의 토착적 관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검토에 따라 ‘ㄹ’刀가 貊族과 관련된 유물이며 ‘ㄹ’이 부여나 고구려의 ‘ㄹ’과 같은 관명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맥족의 정치체인 고조선의 관명일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다. ‘ㄹ’이 중국의 官制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ㄹ’刀는 貊族의 정치체, 즉 朝鮮과 관련된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ㄹ’刀가 수습된 石棺墓地에서 고조선의 표지적 유물인 美松里型土器와 扇形銅釜도 함께 출토되었다¹¹⁷⁾는 것은 그 가능성을 더욱 제고해준다.

‘ㄹ’刀의 ‘ㄹ’은 일반적인 ㄹ長의 의미라기보다 夫餘나 高句麗의 ㄹ과 같은 銅刀 소지자의 지위와 관련된 존칭으로 보인다. 고대 국어에서 ㄹ의 의미와 관련하여 1103년에 송나라의 손목이 고려에 서장관으로 왔다가 남긴 高麗語 자료인 『鷄林類事』에 의하면, 당시 고려에서 ㄹ을 ‘長官’이라 새기고 ‘당관’으로 읽었는데,¹¹⁸⁾ 이는 16세기 중세 국어의 ‘ㄹ’¹¹⁹⁾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다. 고려시대에 ㄹ이 長官을 의미한 것은 고대 국어에서 ㄹ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성격을 전해준다.

‘ㄹ’刀를 고조선과 관련한 유물로 이해할 수 있다면, ㄹ은 고조선의 族長的 성격의 官名일 것으로 유추된다. 부여나 고구려의 ㄹ(加)이 가지는 성격에서 미루어 짐작되기 때문이다. ㄹ은 大夫나 博士와 같은 戰國系 官名과 달리 고조선 지역 族長에 대한 토착적 존칭인 것이다. 이 ‘ㄹ’刀가 鐵嶺지역에서 출토된 배경이나 고조선 관제에서 ‘ㄹ’의 정치적 위상 등은 향후 과제로 남기고 싶다.

117) 周向永·許超, 2010, 『鐵嶺的考古與歷史』, 遼海出版社, 54~55쪽 참조.

118) 강길운, 2011, 『『鷄林類事』의 新解讀研究』, 지식과 교양, 147쪽.

119) 박성훈, 2013, 앞의 책, 578쪽.

IV. 맺음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卿·大夫, 博士, 兄(加) 등의 관제를 갖춘 고조선의 정치발전단계를 국가 이전의 연맹체 단계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초기국가론의 맥락에서 생각할 때, 고조선은 늦어도 기원전 4세기 무렵에는 국왕을 중추로 하는 중앙과 지방의 호혜적인 상호관계에 기반한 분권적인 국가체제를 갖추었다고 판단된다.¹²⁰⁾

기존 논의에서 기원전 323년 무렵 보이는 朝鮮王의 성격을 국가 단계의 국왕이 아니라 연맹체의 맹주로 보았던 이유는 당시 조선 주변에 위치한 眞番, 臨屯 등 小國 세력이 조선에 완전히 속해 있지 않고 일정한 독자성을 발휘하는 정치세력이었다고 보기 때문이었다.¹²¹⁾

그런데 『史記』 朝鮮傳에 의하면, 고조선 말기 위만이 망명한 때에 조선 주변에는 眞番, 臨屯과 함께 주변 ‘小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¹²²⁾ 이 小邑들은 조선에 복속되었던 주변의 군소세력들이었다. ‘小邑’은 ‘大邑’에 상대적인 표현으로 商周時代 大邑과 小邑(小方), 즉 중앙(商邑)과 지방(四方)의 관계를¹²³⁾ 연상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고조선에서는 小邑 외에 眞番과 臨屯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단계 상위의 지방 세력이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위만조선의 국가구조를 都邑(王儉城) - 大邑(眞番, 臨屯) - 小邑(村落)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¹²⁴⁾ 이와 같은 3층위의 국가구조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초기국가(early state)’의 중층적 구조와도 일치하는 것이다.¹²⁵⁾

진번이나 임둔과 같은 비교적 대규모의 지방단위는 부여의 ‘四出道’와 비슷

120) 박대재, 2013, 앞의 글, 272~273쪽.

121) 송호정, 2003, 앞의 책, 282쪽.

122) 『史記』 권115, 朝鮮列傳, “以故滿得兵威財物侵降其旁小邑 眞番臨屯 皆來服屬方數千里”.

123) 王貴民, 1989, 『商周制度考信』, 明文書局, 158~162쪽.

124) 서영수, 2005, 앞의 글, 74쪽.

125) 박대재, 2013, 앞의 글, 236~237쪽.

한 성격의 지역으로 이해되기도 한다.¹²⁶⁾ 四出道는 명칭으로 보아 변경 사방지역에 분포하던 加들의 재지기반으로 기존의 지역 복합사회인 國이 해체되고 재편된 지방특별구역으로 생각된다. 부여의 지방세력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일부 지방이 상대적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고 諸加들이 별도로 주재하는 道로 전환된 것이다. 이 道들은 제가가 別主한 것으로 보아 중앙의 지배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國’이 아니라 지방단위인 ‘道’로 편제·전환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일단 중앙에 복속된 지역임을 시사해준다. 즉 諸加들을 경유해 간접지배된 지역이었던 것이다.¹²⁷⁾

고조선의 진변과 임둔도 부여의 사출도와 같은 성격의 간접지배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沃沮¹²⁸⁾도 위만에 복속된 비교적 규모가 큰 중간단계의 지역 세력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 세력이 이후 漢의 眞番·臨屯·玄菟郡으로 각각 편제·전환된 것이다.

眞番, 臨屯, 沃沮 등이 완전히 독자성을 잃지 않고 朝鮮王에게 복속되어 있었다고 하여 그 단계의 왕을 연맹체의 맹주로 보는 것은 성숙한 중앙집권체제만을 국가의 지배체제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형성기의 국가 형태로 이해되고 있는 ‘초기국가’의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분절적이고 중층적인 지배체제도 국가의 범주에서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고조선에는 기원전 4세기 이후 國王 아래에 卿·大夫, 博士, 兄(加) 등의 관명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 중 國王과 卿·大夫·博士는 戰國의 大國인 燕·齊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兄은 지역 족장에 대한 토착적 존칭으로 이후 夫餘와 高句麗의 兄(加)에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卿·大夫, 博士, 兄 등의 관제가 고조선의 3층위(왕성-대읍-소읍) 국가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자료가 부족해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고조선의 국가구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진전된 후에 다시 논의

126) 유 엠 부진, 1990, 앞의 책, 374쪽.

127) 박대재, 2013, 앞의 글, 262~263쪽.

128) 『三國志』 권30, 東夷傳 東沃沮, “漢初 燕亡人衛滿王朝鮮 時沃沮皆屬焉”.

되어야 할 문제다.

고조선의 정치체제는 고조선의 대외관계와 연결해 볼 때 戰國 燕·齊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조선의 官制에서 大夫와 博士가 함께 보이는 것은 齊와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兄’은 중국의 관제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토착적 성격의 관명으로 이해된다. 戰國系 관명과 토착적 관명의 혼재는 고조선 정치체제의 특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고조선 관제의 혼종성은 그 다음 위만조선 시기에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위만조선이 전국계 이주민과 고조선 토착민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 金貞培, 1973,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高麗大學校出版部.
- 金貞培, 1986,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고려대학교출판부.
- 金貞培, 2000,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신서원.
- 金貞培, 2010,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金哲垞, 1975, 『韓國古代社會研究』, 지식산업사.
- 리지린, 1963,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 박대재, 2013,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경인문화사.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91, 『조선사·부여사·구려사·진국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송호정, 2003,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 유 엠 부진(이항재·이병두 옮김), 1990, 『고조선-역사·고고학적 개요-』, 소나무.
- 尹乃鉉, 1994, 『고조선연구』, 一志社.
- 李基白·李基東, 1982, 『韓國史講座』 I (古代篇), 一潮閣.
-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李鍾旭, 1993, 『古朝鮮史研究』, 一潮閣.
-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 羅新, 2009, 『中古北族名號研究』, 北京大學出版社.
- 安作璋·熊鐵基, 2007, 『秦漢官制史稿』, 齊魯書社.
- 閻步克, 2002, 『品位與職位』, 中華書局.
- 李孔懷, 2007, 『中國古代行政制度史』, 三聯書店.
- 張晉藩 主編, 1992, 『中國官制通史』,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周向永·許超, 2010, 『鐵嶺的考古與歷史』, 遼海出版社.
- 和田清 編, 1945, 『中國官制發達史』, 汲古書院.

논문

- 金光洙, 1994, 「古朝鮮 官名의 系統的 理解」, 『歷史教育』 56.
- 金炳坤, 2000, 「古朝鮮 王權의 成長과 支配力의 性格 變化」, 『東國史學』 34.

- 김정배, 1997, 「고조선의 국가형성」,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김정배, 1997, 「초기국가의 성격」,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盧泰敦, 1998, 「衛滿朝鮮의 政治構造－官名 분석을 중심으로－」, 『汕耘史學』 8.
- 리상호, 1963, 「단군고」, 『고조선에 관한 토론 논문집』, 과학원출판사.
- 문창로, 2009, 「夫餘의 官制와 그 계통적 접근」, 『韓國學論叢』 31.
- 박대재, 2001, 「『三國遺事』 古朝鮮條 인용 魏書論」, 『韓國史研究』 112.
- 박대재, 2005, 「古朝鮮의 ‘王’과 國家形成」, 『北方史論叢』 7.
- 박대재, 2006, 「古朝鮮과 燕·齊의 상호관계」, 『史學研究』 83.
- 박대재, 2010, 「箕子 관련 商周青銅器 銘文과 箕子東來說」, 『先史와 古代』 32.
- 박대재, 2013, 「국가형성기의 복합사회와 초기국가」, 『先史와 古代』 38.
- 박대재, 2014, 「古朝鮮과 齊의 해상교류와 遼東」, 『韓國史學報』 57.
- 서영대, 2009, 「단군 인식의 변천」, 『고조선 연구 100년－고조선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학연문화사.
- 徐榮洙, 1988, 「古朝鮮의 위치와 강역」, 『韓國史市民講座』 2, 一潮閣.
- 서영수, 2005, 「고조선의 국가형성 계기와 과정」, 『北方史論叢』 6, 고구려연구재단.
- 宋鎬錫, 2002, 「衛滿朝鮮의 정치체제와 삼국 초기의 부체제」, 『國史館論叢』 98.
- 吳江原, 2003, 「遼寧~吉林地域 青銅刀子의 型式과 時空間的 樣相」, 『古文化』 61.
- 吳江原, 2013, 「청동기~철기시대 요령·서북한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東洋學』 53.
- 尹乃鉉, 1986, 「古朝鮮의 社會性格」, 『韓國古代史新論』, 一志社.
- 윤상열, 2007, 「고조선의 天下觀에 관한 試論」, 『史學研究』 88.
- 李基白, 1988, 「古朝鮮의 國家 형성」, 『韓國史市民講座』 2, 一潮閣.
- 趙法鍾, 1994, 「한국고대신분제연구」, 『國史館論叢』 52.
- 金德建, 1988, 「論稷下學派與秦漢博士的關係」, 『管子學刊』 1988-4.
- 武田幸男, 1989, 「高句麗官位制の史的展開」,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 白鳥庫吉, 1896, 「朝鮮古代官名考」, 『史學雜誌』 7-4; 1986, 『朝鮮史研究』, 岩波書店.
- 白鳥庫吉, 1911, 「東胡民族考(4)」, 『史學雜誌』 22-1; 1970, 『塞外民族史研究(上)』 (白鳥庫吉全集4), 岩波書店.
- 范恩實, 2013, 「高句麗品位制與國家政治結構特徵」, 『夫餘興亡史』,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鐵嶺市博物館, 2011, 「遼寧西豐縣東溝遺址及東溝墓葬發掘簡報」, 『考古』2011-5.
- 劉澤華, 1987, 「戰國大夫辨析」, 『史學集刊』1987-1.
- 李殿福, 1991, 「建平孤山子·榆樹林子青銅時代墓葬」, 『遼海文物學刊』1991-2.
- 張波, 1984, 「新賓縣永陵公社色家發現石棺墓」, 『遼寧文物』1984-6.
- 趙少軍, 2014, 「遼北地區青銅時代石構墓葬初步研究-以清河·寇河流域石棺墓為中心-」, 『寶雞文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2014-10.
- 周向永, 2005, 「遼寧開原建材村所出銅刀銘文涵義考」, 『北方文物』2005-1(81).
- 彭澤平·李茂琦, 1997, 「中國古代博士考略」, 『文史雜誌』1997-1.
- 許志國, 2000, 「遼寧開原市建材村發現刻銘青銅刀」, 『考古』2000-5.
- 許志國, 2000, 「遼寧開原市建材村石棺墓群」, 『博物館研究』2000-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 초록]

고조선의 정치체제

박대재

고조선의 정치발전 과정은 왕호의 변화에 따라 초기의 고유 왕호인 '왕검' 단계에서 기원전 4세기 후반 이후 중국식 왕호인 '왕' 단계로의 발전으로 요약된다. 기원전 323년 이후 고조선 정치체제의 중추에는 '王'이 있었고 그 관료로 大夫가 있었다. 고조선의 대부는 전국시대의 中大夫와 비슷한 爵位와 職官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 존재로 이해된다. 대부의 존재로 미루어 보아 고조선의 관제에서 卿의 존재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고조선 말기의 관제인 博士는 변경 지방의 일정 지역에 대한 主宰權을 국왕으로부터 위임받고 국왕과 의례적인 공납관계로 묶여 있었던 존재로 이해된다. 고조선 관제에서 대부와 박사가 함께 보이는 것은 전국시대 齊의 관제와 가장 유사한 특징이다. 최근 遼東 鐵嶺에서 알려진 '兄'銘 銅刀는 美松里型土器, 扇形銅斧 등과 함께 石棺墓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고조선과 관련될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 '兄'이 중국의 官制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조선의 후신인 夫餘나 高句麗의 '兄(加)'과 같은 성격, 즉 族長的 성격의 토착 官名으로 유추된다.

주제어

古朝鮮, 王儉, 王, 卿, 大夫, 博士, 兄, 加, 夫餘, 高句麗

[ABSTRACT]

The Government System of Old Joseon

Park Daejae

The changes of the titles of kings, such as of the native title “wanggeom(王儉)” in the early period to the Chinese-style title “wang”(王) in the fourth century BCE, is one of the outstanding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al development processes in Old Joseon(古朝鮮). After 323 BCE, there was a king at the center of Old Joseon’s government system and Daebu(大夫, *Dafu* in Chinese) as officials. Typically, historians explain that Old Joseon’s Daebu had the dual characteristics of a title and an official, which resembles the term Zhongdafu(中大夫) in China’s Warring States period(戰國時代). Considering the existence of Daebu, it is likely that there was also a Gyeong(卿, *Qing* in Chinese) in Old Joseon’s government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Baksa(博士) was delegated the governing authority over a local area from the ruler, and the ruler and the Baksa were connected through a ritualistic tributary relationship. That Old Joseon’s government system has Daebu and Baksa resembles Qi(齊)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A recently excavated bronze sword engraved with the character *hyeong*(兄) in Tieling(鐵嶺), Liaodong(遼東), is quite likely a relic of Old Joseon, since it was excavated from a stone-coffin tomb with Misong-ri style earthenware(美松里型土器) and a fan-shaped bronze axe(扇形銅斧). Considering the fact that *hyeong* cannot be found in the Chinese government system, it is quite possible that Hyeong was the title of a chiefdom-style official in Old Joseon, and had the same features of the

Hyeong – Ga(加) in Buyeo and Goguryeo.

Keywords

Old Joseon(古朝鮮), Wanggeom(王儉), Wang(王), Gyeong(卿), Daebu(大夫), Baksa(博士), Hyeong(兄), Ga(加), Buyeo(夫餘), Goguryeo(高句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美松里型土器文化의 動態와 分布圈

배진성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고고학과 부교수



I. 머리말

중국 동북지역에서 한반도에 걸쳐 분포하는 미송리형토기와 요령식동검은 청동기시대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동태(動態)를 대변해 주는 자료이며, 이들로 대표되는 물질문화는 위만조선 이전의 고조선과 관련된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요령식동검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더욱 치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조선과 관련해서는 큰 진전이 없으며, 요령식동검은 고조선의 범위를 벗어난 요서지역이나 한반도 남해안지역에서도 출토된다. 이에 비해 미송리형토기는 청동기시대의 토기 중에서도 기형과 문양에서 개성이 강하며, 요동지역과 한반도 서북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어 요령식동검에 비해 공간적 범위도 한정적이다. 토기는 동검보다 상징성은 약하지만 당시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고고자료이며, 종족이나 집단의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다.

※ 투고: 2014년 8월 13일, 심사 완료: 2014년 10월 28일, 게재 확정: 2015년 2월 23일

이 글은 고조선 관련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송리형토기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그 분포권과 고조선과의 관련을 조망하기 위해 승인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연구의 흐름을 개관하고, 상이하게 통용되고 있는 미송리형토기의 명칭과 개념부터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이어서 미송리형토기의 발생과 전개에서는 비교적 이견이 적은 상대편년안을 채용하면서 일부 필자의 편년안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미송리형토기와 요령식동검이 함께 분포하는 미송리형토기문화권을 지역색에 따라 세분하고, 고조선과의 관련 및 중심 권역에 대해서도 언급해보고자 한다.

Ⅱ. 미송리형토기 연구의 시작과 전개

1_ 연구의 효시와 성과

1959년 평안북도 의주군 미송리 동굴유적의 상층에서 미송리형토기라는 독특한 형태의 토기가 출토되어 청동기시대 말기의 것으로 언급되었다.¹⁾ 곧이어 기원전 천년기 전반기라는 시간적 범위로 위치지어졌고,²⁾ 세죽리유적의 주거지 중복관계에서 미송리형토기와 묵방리형토기의 선후관계가 파악되었다.³⁾ 그리고 전형(典型)의 요령식동검이 출토되는 강상묘에서 유상(瘤狀)·구순상과수(口脣狀把手)와 같은 미송리형토기의 요소가 확인되면서 미송리형토기와

-
- 1) 김용간, 1963, 「미송리 동굴 유적 발굴 보고」, 『고고학자료집』 제3집, 과학원출판사.
 - 2) 김용간, 1963, 「미송리유적의 고고학적 위치」, 『朝鮮學報』 26; 김용간, 1964, 「우리 나라 청동기 시대의 년대론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고고민속』 2호, 사회과학원출판사.
 - 3) 김영우, 1964, 「세죽리 유적 발굴 중간 보고(2)」, 『고고민속』 4호, 사회과학원출판사.

요령식동검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되었고, 양자(兩者)로 대표되는 고고학적 양상을 문헌기록에 나오는 고조선과 관련짓기 시작하였다.⁴⁾ 이처럼 북한 학계에서는 1960년대부터 고조선 전기를 미송리형토기와 요령식동검, 고조선 후기를 세형동검에 대응시키면서⁵⁾ 의욕적인 연구를 이끌었다.

이후 전형의 미송리형토기와 요령식동검이 공반하는 석관묘가 요동반도의 쌍방을 비롯한 여러 유적에서 확인되면서 활발한 연구가 전개되어 왔다. 동북아시아 선사토기의 전반적인 변화와 흐름 속에 미송리형토기의 편년적 위치가 설정되고,⁶⁾ 미송리 상층 토기의 세분과 함께 이를 포함한 문화에 대한 논의도 시도되었다.⁷⁾ 이러한 편년 중심의 연구와 더불어 황기덕은 전형의 요령식동검과 미송리형토기가 분포하는 요동~한반도 서북지역의 유구와 유물 조합상을 고조선에 대응시키고 그 기본적인 주민을 예족(濊族)이라고 함으로써,⁸⁾ 미송리형토기문화의 역사성을 더욱 견고히 하였다. 미송리형토기가 동북아시아 청동기문화의 연구에서 주요 대상의 하나가 된 데에는 이와 같은 북한학계의 조사와 연구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한·중·일의 동북아시아 청동기시대 연구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4) 김용간·황기덕, 1967, 「기원전 천년기 전반기의 고조선문화」, 『고고민속』 2호, 사회과학원출판사.

5)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69, 「기원전 천년기 전반기의 고조선문화」, 『고고민속 논문집』 1, 사회과학출판사.

6) 宮本一夫, 1985, 「中國東北地方における先史土器の編年と地域性」, 『史林』 第67卷 第2號.

7) 西谷正, 1978, 「美松里洞窟出土の無文土器」, 『史淵』 第115輯; 西谷正, 1990, 「美松里型土器とその文化について」, 『史淵』 第127輯.

8) 황기덕, 1989, 「비파형 단검문화의 미송리류형-1. 미송리류형의 유적유물과 그 년대」, 『조선고고연구』 제3호,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황기덕, 1989, 「비파형 단검문화의 미송리류형-2. 미송리류형 유물갖춤새의 특징」, 『조선고고연구』 제4호,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황기덕, 1990, 「비파형 단검문화의 미송리류형-3. 미송리류형문화의 주민」, 『조선고고연구』 제1호,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_ 연구의 진전과 변화

위와 같은 1980년대까지의 연구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은 요동반도와 한반도 서북지역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는 요하(遼河)의 동쪽 지류인 태자하~혼하~청하~관하유역의 요북지역에서 관련 유적들이 속속 조사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송리형토기의 기원 및 형성에 대해 요동반도보다 요북지역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정한덕은 중국 동북지역의 자료를 자세히 다루면서 논의의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⁹⁾ 그는 기존의 요동반도 중심에서 요동 북부와 길림지역을 포함한 광범위에서의 공통성과 지역성을 검토하면서, 미송리형토기의 발생지에 대해 요동반도가 아닌 요북지역을 주목하였다. 이때부터 미송리형토기의 최고(最古) 형식과 기원에 대한 논의의 중심은 요동반도에서 요동 내륙의 요북지역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마성자문화(馬城子文化)로 대표되는 태자하유역의 동굴묘가 보고되고,¹⁰⁾ 이를 토대로 미송리형토기의 기원 혹은 초기 형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¹¹⁾ 요북지역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들에 힘입어 미송리형토기의 편년 연구가 심화되고 있으며,¹²⁾ 특히 대관정부(大貫靜夫)는 미송리형토기의 분포권과 각 유적별 토기양상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미송리형토기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편년을 제시하고 있다.¹³⁾

한편, 이러한 연구의 흐름과는 달리 미송리형토기 연구의 효시를 이끌어

9) 鄭漢德, 1990, 「美松里型土器の生成」, 『東北アジアの考古學(天池)』, 六興出版; 鄭漢德, 1992, 「嶺南地方 무문토기문화 변천에 관한 몇가지 문제」, 『伽倻考古學論叢』 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1994, 『馬城子—太子河上游洞穴遺存』, 文物出版社.

11) 李恭篤·高美璇, 1995, 「遼東地區石築墓與弦紋壺有關問題研究」, 『遼海文物學刊』 第1期.

12) 金美京, 2006, 「美松里型 土器의 변천과 성격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60.

13) 大貫靜夫, 2008, 「雙房型壺を副葬した石棺墓の年代」, 『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 新彌生時代のはじまり 第3卷, 雄山閣.

왔던 북한학계는 1990년대에 와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관점을 보인다. 대동강 유역에 미송리형토기 출토 유적이 적지 않고, 요동지역에 비해 주거지에서도 다수 출토되는 점, 팽이형토기의 저부와 유사한 형태가 있는 점 등을 통해 요동지역과 압록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대동강유역이 미송리형토기의 중심지이자 발생지라는 견해를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 또 표대유적 등의 조사 성과를 이용하여 평양 일대에서 시작된 미송리형토기가 압록강 유역 및 요동지역으로 파급되었고, 급기야 요령식동검의 발원지와 중심지도 평양지역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¹⁴⁾ 평양 일대의 역사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획일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는 단군릉을 비롯하여 1990년대부터 북한의 고고학이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는 상황에 기인할 것이며, 이러한 학문의 순수성 상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

그리고 미송리형토기의 연대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파악해 둘 수 있다. 황기덕은 처음에는 강상묘와 같은 기원전 8~7세기라고 하였다가 그 이전으로 올려 보았다.¹⁵⁾ 김동일은 전형의 미송리형토기가 출토되기 시작하는 쌍방의 연대를 타두 적석묘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인 BP 3280±83보다 조금 늦게 잡아 대략 기원전 12세기경으로 추정하였고,¹⁶⁾ 로성철도 요령식동검이 출토된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를 고려하여 기원전 13~10세기로 보았다.¹⁷⁾ 이처럼 북한에서는 미송리형토기의 연대를 주로 서주시대에 두었다. 반면, 靳楓毅는 중원지역의 자료와 대비하여 쌍방유적의 상한을 기원전 8세기로 보았고,¹⁸⁾ 정한덕¹⁹⁾·西谷正²⁰⁾·宮本一夫²¹⁾도 이 연대관을 취하고 있어 춘추시

14) 김광철, 1999, 「평양지방 미송리형단지의 특징」, 『조선고고연구』 제2호; 김광철, 2002, 「조룡박형단지의 연원」, 『조선고고연구』 제4호; 석광준, 1994, 「평양은 고대문화의 중심지」, 『조선고고연구』 제1호; 김종혁, 1996, 「표대부락터유적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2호; 김종혁, 2000, 「표대유적의 조룡박형단지에 대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제1호 등.

15) 황기덕, 1989, 앞의 글.

16) 김동일, 1985, 「서북조선과 료동지방의 돌상자무덤에 대하여」, 『력사과학』 제3호.

17) 로성철, 1993, 「미송리형단지의 변천과 그 연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4호.

18) 靳楓毅, 1982,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 『考古學報』 第四期, 科學出版社.

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미송리형토기의 중심 연대에 대해 서주 시대와 춘추시대의 두 갈래로 크게 나뉘어져 왔다.

근래에 미송리형토기를 세 기(期)로 편년한 연구에서는 가장 늦은 Ⅲ기 이전의 시간적 범위를 상말주초(商末周初)~춘추 중기에 두고 있다.²²⁾ 그 외의 여러 연구에서도 미송리형토기의 주요 속성들이 보이는 사례의 상한을 기원전 11~10세기, 하한을 대략 기원전 7세기경으로 보고 있다.²³⁾ 따라서 최근 전형 미송리형토기의 연대는 서주~춘추 전·중기로 보는 입장이 대세임을 알 수 있다.

Ⅲ. 미송리형토기의 발생과 전개

1_ 미송리형토기의 용어와 개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미송리형토기라는 용어와 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미송리형토기의 성격이 분명치 않았던 때에는 박수장경병(薄手長頸瓶)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지만,²⁴⁾ 미송리유적의 발굴조사와 북한학계의 연구에 의해 그 성격이 밝혀지면서 '미송리형토기'라는 학술적 용어가 정착되어 왔다. 그

19) 鄭漢德, 1990, 앞의 글.

20) 西谷正, 1990, 앞의 글.

21) 宮本一夫, 1985, 앞의 글.

22) 李恭篤·高美璇, 1995, 앞의 글; 金美京, 2006, 앞의 글.

23) 王巍, 1993, 「夏商周時期遼東半島和朝鮮半島西北部的考古學文化序列及其相互關係」, 『中國考古學論叢』, 科學出版社; 楊榮昌, 2007, 「遼東地區青銅時代石棺墓葬及相關問題研究」, 『北方文物』第1期; 大貫靜夫, 2008, 앞의 글; 華玉冰·王來柱, 2011, 「新城子文化初步研究」, 『考古』第6期.

24) 三上次男, 1962, 『滿鮮原始墳墓の研究』, 吉川弘文館.

런데도 중국에서는 이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곡경호(曲頸壺)와 고복호(鼓腹壺) 등 서로 다른 용어로 부르기도 하며,²⁵⁾ 여러 보고문에서 문양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다지 발전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북한학계의 연구 성과에 대한 고려나 배려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근래에는 주로 현문호(弦紋壺)²⁶⁾나 쌍방형호(雙房型壺)²⁷⁾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해당 자료가 출토된 최초의 표지 유적명을 붙이는 일반적인 고고학적 용례를 생각하면 미송리형토기라는 용어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 토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첫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분포권과 그에 대한 고고학적 해석이 활발히 시도되면서 연구사 속에서 확립되고 정착된 용어가 ‘미송리형토기’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중국 요동지역이 주요 유적과 전형적인 자료가 다수 확인되면서 이 토기의 중심지역으로 주목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연구사적으로 확립되어 온 용어를 배제하는 것은 학문적인 자세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앞 장에서 본 것과 같이 연구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미송리형토기이지만 그 개념에는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북한학계에서는 표면이 마연되고 동체부 및 구경부에 횡집선문이 돌아가며 횡교상(橫橋狀) 혹은 구순상파수가 부착된 장경(長頸)의 호형토기를 전형적인 미송리형토기로 정의하였다.²⁸⁾ 이것은 호라는 기종 내에서도 특정한 종류를 지칭하므로 이른바 형식(型式)의 개념에 상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연구자에 따라서는 전형의 미송리형토기와 함께 출토되는 파수부용·이중구연각목문토기·대부토기(臺附土器)·무문의 파수부장형호 등도 미송리형토기의 범주에 넣음으로써 미송리형토기를 토기 양식(樣式)의 개념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여기서 두 개념에 대

25) 蘭新建·李曉鐘, 1993, 「遼寧地區商周時期陶壺研究」, 『青果集』, 吉林大學出版社.

26) 李恭篤·高美璇, 1995, 앞의 글.

27) 大貫靜夫, 2008, 앞의 글.

28)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67, 「미송리형단지」, 『고고민속』 2호.

한 가부나 양자택일을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토기 양식으로서의 미송리형토기 가운데 가장 특징적이고 대표성을 띠는 것이 황집선문과 황교상·구순상파수가 있는 호라고 한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다. ‘미송리형호’나 ‘쌍방형호’라는 용어가 종종 사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송리형토기라고 하면 긴 구경부(口頸部)에 황집선문과 황교상·구순상파수 등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호형토기를 가리킨다. 이와 공반하기도 하는 이중구연각목문토기 등은 시간적·공간적 범위가 훨씬 넓어 미송리형토기와 생사(生死)를 함께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미송리형토기를 형식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²⁹⁾

2_ 미송리형토기의 발생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전형이면서 이른 형식으로 인정되어 왔던 것은 쌍방 6호묘³⁰⁾ 출토의 호이다(〈그림 2〉 3·4). 이것의 발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전개되어 왔으며, 미송리형토기 연구에서 논의가 많았던 부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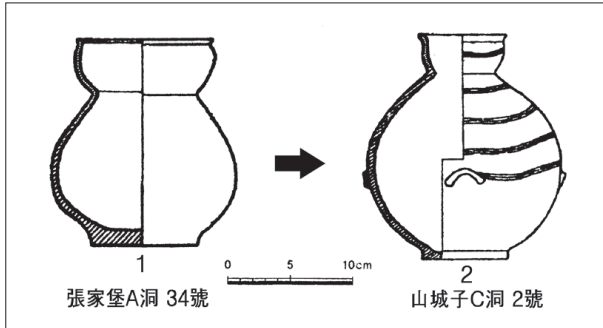
미송리형토기 이전 시기인 쌍타자Ⅲ기나 신암리Ⅱ기에 유사한 속성들이 있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있었고,³¹⁾ 황교상파수가 위쪽을 향해 경사지게 부착된 접관청 석관묘³²⁾ 출토품도 미송리형토기의 발생과 관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송리형토기의 기원형으로 가장 주목되었던 것은 황집선문과 구순상에

29) 한편, 아래의 문헌에서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분류되고 그에 따라 편년에도 차이가 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공통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여, 발형의 구경부를 갖춘 것을 모두 ‘미송리형호’에 포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대상 자료의 시공간적인 범위를 넓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길림지역의 서단산 문화까지 미송리형토기문화에 포함되는 집에는 의문부호가 뒤따를 수 있다. 吳江原, 2014, 「遼東~西北韓地域 美松里型壺의 지역문화와 사회문화적 함의」, 『韓國上古史學報』 第85號.

30) 許玉林·許明綱, 1983, 「新金雙房石柵和石蓋石棺墓」, 『文物資料叢刊』 7.

31)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69, 앞의 글, 117쪽.

32) 遼陽市文物管理所, 1983, 「遼陽市接官廳石棺墓群」, 『考古』 1.



〈그림 1〉 요북지역 미송리형토기의 발생(1/6.5)

가까운 파수가 있는 타두 적석묘³³⁾ 출토품(〈그림 2〉 1·2)이다.³⁴⁾ 한반도가 아닌 요동반도의 청동기문화를 다룬 연구에서도 타두 적석묘에서 쌍방 6호묘로의 순서는 거의 고정적이어서,³⁵⁾ 타두 적석묘의 호는 미송리형토기의 전신(前身)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미송리형토기의 발생이 논해져 왔는데, 1990년대부터는 요북지역의 이른바 마성자문화를 주목하기 시작하였다.³⁶⁾ 이공득·고미선은 마성자유적의 토기 편년에 근거하여 마성자 상층의 늦은 단계에 해당하는 장가보 A동 34호묘의 호를 미송리형토기의 기원 형식으로 보고, 이것이 황집선문과 구순상파수가 있는 산성자 C동 2호묘의 호로 발전한 것으로 구체화시켰다(〈그림 1〉).³⁷⁾ 이후 이 견해가 꽤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요북지역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고, 정한덕³⁸⁾과 오강원³⁹⁾도 같은 견해를 전개시켰다.

33) 旅順博物館·遼寧省博物館, 1983, 「大連于家村砮頭積石墓地」, 『文物』 9.

34) 靳楓毅, 1982, 앞의 글; 김동일, 1985, 앞의 글; 황기덕, 1989, 앞의 글; 로성철, 1993, 앞의 글; 宮本一夫, 1985, 앞의 글, 19쪽.

35) 蘭新建·李曉鐘, 1993, 앞의 글; 華玉冰·陳國慶, 1994, 앞의 글. 등.

36) 鄭漢德, 1990, 앞의 글; 鄭漢德, 1992, 앞의 글, 15쪽.

37)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1994, 앞의 글.

38) 鄭漢德, 1996, 「美松里型土器形成期に於ける若干の問題」, 『東北アジアの考古學 第二』[天池], 깊은샘.

39) 吳江原, 2014, 앞의 글.

그리고 요북지역에 중점을 두는 연구 가운데 동산 9호묘의 호(〈그림 8〉 27)를 가장 오래된 미송리형토기로 편년한 연구도 적지 않다.⁴⁰⁾ 大貫靜夫는 마성자문화의 편년에서 종교상파수부호(縱橋狀把手附壺)가 횡교상파수부호(橫橋狀把手附壺)에 앞서는 점을 근거로 종교상파수부호(〈그림 8〉 28)와 공반된 동산 9호묘의 횡교상파수부호를 가장 이르게 편년하였다.⁴¹⁾ 동산 9호묘의 호를 요동지역 미송리형토기의 늦은 단계로 편년하는 의견도 있지만,⁴²⁾ 근래의 여러 연구에서 동산 9호묘의 미송리형토기를 고식(古式)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미송리형토기의 기원 및 발생에 대해서는 크게 위의 세 가지 논의로 묶을 수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명쾌하게 정리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타두 적석묘의 호에서 쌍방 6호묘의 호라는 순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장가보의 호 역시 전형의 미송리형토기에 앞서는 것은 분명하고, 동산 9호묘의 종교상파수부호와 미송리형토기의 공반상도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즉 미송리형토기는 蘭新建·李曉鐘의 견해처럼⁴³⁾ 요동반도와 요북지역에서 각기 지역색을 띠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으며, 미송리형토기를 크게 세 가지(쌍방형, 갑방형, 미송리형)로 구분하고 처음부터 세 형식이 공존하면서 출발하였다고 본 견해⁴⁴⁾ 역시 지역색 및 지역적인 전개를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송리형토기가 요동의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기보다는 쌍방을 중심으로 한 요동반도(B), 태자하~관하 유역의 요북지역(A), 그 사이의 동산유적 일대(C)에서 각기 지역색을 띠면서 동시기에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그림 6〉). 발생 이후 미송

40) 徐光輝, 1996, 「遼寧式銅劍의起源について」, 『史觀』 135; 吳世恩, 2004, 「關於雙房文化的兩箇問題」, 『北方文物』 第2期; 金美京, 2006, 앞의 글.

41) 大貫靜夫, 2008, 앞의 글.

42) 楊榮昌, 2007, 앞의 글.

43) 蘭新建·李曉鐘, 1993, 앞의 글.

44) 徐光輝, 1993, 「遼東及西北朝鮮青銅時代陶壺의幾個問題」, 『馬韓·百濟文化』 第十三輯.

리형토기의 전개 및 공반 토기에서 지역색이 보이는 것도 처음부터 지역색을 띠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송리형토기 전체를 한 계열로 보고 일률적으로 상대편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를 내어 오히려 편년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래서 이하 미송리형토기의 전개 역시 지역별 구분을 의식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3_ 미송리형토기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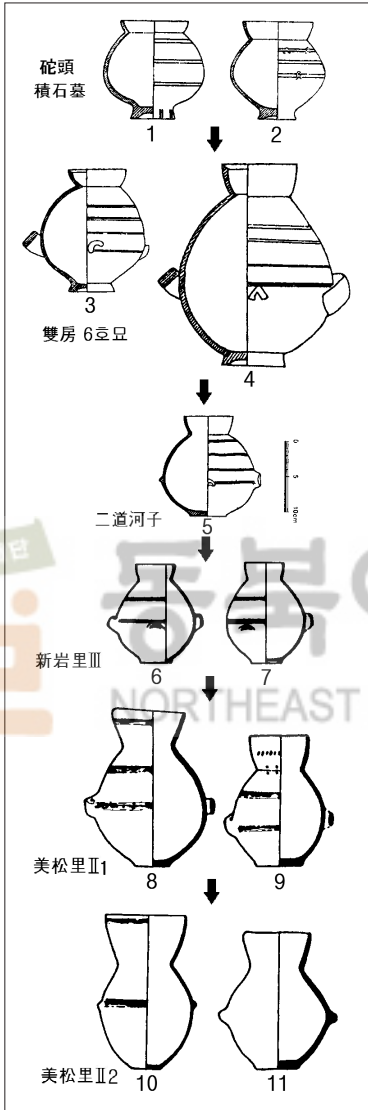
1) 속성의 변화

김미경⁴⁵⁾과 오강원⁴⁶⁾이 정리하였듯이 연구자마다 미송리형토기의 분류 기준이나 주요 속성에 대한 판단이 다르며, 그에 따라 편년에도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기형·구경부·횡집선문·파수의 형태와 수량·동최대경의 위치 등이 미송리형토기의 주요 속성이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를 통해 미송리형토기 주요 속성의 전반적인 변화 경향을 정리해 보면, 구경부는 길이가 짧은 것에서 긴 것으로, 파수는 횡교상파수가 위쪽으로 비스듬하게 부착되어 경사진 형태를 이루는 것에서 동체에 수평방향으로 부착된 것으로 변화한다. 주로 미송리 상층 이전 시기에 확인되는 구순상 파수는 전형 미송리형토기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 쌍의 횡교상파수와 구순상파수가 교대로 부착되는 것에서(〈그림 2〉 3~6), 구순상 파수가 없어지고 횡교상파수만 부착되며(〈그림 2〉 8·9), 미송리Ⅱ2와 그 다음의 묵방리에 와서는 유상파수(〈그림 2〉 10·11)로 변화한다. 하나의 횡집선문대를 이루는 횡선의 수는 2~4개에서 5~8개로 증가하지만, 횡집선문대의 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동최대경의 위치는 하위에서 중위로 옮겨가는

45) 金美京, 2006, 앞의 글.

46) 吳江原, 2014, 앞의 글.



〈그림 2〉 미송리형토기의 일반적인 흐름(1/13)

경향을 보인다.⁴⁷⁾

이와 같은 주요 속성의 변화에 의하면 미송리형토기의 변천은 대체로 쌍방 6호묘→이도하자→신암리Ⅲ→미송리 상층의 순서가 가장 무난하며(〈그림 2〉), 고식 요령식동검의 편년이 쌍방 6호묘→이도하자 1호묘 출토품이라는⁴⁸⁾ 점과도 상응한다. 이렇게 몇몇 표지 자료의 상대편년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자료가 늘어나면서 편년 연구의 결과도 더 다양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송리형토기 전체를 하나의 계열로 줄 세우듯 상대편년하려 한다면, 층위적 근거가 없는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편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서서와 같이 미송리형토기가 요동지역 내에서도 지역색을 띠면서 여러 곳에서 유사한 시점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 보듯이 미송리형토기 분포권 내에서도 상이한 특징과 전통이 인정되므로 미송리형토기의

47) 한편, 구연부가 잘록하게 좁혀진 후 외반하여 S자 형태를 이루는 것이 요북지역의 이른 형식에 있어 시간성으로 파악되고 있지만(〈그림 1〉), 늦은 형식인 대동강 유역의 미송리형토기에도 있어(〈그림 7〉 23)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속성은 아닐 것이다.

48) 靳楓毅, 1982, 앞의 글.

편년 역시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고식의 미송리형토기가 있는 요동반도, 요북지역, 두 지역 사이에 위치한 동산유적 일대, 그리고 고식은 없지만 미송리형토기가 전개된 압록강~청천강유역과 기형에서 지역색이 뚜렷한 대동강유역으로 구분하였다(〈그림 6〉).

2) 지역별 전개

요동반도(B)의 경우 미송리형토기와 요령식동검이 공반된 쌍방 6호묘라는 표지 자료가 있지만, 그 이후의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림 2〉처럼 태자하유역의 이도하자⁴⁹⁾나 압록강유역의 신암리⁵⁰⁾ 및 미송리 출토품과 함께 상대편년 되어 왔고, 요동반도 내에서의 변천 과정은 사실상 불명이다. 그리고 요동반도와 요북지역 및 한반도 서북지역 사이의 마치 삼각점에 위치한 동산유적 일대(C)에도 고식으로 논의되는 미송리형토기가 있지만, 그 이후의 것으로는 서산 1호묘 출토품 정도뿐이며 주변에서 관련 유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요동반도와 마찬가지로 미송리형토기의 변천 양상은 불명료한 형편이다.

일찍부터 연구가 진전된 압록강~청천강유역(D)의 경우, 미송리 상층의 토기는 西谷正에 의해 횡교상파수가 있는 미송리Ⅱ1과 동체에 1조의 황집선문대와 유사파수가 있는 미송리Ⅱ2로 세분되었고(〈그림 2〉 8~11),⁵¹⁾ 이것이 여러 편년 연구에 수용되어 왔다.⁵²⁾ 신암리Ⅲ과 미송리Ⅱ를 동시기로 보거나⁵³⁾ 쌍방과 신암리Ⅲ의 미송리형토기를 같은 형식으로 묶기도 하지만,⁵⁴⁾ 대체로 신

49) 遼陽市文物管理所, 1977, 「遼陽二道河子石棺墓」, 『考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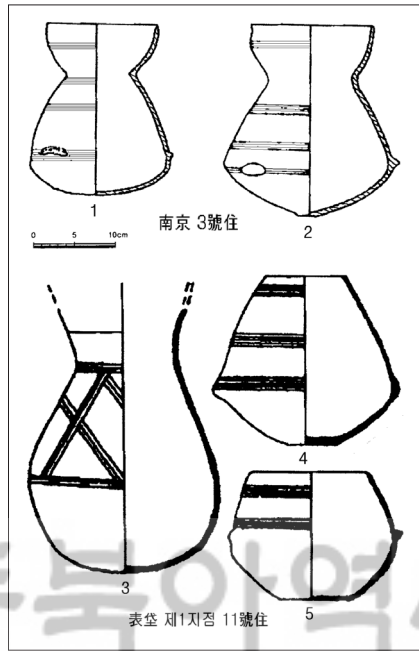
50) 리순진, 1965, 「신암리 유적 발굴 중간 보고」, 『고고민속』 제3호.

51) 西谷正, 1978, 앞의 글, 175주.

52) 藤口健二, 1985, 「朝鮮無文土器と彌生土器」, 『彌生文化の研究』 3, 雄山閣; 鄭漢德, 1992, 앞의 글.

53) 後藤直, 1971, 「西朝鮮의「無文土器」について」, 『考古學研究』 第17卷 第4號.

54) 로성철, 1993,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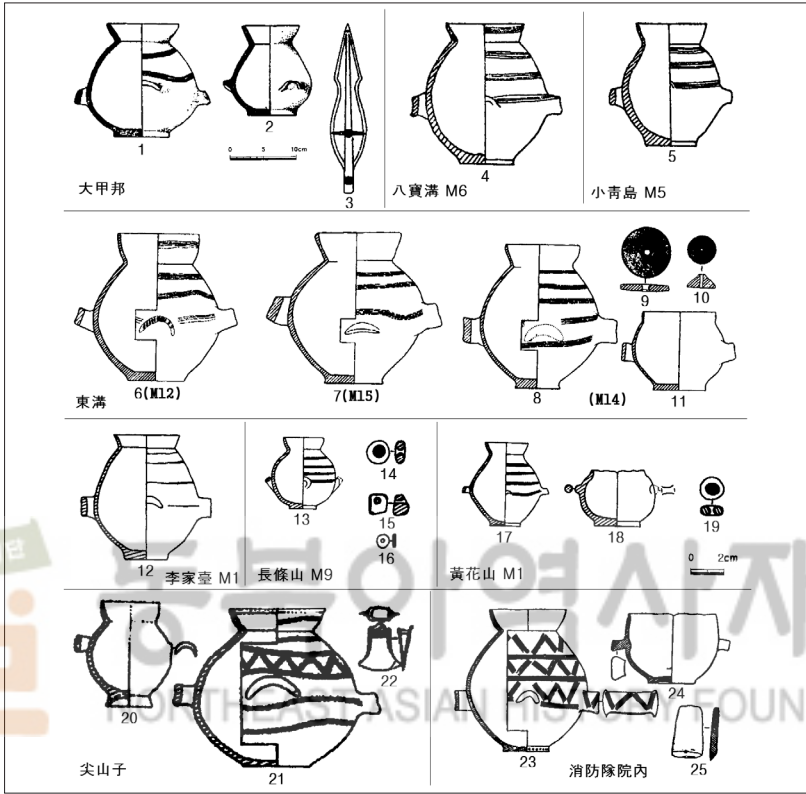


〈그림 3〉 대동강유역의 미송리형토기(1/9)

암리Ⅲ이 미송리Ⅱ에 선행한다는 견해가 많다. 쌍방이나 이도하자와 유사한 신암리Ⅲ과 구순상파수가 탈락된 미송리Ⅱ의 선후관계는 타당할 것이다(〈그림 2〉). 황기덕은 신암리Ⅲ의 미송리형토기(〈그림 2〉 6·7)를 쌍방과 이도하자 출토품 사이에 두었지만,⁵⁵⁾ 동최대경의 위치나 전체적인 기형 및 횡집선문대의 수를 고려할 때 이도하자와 미송리Ⅱ 사이에 오는 것이 형식적으로 어울린다.

미송리형토기 분포권의 가장 남쪽인 대동강유역(E)은 남경 출토품처럼(〈그림 3〉 1·2) 동체 하부가 각을 이루듯이 꺾이는 것과 북창 대평리 및 황주 고연리처럼 구형의 동체부에 파수가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그림 7〉 23). 이처럼 기형에서 지역색이 강하다보니 요동이나 압록강유역과 직접적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정한덕은 남경 출토 미송리형토기에 대해 파수가 간략화된 점에서

55) 황기덕, 1989, 앞의 글.



〈그림 4〉 요북지역의 미송리형토기(1/11, 14~16 · 19는 1/4)

미송리Ⅱ보다 늦게 편년하였다가, 이도하자와 거의 같은 시기라고 기술하기도 하고, 또 산성자와 비교하여 이른 시기로 편년하기도 하였다.⁵⁶⁾ 이같은 혼란은 아마도 대동강유역 미송리형토기의 강한 지역색 때문이었을 것이다. 현재 대동강유역의 미송리형토기는 대체로 미송리Ⅱ~묵방리단계로 편년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판단된다.⁵⁷⁾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황교상파수와 구순상파수가 교대로 부착되는 전형의 형식이 보이지 않아 신암리Ⅲ보다는 분명히

56) 鄭漢德, 1990, 앞의 글, 119·128쪽; 鄭漢德, 1996, 앞의 글, 220쪽.

57) 金美京, 2006, 앞의 글.

늦기 때문이다. 동체에 3조의 횡집선문대와 구순상파수가 있는 남경 3호⁵⁸⁾ 출토품이 대동강유역에서는 비교적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그림 3〉 1·2), 표대 11호에서⁵⁹⁾ 이와 유사한 것이 묵방리형토기에 가까운 것과 공반되었다(〈그림 3〉 3~5).⁶⁰⁾ 이를 중시한다면 대동강유역 미송리형토기의 상한은 묵방리형토기 직전 단계인 미송리Ⅱ2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르게 보더라도 미송리Ⅱ1을 넘지는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요북지역(A)은 위의 지역들에 비해 미송리형토기 출토 유적의 분포 밀도가 높고, 최근 양호한 자료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태자하·혼하유역의 경우 장가보 A동 34호묘 토기를 기반으로 성립된 산성자 C동 2호묘의 호를 미송리형토기의 가장 이른 형식으로(〈그림 1〉) 인식해⁶¹⁾ 왔던 데 대해, 楊榮昌은 산성자 출토품을 이도하자 단계로 편년하였다.⁶²⁾ 大貫靜夫도 밝히고 있듯이⁶³⁾ 원형의 동체부와 굴곡이 많은 횡집선문대를 특징으로 하는 산성자의 호는 형식적으로 볼 때 쌍방의 호보다 선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성자의 호를 태자하유역의 지역적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서 쌍방과는 계통이 다르다고 본다면 고식에 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장가보 출토품과 산성자 출토품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자료의 검출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대갑방⁶⁴⁾ 출토품은 굴곡이 심한 횡집선문대가 2조 있는 것이 횡집선문대 없이 세 개의 파수만 부착된 호와 공반하는(〈그림 4〉 1·2) 점에서 이도하자 다음에 편년할 수 있다. 이후 동체부가 원형에 가까운 기형으로 변화한 소청도·팔보구 M6⁶⁵⁾ 출토품 등이 위치할 것이다

58) 김용간·석광준, 1984, 『남경 유적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59) 김종혁, 2002, 「표대유적의 제1지점 평이그릇 집자리 발굴보고」, 『마산리, 반굴리, 표대 유적발굴보고』, 사회과학출판사.

60) 〈그림 3〉의 4·5는 구경부가 결실된 것을 재이용한 것이다.

61) 李恭篤·高美璇, 1995, 앞의 글; 鄭漢德, 1996, 앞의 글; 金美京, 2006, 앞의 글.

62) 楊榮昌, 2007, 앞의 글.

63) 大貫靜夫, 2008, 앞의 글.

64) 撫順市博物館考古隊, 1983, 「撫順地區早晚兩類青銅文化遺存」, 『文物』第9期.

65) 佟達·張正岩, 1989, 「遼寧撫順大夥房水庫石棺墓」, 『考古』第2期.

(〈그림 4〉 4·5).

혼하 북쪽의 관하·청하유역에도 여러 유적이 분포한다. 최근 동구 석관묘에서 다수의 자료가 출토되었는데,⁶⁶ 기형과 파수 및 문양 등에서 이도하자를 상한으로 하여 그 이후로 편년될 수 있다(〈그림 4〉 6~8). 이가대·황화산·장조산 출토품(〈그림 4〉 12·13·17)⁶⁷ 등도 대체로 이도하자 이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횡집선문대 사이에 일단 혹은 다단의 거치문이 시문된 것은 관하·청하유역의 지역색으로 인식되었는데,⁶⁸ 최근에는 태자하유역의 통강옥 및 신성자유적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요북지역 전체에 공통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의 편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김미경⁶⁹과 楊榮昌⁷⁰ 등은 성신촌의 호(〈그림 8〉 2)를 늦은 단계로 편년한 반면, 大貫靜夫는 횡교상파수와 종교상파수가 조합되는 특징은 미송리형토기 성립 이전 요북지역의 전통이며, 공반하는 동검도 봉부가 짧은 고식에 해당한다고 하여 쌍방보다 약간 늦거나 적어도 신암리Ⅲ보다는 늦지 않다고 하였다.⁷¹

이처럼 편년에 이견을 보이는 거치상문이 시문된 미송리형토기에 대해 여기서는 최근 보고된 본계 신성자유적의 분묘 배치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성자분묘군은 〈그림 5〉와 같이 세 열로 구분되며, 가장 아래 3열의 분묘는 2열 분묘의 사이 위치하도록 배치되는 점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엄격한 매장순서에 따라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⁷² 1열의 분묘는 한반도 서북지역의 침촌리 긴동지석묘처럼 부석이 깔려 있어 구조적으로도 2·3열의 분묘와는 구분되는데, 이를 토기의 변천과 대응시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열

66) 李龍彬·趙少軍, 2011, 「遼寧西豐縣東溝遺址及墓葬發掘簡報」, 『考古』 5.

67) 遼寧鐵嶺地區文物組, 1981, 「遼北地區原始文化遺址調查」, 『考古』, 第2期; 許志國·莊艷傑·魏春光, 1993, 「法庫石砬子遺址及石棺墓調查」, 『遼海文物學刊』 第1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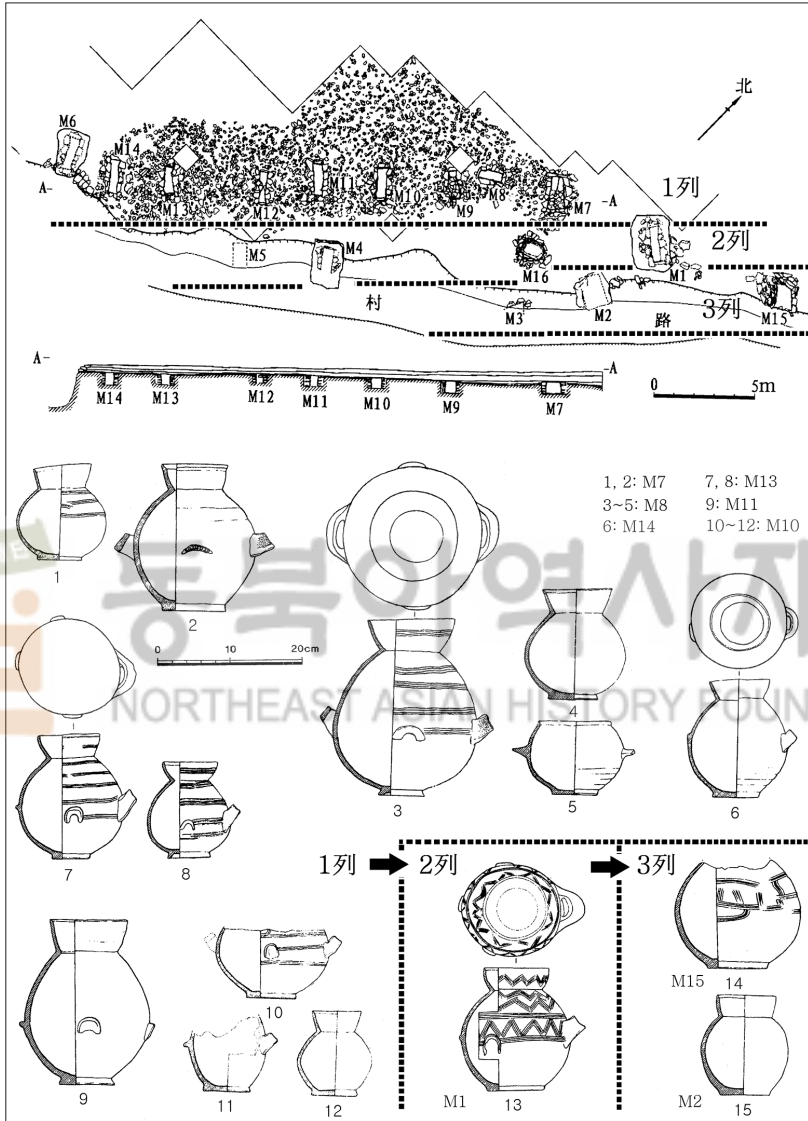
68) 大貫靜夫, 2008, 앞의 글.

69) 金美京, 2006, 앞의 글.

70) 楊榮昌, 2007, 앞의 글.

71) 大貫靜夫, 2008, 앞의 글, 98쪽.

72) 王來柱·華玉冰, 2010, 「遼寧本溪縣新城子青銅時代墓地」, 『考古』 9, 15쪽.



〈그림 5〉 본계 신성자 분묘군과 출토 토기(1/11, 유구배치도의 1~3열 구분선은 필자 삽입)

에서 출토된 미송리형토기는 비교적 전형적인 형식에 속하는데(〈그림 5〉 3·7·8), 두 개 혹은 네 개의 파수 가운데 하나만 돌출적으로 크게 제작하여 부착한 것이 다수 있어 이 유적만의 특색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5〉 6~8·13).⁷³⁾ 그런데 1열의 분묘 아홉 기 가운데 유독 M8호만 주축방향이 다르며, 여기에 부장된 미송리형토기(〈그림 5〉 3)는 앞의 신성자적인 특징보다는 쌍방에서 출토된 두 점의 미송리형토기 가운데 대형품(〈그림 2〉 4)과 규격이나 형태가 유사하다. 따라서 1열의 분묘군 가운데 M8호는 계통이나 출신집단이 다른 인물의 분묘일 가능성도 고려된다. 이에 비해 2열에는 1열에 보이지 않던 다단의 거치문이 보인다(〈그림 5〉 13). 3열의 토기는 원형의 동체부에 파수가 탈락되고 문양의 퇴화가 진행되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가장 늦은 것이 분명하다(〈그림 5〉 14). 1열 M10호 출토품의 결실부 바로 아래 횡집선문 위에 문양의 흔적이 있지만(〈그림 5〉 10), 2·3열 출토품처럼 동체를 일주하는 것은 아니다. M10호에 공반된 장경호의 기형을 보더라도(〈그림 5〉 12) 3열의 M2호 출토품(〈그림 5〉 15)과는 시기 차이가 있다. 따라서 1열 가운데 시간적으로 가장 늦게 축조된 분묘에서 횡집선문대 사이에 문양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동체를 횡으로 일주하는 거치상문이 있는 것은 이보다 늦은 2열의 분묘에서 보이며, 3열에서는 더욱 퇴화된 모습으로 변화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신성자유적의 양상에 근거한다면, 미송리형토기의 속성을 유지하면서 횡집선문대 사이에 거치상문이 시문되는 소방대원내(〈그림 4〉 23) 및 성신촌(〈그림 8〉 2)⁷⁴⁾ 출토품은 이도하자나 신암리Ⅲ기 이후로 편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일단 거치문에서 다단 거치문으로의 변화를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첨산자 출토품처럼(〈그림 4〉 21) 파수 아래에도 횡집선문대가 시문되는 것은 전형에서 다소 벗어난 모습이기 때문에, 성신촌의 사례를 쌍방이나 이

73) 쌍방 6호묘의 미송리형토기 가운데 소형의 것은 한쪽의 횡교상파수가 강조되어 있어, 신성자유적의 이러한 양상은 요동반도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74) 遼寧西豐縣文物管理所, 1995, 「遼寧西豐縣新發現的幾座石棺墓」, 『考古』, 第2期.

도하자와 같은 이른 단계에 편년하기는 어렵다. 거치문 자체는 미송리형토기 분포권에서 신출의 문양이며, 동일하지는 않지만 청천강~대동강유역에서는 묵방리형토기에 와서야 보이는 점에서도 늦은 시기의 문양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4>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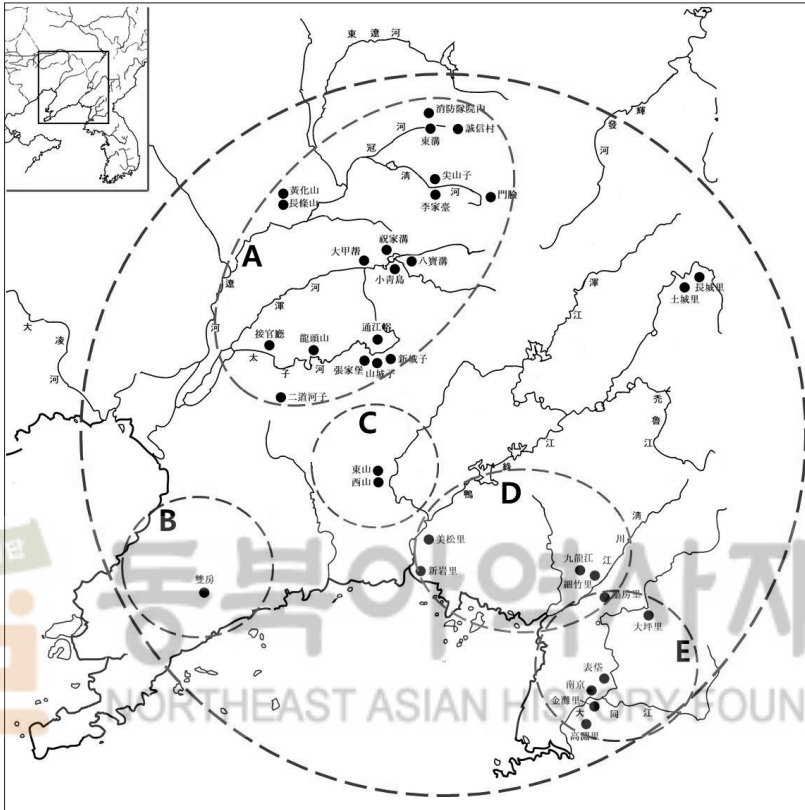
IV. 미송리형토기문화와 분포권

‘미송리형토기문화’란 미송리형토기 및 이와 공반하는 토기, 요령식동검 및 선형동부로 대표되는 청동기, 그리고 석관묘라고 하는 유물과 유구의 복합체로 정의된다.⁷⁵⁾ ‘미송리형토기문화권’이란 이러한 미송리형토기문화의 구성 요소들이 함께 존재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여기서는 미송리형토기문화의 분포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미송리형토기와 함께 주요 구성 요소인 요령식동검은 요서지역부터 한반도 남부지역까지 분포하며, 석관묘 역시 미송리형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곳에서도 확인된다. 또 미송리형토기와 공반하기도 하는 이중구연(각목문)토기는 신석시시대의 산동용산문화와 병행하는 소주산상층기부터 보이며, 요동에서 한반도 남부지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한다.⁷⁶⁾ 요령식동검이나 이중구연토기는 미송리형토기문화의 구성 요소이지만, 미송리형토기의 분포 범위를 벗어나서 출토되는 경우 미송리형토기문화라는 의미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미송리형토기문화권 설정의 핵심은 미송리형토기이며, <그림 6>과 같은 미송리형토기의 분포권이 곧 미송리형토기문화권이다.

한편, 길림지역의 석관묘에서 출토되는 횡교상파수가 부착된 장경호도 미

75) 鄭漢德, 1992, 앞의 글, 1쪽.

76) 裴眞晟, 2012, 『可樂洞式土器의 初現과 系統』, 『考古廣場』 第11號.



〈그림 6〉 미송리형토기문화권과 권역 구분

송리형토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서단산문화를 미송리형토기문화에 포함하기도 한다.⁷⁷⁾ 그러나 서단산문화의 경우 석관모라는 공통성은 있지만 횡집선문과 구순상파수를 포함하는 전형의 미송리형토기는 없다. 또 기종구성에 삼죽기가 포함되는 점은 요동반도~요북~한반도 서북지역과의 큰 차이점이므로,⁷⁸⁾ 길림지역의 서단산문화는 미송리형토기문화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77) 吳江原, 2014, 앞의 글.

78) 金美京, 2006, 앞의 글.

그리고 황기덕이 말하는 ‘비파형단검문화의 미송리유형’⁷⁹⁾ 역시 위의 미송리형토기문화와 동일한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황기덕과 정한덕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황기덕은 단정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요령식동검이 존재하는 공간적 범위 속에서 미송리형토기를 사용하는 주민 혹은 집단을 하나의 지역적 단위로 보고 ‘미송리유형’을 설정하여 고조선과 관련시켰다. 반면, 정한덕은 미송리형토기를 공유하는 여러 다양한 문화의 집합체라는 개념으로 미송리형토기문화를 바라보았다.⁸⁰⁾ 즉 미송리형토기문화권에 대해 황기덕은 문화적 통일체로, 정한덕은 다양한 문화의 집합체로 보았던 것이다. 이 글은 미송리형토기의 지역색을 통한 다섯 개 권역의 구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송리형토기문화권을 하나의 통일체라기보다는 여러 지역문화의 집합체로 보고자 한다.

중국에서는 미송리형토기문화를 쌍방유적을 표지로 하여 쌍방유형⁸¹⁾ 혹은 쌍방문화로 명명한다. 이때 쌍방문화는 대동강유역까지 포함하고 있어,⁸²⁾ 요동반도에 한정하지 않고 미송리형토기문화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본계 신성자유적에서 쌍방과는 다른 절에 주목하여,⁸³⁾ 요북지역의 신성자문화, 대석개묘를 특징으로 하는 동산유형, 적석총을 특징으로 하는 요동반도 서남부의 윤가촌 I 기문화, 쌍방 일대의 쌍방유형이라는 네 개의 권역으로 구분한 연구가 있다.⁸⁴⁾ 또 요령식동검의 규격에서 요서지역 출토품은 최대폭과 길이, 최대폭과 돌기부폭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규칙적인데 비해, 요동에서는 그렇지 않아 동검의 규격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한 원인은 요동의 요령식동검이 요서에 비해 엄격한 통제없이 각지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요동지역은 각 지역에서 주체를 이루는 세력들이 군립(群立)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추론되기도 하였다.⁸⁵⁾ 이러한 연구들은 요령

79) 황기덕, 1989, 앞의 글.

80) 鄭漢德, 1992, 앞의 글.

81) 王巍, 1993, 앞의 글.

82) 吳世恩, 2004, 앞의 글.

83) 王來柱·華玉水, 2010, 앞의 글.

84) 華玉水·王來柱, 2011, 앞의 글.

85) 宮本一夫, 2000, 「遼寧式銅劍文化圏とその社會」, 『中國古代北疆史の考古學的

식동검과 미송리형토기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문화 혹은 유형이 지역적 특색을 가지면서 병존하고 있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권역의 구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미송리형토기문화권 내에 지역별 독자성을 간직한 여러 집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글의 관점과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요동지역의 미송리형토기문화는 전형의 미송리형토기와 고식의 요령식동검이 성립하는 쌍방 6호묘 단계에 A·B·C 세 권역에서 시작되는데, 이때의 요동지역은 요서지역과는 구분되는 청동기문화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동북아시아 역사에서 큰 분기점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후 압록강 이남에도 미송리형토기문화가 전개됨으로써 요북지역에서 대동강유역에 이르는 지역성을 간직한 다섯 개 권역이 광역의 문화권으로 형성되었다는 데에 미송리형토기문화권의 역사적 의의를 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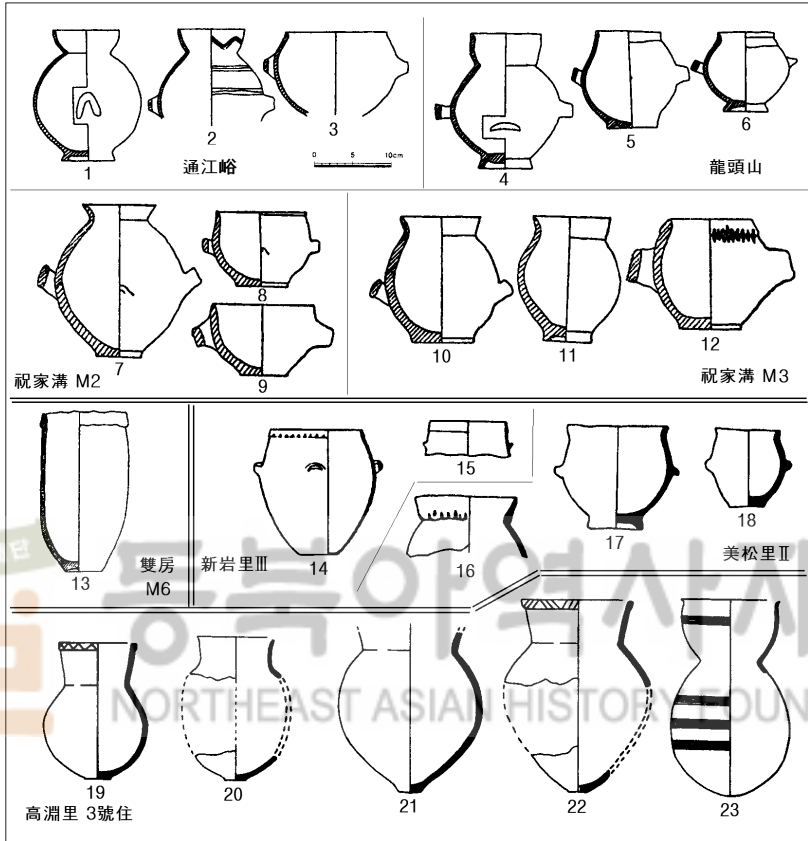


V. 미송리형토기문화권의 검토

1_ 권역별 공반 유물과 유구

미송리형토기 및 공반 토기와 함께 분묘에 부장되었던 유물로는 요령식동검과 동모를 비롯하여 동부·동착·동촉 등의 청동기, 석부·반월형석도·방추차가 주로 확인되며, 일부 석촉이나 어망추 및 환옥 등도 보인다. 이러한 부장유물들은 권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미송리형토기문화권 전체에 공통하는 측면이 강하다.

미송리형토기가 출토되는 분묘는 동굴묘도 있지만 대부분 석관묘이다. 동산유적의 이른바 대석개묘는 C권역에 특징적인 것인데, B·C권역은 조사된 분



〈그림 7〉 미송리형토기와 공반 토기(1/10)

묘 자체가 적어 다수의 유적이 밀집한 A권역 석관묘와의 직접적인 대비가 곤란하다. A권역의 석관묘를 보면, 판석으로 축조한 것과 할석으로 축조한 것, 한 쪽 벽면은 판석으로 하고 다른 쪽은 할석으로 쌓은 것, 판석을 세로로 세워 축조한 것 등 다양한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현재로서 각 권역별 석관묘의 차이보다는 미송리형토기문화권의 석관묘가 다양한 양상으로 축조되었다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비해 공반된 토기조합에서는 각 권역별 차이가 드러난다. 요동반도(B)의 쌍방 6호묘에서는 대소 두 점의 미송리형토기와 이중구연심발 두 점이

공반되었다(〈그림 2〉 3·4, 〈그림 7~13〉). 동산 일대(C)에서는 한 분묘에 미송리형토기는 한 점만 부장되며, 그 중에서 동산 9호묘에는 종교상파수부호가 공반한다(〈그림 8〉 28). 즉, B권역과 C권역은 미송리형토기의 부장 습속과 공반 토기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요북지역(A)은 주로 황교상파수가 부착된 천발과 호 및 파수가 없는 장경호 등이 공반하며(〈그림 7〉 1~12, 〈그림 5〉), 이중구연(각목문)토기도 있지만(〈그림 7〉 12) 쌍방 출토편처럼 각목문과 파수가 없는 이중구연심발형토기(〈그림 7〉 13)는 현재까지 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도하자에서는 고배형토기가 출토되었는데(〈그림 8〉 20·21), 이것은 D권역의 미송리형토기 이전 시기인 신암리Ⅱ기에 포함되던 기종이다. 그러므로 이 고배형토기는 태자하유역에서도 미송리형토기 이전 시기에 유행하였던 토기가 일부 잔존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도하자 이외에는 요북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즉 고배형토기는 미송리형토기문화의 토기조성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쌍방 6호묘처럼 미송리형토기를 대소 두 점 부장하는 습속은 신성자 13호묘·성신촌·동구 등에서 확인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기 때문에 요동 전역에서 엄격하게 고수되었던 습속은 아니었던 것 같다. 시기에 따른 공반 토기의 변화로는 신성자 출토 장경호의 기형변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그림 5〉 12·15). 이에 비해 고식의 미송리형토기가 중심인 B·C권역은 늦은 시기의 공반 토기상을 알 수 없어 요북지역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편, 분묘에서 미송리형토기와 공반하지는 않지만 요북지역에는 렉(鬲)도 확인된다. 이것은 요서지역이 중심이며 심양 일대를 비롯하여 길장지구와 송눈평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데 비해, 요북 이남의 요동반도나 한반도 서북지역으로는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는 그만큼 요동반도와 한반도 서북지역이 재지성 강한 지역권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며,⁸⁶⁾ 이러한 양상은 이 글의 미송리형토기문화권 구분과도 상통한다.

86) 宮本一夫, 1985, 앞의 글, 51쪽.

다음으로 요동지역보다 조금 늦게 미송리형토기가 전개되었던 압록강 이남을 보면, 압록강을 중심으로 하는 D권역은 신암리Ⅲ기와 미송리Ⅱ기의 이중구연파수부토기(〈그림 7〉 14·15) 등에서 요북지역과의 관련성이 고려된다. E권역은 팽이형토기로 불리는 옹과 이와 유사한 저부를 가진 호가 토기조성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 미송리형토기는 출토 비율도 낮고 기형에서도 팽이형토기의 영향이 보이므로, 대동강유역의 미송리형토기가 팽이형토기문화에 흡수·변형되었다는⁸⁷⁾ 견해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같은 미송리형토기문화권이라고 하더라도 대동강유역은 요동지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그림 7〉 19~23).

2_ 미송리형토기문화권과 고조선

이제까지 미송리형토기문화권을 고식 미송리형토기의 형식 차이를 기준으로 요동의 A·B·C, 고식은 없지만 미송리형토기가 전개되었던 압록강 이남의 D·E라는 다섯 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A~E를 각기 독립적인 성격의 문화권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미송리형토기문화는 A~E 전체에 흐르는 공통성 속에서 각 권역별 특색을 띠며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송리형토기문화권의 요령식동검 가운데 이른바 유구경식(有溝莖式)이 없는 점은 그 이남지역과의 구분을 말해주며, 당시 요서지역과 요동지역 청동기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서주~춘추시대에 A부터 E에 이르는 미송리형토기문화권 전체는 요서·길림·대동강 이남지역과 구분되며, 넓은 의미에서 어떤 공통의 권역을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물질문화의 공통성에 기반한다고 해서 곧바로 미송리형토기문화권이 단일의 통일된 문화권이나 정치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고자료의 분포를 곧바로 특정의 민족과 대응시키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독일 민족주의고고학의 사례를 통해 지적되어 온

87) 金美京, 2006, 앞의 글, 81쪽.

바이다.⁸⁸⁾

북한학계에서는 미송리형토기문화권을 문화적·정치적 통일체로 파악하여 왔다.⁸⁹⁾ 그러나 요령식동검의 분포 범위 내에서 공반 유물 간 상호 관련성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의 통일된 문화권으로 볼 수 없다는⁹⁰⁾ 견해는 이전 부터 있었고, 정한덕도 미송리형토기문화가 맥계(脈系) 주민의 활동영역과 부합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고조선이라는 단일의 정치체로 연결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시대 이전의 고조선과 관련된 표지적인 고고학적 양상이 미송리형토기문화라는 점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발생 기의 형식인 고식의 미송리형토기가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시점에 요동의 세 권역에서 각기 다른 형식으로 등장하였던 것은 미송리형 토기문화의 출발부터 지역적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후 미송리형토기의 전개과정이나 공반 토기에서도 지역색은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미송리형토기문화권이 어떤 통일된 문화권이나 정치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공통성 속에서 권역별 다양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전개되어 갔던 지역문화권으로 인식해두고자 한다. 지역문화권이라는 용어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연구 역량이 좀 더 성숙된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여기서는 미송리형토기문화권 전체와 A~E의 개별 권역 모두에 적용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문헌에 기록된 고조선이 요하 이동의 미송리형토기를 사용하던 집단들을 지칭한다고 전제할 때, 고조선이라는 것은 미송리형토기문화권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A~E 가운데 특정 권역을 가리키기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고조선의 위치 및 강역에 대한 기록들이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88) 鈴木公雄, 1988, 『考古學入門』, 東京大學出版會; Siân Jones(이준정·한건수 옮김), 2008, 『민족주의와 고고학』, 영남문화재단연구원 학술총서 2, 사회평론.

89) 김용간·황기덕, 1967, 앞의 글; 황기덕, 1989, 앞의 글.

90) 林雲, 1980, 「中國東北系銅劍初論」, 『考古學報』 2.

91) 鄭漢德, 1990, 앞의 글; 鄭漢德, 1992, 앞의 글, 1쪽.

점을 생각하면, 중원의 사가(史家)들이 미송리형토기문화권 전체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미송리형토기문화권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특정의 권역을 통해 요하 이동의 고조선을 인식하고 기록하였을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송리형토기문화권 가운데 중심적인 권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조선의 강역에 대해서는 미송리형토기문화권인 요동~대동강유역이라는 범위 속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고조선 후기인 위만조선의 중심지는 대동강유역이라는 설이 남한학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⁹²⁾ 그 이전의 기자조선 혹은 예맥조선의 중심은 요동지역으로 보는 것이 문헌사학계의 대체적인 견해이다.⁹³⁾ 고고학적으로도 횡집선문과 한 쌍씩의 횡교상파수와 구순상파수를 갖춘 전형의 미송리형토기는 요동~압록강유역에 분포하며, 대동강유역에는 보이지 않는다. 또 전형의 미송리형토기 가운데 발생기의 형식인 고식 역시 A·B·C권역에서만 확인되는 점에서 미송리형토기의 중심은 요동지역일 가능성이 높다.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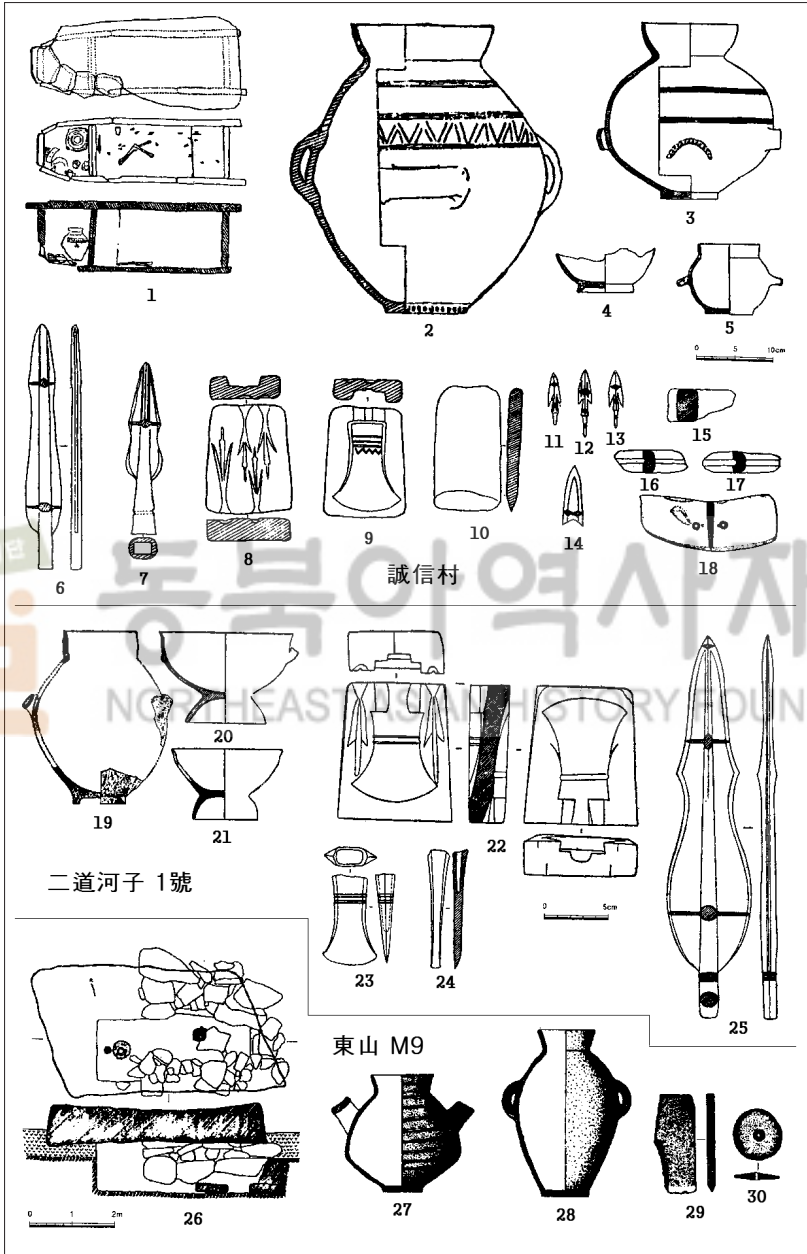
미송리형토기와 함께 청동기 및 동부와 동측의 용범이 출토되어 유력자의 분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쌍방·성신촌·이도하자·문검·대갑방 등에서 확인되었는데(〈그림 8〉), 이 유적들은 모두 요동지역에 위치하므로 이곳이 미송리형토기문화권의 중심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가운데 C권역의 경우 청동기는 공반하지 않지만 미송리형토기가 부장된 M9호묘는 동산 분묘군의 최북단에 위치하면서 개석의 크기가 가장 크며(〈그림 8〉 26), 서산에서도 미송리형토기가 부장된 M1호묘는 개석의 규모가 가장 커 서산 분묘군에서 신분이 높은 피장자의 묘로 추정되었다.⁹⁵⁾

92) 宋鎬晷, 1999, 『古朝鮮 國家形成 過程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93) 金貞培, 1997, 「1. 고조선의 국가형성」, 『한국사』 4(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국사편찬위원회.

94) 미송리형토기문화의 후반부에는 대동강유역 미송리형토기의 지역색이 두드러지지만, 이 지역 토기조합의 중심은 평이형토기이다.

95) 崔玉寬, 1997, 「鳳城東山, 西山大石蓋墓1992年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第2期.



〈그림 8〉 요동지역 유력자의 분묘(1/10, 22는 1/6, 1·26은 1/180)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요동지역 내에서 가장 중심적인 권역을 들자면, 유적 분포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요북지역(A)을 지목하고 싶다. 大貫靜夫의 지적처럼⁹⁶⁾ 성신촌 석관묘와 이도하자 1호묘는 길이 235~240cm나 되어 석관묘로는 대형급이어서 최상위의 분묘라고 할 만하다. 특히 주관(主棺)과 부관(副棺)으로 구성된 성신촌 석관묘는 미송리형토기와 함께 요령식동검과 요령식동모가 공반한 유일한 사례이며, 동부와 동측 용범을 비롯하여 옥부(玉斧)·동측·석촉·반월형석도 등이 출토되어 당시 요동지역에서 최고 유력자의 분묘로 보기에 손색이 없다(〈그림 8〉 1~18). 따라서 미송리형토기문화를 통해 고조선을 바라보는데 있어 적어도 전국시대 이전에는 요동지역이 중심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권역은 요북지역이었을 것이다.



VI. 맺음말

이상과 같이 미송리형토기의 명칭과 개념, 편년, 미송리형토기문화와 그 분포권, 이를 통해 설정된 미송리형토기문화권에 대해 기존의 성과들을 정리하면서,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고 분포권의 공통성과 지역색을 통해 미송리형토기문화권을 바라보았다.

미송리형토기라는 용어는 형식 개념에서 볼 필요가 있으며, 현문호를 비롯한 여러 용어가 있지만 연구사적으로 확립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별 미송리형토기의 편년과 전개 및 공반 토기를 정리한 결과, 공통성과 다양성이 상존하는 미송리형토기문화는 다섯 개 권역으로 구분되었다. 고조선이란 때로는 미송리형토기문화권 전체를, 때로는 그 속의 특정 권역이나 세력을 지칭하였기 때문에 문헌마다 위치와 강역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닐

96) 大貫靜夫, 2008, 앞의 글.

까 한다. 다섯 개 권역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권역을 통해 중원의 사가들이 고조선을 바라보았다면, 위만조선 이전의 고조선은 요동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그 중에서도 주요 유적과 유력자의 분묘가 다수 분포하는 요북지역이 가장 중심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미송리형토기문화권은 어떤 단일의 통일체라기보다는 공통성에 기반한 여러 지역문화의 집합체이며, 이것이 성립하는 때는 요동~한반도 서북 지역에서 청동기문화가 본격화하는 시점이기도 하여 이 지역의 역사에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 김광철, 1999, 「평양지방 미송리형단지의 특징」, 『조선고고연구』 제2호.
- 김광철, 2002, 「조롱박형단지의 연원」, 『조선고고연구』 제4호.
- 김동일, 1985, 「서북조선과 룡동지방의 돌상자무덤에 대하여」, 『역사과학』 제3호.
- 金美京, 2006, 「美松里型 土器의 변천과 성격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60, 한국고고학회.
- 김영우, 1964, 「세죽리 유적 발굴 중간 보고(2)」, 『고고민속』 4호, 사회과학원출판사.
- 김용간, 1963, 「미송리 동굴 유적 발굴 보고」, 『고고학자료집』 제3집, 과학원출판사.
- 김용간, 1963, 「미송리유적의 고고학적 위치」, 『朝鮮學報』 26.
- 김용간, 1964, 「우리 나라 청동기 시대의 년대론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고고민속』 2호, 사회과학원 출판사.
- 김용간·석광준, 1984, 「남경 유적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용간·황기덕, 1967, 「기원전 천년기 전반기의 고조선문화」, 『고고민속』 2호, 사회과학원출판사.
- 金貞培, 1997, 「1. 고조선의 국가형성」, 『한국사』 4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국사편찬위원회.
- 김중혁, 1996, 「표대부락터유적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2호.
- 김중혁, 2000, 「표대유적의 조롱박형단지에 대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제1호.
- 김중혁, 2002, 「표대유적의 제1지점 팽이그릇 집자리 발굴보고」, 『마산리, 반궁리, 표대 유적발굴보고』, 사회과학출판사.
- 로성철, 1993, 「미송리형단지의 변천과 그 년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4호.
- 리순진, 1965, 「신암리 유적 발굴 중간 보고」, 『고고민속』 제3호.
- 裴眞晟, 2012, 「可樂洞式土器의 初現과 系統」, 『考古廣場』 第11號, 釜山考古學硏究會.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69, 「기원전 천년기 전반기의 고조선문화」, 『고고민속논문집』 1,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67, 「미송리형단지」, 『고고민속』 제2호.
- 석광준, 1994, 「평양은 고대문화의 중심지」, 『조선고고연구』 제1호.
- 宋鎬毅, 1999, 『古朝鮮 國家形成 過程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吳江原, 2014, 「遼東~西北韓地域 美松里型壺의 지역문화와 사회문화적 함의」, 『韓國上古史學報』 第85號.

鄭漢德, 1992, 「嶺南地方 무문토기문화 변천에 관한 몇가지 문제」, 『伽倻考古學論叢』

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황기덕, 1989, 「비파형 단검문화의 미송리유형-1. 미송리유형의 유적유물과 그년대」,
『조선고고연구』 제3호,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황기덕, 1989, 「비파형 단검문화의 미송리유형-2. 미송리유형 유물갖춤새의 특징」,
『조선고고연구』 제4호,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황기덕, 1990, 「비파형 단검문화의 미송리유형-3. 미송리유형문화의 주민」, 『조선고고연구』 제1호,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Siân Jones(이준정·한건수 옮김), 2008, 『민족주의와 고고학』, 영남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 사회평론.

宮本一夫, 1985, 「中國東北地方における先史土器の編年と地域性」, 『史林』 第67卷 第2號.

宮本一夫, 2000, 「遼寧式銅劍文化圏とその社會」, 『中國古代北疆史の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大貫靜夫, 2008, 「雙房型壺を副葬した石棺墓の年代」, 『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 新彌生時代のはじまり 第3卷, 雄山閣.

藤口健二, 1985, 「朝鮮無文土器と彌生土器」, 『彌生文化の研究』 3, 雄山閣.

鈴木公雄, 1988, 『考古學入門』, 東京大學出版會.

三上次男, 1962, 『滿鮮原始墳墓の研究』, 吉川弘文館.

西谷正, 1978, 「美松里洞窟出土の無文土器」, 『史淵』 第115輯, 九州大學文學部.

西谷正, 1990, 「美松里型土器とその文化について」, 『史淵』 第127輯.

徐光輝, 1996, 「遼寧式銅劍の起源について」, 『史觀』 135.

鄭漢德, 1990, 「美松里型土器の生成」, 『東北アジアの考古學[天池]』, 六興出版.

鄭漢德, 1996, 「美松里型土器形成期に於ける若干の問題」, 『東北アジアの考古學 第二』[天池], 깊은샘.

後藤直, 1971, 「西朝鮮の「無文土器」について」, 『考古學研究』 第17卷 第4號.

靳楓毅, 1982,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 『考古學報』 第四期, 科學出版社.

佟達·張正岩, 1989, 「遼寧撫順大夥房水庫石棺墓」, 『考古』, 第2期.

- 蘭新建·李曉鐘, 1993, 「遼寧地區商周時期陶壺研究」, 『青果集』, 吉林大學出版社.
- 撫順市博物館考古隊, 1983, 「撫順地區早晚兩類青銅文化遺存」, 『文物』, 第9期.
- 徐光輝, 1993, 「遼東及西北朝鮮青銅時代陶壺的幾個問題」, 『馬韓·百濟文化』第十三輯,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 楊榮昌, 2007, 「遼東地區青銅時代石棺墓葬及相關問題研究」, 『北方文物』第1期.
- 旅順博物館·遼寧省博物館, 1983, 「大連于家村砮頭積石墓地」, 『文物』9.
- 吳世恩, 2004, 「關於雙房文化的兩箇問題」, 『北方文物』第2期.
- 遼寧西豐縣文物管理所, 1995, 「遼寧西豐縣新發現的幾座石棺墓」, 『考古』, 第2期.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1994, 『馬城子—太子河上游洞穴遺存』, 文物出版社.
- 遼寧鐵嶺地區文物組, 1981, 「遼北地區原始文化遺址調查」, 『考古』, 第2期.
- 遼陽市文物管理所 1977, 「遼陽二道河子石棺墓」, 『考古』5.
- 遼陽市文物管理所, 1983, 「遼陽市接官廳石棺墓群」, 『考古』1.
- 王來柱·華玉米, 2010, 「遼寧本溪縣新城子青銅時代墓地」, 『考古』9.
- 王巍, 1993, 「夏商周時期遼東半島和朝鮮半島西北部的考古學文化序列及其相互關係」, 『中國考古學論叢』, 科學出版社.
- 李龍彬·趙少軍, 2011, 「遼寧西豐縣東溝遺址及墓葬發掘簡報」, 『考古』5.
- 李恭篤·高美璇, 1995, 「遼東地區石築墓與弦紋壺有關問題研究」, 『遼海文物學刊』第1期.
- 林雲, 1980, 「中國東北系銅劍初論」, 『考古學報』2.
- 崔玉寬, 1997, 「鳳城東山, 西山大石蓋墓1992年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第2期.
- 許玉林·許明綱, 1983, 「新金雙房石棚和石蓋石棺墓」, 『文物資料叢刊』7.
- 許志國·莊艷傑·魏春光, 1993, 「法庫石砬子遺址及石棺墓調查」, 『遼海文物學刊』第1期.
- 華玉米·陳國慶, 1994, 「大連地區晚期青銅時代考古文化」, 『遼海文物學刊』第1期.
- 華玉米·王來柱, 2011, 「新城子文化初步研究」, 『考古』第6期.

[국문 초록]

美松里型土器文化의 動態와 分布圈

배진성

미송리형토기라는 용어는 북한학계의 조사와 연구에 의해 학술적으로 정착되어 왔다. 미송리형토기는 호라는 기종 내에서도 특정의 종류를 지칭하므로 이른바 형식의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송리형토기의 기원 및 가장 이른 형식에 대해서는 타두 적석묘, 쌍방 6호묘, 장가보 A동 34호묘, 산성자 C동 2호묘, 동산 9호묘의 호가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미송리형토기가 요동의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요동반도와 요북지역에서 각기 지역색을 띠면서 거의 동시기에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권역은 고식의 미송리형토기가 출토된 요동반도, 요북지역, 그 사이의 동산유적 일대, 그리고 고식은 없지만 미송리형토기가 전개된 압록강~청천강유역과 기형적인 지역색이 뚜렷한 대동강유역이라는 다섯 개로 구분된다. 이 지역들을 묶은 범위가 이른바 미송리형토기문화권이며, 이것은 어떤 통일된 문화권이나 정치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공통성 속에서 권역별 다양성과 독자성을 유지하였던 지역문화권으로 볼 수 있다. 문헌에 기록된 고조선이 요하 이동의 미송리형토기를 사용하던 집단들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고조선은 미송리형토기문화권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특정 권역을 가리키기도 하였을 것이다. 고식 및 전형 미송리형토기의 분포로 볼 때 압록강~대동강유역보다는 요동지역이 전국시대 이전 고조선의 중심 지역이었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이도하자나 성신촌 석관묘와 같은 최고 유력자의 분묘가 확인되는 요북지역이 가장 중심적인 권역이었을 것이다.

주제어

미송리형토기, 미송리형토기문화, 고조선, 요북지역, 지역문화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Movement and Distribution of Misong-ri Type Pottery Culture

Bae Jinsung

The Misong-ri type pottery has been academically established by the research of North Korean scholars. Although this pottery is known by many different names, must respect the original cover remains. The Misong-ri type pottery indicates the specific shape within jar of the Bronze Age. Therefore, the concept of type(型式) should be examined. There are numerous views regarding the origin and earliest form of the Misong-ri type pottery. In this study, the Misong-ri type pottery simultaneously appeared in the Liaodong region. And the spatial area in which the Misong-ri type pottery has been excavated can be referred to as the area of the Misong-ri Type Pottery Culture. These were not unified cultural and unified political groups. Rather, the pottery shows that people maintained diversity and regional identities. Thus, the pottery can be identified as a so-called Local Culture. The Misong-ri type pottery was closely related to Gojoseon. Judging by the distribution of the Misong-ri type pottery, the center of Gojoseon was located in the Liaodong region. In this area, the tombs of the highest powers were in northern Liaodong.

Keywords

Misong-ri type pottery, Misong-ri Type Pottery Culture, Gojoseon, Northern Liaodong, Local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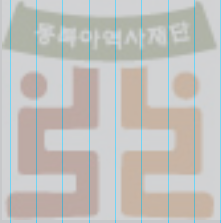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漢城의 高句麗國 再檢討

최재도 | 한성백제박물관 연구원

I. 머리말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였지만 유민들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고연무(高延武), 검모잠(劍牟岑)과 안승(安勝), 안시성 세력 등이 대표적인데, 특히 검모잠은 한성(漢城)에서 왕족인 안승을 옹립하여 고구려국을 재건하였다. 이를 한성의 고구려국 또는 안승의 고구려국이라 한다.¹⁾

그동안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었지만²⁾ 대부

※ 투고: 2014년 8월 21일, 심사 완료: 2015년 2월 3일, 게재 확정: 2015년 2월 23일

1) '한성의 고구려국'이라는 용어는 임기환(2003, 「보덕국고」)이 처음 사용하였는데, 황해도 지역에 존재하였던 고구려국을 지칭하므로 금마저(익산)로 옮겨간 이후인 보덕국과 분절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한성의 고구려국이 황해도의 대부분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과연 '한성'이란 틀에 가두어 표현하는 게 옳은지, '국(國)'이라고 부를 만한 체제를 갖추었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 또한, 안승이 부흥운동 과정에 신라로 내투했다면 황해도 지역에 남아 있던 부흥군 세력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필자의 부족함으로 후일을 기약하며 이 글에서는 '한성의 고구려국'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강경구, 2005, 「고구려 부흥운동의 신고찰」, 『한국상고사학보』 47; 김수태, 1994,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유민지배」, 『이기백선생 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 김종복,

분 신라사의 관점에서 나당전쟁의 일부로 다루어지거나 신라의 위상 강화를 보여주는 보덕국에 초점이 맞추어져 한계가 있었다. 이후 한성의 고구려국이 재조명되면서³⁾ 검모잠⁴⁾과 고연무⁵⁾에 대한 연구, 왜와의 관계,⁶⁾ 한성의 고구려국 5부(部) 체제,⁷⁾ 보덕국 지배층의 구성 가문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사료의 해석에 대한 견해가 연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검모잠의 거병, 안승의 즉위, 당군의 공격, 검모잠의 죽음, 안승의 신라 내투, 고려사의 파견 등 대부분의 사건에 논란이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의 진행과정이나 역사적 의미를 명확하게 살피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성의 고구려국에 관한 사료와 연구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들의 시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한성의 고구려국에 관한 국내 사료, 중국 사료를 검토하여 각 사건들이 발생한 시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초작업이 선행되어야 고구려 부흥운동에 관한 연구가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2003,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의 지배 정책」, 『사림』 19; 노태돈, 1997, 「대당전쟁기 신라의 대외관계와 군사활동」, 『군사』 34; 서영교, 2009, 「신문왕대 보덕성민의 반란과 헬리헤성」,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 78; 양병룡, 1997, 「나당전쟁 진행과정에 보이는 고구려유민의 대당전쟁」, 『사총』 46; 이병도, 1964, 「고구려의 일부유민에 대한 당의 추호정책」, 『진단학보』 25·26·27; 이재석, 2010, 「7세기 후반 보덕국의 존재 의의와 왜국」, 『일본역사연구』 31; 이정빈, 2009,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현실』 72; 임기환, 2003, 「보덕국고」, 『강좌한국고대사』 10; 전준현, 1982, 「670년에 재건된 '高句麗國'에 대한 연구」, 『력사과학』 82-2; 조인성, 2007,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운동의 전개」,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池内宏, 1930,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の關係」, 『滿鮮地理歴史研究』 12; 村上四男, 1966, 「新羅と小高句麗國」, 『朝鮮學報』 37·38.
- 3) 임기환(2003, 위의 글)은 『일본서기』에서 고구려 멸망 후의 고려사에 주목하여 안승의 내투를 672년 말~673년 초로 보았고, 한성의 고구려국이 673년 말까지 존재한 것으로 파악하는 등 새로운 접근방식과 관점을 제시하였다.
- 4) 강경구, 2005, 앞의 글.
- 5) 이정빈, 2009, 앞의 글.
- 6) 이재석, 2010, 앞의 글.
- 7) 서영교, 2009, 앞의 글.
- 8) 강경구, 2005, 앞의 글.

3장에서는 한성의 고구려국 성립과 고구려·신라 연합군⁹⁾의 대당전쟁 과정, 전쟁 과정에서 중요한 백수성의 위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논란이 많은 안승의 신라 내투시기와 한성의 고구려국의 소멸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한성의 고구려국이 동아시아사에 미친 영향과 의의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II. 사료의 검토

고구려 멸망 후 고연무, 검모잠과 안승, 안시성(安市城) 세력 등이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검모잠은 한성(漢城: 황해도 재령)에서 보장왕(寶藏王)의 외손 혹은 서자인 안승¹⁰⁾을 왕으로 옹립하여 부흥군의 구심점을 마련하였다. 부흥운동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내용도 비교적 상세한 편이다. 그런데 사료의 해석에 있어서 연구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표 1〉과 같이 연구자마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다르게 파악하는 이유는 사료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사료에 하나의 시점만 제시되고 서로 다른 사건들이 연달아 기술되거나, 사료 간에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하나의 시점에 여러 사건들을 기술한 것은 『신당서』 동이열전과 『삼국사기』 신라본기인데, 우선 『신당서』 동이열전을 포함하여 검모잠의 거병에 관한 중국 사료는 다음과 같다.

9) 이후로는 편의상 여·라 연합군으로 표기한다.

10) 안승의 출자에 대해서는 보장왕의 서자, 보장왕의 외손, 연정토의 아들 등 기록마다 다르다. 그러나 보장왕의 외손이면서 연정토의 아들로 파악하면 대부분의 기록은 그대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村上四男, 1966, 앞의 글, 238~242쪽).

〈표 1〉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

연구자 사건	池内宏 (1930)	이병도 (1964)	村上四男 (1966)	전준현 (1982)	김수태 (1994)	양병룡 (1997)	임기환 (2003)	김종복 (2003)	이정빈 (2009)
669년 2월 안승 내투	고연무의 내투 諷記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670년 이후	인정	시점이나 내용 오류
검모잠의 거병	670년 2월~3월	669년 4월 이전	669년 초	670년 초	670년 2월~3월	670년 4월	670년 4월	670년 4월	669년 5월 이후
고간의 파병	검모잠의 거병 직후		670초	670년 4월		670년	671년 9월		670년 3월
검모잠의 남하	670년 4월		670년 6월			670년 4월~6월	670년 6월		669년 4월~ 670년 3월
당 관리 죽음						670년 6월		670년 6월	
안승, 고구려왕 즉위	670년 7월 말 금마저	금마저	금마저		금마저	670년 6월 금마저	670년 7월 한성		669년 4월~ 670년 3월 한성
다식 파견				670년 6월		670년 6월			670년 6월
당군의 한 반도 침입	672년 7월		672년 7월				671년 9월 672년 7월		
검모잠의 죽음	670년 7월	670년 4월	670년 7월						670년 9월~12월
안승의 내투					670년 8월 이전	670년 8월	672년~ 673년 초		

* 논문에서 분명하게 밝힌 부분만 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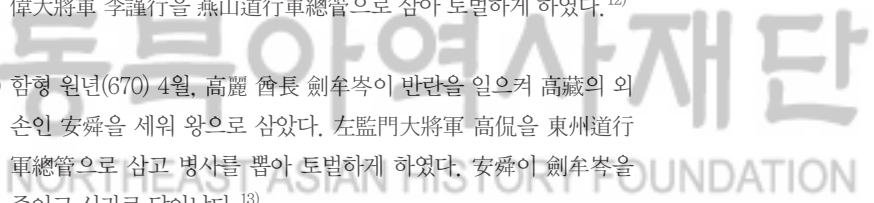
- ④ 총장 2년(669) 고구려인 3만을 江淮와 山南으로 옮겼다. 大長 鉗牟峇이 무리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켜 寶藏의 외손 安舜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高侃을 東州道行軍總管, 李謹行을 燕山道行軍總管으로 삼아 토벌하게 하고 司平太常伯 楊昉을 보내어 도망치고 남은 무리를 불러들이게 하였다. 安舜이 鉗牟峇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高간은 都護府의 治所를 遼東州로 옮기고, 叛兵을 安市城에서 격파하였다. 또 泉山에서 쳐부수고 신라원병 2,000명을 사로잡았다. 李謹行이 그들을 發盧河에서 쳐부수고, 다시 싸워 포로와 참수한 수가 萬을 헤아렸다. 이에 平壤의 패잔병들이 군을 정비할 수 없게 되자 함께 어울려 신라로 달아났다. 무릇 4년 만에 평정되었다.¹¹⁾
- ⑤ 함형 원년(670) 4월, 高麗 酋長 鉗牟峇이 반란을 일으켜 변방을 노략하자 左監門衛大將軍 高侃을 東州道行軍總管으로 삼고, 右領軍 偉大將軍 李謹行을 燕山道行軍總管으로 삼아 토벌하게 하였다.¹²⁾
- ⑥ 함형 원년(670) 4월, 高麗 酋長 劍牟峇이 반란을 일으켜 高藏의 외손인 安舜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左監門大將軍 高侃을 東州道行軍總管으로 삼고 병사를 뽑아 토벌하게 하였다. 安舜이 劍牟峇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¹³⁾
- ⑦ 함형 원년(670) 4월, 高麗의 남은 무리 중에 酋長 劍牟峇이 있어 무리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켜 高藏의 外孫인 安舜을 임금으로 삼았다. 左衛大將軍 高侃으로 하여금 토벌하여 평정케 하였다.¹⁴⁾

11) 『신당서』 권220, 동이열전 총장 2년, “徙高麗民三萬於江淮山南 大長鉗牟峇率衆反 立藏外孫安舜爲王 詔高侃東州道李謹行燕山道 竝爲行軍總管討之 遣司平太常伯楊昉綏納亡餘 舜殺鉗牟峇走新羅 侃徙都護府治遼東州 破叛兵於安市 又敗之泉山 俘新羅援兵二千 李謹行破之于發盧河 再戰俘馘萬計 於是平壤殘不能軍 相率奔新羅 凡四年乃平”.

12) 『신당서』 권3, 고종 함형 원년 4월, “高麗酋長鉗牟峇叛寇邊 左監門衛大將軍高侃爲東州道行軍總管 右領軍偉大將軍李謹行 爲燕山道行軍總管 以伐之”.

13) 『자치통감』 권201, 고종 함형 원년 4월, “高麗酋長劍牟峇反 立高藏外孫安舜爲主 以左監門大將軍高侃爲東州道行軍總管 發兵討之 安舜殺劍牟峇 奔新羅”.

14) 『당회요』 권73, 안동도호부 함형 원년 4월, “高麗餘衆有酋長劍牟峇者 率衆叛 立高藏外孫安舜爲主 詔左衛大將軍高侃討平之”.



〈표 2〉 검모잠의 거병에 관한 중국 사료

	『신당서』 동이열전 (A)	『신당서』 본기 (B)	『자치통감』 (C)	『당회요』 (D)
완성	1060년	1060년	1084년	961년
시점	669년	670년 4월	670년 4월	670년 4월
①	고구려인 이주			
②	鉗牟峯의 거병	鉗牟峯의 거병	劍牟峯의 거병	劍牟峯의 거병
③	安舜의 즉위		安舜의 즉위	安舜의 즉위
④	高侃, 李謹行의 임명	高侃, 李謹行의 임명	高侃의 임명	高侃의 임명
⑤	安舜이 鉗牟峯 살해		安舜이 劍牟峯 살해	

사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검모잠이 거병하자 당이 고간 등으로 하여금 토벌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각각의 사료에서 총장 2년(669, A) 또는 함형 원년(670) 4월(B, C, D)이라는 시점 이후 검모잠의 거병, 안승(안순)의 즉위, 고간의 임명, 검모잠의 죽음이 연달아 기술되어 사료의 시점이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위의 사료들을 세분화하면 〈표 2〉와 같다.

『신당서』(A, B)는 다른 사료들과 달리 검모잠을 검모잠(鉗牟峯)으로 기록하였고, 이근행(李謹行)에 대한 임명이 추가되었다. 또한 본기에서 누락된 내용은 동이열전에 보충하여 『자치통감』과 동일한 구조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본기에 670년 4월이라는 시점을 명시하면서 검모잠의 거병, 고간의 임명만을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본기에 결여되었지만 동이열전에 기록된 안승의 즉위(③)나 검모잠의 죽음(⑤)이 670년 4월에 일어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즉, 670년 4월이라는 시점은 검모잠의 거병이나 고간의 임명 중 하나의 사건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의 사료만으로는 더 이상의 추론이 불가능하다. 다만, ‘검모잠의 거병→안승의 즉위→고간의 임명’이라는 순서를 고려할 때 안승

의 즉위시점을 밝혀낸다면 670년 4월의 사건을 추론할 수도 있다. 안승의 즉위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자세히 전한다.

㉔ 문무왕 10년(670) 6월, 고구려 水臨城人 大兄 牟岑이 殘民을 모아 窮牟城으로부터 溟江 남쪽에 이르러 당 관인과 승려 法安 등을 죽이고 신라로 향하였다. 서해 史治島에 이르러 고구려 대신 淵淨土의 아들인 安勝을 漢城 안으로 맞아들어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다. 小兄 多式 등을 보내어 슬피 아뢰었다.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세대를 잇게 하는 것은 천하의 올바른 도리이니, 오직 대국에게 이것을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선왕이 도를 잃어 멸망을 보았지만, 지금 우리들은 본국의 귀족 안승을 맞아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변방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영원히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들을 나라 서쪽 金馬渚에 머물게 하였다.¹⁵⁾

사료 ㉔ 또한 『신당서』 동이열전과 마찬가지로 670년 6월이라는 시점 이후에 법안(法安)의 죽음, 안승의 즉위, 다식(多式)의 파견, 금마저(曷沙)로의 이동이라는 여러 사건들이 기술되어 시점이 의미하는 사건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위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료가 있다.

㉕ …… 함형 원년(670) 6월, 고구려가 모반하여 漢官를 모두 죽였다. ……¹⁶⁾

사료 ㉕는 671년 7월 26일 설인귀의 글을 받은 문무왕이 답글을 보낸 내용

15) 『삼국사기』 권6, 문무왕 10년 6월, “高句麗水臨城人牟岑大兄 收合殘民 自窮牟城至溟江南 殺唐官人及僧法安等 向新羅行 至西海史治島 見高句麗大臣淵淨土之子安勝 迎致漢城中 奉以爲君 遣小兄多式等哀告曰 興滅國繼絕世 天下之公義也 惟大國是望 我國先王以失道見滅 今臣等得國貴族安勝 奉以爲君 願作藩屏 永世盡忠 王處之國西金馬渚”.

16)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7월 26일, “大王報書云 …… 咸亨元年六月 高麗謀叛 殺漢官 ……”.

〈표 3〉 『신당서』 동이열전과 『삼국사기』 신라본기 검토

사건	①검모잠 거병	②漢官 죽음	③안승 즉위	④다식 파견	⑤고간 임명
시점	670년 4월 가능	670년 6월	670년 6월 이후	670년 6월 이후	670년 4월 불가
출전	『신당서』 동이열전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당서』 동이열전

중 일부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 수사적인 표현은 많으나 당대의 기록이라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고구려 유민이 당 관리(漢官)를 죽인 시점이 670년 6월로 나온다. 이는 검모잠이 패강 남쪽에 이르러 당 관인과 승려 법안을 죽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670년 6월은 검모잠이 당 관리를 죽인 시점이 분명하다. 『신당서』 동이열전과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사건들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신당서』 동이열전의 검토만으로는 670년 4월의 사건을 알 수 없었으나,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내용과 종합하면 사건의 시점이 보다 분명해진다. 검모잠이 당 관리를 죽인 이후에 안승을 맞이하여 왕으로 삼았으므로 안승의 즉위는 670년 6월 이후다. 그리고 고간이 동주도행군총관에 임명된 이유는 검모잠이 거병하여 안승이 옹립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안승이 즉위하기 전인 670년 4월에 고간이 임명될 수는 없다. 결국 중국 사료에서 보이는 670년 4월이라는 시점은 검모잠의 거병을 의미한다.

670년 3월 고구려 태대형 고연무와 신라 사찬 설오유가 2만 정병으로 오골성을 공격한 사건¹⁷⁾은 고구려 부흥군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¹⁸⁾ 이 사건에 자극을 받은 검모잠이 다음 달 4월 당군과 전투¹⁹⁾를 벌이면서 비로소

17) 『삼국사기』 권6, 문무왕 10년 3월, “沙浪薛烏儒與高句麗太大兄高延武 各率精兵一萬 度鴨渌江 至屋骨□□ 靺鞨兵先至皆敦壤待之”.

18) 노태돈(1997, 앞의 글, 6~7쪽)은 신라군과 고구려 유민군을 함께 파견한 이유를 요동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의 움직임에 자극하여 당이 백제지역에 대한 신라군의 작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해하였다.

19) 池内宏(1930, 앞의 글, 430쪽)은 4월 4일 오골성에서 접전을 벌인 말갈병을 이군

당에 반란으로 인식되었으며, 당군의 압박으로 패강 이남으로 남하하다가 6월에 당 관리를 죽임으로써 신라에도 인식되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²⁰⁾ 안승은 즉위 후 다식을 신라에 파견하였고, 문무왕은 이에 상응하여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인정하게 된다.²¹⁾

한편, 앞서 살펴본 중국 사료에서는 당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내투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투가 시작되기 이전에 안승이 신라에 내투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 ㉔ 총장 2년(669) 2월, 왕의 庶子 安勝이 4천여戶를 거느리고 신라로 투항하였다.²²⁾

사료 ㉔은 669년 2월 안승이 신라에 내투했다는 내용으로 다른 사료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실 확인에 앞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전하는 부흥운동 기사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에서 보듯 ㉑을 제외한 5가지 사건들은 중국 사료에서 보인다. 게다가 ㉑의 ‘虜獲二千入’을 『신당서』에서 차용하고, ㉒의 ‘瀘’와 ‘蘆’의 글자만 다를 뿐 모든 구체적인 내용이 『자치통감』과 일치한다.²³⁾ 즉 고구려본기의 부흥운동 기사 중 중국 사료에 보이지 않는 것은 ㉔가 유일하다. 중국 사료와 고구려본기의 내용은 신라본기와 다르거나 결여되었는데, 이는 국내 사료로 신라본기를 구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중국 사료를 인용하여 고구려본기를 구성한

행이 이끄는 것으로, 당병을 고간이 이끄는 한병으로 추정한 바 있으나 670년 4월은 고간 등이 임명되기 이전이므로 불가능하다.

20) 양병룡(1997, 앞의 글, 51쪽)은 『삼국사기』에 670년 6월로 기록된 것은 검모잠 등이 6월 이전에 거병했을지라도 그 해 6월 漢官을 죽인 것만큼 주목받을 일이 없었던 것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21) 『삼국사기』 권6, 문무왕 10년 7월, “遣沙浪須彌山 封安勝爲高句麗王 其冊曰維咸 亨元年歲次庚午秋八月一日辛丑 新羅王致命高句麗嗣子安勝”.

22)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 총장 2년 2월, “王之庶子安勝 率四千餘戶 投新羅”.

23) ㉒의 ‘二萬八千三百’은 ‘二萬八千二百’의 오키, ㉑의 ‘白水山’은 白水山의 오키로 보인다.

〈표 4〉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부흥운동 기사 구조 분석

	『삼국사기』 신라본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중국 사료
①	기사 없음	669. 2. 王之庶子安勝 率四千餘戶投新羅	기사 없음
②	기사 없음	669. 4. 高宗移三萬八千三〔二〕百戶 於江淮之南及山南京西諸州空曠之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당서』 동이열전 669. 徙高麗民三萬於江淮山南 『자치통감』 669. 4. 高麗之民多離叛者 勅徙高麗戶三萬八千二百於江淮之南及山南京西諸州空曠之地 留其貧弱者使守安東
③	670. 6. 牟岑淵淨土之子安勝	670. 4. 劔牟岑欲興復國家 叛唐立王外孫安舜〔羅紀作勝〕爲主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당서』 670. 4. 鉗牟岑 王外孫安舜 『자치통감』 670. 4. 劔牟岑 王外孫安舜
④	기사 없음	671. 7. 高侃破餘衆於安市城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당서』 학치준전 安市城 『신당서』 安市城 『자치통감』 安市城
⑤	672. 8. 白水城 672. 12. 기사 없음	672. 12. 高侃與我餘衆戰于白水〔水〕山破之新羅遣兵救我 高侃擊克之虜獲二千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당서』 672. 冬 橫水 『신당서』 동이열전 泉山 俘新羅援兵二千 『자치통감』 672. 12. 白水山 新羅遣兵救高麗 侃擊破之
⑥	기사 없음	673. 5. 燕山道總管大將軍李謹行 破我人於瓠蘆河 俘獲數千人 餘衆皆奔新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당서』 673. 5. 瓠蘆河之西 『신당서』 673. 5. 發蘆河 俘馘萬計 『자치통감』 673. 5. 瓠蘆河之西 俘獲數千人

김부식의 의도로 생각된다. 따라서 ㉔가 신라와 관련된 내용임에도 신라본기가 아닌 고구려본기에 편성한 이유는 다른 국내 사료들에 비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따라서 4,000여 호는 안승과 별개로 유사한 시기에 내투한 주민들이거나, 고구려 부흥운동이 종식된 이후 안승과 함께 투항한 숫자로 생각된다.²⁴⁾

한편, 안승이 머문 사야도는 인천 덕적도 부근의 소야도(蘇爺島)²⁵⁾로 보는 견해가 대다수다. 만약 사야도가 신라영토라면 신라가 안승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즉위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²⁶⁾ 그러나 파견된 사신 다식은 “지금 신 등이 나라의 귀족 안승을 맞아 받들어 왕으로 삼았다”고 하여 신라에 대한 별도의 내용 없이 독자적으로 안승을 받아들인 것으로 언급하였다. 따라서 사야도는 신라와 무관한 황해도 지역²⁷⁾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⁸⁾ 당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669년 4월 최대 3만 8,200호를 당 내지로 옮겼다.²⁹⁾ 이때 당으로 끌려간 인물들이 왕족과 귀족 등 대부분 고구려 지배층이었을 것이므로 왕족인 안승 또한 사민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안승은 당의 강제사민을 피해 황해도 인근 사야도로 숨어들었고, 검모잠이 당 관인과 법안을 죽인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지세력이 필요한 안승과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한 검모잠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24) 임기환(2003, 앞의 글, 294~297쪽)은 금마저 이주가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점, 사야도라는 섬에 4,000여 호가 머물기 어려운 점, 4,000여 호는 신라 땅에 머물고 안승만 홀로 검모잠 세력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669년 2월에는 안승만 단독으로, 이후 검모잠을 살해하였을 때 4,000여 호를 이끌고 내투했다고 보았다.

25) 이병도(1964, 앞의 글, 9쪽)는 사야도를 서해 덕적군도의 하나인 蘇爺島로 추정하였다.

26) 안승이 신라 영토에 공개적으로 머물렀다면 신라에서 파악하였을 것이며, 은둔하였다면 검모잠 또한 안승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즉, 사야도를 신라영토라고 가정할 경우 검모잠이 안승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라에서도 안승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27) 임기환(2003, 앞의 글, 296쪽)은 후일 검모잠과의 접촉 상황을 고려하면 강화도 일대나 황해도 남쪽 해안이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28) 사야도를 소야도로 볼 때 안승이 유배된 것으로 보기에는 연정토 등을 받아들인 신라의 대고구려 정책과 배치되며, 해군으로 근무시켰다고 보기에도 석연치 않다(강경구, 2005, 앞의 글, 97~99쪽). 신라는 한성의 고구려국이 소멸된 후 신라 내륙인 금마저에서 안승을 보덕왕으로 임명하고 독자적인 국가를 운영하게 할 만큼 고구려 유민을 통합할 중심인물로 인식하였다.

29) 『자치통감』 권201, 고종 충장 2년 4월, “高麗之民多離叛者 勅徙高麗戶三萬八千二百於江淮之南及山南京西諸州空曠之地 留其貧弱者 使守安東”.

Ⅲ. 한성의 고구려국 성립과 대당전쟁

한성의 고구려국 성립 과정에 대한 사료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나 성립 이후 구성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사료는 소략하다. 왕으로 즉위한 안승은 신라뿐 아니라 왜에도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일본서기』에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인 671년부터 682년까지 총 8차례의 고려사(高麗使)가 기록되어 약간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사료를 논하기에 앞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1차 고려사가 671년 왜에 도착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만, 2차 고려사부터는 연구자에 따라 672년과 673년으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³⁰⁾ 『일본서기』의 경우 말미에 태세(太歲) 기사를 실어 해의 간지를 기록하는데, 천무(天武)기의 경우에는 2년 조(673)에 태세기사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672년 이후의 기록을 1년씩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일본서기』에 다른 예외도 보이므로 2차 사신파견은 672년으로 봐야 한다.³¹⁾ 한성의 고구려국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673년 말까지³²⁾ 왜에 파견된 고려사는 다음과 같다.

30) 2차 고려사의 도착 시점을 672년으로 보는 연구는 양병룡, 1997, 앞의 글; 노태돈, 2009, 앞의 책; 서영교, 2009, 앞의 글; 이재석, 2010, 앞의 글이다. 한편, 673년으로 보는 연구는 노태돈, 1985, 앞의 글; 노태돈, 1997, 앞의 글; 임기환, 2003, 앞의 글;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강경구, 2005, 앞의 글; 조인성, 2007, 앞의 책이다.

31) 천무기의 경우 2년 조(673)에 태세기사가 있다. 이 때문에 牟信友가 천무기의 원년은 현재 일본서기의 2년이며, 그 전년은 오오토모의 재위기간이었는데 후에 천무천황이 즉위를 인정하지 않고 원년을 1년 앞당기면서 원래 원년의 태세기사를 새로운 원년으로 옮기는 것을 잊어버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井上秀雄은 천무기 외의 여러 사례에서도 유사한 점이 발견되므로 일본서기에 기록된 대로 기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井上秀雄, 이근우 옮김, 1988, 『일본서기 입문』).

32) 임기환(2003, 앞의 글, 291~292쪽)은 『신당서』에서 고구려 부흥군이 4년 만에 평정되었다는 기록에 주목하여 부흥군의 소멸 시기를 673년 말로 보았고, 실제로 673년 겨울 고구려의 우장성이 당군에 함락당한 이후로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 ㉑ 천지천황 10년(671) 정월, 高麗가 上部 大相 ㉒ 可婁 등을 보내 조를 올렸다.³³⁾
- ㉓ 천무천황 원년(672) 5월, 高麗가 前部 富加拏 등을 보내 조를 올렸다.³⁴⁾
- ㉔ 천무천황 2년(673) 8월, 高麗가 上部 位頭大兄 邯子和 前部 大兄 碩干 등을 보내 조공하였다.³⁵⁾

한성의 고구려국은 671~673년까지 3차례에 걸쳐 4명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모두 관등(官等)과 부명(部名)이 지니고 있는데, 고구려 멸망 전의 것인지 한성의 고구려국에서 수여된 것인지 분명치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다식을 주목하고자 한다.

안승의 즉위 후 신라에 파견된 다식은 10관등에 불과한 소형(小兄)이다. 반면 약 4~5개월 후³⁶⁾ 왜에 파견된 가루는 4관등에 해당하는 대상(大相)이다.³⁷⁾ 동서고금을 통틀어 사신의 신분은 양국의 관계나 임무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성의 고구려국 입장에서 위치나 실제적인 관계상 가장 중요한 상대국은 신라다. 일반적이라면 신라에 파견된 사신의 신분이 왜에 파견된 사신보다 더 높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왜에 파견된 사신의 신분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이것은 고구려 멸망 전에 소형의 관등을 지닌 다식이 한성의 고구려국이 성립되고 급박한 상황³⁸⁾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신라에 파견된 반

33) 『일본서기』 권27, 천지천황 10년 정월, “丁未高麗遣上部大相可婁等進調”.

34) 『일본서기』 권28, 천무천황 원년 5월, “戊午高麗遣前部富加拏等進調”.

35)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2년 8월, “癸卯高麗遣上部位頭大兄邯子和 前部大兄碩干等朝貢”.

36) 671년 정월 왜에 도착했으므로 출발시점은 670년 말일 것이다. 한성의 고구려국이 6~7월 사이에 성립되었으므로 약 4~5개월 후에 파견되었다.

37) 『삼국사기』는 고구려 관등에 관한 사료 중 유일하게 ‘대상’이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대상은 4관등, 소형은 10관등이다.

38) 검모잠이 당군의 압박에 의해 남하한 점, 다식이 문무왕에게 상당한 저자세를 취한 점, 문무왕이 뱀살 등의 경제적 원조를 신속히 행한 점을 고려하면 한성의 고구려

면,³⁹⁾ 가루는 한성의 고구려국 내부의 관등체계가 정비되어 대상의 관등을 수여받은 후 왜에 파견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사의 5부 명 또한 고구려 멸망 전의 것일 가능성도 있으나, 한성의 고구려국 성립 이후 관등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므로 5부도 함께 재편되었을 것이다. 사료 ㉓~㉗에서 상부와 전부만 보이는 까닭에 두 개의 부가 먼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방위명 5부는 고구려 초기의 부족명 5부와 달리 부(部) 사이에서 힘의 우열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고구려 부흥국이라고는 하지만 3년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국가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⁴⁰⁾ 따라서 규모가 작을지언정 5부가 동시에 운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⁴¹⁾ 부흥운동 과정에서 검모잠 등 많은 중급 귀족들이 관등의 제약 없이 활약하였을 것이므로, 삼경(三京)의 지배층 출신들은 왕족인 안승과 결탁하여 전통적인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을 것이다. 결국 지배층 간에 알력이 발생했을 것인데, 당과의 대결에 앞서 내부 통합은 필수였으므로 국가 성립 이후 빠르게 관등과 5부를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성의 고구려국이 정비되는 1년여 동안 당군은 안시성 등의 부흥군을 공격하느라 한반도로 진군하지 못하고 있었다.⁴²⁾ 671년 9월 고간이 평양

국이 성립되었지만 상당히 불안정하고 급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39) 다식이 소형이라는 관등을 가진 이유는 낮은 관리 출신이거나,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신라군의 원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경험이 일천하고 나이가 어린 인물을 파견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따라서 낮은 관직을 지녔지만 능력이 뛰어난 안승의 측근 인물로 생각된다.

40) 『일본서기』 고려사에 보이는 부명은 상부, 하부, 전부, 후부, 서부, 남부 등 6개로 나누어진다. 서영교(2009, 앞의 글, 236쪽)는 처음 하나의 집단을 전후 두 개로 나누다가 후에 더 많은 유민이 밀려오면서 상하의 부가 생기고, 나중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서남부가 생겨난 것으로 보았다.

41) 상부에 대한 사료로는 『삼국사기』 온달열전에 보이는 상부 고씨와 고구려 멸망 후 『일본서기』에 보이는 고려사뿐이고, 전부도 중원고구려비와 농오리 산성의 석각 및 『일본서기』에 보이는 고려사가 전부인데 하부나 후부보다 우대했다는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방위명 5부를 200여 년 가까이 운영한 상황에서 익숙한 5부 체제를 두고 누층적으로 운영했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한다.

42) 『자치통감』 권202, 고종 함형 2년 7월, “高侃 破高麗餘衆 於安市城”.

에 도착하였으나,⁴³⁾ 조운선 70여 척이 공격당하여 퇴각하였고,⁴⁴⁾ 이듬해 7월 재침입하여⁴⁵⁾ 여·라연합군과 본격적으로 전투를 벌이게 된다.

㉔ 문무왕 12년(672) 8월에 당나라 군사가 韓始城과 馬邑城을 공격하여 이기고, 군사를 白水城에서 500보쯤 떨어진 곳까지 전진시켜 군영을 설치하였다. 우리 군사와 고구려 군사가 맞아 싸워 수천 명을 목베었다. 高侃 등이 후퇴하자 石門까지 뒤쫓아가 싸웠는데, 우리 군사가 패하였다. 대아찬 曉川, 사찬 義文, 山世, 아찬 能申, 豆善, 일길찬 安那舍, 良臣 등이 죽임을 당하였다.⁴⁶⁾

㉕ 함형 3년(672) 12월 高侃이 우리의 남은 무리와 白水山에서 싸워 그들을 깨뜨렸다. 신라가 군사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였으나, 高侃이 쳐서 이기고 2천 명을 사로잡았다.⁴⁷⁾

㉖ 함형 3년(672) 겨울, 左監門大將軍 高侃이 橫水에서 신라의 무리를 대패시켰다.⁴⁸⁾

사료의 백수성, 백수산, 횡수는 유사한 지역으로, 세 사료 모두 신라군이 등장함으로써 양국이 지속적인 협력관계였음을 보여준다. 평양에 진지를 구축한 고간은 한시성과 평양 인근의 마음성⁴⁹⁾을 함락하였는데, 이것은 한성의 고

43)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9월, “唐將軍高侃等 率蕃兵四萬到平壤 深溝高壘 侵帶方 ……”.

44)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9월, “…… 冬十月六日 擊唐漕船七十餘艘 捉郎將鉗耳大侯 士卒百餘人 其淪沒死者 不可勝數 級浪當千 功第一 授位沙浪”.

45)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2년 7월, “唐將高侃率兵一萬 李謹行率兵三萬 一時至平壤作八營留屯”.

46)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2년 8월, “攻韓始城馬邑城克之 進兵距白水城五百許步 作營 我兵與高句麗兵逆戰斬首數千級 高侃等退走 至石門戰之 我兵敗績大阿浪 曉川 沙浪 義文 山世 阿浪 能申 豆善 一吉浪 安那舍 良臣等死之”.

47) 『삼국사기』 권22, 함형 3년 12월, “高侃與我餘衆 戰于白水山破之 新羅遣兵救我 高侃擊克之 虜獲二千人”.

48) 『구당서』 권5, 고종 함형 3년, “是冬 左監門大將軍高侃 大敗新羅之衆於橫水”.

49) 『삼국사기』 권22, 보장왕 20년(661) 8월, “蘇定方 破我軍於涇江 奪馬邑山 遂圍平



구려국이 평양 이남까지 세력을 확장하였음을 보여준다. 연합군은 백수성에서 승리하고 고간을 쫓아 석문⁵⁰⁾에 이르렀는데 공을 다투어 병력을 분산하는 바람에 대패하였다.⁵¹⁾

대당전쟁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점은 백수성의 위치다. 백수성은 재령강⁵²⁾ 또는 예성강 하류⁵³⁾로 비정되는데 백수성이 재령강일 경우에는 고구려군이 당의 공격에 밀리지 않고 4개월간 대등하게 싸운 것이 되지만, 예성강 하류일 경우에는 전투가 발발한지 한 달 만에 황해도 전역을 상실하고 예성강 하류까지 밀려난 것이 된다. 그런데 예성강 하류로 보기에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첫째, 전투과정에서 한시성·마읍성·백수성 등의 지명은 보이지만 한성 고구려국의 중심이자 전략적 거점인 한성이 함락당했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사료 ㉔가 상세한 기록임을 감안할 때 대동강에서 예성강으로 전장이 급격하게 바뀐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둘째, 평양에서 주요성들을 점령해가며 한 달 만에 예성강 하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661년 8월 평양을 공격한 소정방에게 군량을 운송한 김유신이 임진강에서 평양까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보름 정도다.⁵⁴⁾ 이동 루트

壤城”라 하여 마읍성이 평양 근처임을 알 수 있다.

50) 황해도 서흥군 서북쪽에 있는 雲磨山에 石門寺가 있는데, 절 이름이 지명에서 따온 듯하므로 석문을 그 부근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이병도, 1977, 『국역 삼국사기』, 119쪽).

51) 『삼국사기』 권43, 김유신전 하 원술전, “初法敏王納高句麗叛衆 又據百濟故地有之 唐高宗大怒遣師來討 唐軍與 靺鞨營於石門之野 王遣將軍義福 春長等禦之營於帶方之野 時長槍幢獨別營 遇唐兵三千餘人捉送大將軍之營 於是諸幢共言長槍幢獨處成功必得厚賞吾等不宜 屯聚徒自勞耳遂各別兵分散 唐兵與靺鞨乘其未陣擊之吾人大敗 將軍 曠川 義文等死之”.

52) 池內宏, 1930, 앞의 글, 439~440쪽.

53) 이병도, 1977, 앞의 책, 118쪽.

54) 김유신은 662년 1월 23일 칠중하(임진강)를 건너 산양에 이르렀고 2월 1일 장새(황해도 수안)를 거쳐 6일에 양오(평양 강동)에 이르러 당에게 군량을 넘겨주었다. 가는 도중 길이 험해 군량을 소와 말에 얹겨 싣고 고구려군을 피해 험하고 좁은 길을 이용하였으며, 고구려군과 한 차례의 전투도 벌이면서 걸린 시간은 약 보름 정도다.



〈지도 1〉 황해도 석문과 주변지역

나 조건은 다르지만⁵⁵⁾ 당군은 진군로에 위치한 성들을 함락하여 보급로와 퇴로를 확보해야 했다.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불과 보름 동안 평양에서 예성강 하류에 이르는 성들을 점령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백수성에서 패배한 당군이 석문으로 퇴각했다는 점이다. 예성강 하류에서 패배한 당군과 이를 쫓는 여·라 연합군이 〈지도 1〉에서 보듯이 엄청난 거리를 추격하여 석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투를 벌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백수성은 재령강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⁵⁶⁾

55) 이상훈(2012,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 107쪽)은 칠중하에서 장새까지의 거리가 약 96km인데 7일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1일 평균 약 14km의 속도로 행군하였다고 하였다. 고대의 행군속도가 1일 30리(12km) 내외인 점, 군량 수송을 위해 수레와 우마를 대거 운용해야 했던 점, 혹한기에 적지의 소로를 이용해야 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비교적 빠른 속도로 행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56) 백수성이 재령강 주변에 위치한다면 위에서 지적한 난점들은 자연스레 해결된다. 사료 ㉔에서 한성을 포함한 황해도 전역의 전투가 누락된 것이 아니라, 당군이 한시성·마음성 전투 이후 재령강 주변의 백수성으로 이동한 것이므로 자연스럽다. 또, 평양에서 성들을 점령해가며 재령강에 도착하는 데 한 달이면 충분한 시간이며, 재령강 인근에서 전투를 했다면 당군이 가까운 지역인 석문으로 퇴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당군은 석문에서 신라군에게 대승을 거두었지만 672년 12월까지도 재령강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백수산 전선⁵⁷⁾에서 여·라 연합군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다(㉠, ㉡). 그런데 이와 관련해 황해도 봉산에 당과 관련된 지명이 있어서 주목된다.

㉠ 古唐城: 고을 서쪽 42리에 있는데 흙으로 쌓았고 둘레는 4리, 높이는 24척이다.⁵⁸⁾

고당성은 대방군의 군치(郡治)로 알려져 ‘봉산대방토성(鳳山帶方土城)’ 또는 ‘지탑리토성(智塔里土城)’이라고 불린다. 1911년 고당성 북쪽 5km의 한 무덤에서 ‘사군대방태수 장무이(使郡帶方太守 張撫夷)’라고 새겨진 전돌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발굴에 참여한 세키노 타다시[關野貞]는 이 무덤의 축조시기인 ‘무신년’을 288년으로 보고 고당성을 대방군치로 비정하였다.⁵⁹⁾ 그런데 ‘대방태수’의 관직이 허직(虛職)이거나 고구려에서 제수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⁶⁰⁾ 장무이묘가 고구려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신년’은 348년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⁶¹⁾ 이러한 주장들에 따르면 장무이묘에서 가까운 고당성을 대방군의 치소로 판단했던 가장 결정적인 고고학적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고당성이 대방군치가 아니라면 유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남양도호부에는 또 다른 고당성이 보이는데 바로 당

57) 최초의 전투가 백수성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성의 이름을 따서 전선이라 부르기에 부적합하다. 그러나 백수산, 백수성, 황수는 모두 유사한 지역이므로 ‘백수산 전선’이라 부르고자 한다.

5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1, 鳳山 古跡, “在郡西十二里土築 周四里 高二十四尺”.

59) 장무이묘가 궁룡전장과 전실묘라는 점과 전돌에서 ‘대방태수 장무이’라 하였으므로 대방군의 멸망 이후인 348년, 408년 설은 부정되었다.

60) 임기환, 1995, 「고구려 집권체제 성립과정의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12~216쪽.

61) 정인성, 2010, 앞의 글, 61~65쪽.

항성(黨項城)이다.⁶²⁾ 당항성은 교통상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명에 ‘唐’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이지만 봉산의 고당성은 당과의 교통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다. 다만, 고당성과 멀지 않은 곳에 당태종(唐太宗)이 유진(留陣)하였다고 전해지는 당성평(唐城坪)이 있어 당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짐작케 한다.⁶³⁾

당이 황해도 일대에서 활동한 사례는 대략 3차례 정도인데, 첫 번째는 고구려 멸망 과정이다. 당군은 서해를 횡단해 평양을 직공하기도 했고, 668년 대곡·한성 등 12성의 항복⁶⁴⁾을 받는 등 황해도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항상 수도인 평양을 목표로 하였고, 재령강과 대동강의 수계를 통해 한성과 평양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봉산에 성을 쌓거나 주둔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나·당군이 경계를 마주하게 되는 673년 말부터 676년 사이인데, 칠중성(七重城),⁶⁵⁾ 매초성(買肖城)⁶⁶⁾ 등 대체로 임진강 이남에서 전투를 벌였으므로 고당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⁶⁷⁾

마지막으로 여·라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백수산 주변에서 4개월 이상 대치하였으므로 재령강과 석문의 중

6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南陽都護府 古跡, “古唐城 在府西二十里 有古城 周二千四百十五尺 高十尺”.

63) 김용국, 1970, 앞의 책, 513쪽.

64) 『삼국사기』 권6, 문무왕 8년 6월, “二十二日 府城劉仁願 遣貴于未盼 告高句麗大谷口漢城等二郡十二城歸服”.

65) 현재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었던 성으로 고구려의 칠중현이었다(정구복 외, 2012, 앞의 책(上), 151쪽).

66) 지금의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또는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로 비정한다(정구복 외, 2012, 앞의 책(上), 242쪽).

67) 다만 675년 9월 설인귀가 쳐들어온 천성(泉城)의 위치에는 논란이 있다. 천성은 신라 장군 문훈이 설인귀를 물리쳐 병선 40여 척을 격파하고 전마 1,000필을 얻었던 곳으로, 이병도는 泉城에서 ‘泉’이 ‘白水’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고 천성과 백수성을 동일 지명으로 파악하여 예성강 하류로 비정하기도 하였다(1977, 앞의 책, 118쪽). 천성과 백수성이 동일 지역이라면 천성을 재령강 주변으로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고당성과의 개연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예성강보다도 남쪽인 임진강 이남에서 전선이 형성되었으므로 재령강 인근인 고당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 지점인 고당성도 전투에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군이 672년 7월 평양의 8곳에 진영을 설치하여 거점으로 삼았던 점을 상기해보면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 전선의 고착화, 군량 수송, 평양과의 거리 때문에 재령강 수계인 봉산에 토성을 쌓거나 점령하여 거점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차후 발굴 성과가 동반되어야 하겠지만 고당성이 백수산 전선의 일부로서 평양에 이은 당군의 두 번째 거점으로 이용되었거나, 백수성일 가능성도 있다. 여·라 연합군은 당군에게 한시성과 마음성을 빼앗겼지만 재령강 부근의 백수성, 고당성 주변에서 전선을 형성하였고, 석문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백수산 전선을 유지하며 당군의 남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였다.

IV. 한성의 고구려국 소멸과 안승의 내투

한성의 고구려국은 672년 12월까지도 신라군과 연합하여 한성 이북의 백수산 전선을 유지하였으나 불과 5개월 만에 임진강으로 비정되는 호로하(瓠瀟河)까지 후퇴하였다.⁶⁸⁾ 이 전투에서 수천의 고구려군이 사로잡힌 점을 고려하면 죽거나 도망한 병력까지 합쳐 수만에 달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한 연합군이 급격하게 밀린 데에는 기근⁶⁹⁾과 내분⁷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당서』 동이열전(㉑)과 『자치통감』 고이편에는 안승이 검모잠을 죽인 시

68) 『삼국사기』 권22, 보장왕 함형 4년 윤5월, “燕山道總管大將軍李謹行 破我人於瓠瀟河 俘獲數千人餘衆皆奔新羅”.

69)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2년, “是歲穀貴人飢”라고 하였는데, 기근이 신라뿐 아니라 황해도 지역까지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70) 김수태(1994, 앞의 글, 347쪽)는 당의 공격이 계속되자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신라 속으로 들어가려는 안승세력의 내분이 있었다고 보았다.

기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보인다. 동이열전에는 ‘안승의 즉위(670. 6.~7.)→고간·이근행·양방의 공격→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내투→고간이 도호부의 치소를 요동주로 옮기고 안시성 공격(671. 7.)’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고이편에는 “실록에 함형 원년(670) 양방·고간이 안승을 토벌하여 비로소 안동도호부를 함락시키고 평양에서 요동주로 옮겼다”⁷¹⁾고 하여 670년에 이미 안승에 대한 공격이 실행되었음을 전한다. 즉, 두 사료를 종합하면 670년 고간 등이 공격하자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내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내용과 충돌하는 사료가 있다. 671년 7월 26일 설인귀가 문무왕에게 보낸 글에서 “고구려 안승은 나이가 아직 어리고 남아 있는 고을과 성읍에는 사람이 반으로 줄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심을 품고서 나라를 맡을 무거운 뜻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⁷²⁾라고 하였는데, 이는 671년 7월까지도 안승이 ‘토벌’당하지 않고 황해도 일대에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⁷³⁾ 동이열전과 고이편은 후대에 편찬된 반면 설인귀의 글은 당대의 상황과 당의 시각을 반영한다. 따라서 동이열전과 고이편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고구려 부흥운동에 관한 기사는 국내 사료가 중국 사료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한 편이다. 후대의 사료이긴 하지만 『동사략(東

71) 『자치통감』 권202, “實錄 咸亨元年(670), 楊昉高侃討安舜, 始拔 安東都護府 自平壤城 移於遼東州”.

72)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7월, “二十六日 大唐總管薛仁貴 使琳潤法師寄書曰 …… 高麗安勝 年尚幼冲 遺壑殘郛生人減半 自懷去就之疑匪堪襟帶之重 仁貴樓船竟翼風 帆連旗巡於北岸 矜其舊日傷弓之羽 未忍加兵恃 爲外援斯何謬也 ……”.

73) 이 글이 설인귀가 한성의 고구려국을 꺾으려는 의도로 쓴 것을 감안하면 실제 상황보다 상당히 과장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승이 검모잠을 죽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유약한 소년이라기 보다는 10~20대의 청년일 가능성이 있다. ‘무거운 뜻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에 근거하기보단 비방을 위한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다. 다만 남아 있는 고을과 성읍에 사람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고구려 멸망 후 한성의 고구려국 영역인 황해도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史約』⁷⁴⁾에는 672년의 석문 전투 이후 어느 시점에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였다고 하였다.⁷⁵⁾ 이 사료는 당군이 백수성에 이른 상황이나 의복(義福)·춘장(春長)·원술(元述)의 등장과 같이 대부분의 내용이 『삼국사기』와 유사하다. 따라서 『동사략』이 후대에 편술된 사료이기는 하나 『삼국사기』나 이외의 사료들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한 시점은 적어도 672년 8월 이후로 생각된다.

한편, 사신 파견은 왕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일본서기』의 고려사가 안승의 내투 시기를 가능하는 또 다른 실마리가 될 수 있다.⁷⁶⁾ 고려사는 671~682년까지 총 8차례 왜에 파견되었는데 1~2차 고려사는 신라의 송사(送使) 없이 단독으로 파견되었고, 3~8차 고려사는 신라 송사가 축자(筑紫)까지 동행하였다.⁷⁷⁾ 이러한 까닭에 송사가 없는 경우는 한성의 고구려국이 서해를 통해 독자적으로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보고, 송사가 있는 경우는 금마저(曷山)로 옮겨간 이

74) 茅亭 李源益(1792~1854)이 단군조선으로부터 편술자 당대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삼한정통론의 상황에서 편술하였다.

75) 『동사략』 권3, 문무왕 12년 “十二年(672), 唐遣高侃李謹行等 破高句麗餘衆 高侃等領兵四萬 作八營至白水城 王遣將軍義福 春長等 救之於平壤敗績 大監 阿珍舍死之 金庾信子元述走免 庾信請正軍律 王宥之 元述遁入太白山中 時劔牟岑爲安勝所殺 以百濟餘衆爲白衿誓 幢置五州誓 五州卽 薺州 完山 漢山 牛首 河西州也 各州置誓”.

76) 임기환(2003, 앞의 글, 301쪽)은 최초로 고려사를 통해 안승의 내투시점을 비정하려 시도하였다. 그는 673년 5월에 두 번째 고려사가 도착하였다고 보고 사신이 파견되는 673년 초까지는 안승이 신라로 내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3장에서 언급했듯이 두 번째 고려사는 673년 5월이 아닌 672년 5월에 도착한 것이므로 안승의 내투 시점과는 관련이 없다.

77) ①~③은 사료 ㉠~㉣ 참조; ④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4년(675) 3월, “高麗遣大兄富干 大兄多武等朝貢 新羅遣級滄朴勤修 大奈末金美賀進調”; ⑤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5년(676) 11월, “高麗遣大使後部 主簿(簿)阿于 副使前部大兄 德富朝貢 仍新羅遣大奈末金楊原 送高麗使人於筑紫”; ⑥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8년(679) 2월, “高麗遣上部大相桓父 下部大相師需婁等朝貢 因以新羅遣奈末甘勿那 送桓父等於筑紫”; ⑦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9년(680) 5월, “高麗遣南部大使卯問 西部大兄俊德等朝貢 仍新羅遣 大奈末考那 送高麗使人卯問等於筑紫”; ⑧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11년(682) 6월, “高麗王遣下部助有卦婁 毛切大古昂加 貢方物 則新羅遣大奈末金釋起 送高麗使人於筑紫”.

후 신라의 감시 내지는 보호⁷⁸⁾하에 파견하였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신라사가 파견될 때에도 신라 송사가 동행하며⁷⁹⁾ 고려사나 신라사와 동행할 때 축자까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은 재검토되어야 한다.⁸⁰⁾ 신라 송사의 역할이 감시가 아니라 단순한 사신 호송이라면 고려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⁸¹⁾

고려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 왜에 독자적으로 사신을 파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해양루트의 이용 가능성이다. 신라 내지인 금마저에서 신라의 도움 없이 사신을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반대로 한성의 고구려국이 서해에 인접했다고 해서 언제나 사신 파견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신라와 왜의 월별 교섭을 살펴보면 고려사가 파견된 계절의 이동 시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5〉는 『삼국사기』에 나타난 신라의 대왜(對倭) 교섭을 월별로 분석한 것인데, 왜의 침입이 일정한 시기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남동풍을 활용하였기 때문이며, 늦가을에서 겨울까지 침입이 없는 것은 북풍의 영향으로 한반도 남부로 향진하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다.⁸²⁾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월에 도착한 1차 고려사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출발하여 북풍의 영향을 받아 짧은 시일이 걸렸겠지만(9~12월 참조), 8월에

78) 노태돈은 송사의 임무를 통제와 감시로 보았다가 이후 송사가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추가하였다(1985, 앞의 글, 620쪽; 1997, 앞의 글, 12쪽). 이재석은 기존의 견해에 다시 사신단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을 추가하였다(2010, 앞의 논문, 43~44쪽).

79)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2년(673) 6월, “新羅遣韓阿浪金承元 阿浪金祗山 大舍霜雪等賀騰極 并遣一吉浪金薩儒 韓奈末金池山等弔先皇喪[一云調使] 其送使貴干寶真毛 送承元薩儒於筑紫 戊申饗貴干寶等於筑紫 賜祿各有差 即從筑紫返于國”;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2년(673) 8월, “高麗遣上位頭大兄邯子 前部大兄碩干等朝貢 仍新羅遣韓奈末金利益 送高麗使人于筑紫”.

80) 이재석, 2010, 앞의 글, 43쪽.

81) 신라 송사는 고려사나 신라사와 동행할 때 축자까지만 함께하며, 당 사신 곽부중(郭務宗)이 왜에 파견될 때에는 백제인 사택손등(沙宅孫登)이 송사로서 함께하였다. 또한 고려사와 신라사가 한 달 차이로 왜에 파견되기도 하는데 동행할 경우 신라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감시와 위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시기나 상황의 고려없이 송사의 목적을 감시로만 보기 어렵다.

82) 윤명철, 2003, 『고구려 해양사 연구』, 477쪽.

〈표 5〉 왜의 대신라 관계 월별 통계⁸³⁾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불명
침범		1	2	11	5	4	3	1					7
교빙	1	3	7	3	3		2			1		1	
계	1	4	9	14	8	4	5	1		1		1	7

〈표 6〉 1~3차 고려사의 파견시기 검토

시기		전쟁 상황	고려사 파견·도착 시점	비고
670년	말		1차 고려사 파견(?)	안전
671년	정월		1차 고려사 도착	
	7월	고간이 안시성 부흥군 섬멸, 설인귀 남하		
	9월	고간 평양 주둔		
672년	10월	당 조운선 몰살		
	초		2차 고려사 파견(?)	안전
	5월		2차 고려사 도착	
	7월	고간 평양 주둔		
673년	12월	백수산(횡수)전투		
	윤5월	호로하(임진강)전투	3차 고려사 파견(?)	위험
	8월		3차 고려사 도착	

도착한 3차 고려사는 늦봄이나 초여름에 출발하여 남풍의 영향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된다(4~7월 참조). 계절풍을 고려하여 1~3차 고려사의 파견시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 6〉을 보면 전쟁 상황과 고려사 파견의 연관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1, 2차 고려사는 당과의 전투가 일어나기 이전이거나(1차), 승리한 뒤(이므로(2차) 해양루트를 안전하게 확보하여 신라 송사 없이 단독으로 파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3차 고려사에 대한 해석이다. 지금까지는 신라 송사의 존재만으로 금마저에서 파견한 사신으로 이해하였지만 이동 시간에 따라서 한

성의 고구려국에서 파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신라는 3차 고려사가 도착하기 두 달 전인 673년 6월 한아찬(韓阿澮) 김승원(金承元) 등을 보내 천무천황의 등극을 축하하고 일길찬(一吉澮) 김살유(金薩儒) 등을 보내 선황의 상을 조하였다.⁸⁴⁾ 따라서 8월에 도착한 3차 고려사도 신라와 동일한 목적으로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8월에 왜가 신라 사신 김승원, 탐라(耽羅)의 사신 구마예(久麻藝) 등 27인을 京으로 초대할 기록은 있으나,⁸⁵⁾ 고려사를 京에 초대했다는 기록은 없다. 이러한 까닭은 3차 고려사의 방문목적이 천황의 등극을 축하하는 신라와 달랐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3차 고려사는 호로하 전투를 전후한 시기에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로하에서든지, 신라로 내투한 직후든지 안승이 직접 파견한 것으로 봐야 한다.⁸⁶⁾ 당군이 호로하 전투 이전부터 서해를 장악하였을 것이므로 해로가 봉쇄당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왜에 사신을 파견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육로를 통해 금성까지 걸리는 시간과 계절풍이나 태풍 등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때 3개월 가까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라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신라 송사가 동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료에서는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곧바로 신라로 내투한 것처럼 기록했으나 두 사건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백제 부흥운동의 경우에도 부여풍(扶餘豐), 복신(福信), 도침(道琛)이 상대를 죽이는 것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함이었다. 안승도 권력싸움에서 검모잠을 죽이고 남은 권력을 차지

83) 윤명철, 2003, 위의 책, 476쪽 표 참조.

84)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2년 6월, “新羅遣韓阿澮金承元 阿澮金祇山 大舍霜雪等賀騰極 并遣一吉澮薩儒·韓奈末金池山等 弔先皇喪[一云調使]”.

85)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2년 8월, “喚賀騰極使金承元等 中客以上廿七人於京 因命大宰 詔耽羅使人曰 天皇新平天下 初之即位 由是 唯除賀使 以外不召 則汝等親所見 亦時寒浪險 久淹留之 還爲汝愁 故宜疾歸 仍在國王及使者久麻藝等 肇賜爵位 其爵者大乙上 更以錦繡潤飾之 當其國之佐平位 則自筑紫返之”.

86) 만약 호로하 전투 이전에 안승이 내투했다면 3차 고려사를 보낸 주체가 신라로 귀순한 안승인지, 호로하에 남겨진 고구려 부흥군인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안승은 고구려의 왕이며 왜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안승이 신라로 내투했다고 해서 황해도에의 잔존 세력이 독자적으로 사신을 파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승자가 모든 권력을 버리고 신라로 내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승은 기존의 이해처럼 검모잠을 살해한 후 치열하게 전투 중인 동족을 버리고 신라로 달아난 것이 아니다. 고구려의 왕으로서 소멸되어가는 부흥운동을 되살리기 위해 왜에 군사를 요청하는 등 마지막까지 고구려인들과 함께하였다.

V. 맺음말

고구려 부흥운동은 나당전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부흥운동 초기에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내투한 것으로 이해되면서 고구려 부흥세력은 신라의 보조적인 역할로 저평가되었다. 삼국을 통일한 막강한 국력의 신라와 황해도 지역만을 차지한 한성의 고구려국 세력 차이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성의 고구려국의 성격과 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동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670년 6~7월 안승이 즉위하고 다식을 파견할 때만 하더라도 변방의 울타리를 운운하며 신라에 저자세를 취했지만, 고간이 침입하는 671년 9월 무렵에는 처음의 대(對)신라 관계와 성격을 달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신라의 원조를 받던 한성의 고구려국은 5부와 관동 등 내부를 정비하고, 왜와 교류하며 평양 이남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등 점차 국제적 위상을 구축하였다. 또한 신라가 옛 백제지역을 공략하고 소부리주를 설치하는 동안 육로에서 당군을 막아내며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한성의 고구려국에 대한 신라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이 보덕국의 수립이다.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를 인정해주는 것은 반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실제로 안승에게 벼슬을 주어 금성에 살게 하자 보덕국민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674년 초의 국제정세는 황해도 지역의 고구려 부흥운동이

종식되고, 나·당 간의 전면전이 촉발되기 일보직전이었다. 그런데 국가의 존폐가 걸린 위기 상황에서 신라가 황제국의 위상이라는 허상을 목적으로 보덕국을 수립했다고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고구려왕 안승을 정점으로 하는 체계화된 정치조직, 4년간의 대당전쟁 과정에서 보여준 역량, 호로하 전투에서 포로가 수천에 달한 상당한 병력, 고구려국의 재건에 대한 강한 의지는 한성 고구려국의 원동력이었다. 비록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기는 했지만 국가와 백성을 버리고 신라로 내투했다면 신뢰와 조직력이 와해되어 보덕국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최후의 항전까지 함께하였기 때문에 안승을 정점으로 하는 신뢰와 조직이 유지될 수 있었고, 당과의 전면전을 앞둔 신라가 이들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보덕국의 수립으로 귀결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 김용국, 1970, 『황해도지』, 황해도.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영교, 2006, 『나당전쟁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서인한, 1999, 『신당전쟁사』, 국방군사연구소.
 성은구 역주, 1987, 『일본서기』, 정음사.
 이병도, 1977,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이상훈, 2012,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이호영, 1997, 『신라삼국통합과 여·제패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전용신 역주, 1989, 『완역 일본서기』, 일지사.
 정구복 외, 2012, 『역주 삼국사기』 3·4 주석편(상·하).
 황해도지편찬위원회, 1982, 『황해도지』, 황해도지편찬위원회.
 井上秀雄 著, 이근우 옮김, 1988, 『일본서기입문』, 민족문화사.

논문

- 강경구, 2005, 「고구려 부흥운동의 신고찰」, 『한국상고사학보』 47, 한국상고사학회.
 김수태, 1999, 「신라 문무왕대의 대북속민 정책」, 『신라문화』 1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김수태, 1994,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유민지배」,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 일조각.
 김종복, 2003,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의 지배 정책」, 『사림』 19, 성균관대학교.
 김종복, 2010, 「백제와 고구려 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 양상」, 『역사와 현실』 78, 한국역사연구회.
 김주성, 2011, 「7세기 삼국 고대 전투모습의 재현」, 『군사』 81, 군사편찬연구소.
 노태돈, 1985, 「대발해 일본국서에서 운위한 ‘高麗舊記’에 대하여」, 변태섭 화갑기념사학논총.
 노태돈, 1997, 「대당전쟁기 신라의 대외관계와 군사활동」, 『군사』 34, 군사편찬연구소.
 서영교, 2002, 「나당전쟁기 석문전투」, 『동국사학』 38, 동국대학교사학회.

- 서영교, 2009, 「신문왕대 보덕성민의 반란과 헬리헤성」,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 78,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양병룡, 1997, 「나당전쟁 진행과정에 보이는 고구려유민의 대당전쟁」, 『사충』 46,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 이병도, 1964, 「고구려의 일부유민에 대한 당의 추호정책」, 『진단학보』 25·26·27, 진단학회.
- 이상훈, 2012,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 『국방연구』 55, 한국국방연구원.
- 이재석, 2010, 「7세기 후반 보덕국의 존재 의의와 왜국」, 『일본역사연구』 31, 일본사학회.
- 이정빈, 2009,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현실』 72, 한국역사연구회.
- 임기환, 1995, 「고구려 집권체제 성립과정의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기환, 2003, 「보덕국고」, 『강좌한국고대사』 10, 가락국사개발연구원.
- 전준현, 1982, 「670년에 재건된 '高句麗國'에 대한 연구」, 『역사과학』 82-2, 역사연구소.
- 정선여, 2010, 「신라로 유입된 고구려 유민의 동향」, 『역사와 담론』 56, 호서사학회.
- 정인성, 2010, 「대방태수 장무이묘의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 69, 한국상고사학회.
- 조인성, 2007,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운동의 전개」,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 池内宏, 1930,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の關係」, 『滿鮮地理歴史研究』 12.
- 村上四男, 1966, 「新羅と小高句麗國」, 『朝鮮學報』 37·38, 朝鮮學會.

[국문 초록]

漢城의 高句麗國 再檢討

최재도

안승과 검모잠 등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에 관한 사료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나 사건의 시기가 불분명하고 사료 간에 내용이 상충하여 연구자마다 견해를 달리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 사료들 간의 내용 비교, 『신당서』 동이열전과 『삼국사기』 신라본기 비교, 고구려본기의 구조 분석, 『일본서기』에 보이는 고려사를 통해 한성의 고구려국의 성립과 나당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670년 6월 이후 안승이 한성 고구려국의 왕으로 즉위하여 5부와 관등을 정비하였고, 평양 이남까지 영역을 확장하였다. 671년 9월 신라군과 연합하여 당군을 침입을 물리쳤고 이듬해인 672년부터 본격적인 전투를 벌였다. 양측은 석문 전투 이후 4개월간 백수산 전선을 유지하였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소개된 봉산 고당성의 지명이 이때에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대치과정 중 672년 8월 이후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내분과 기근 등으로 673년 윤5월에는 호로하까지 밀리게 된다. 안승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왜에 사신을 파견하려고 하지만 당군이 황해를 봉쇄한 까닭에 신라 송사의 도움으로 왜에 사신을 파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로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모두 신라로 내투하게 되었다. 하지만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는 기존의 이해와 달리 안승은 마지막까지 고구려인들과 함께하였고, 이러한 신뢰가 있었기에 신라 내투 이후에도 보덕국에서 안승을 중심으로 결속할 수 있었다.

주제어

검모잠, 고구려 부흥운동, 안승, 보덕국, 한성

[ABSTRACT]

The review of Goguryeo in the Hanseong

Choi Jaedo

Between June and July of 670, Geommojam, a refugee of Goguryeo, re-established Goguryeo by crowning Anseung, a scion of the royal family of Goguryeo, as king in Hanseong, or Jaeryeong in today's Hwanghae Province. In alliance with Silla, Hanseong Goguryeo took most of the Hwanghae Province area and acquired an international stature by dispatching envoys to Japan.

The war between the Goguryeo-Silla combined forces and the Tang Empire lasted from September of 671 to May of 673. Even though the combined forces were defeated by the Tang army and retreated to the Imjin River, Anseung did not stop trying to overcome the crisis and sent envoys to Japan. However, in the end, he could not achieve his goal and had to take refuge in Silla with the revived army of Goguryeo.

Anseung devoted himself to the reconstruction of Goguryeo and fought with his army to the last moment. Bodeokguk could be established in Silla territory because the excellent abilities of Anseung and the Goguryeo people were essential to Silla for the war against the Tang Empire.

Keywords

The Reconstruction Movement of Goguryeo(고구려 부흥 운동), Geommojam(검모잠), Anseung(안승), Bodeokguk(보덕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제강점기 목포 유달산의 弘法大師像과 88靈場

이경화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한국 근대 불교조각에서 일본불교의 영향과 실재를 파악하려는 논의는 아직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분야이다. 한국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논의는 전통을 계승하면서 근대적 사고가 반영된 유물에 집중되는데, 그것은 한국불교 전통과 다른 일시적 영향으로 간주되었고 연구대상으로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시기이든지 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은 필요하다. 긍정의 역사가 아닌 부정의 역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일제강점기 목포 유달산 홍법대사와 관련된 흔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31년경 목포 유달산에는 홍법대사와 부동명왕 마애조각, 그리고 88개소의 영장이 만들어졌다. 그 가운데 88영장은 현재 그 자취만 있으나 유달산의 중요 지점에 감실 등의 기도공간을 만들어 일련번호가 기입된 불상을 안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홍법대사(弘法大師, こうぼうだいし, 774~835)는 일

※ 투고: 2014년 11월 21일, 심사 완료: 2015년 2월 1일, 게재 확정: 2015년 2월 23일

본에서 존경받는 헤이안 시대의 사상가이자 일본밀교 진언종의 창시자이다. 홍법대사의 염지불(念持佛)이 밀교의 분노상인 부동명왕이다. 홍법대사는 자신의 고향 시코쿠에 88개 사원이 연결된 영장(靈場)과 순례문화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영장은 부처의 신령스런 기운이 깃든 장소이다.

한국불교는 19세기 말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개화사상의 형성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으나, 일제강점기라는 재배치된 질서 속에서 통제되고 관리되었다.¹⁾ 1897년 10월 1일 목포 개항 이후 일본 진종 동본원사, 진언종 대사사 등의 교파가 진출하였고 일본인들의 필요에 의한 포교소와 사찰이 세워졌다.²⁾ 목포는 1930년대 중반에 전성기를 누렸고, 그 속에는 1만여 명의 일본인 지배세력과 7만여 명의 조선인 피지배층이라는 현실이 있었다.³⁾

과거의 산물은 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의 본래 모습과 기능을 추적하는 것은 우리를 과거와 연결시키고, 때로는 미래의 주체적인 역사인식에 관한 논의를 더불어 제기하도록 한다. 이 글은 세상을 구제하는 살아있는 보살로 여겨지는 일본의 홍법대사가 목포 유달산에 새겨지고 그와 관련한 88영장이 만들어졌던 사실에 관하여 기초적인 조사를 거쳐 기술되었다. 그리고 이를 검토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얻기 위해 홍법대사의 생애와 시코쿠 88영장의 순례문화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유달산 88영장 불상의 일련번호가 지시하는 바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 분야는 아직 깊이 있게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단편들을 따라가지만, 과거의 산물로서 목포 유달산 88영장의 목적도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 유달산 88영장 불상자료는 목포의 향토사학자 삼호중공업 이흥식 선생님의 관심과 노고에 의해 모아질 수 있었습니다. 짧은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1) 한상길, 2006, 「開化思想의 형성과 近代佛敎」, 『불교학보』 45, 28~32쪽; 서경수, 1984, 「개화사상가와 불교」, 『승산박길진박사고회기념 한국종교사상사』, 원광대출판부.
- 2) 木浦府編, 1930, 『木浦府史』, 364~375쪽, 828쪽; 申淳鐵, 1984, 「開港이후 日本宗教의 國內活動과 그에 대한 反應」, 『원광사학』 3.
- 3) 박찬승, 1997, 「근대 목포의 역사(1897~1945)」, 『木浦開港百年史』, 木浦百年會, 116~118쪽; 고석규, 2004, 『근대 도시 목포의 역사 공간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307쪽.

II. 유달산의 홍법대사, 부동명왕 마애조각과 88영장

목포 개항 이후 진언종, 정토종 등의 일본불교 교파가 목포에 진출하였다.⁴⁾ 가장 먼저 1898년 4월에 개항장 목포의 첫 불교사원으로 일본 진종 대곡파 동본 원사의 별원이 세워졌다.⁵⁾ 그리고 1901년에 부산의 고야산금강사 출장소가 목포에 포교소를 세웠다. 이 포교소는 1921년에 본당을 건립하여 대사사라고 하였다. ‘대사’는 곧 일본 진언종의 창시자인 홍법대사를 지칭한다.

홍법대사와 부동명왕 마애조각은 1914년의 『목포지(木浦誌)』 및 1930년 목포부(木浦府)가 편집하여 출간한 『목포부사(木浦府史)』에는 적시되지 않았다.⁶⁾ 현재로서는 1932년 목포 개항 35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목포사진첩(木浦寫眞帖)』에 처음으로 그 모습이 보인다(그림 1).⁷⁾ 그 사진에는 유달산 등산도로가 1928년에 개통되고, 1931년에 88영장이 안치되었으며, 유달산 정상 해발 225m에서 홍법대사와 부동명왕, 이나리[稻荷]신 등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설명이 함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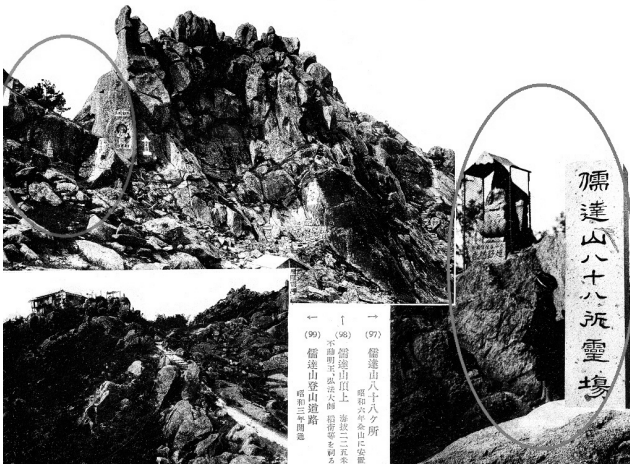
〈그림 1〉에서 필자가 표시한 왼쪽 구획은 부동명왕 및 88영장 중의 일부로 보이는 작은 불상 세 점이다. 오른쪽 구획은 유달산 88영장 표지판과 그 중 하나의 영장으로 방형좌대 위 연꽃좌에 앉은 불좌상이다. 다음은 이 사진을 참조하여 유달산 바위에 새겨진 홍법대사와 부동명왕(그림 2, 3), 그리고 88영장

4)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 이전까지 일본 불교의 침투는 일본정부의 요청과 후원하에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포교의 성격으로 교육시설 등을 통해 교세를 확장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식민통치를 시작한 이후 일본은 식민지 지배 권력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 하에 불교 정책을 입안하고 직접적으로 한국의 불교계를 통제·관리하였다(서재영, 2008, 「승려의 입성금지 해제와 근대불교의 전개」, 『동아시아 불교, 근대와의 만남』, 동국대학교출판부, 83~93쪽).

5) 이병희, 1997, 「근대 목포의 종교」, 『木浦開港 百年史』, 木浦百年會, 277~278쪽.

6) 木浦誌編纂會, 金貞燮 역, 1991(원본 1914), 『木浦誌』, 郷土文化社; 木浦府 編, 1930, 『木浦府史』.

7) 山本精一 편, 1932, 『開港滿三十五年紀念 木浦寫眞帖』, 木浦新聞社, 39쪽(목포 기상대 소장본).



〈그림 1〉 목포 유달산 88영장, 1931년

(山本精一 撰, 1932, 『開港滿三十五年紀念 木浦寫眞帖』, 木浦新聞社, 39쪽)



동북아역사재단
 DONGBUK ASIA HISTORY FOUNDATION



〈그림 2〉 목포 유달산 홍법대사상, 현재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흥법대사상은 비교적 사실적인 반부조 근대 조각이며, 정면으로 의좌에 가부좌하였다.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올려 금동 빛이 나는 오고저를, 왼손에는 염주를 들었다. 장삼 위로 입은 가사는 양 다리 사이에서 짧고 각이 지게 덮여있다. 의자 아래에는 주자(注子)와 신발이 놓여있고, 의자는 원근법이 적용되었다. 상의 윗부분에는 보개가 드리워져 종교적인 공간이 꾸며졌다.



〈그림 3〉 목포 유달산 부동명왕상, 현재

흥법대사의 초상은 헤이안시대 이후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사의 제자인 헤이세이천황[平城天皇]의 셋째 아들 진여법친왕(眞如法親王)이 고야산 가람 어영당(御影堂)에 봉안한 초상을 주요한 모본으로 한다(그림 4).⁸⁾ 그 모습은 대사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나무 의자에 가부좌하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오고저를, 왼손에는 염주를 들고 있다. 의자 아래에는 정병과 신발이 놓여 있다. 대사의 이목구비는 단정하며 정수리와 뒤쪽 두부가 살짝 솟아 사물의 도리를 꿰뚫어보는 지혜를 모은 듯이 보인다.

흥법대사의 오고저(五股杵)와 염주 지물은 그가 밀교의 고승임을 암시한다. 사실 이 조각에서 삼고저인지 오고저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럼에도 밀교에서 일반적인 중요 법구(法具)가 오고저이므로 그와 같이 판단하였다. 오고저는 산스크리트어로 Vajra이며 번개의 불가항력과 다이아몬드의 불멸을 상징하고, 다섯 가지의 지혜와 다섯 여래 등을 나타내어 영적 및 정신적 힘의 견고

8) 北海道立近代美術館・北海道立旭川美術館, 2006, 『空海マンガラー弘法大師と高野山』, 北海道新聞社, 38쪽.



〈그림 4〉 홍법대사 초상화

높이 137.5cm, 견본저색, 13세기, 日本 高野山 無量光院

서원을 상기시킨다. 그런데 이 주자는 고려청자 주자와 유사해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거주 일본인은 일본 귀족들 사이에 일어난 골동품 애호 풍조에 발맞춰 고려청자 재현품을 상품화하는 데 주력하였다.¹¹⁾ 문화 착취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청자 제작은 한국 유산이 일본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그림 5).

다음으로 살펴볼 유달산의 부동명왕상은 두 눈을 부릅뜬 분노상이다. 덩수룩하게 자란 머리를 왼쪽으로 땀아 내렸고 오른 손에는 검을, 왼손에는 견색(羂索)을 들고 있다.

부동명왕(不動明王)은 진언밀교의 독특한 상이다. 부동명왕은 나쁜 마음을

함을 표현한다.⁹⁾ 그리고 염주는 염불하는 수를 헤아리는 것이다. 불공역 『금강정유가염주경(金剛頂瑜伽念珠經)』에 따르면 그것은 보살의 훌륭한 깨달음의 결과인 과(果)를 상징하며 구슬들의 중간에 구멍을 뚫는 것은 번뇌를 근절시킨다.¹⁰⁾

홍법대사상의 의자 아래에 있는 주자는 그의 초상에 그려지던 목이 긴 정병을 대체한다. 정병은 중생을 구제하는 생명수가 담긴 보살의 지물이며, 주자 역시 단순히 찻물이 담긴 기호품이 아닌 홍법대사의 그와 같은

9) 『佛光電子大辭典』, 1117쪽-上.

10) 『大正藏』 17, no.789.

11) 경기도자박물관, 2011, 『경기근대도자 100년의 기록』, 8쪽; 엄승희, 2004, 「재한 일본인(在韓日本人)의 청자 제작」, 『한국근대미술사학』, 158~160쪽; 엄승희, 2014, 『일제강점기 도자사 연구-도자정책과 제작구조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303~322쪽.



〈그림 5〉 홍법대사상 주자와 고려청자 주자 비교

1. 유달산 홍법대사상 주자
2. 청자양각 죽순형 주자, 높이 22.5cm, 고려 12세기, 아타카(安宅)컬렉션,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갖는 이를 교정하는 대일여래의 변화된 모습이다. 관상수행의 대상이 되는 진언밀교의 여러 존상 가운데 매우 독특한 상이 명왕(明王)이다. 명왕은 진언다라니의 힘을 빌려 번뇌의 어둠을 깨고 교화가 어려운 중생을 불력(佛力)으로 평정시키며 그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한다. 그 모습은 분노를 드러낸 분노상(忿怒相)이지만, 내심(內心)은 자비에 넘쳐 중생구제를 염원한다. 명왕 중에는 부동명왕이 주로 알려져 있다. 부동명왕의 견색은 청, 황, 적, 백, 흑 오색의 실로 만든 노끈 형태의 불구(佛具)이며 양끝에 금강저의 고리를 달고 중생제도를 상징한다.

홍법대사의 염지불로서의 부동명왕은 일반적인 부동명왕상과 구분되어 신체가 청색이고 날카로운 윗니로 아랫입술을 깨문다(그림 6).¹²⁾ 일반적인 부동명왕상은 오른쪽 눈을 뜨고 왼쪽 눈을 살짝 감고 있으며, 입술은



〈그림 6〉 부동명왕상

높이 86.5cm, 목조채색, 13세기, 日本 高野山 金剛峯寺(北海道立近代美術館·北海道立旭川美術館, 2006, 『空海マンガラー弘法大師と高野山』, 北海道新聞社, 그림 35)

12) 北海道立近代美術館·北海道立旭川美術館, 앞의 책, 그림 9~10, 35~37.



〈그림 7〉 유달산 88영장 18번과 31번 불상,
목포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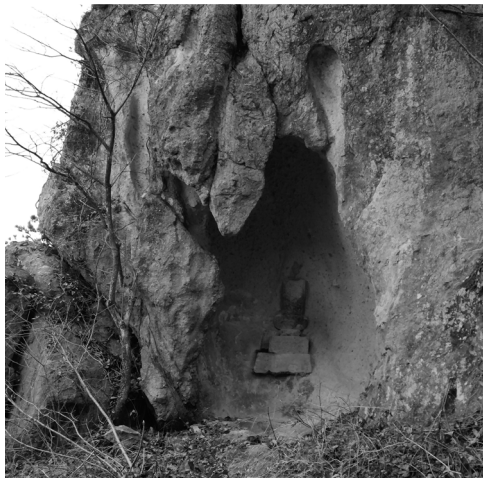
깨물지 않는다. 유달산의 이상은 홍법대사의 부동명왕으로 그 현실적인 시선이 동남쪽 영암 월출산 천왕봉을 향한다.

이어서 살펴볼 88영장은 홍법대사, 부동명왕 마애조각과 유달산신사(儒達山神社) 암각 글씨를 중심에 두고 등산로 마디마디와 암벽 사이 중요 지점에 일련번호의 불상을 두

어 만들어졌다.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1932년 사진의 오른쪽 괄호 안에 보이는 하나의 88영장 불상을 살펴보면, 방형대좌에 번호가 기입된 불상이 두 겹의 연화좌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시주자 등이 새겨진 방형의 좌대가 있다. 이러한 형태는 〈그림 7〉의 유달산 88영장 불상과 유사하다.



〈그림 8〉 유달산 88영장 22번 불상
높이 60cm, 폭 24cm, 측면 13cm,
목포문화원 소장



〈그림 9〉 유달산 88영장 흔적

현재 목포문화원에는 대좌에 ‘二十二番’ 번호가 새겨진 불상 한 점이 있다(그림 8). 이 상은 유달산에서 수습되어 드물게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88영장불상이다. 머리는 곱슬머리로 표현되었으며 육계가 있다.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올리고 왼손은 가부좌한 왼쪽 다리 위에 가법계 올렸다. 양 손이 깨어진 상태이므로 지물은 확인할 수 없다. 두광은 둥글고 넓은 띠처럼 표현되었고, 광배는 표면이 매끈하지 않게 처리되었다. 가부좌한 다리 앞으로 홍법대사상과 유사하게 짧고 각이 진 가사가 덮여 있다. 현재 유달산 88영장은 불상의 폐불과 유출로 대좌의 흔적과 시주자의 이름만 드물게 확인된다(그림 9).

III. 홍법대사의 생애와 시코쿠 순례의 역사

1_ 홍법대사의 생애

홍법대사는 일본밀교인 진언종(眞言宗)의 창시자이다. 법명은 구카이(空海, くうかい)이며 나라시대 후기 774년 시코쿠[四國]의 사누키국, 지금의 카가와현 젠쓰지[善通寺]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헤이안시대 전기 835년에 고야산에서 62세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일본인들은 그가 즉신성불(卽身成佛)을 이루어 입적이 아닌 깊은 삼매에 들어있다고 믿는다. 그의 자취는 고야산과 시코쿠의 두 영장(靈場) 및 교토[京都]의 도지[東寺]에 집중되어 있다.¹³⁾ 다음은 그의 공식적인 일대기를 살펴되 921년 다이고천황[醍醐天皇]에게 ‘弘法大師’ 시호를 받기 이전까지는 법명인 구카이[空海]로 명명한다.

구카이는 유력한 호족 집안의 아버지 사에키노아따이 타기미[佐伯直田公]

13) 阿部野龍正, 1989, 「弘法大師の生涯」, 『高野山金剛峯寺』, 總本山金剛峯寺, 102쪽.

와 중하급의 관인을 다수 배출한 도시 지식계급인 아토(阿刀)씨 가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¹⁴⁾ 그의 어릴 적 이름은 마오[眞魚, まお]이다. 그는 18세에 나라[奈良]에 있는 중앙관료양성기관인 대학에 들어가 율령관인이 되는 길을 걸었다. 그러나 돌연 바꾸어 한 승려로부터 『허공장구문지법(虛空藏求聞持法)』을 배우면서 대학을 중퇴하고 시코쿠로 돌아와 개인적인 산악수행(山嶽修行)에 들어갔다. 허공장구문지법은 진언밀교 조사인 인도 승려 선무외(637~735)가 한역한 것으로 일종의 기억증진의 법력을 얻는 수행법이다.¹⁵⁾ 구카이는 797년 24세에 자신의 수행을 생생히 기록하고 유교·불교·도교의 가르침을 비교하여 불교의 우위를 나타낸 『농고지귀(龕替指歸)』를 지었다.

구카이는 도다이지[東大寺] 계단원(戒壇院)에서 수계를 받아 정식 승려가 되었고 31세에 입당하였다. 804년 4월 견당사 배에 올라 8개월 후인 804년 12월 23일에 장안에 들어갔다. 구카이는 당의 수도 장안의 난숙한 성당문화를 흡수하였고, 중국 당대에 인도 밀교의 정통 계보를 이은 청룡사(靑龍寺) 회이귀화상[惠果和尚, 746~805]을 탐방하였다. 구카이는 회이귀화상으로부터 태장법과 금강계의 양부를 전수받았다. 회이귀의 속가 제자인 오은(吳愨)의 『혜과아자리행장(惠果阿闍梨行狀)』에 따르면, 회이귀화상이 구카이에게 밀교를 전한 일은 흡사 한 병에서 다른 병으로 물을 따라 옮기듯 그 깊은 교의가 전해졌다.¹⁶⁾ 구카이는 진언밀교의 정식 후계자 제8조 편조금강공해(遍照金剛空海)가 되어 2년여의 구법여행을 마치고 견당사선(遣唐使船)으로 명주(明州)를 출발

14) 空海の 부계 佐伯氏は 瀬戸内海 주변의 제국을 다스리던 고대의 유력한 호족집안이었다(홍윤기, 2003, 「신라인 고승 흥법대사 공해(空海)」, 『불교와 문화』 45, 대한불교진흥원). 空海의 모계 아토가는 백제계로 6세기 전반 그 일족은 신라와 싸우는 백제에 두 번이나 군대를 지원하였으나 실패하자 키메이천황으로부터 실각을 당하였다. 空海는 15세에 고향을 떠나 어머니쪽 숙부인 阿刀大足(아토노 오오타리)에게 유교와 한자, 역사를 배웠다. 阿刀大足은 平安京을 열었던 桓武天皇의皇子 伊予親王의 개인교사 출신의 학자이다(Ronald S. Green, 2003, "Kukai, Founder of Japanese Shingon Buddhism: portraits of his life," Ph. D. Diss. Univ. of Wisconsin, p.9).

15) 『虛空藏菩薩能滿諸願最勝心陀羅尼求聞持法』, 『大正藏』 20, no.1145

16) Ronald S. Green, 2003, pp.90~93.

하여 806년 가을에 귀국하였다.

구카이이 입당구법을 통해 일본으로 전해진 가르침이 진언밀교이다. 진언 밀교의 중심이 되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몸 그대로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즉신성불(卽身成佛)’이다.¹⁷⁾ 밀교경전의 심오한 이론에 바탕을 둔 즉신성불 수행은 우주생명과 자신의 생명의 융합합일을 이루는 종교적 모미를 얻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 이념을 배경으로 불화와 불상류는 대일여래의 화현(化現)으로서 각각이 대일여래의 위대한 힘의 일면을 분담한다.¹⁸⁾

귀국 후 구카이는 헤이안 불교를 진전시키는 데에 큰 힘을 기울였고 사가 천황(嵯峨天皇)에게 당의 문물을 증정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812년에는 천태종의 고승 사이쵸[最澄, さいちょう, 767~822]의 요구에 답한 형태로 교토의 다카오산지[高雄山寺]에서 밀교 특유의 의식인 태장(胎藏)·금강계(金剛界)의 결연관정을 행하였다.¹⁹⁾ 815년에 여러 제지를 전국의 고승 밑에 파견하여 밀교경전을 서사하고 유포하도록 하였으며 사실상의 진언종 입종(立宗)을 선언하였다.

816년 구카이는 밀교 본지를 닦는 근본사원을 건립할 장소이자 자신의 입정(入定) 장소를 개창하고자 기주(紀州)의 고야[高野] 땅을 사가천황에게 청원

17) 井筒信隆, 2006, 「空海の生涯と高野山の佛教美術」, 『空海マングラ-弘法大師と高野山』, 北海道新聞社, 12~13쪽.

18) 진언밀교의 정식 후계자가 된 空海에게 惠果화상은, 궁정화사 供奉丹青직 李眞 등 10여인에게 명하여 태장·금강계 양계만다라도와 조사도 등의 10폭의 그림을 묘사하고 20여 인의 사경생을 동원하여 중요 밀교경전을 사경하게 했으며, 궁정의 鑄博士 趙吳에게 명하여 법을 닦는 데에 필요한 밀교법구류를 제작하여 주었다. 또한 惠果화상은 법을 전한 증거로 밀교 祖師에서 조사로 전해져 온 〈阿闍梨附屬物佛舍利〉 80정, 〈白檀佛菩薩金剛等像〉 1龕 등을 空海에게 넘겨주었다. 헤과화상으로부터 전법의 증거로 받은 백단제 불감은 국보 〈諸尊佛龕〉으로서 현재 고야산 금강봉사에 전한다.

19) 두 거장 最澄과 空海는 경쟁자였다. 最澄은 空海의 밀종에 대한 지식이 자신보다 뛰어난을 인정하였고, 最澄이 空海에게 보낸 문학생들 역시 最澄에게 돌아가지 않은 채 空海를 선택하였다. 空海는 천태보다 진언이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空海의 영향력이 최정을 소멸시켰다(Ronald S. Green, 2003, pp.138~142).

하여 하사받았다.²⁰⁾ 819년 5월 3일에 가람을 건립할 땅과 사역을 정하고 고야에 건립하는 사원 이름을 밀교경전에 따른 ‘高野山金剛峯寺’라고 하였다.

821년부터 10년 동안 그는 매우 왕성하게 공무를 수행하였으며 제자를 지도하였다. 그는 장관직으로 시코쿠의 만농지(滿濃池)를 수축하는 감독 직무를 담당하였다. 칙명에 의해 도다이지[東大寺] 별당(別當) 직을 맡아 진언원(眞言院)을 건립하여 화엄대찰인 도다이지에 밀교적 요소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고야산 사원건립에 매진하면서 도지[東寺]를 재정비하였다. 825년에 그는 황태자의 교사가 되었다. 828년에는 개인 비용으로 도지의 동쪽에 종합적으로 학문을 수학할 수 있는 일본 최초의 서민대학 종예종지원(綜藝種智院, しゅげいしゅちいん)을 창설하였다.

832년 8월에 고야산 최초의 본격 법회인 만등만화회(万燈万華會)를 개최하였다. 구카이(空海)는 이 법회를 개최하는 취지에서 제불(諸佛)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과 동물 등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나의 생명이 끊임없는 혜택을 주므로 감사하다는 법요(法要)를 세웠다. 또한 원문(願文)에서 “우주가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한, 불교 깨달음의 세계가 있는 한, 나는 영원히 모든 존재를 구제하겠다”는 서원(誓願)을 하였다.²¹⁾ 이 서원은 회이귀화상으로부터 ‘이 세상을 두루 비추는 영원한 생명인 대일여래와 하나가 되는 사(師)’로서 수여받은 ‘遍照金剛’의 이름에 어울리는 것이다.

구카이는 서원을 낸 3년 후인 835년 3월 21일에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애를 마감하였다. 그로부터 100년 후 921년 10월, 도지(東寺)의 관리자이자 고야산의 좌주(座主)인 미켄[觀賢]이 다이고천황에게 ‘홍법대사’ 시호를 받아 고야산 오쿠노인[奥の院]의 영묘(靈廟)에 들어가서 홍법대사에게 보고하였다. 이때 자라난 홍법의 머리칼을 자르고 천황이 내린 옷으로 갈아입혔다는 관현의 영담은 고야산 승려들에 의해 퍼졌고, 홍법대사가 지금도 고야산에

20) 阿部野龍正, 1989, 「弘法大師の生涯」, 『高野山金剛峯寺』, 總本山金剛峯寺, 102쪽.

21) 井筒信隆, 앞의 글, 15쪽.

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다는 입정(入定) 신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994년 낙외에 의해 황폐해진 고야산을 1016년에 법화경 신앙자인 키신쇼닌[祈親上人, 定譽, 958~1047]이 서원하여 부흥시켰고, 헤이안 중기의 밀교승 닌카이[仁海]의 불사로 귀족 후지와라노 미찌나가[藤原道長] 등이 후원하였다.

이후 말법사상이 파급되면서 오쿠노인에 입정한 홍법대사에 대한 사람들의 두터운 신앙은 신앙의 다름을 초월하여 성행하였다. 사람들은 고야산의 정토관에 이끌려 사원과 암자를 차례로 지었고, 고야산은 여러 신앙이 공존하는 독특한 영장으로 발전해 헤이안시대 말기에는 으뜸의 성산(聖山)이 되었다.²²⁾ 이후 고야산은 진언밀교의 성산으로서 홍법대사의 성스러운 자취이자 일본인이 최고로 꼽는 영장이 되었다. 고야산에는 현재 진언밀교의 총본산인 곤고부지[金剛峯寺]를 비롯해 117개의 사찰이 있고, 홍법대사와 관련한 글씨, 그가 당 유학에서 가져온 비보(秘寶) 등이 보존되어 2004년 ‘산의 正倉院’으로 불리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_ 홍법대사의 입정신앙과 시코쿠 순례

홍법대사가 영원한 선정에 들어있다는 입정신앙(入定信仰)은 많은 일본인들을 매료시켰다. 그것은 미륵보살이 용화삼회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날 때까지 홍법대사가 일본 고야산에서 살아있는 보살로 세상을 구제하고 대일여래의 정토인 밀엄정토(密嚴淨土)로 이끈다는 믿음이다.²³⁾ 입정은 밀교의 즉신성불 관념에 따른 불가사의한 행적이다. 일본인들에게 홍법대사는 불보살의 화현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는다.

홍법대사는 자신의 유언으로 사후 반드시 도솔천에 가서 미륵을 만나 56억 년 후 미륵과 함께 하생하여 세상을 구제하겠다고 하였다.²⁴⁾ 그의 저서 『성령

22) 日野西真定, 1989, 「高野山の歴史」, 『高野山金剛峯寺』, 總本山金剛峯寺, 105쪽.

23) 井筒信隆, 앞의 글, 13~14쪽.

24) 吾閉眼之後 必方往生兜率他天 可侍彌勒慈尊御前 五十六億余之後 必慈尊御共下生祇候可問吾先跡. …… 是時有勤得祐 不信之者不幸(「二十五ヶ條御遺言」,

집(性靈集)』에는 궁극적인 아미타의 극락정토로 가기 이전에 미륵의 도솔천을 디딤돌로 하는 신앙경향을 보인다.²⁵⁾ 참조하건대, 대승불교의 형이상학적 핵심개념을 확장시키고 심(心)과 식(識)의 문제를 다루는 유식학(唯識學)에서는 불성(佛性)이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보살도에 의해 실현되므로 미륵보살의 도솔정토는 아미타의 정토로 가는 디딤돌로 인식된다.²⁶⁾

홍법대사의 입정설화는 11~12세기에 걸쳐 보다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다.²⁷⁾ 그것은 홍법대사가 말법의 시대, 즉 석가가 열반에 들고 미륵불이 아직 출현하지 않은 이불(二佛)의 중간에 중생구제의 역할을 하는 지장보살이나 가섭존자와 같으면서도 아직도 살아서 선정에 들어 있으므로 고야산 참배, 납골 등으로 구원의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은 수행승들의 영력이나 납골활동 등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홍법대사의 사후, 수행승들은 그의 영묘를 방문하기 위해 고야산을 순례하였다. 그리고 고야산을 방문한 이후에는 시코쿠로 와서 홍법대사가 태어난 쥬쓰지[善通寺, 지금의 75번 절]를 포함하여, 그가 산악수행을 하였으며 허공장보살을 본존으로 하는 지금의 12번 쇼산지[燒山寺]와 21번 타이류지[太龍寺]를 탐방하는 작은 규모의 순례를 만들었다. 그것에 대한 첫 기록이 12세기 중엽에 천 개 이상의 헤이안시기 이야기가 수집된 『금석물어집(今昔物語集)』에 있다.²⁸⁾ 다만 지금과 같은 순례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에도시대에 들어서이다. 1690년에 편찬된 유벤신념[有辨眞念]의 『사국편례공덕기(四國遍禮功德

『大正藏』 77, no.2431, 411下).

25) ‘以此功德 奉資爲二所御靈等. …… 各令受之云云. 不入黃泉之九途 不掌焰魔之二便, 直向安養之寶刹, 必昇兜率之天宮云云.’(『性靈集』).

26) 이경화, 2009, 「법상종에서 미륵정토와 아미타정토의 융합」, 『한국고대사연구』 56, 441~477쪽; Jan Nattier, 1988, “The Meanings of the Maitreya myth,” *Maitreya, the Future Buddha*, edited by Alan Sponberg&Helen Hardac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p.28~29.

27) 李瑛雅, 2000, 「弘法大師說話에 관한 고찰 - 「入定說話」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45, 449~550쪽.

28) Ian Reader, 2005, *Making Pilgrimages - Meaning and Practice in Shikoku*,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59~61.

記)』와 같은 안내서가 시코쿠 여행을 쉽게 하였다. 에도시기 이전까지의 순례는 수행승에 한정되었으나 에도시대 들어서 경제력이 뒷받침된 평민들의 종교적인 열정으로 순례자의 수는 늘어났다.²⁹⁾ 시코쿠 영장순례가 서민들에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88영장이 만들어졌다. 그 중의 하나가 1798년 도쿄 부근 사이타마현[埼玉縣]에 창설된 사끼야즈마 88영장[埼玉新四國八十八カ所靈場]이다. 이러한 순례는 근대화와 더불어 배척되었으나 다이쇼시기(1912~1926) 이후 다양한 순례문화를 형성하며 이어졌다.³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시코쿠는 일본열도 4개 섬 중 가장 작은 섬이며 홍법대사가 태어난 곳이다. 이 섬의 88개 사원을 순례하는 것은 '시코쿠메구리[四國巡り] 또는 시코쿠하찌쥬하찌카쇼메구리[四國八十八ヶ所巡り], 통칭 오펜로[お遍路]라고 부른다. 시코쿠섬 순례의 시작에 관한 설화는 단연코 홍법대사가 시코쿠의 모든 영장을 걸어 다녔고 이곳의 많은 절을 개창하였으며 순례 그 자체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³¹⁾ 그렇지만 홍법대사 이전의 순례자로서 교키[行基, 668~749]와 같은 이가 있다. 교키는 나라 도다이지[東大寺] 대불 건립의 감독자이며 처음으로 일본지도를 제작한 인물이다. 시코쿠 88개 사원 중에는 교키가 개창한 절이 있다.³²⁾ 곧 홍법대사는 이전의 산악수행 전통에 강력한 신앙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시코쿠 순례는 영장사원의 순례로서 일본 특유의 정신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³³⁾

29) 白木利幸, 2000, 「宥辨眞念と四國遍路」, 『日本研究』 21,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pp.188~212.

30) 원영상, 2008, 「일본불교의 영장(靈場)과 성지순례문화 연구: 근대의 종교상황에 이르기까지」, 『종교연구』 52, 115~116쪽.

31) 森正人, 2005, 『四國遍路の近現代 - 「モダン遍路」から「癒しの旅」まで』, 創元社.

32) 박규태, 2006, 「일본종교문화기행(8); 일본인과 순례: 시코쿠오펜로(四國遍路)를 따라서」, 『종교문화비평』 Vol.9, 241쪽; 교키는 동시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종교기능의 목적인 것으로 보고 평생 사회활동을 하였으며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일컬어진다. 745년 일본 최초의 대승정이 되었고, 사후 일본 최초로 황제에 의해 보살 칭호를 받았다. 시코쿠 88개 사원 가운데 3번, 13번, 18번, 19번, 27번, 28번, 49번, 53번, 54번 절의 본존이 교키가 조성한 것으로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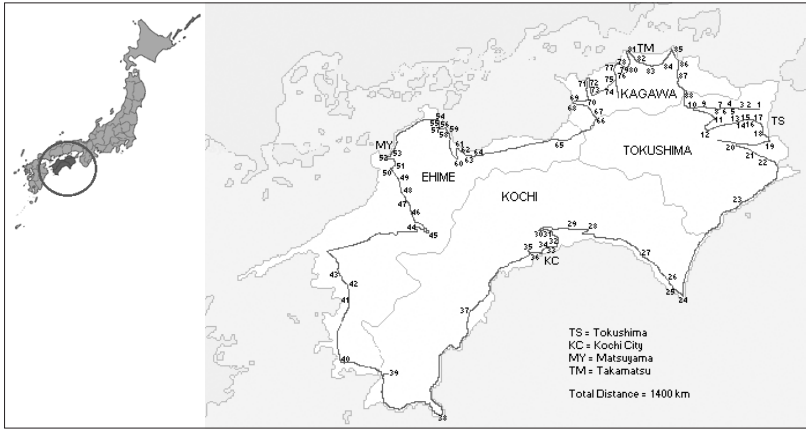
33) Oliver Statler, 1983, *Japanese Pilgrimage*, William Morrow & co.

시코쿠라는 말은 전국시대에 이 섬이 4개의 나라로 나뉘어 있었던 데서 유래한다. 각각의 옛 지명은 아와, 토사, 이요, 사누키이다. 여기에 명칭을 붙여 발심의 도장 아와, 수행의 토사, 보리의 이요, 열반의 사누키로 부른다. 지금의 명칭은 각각 도쿠시마, 고치, 에히메, 카가와이다. 도쿠시마현에는 제1번 영장 료렌지[靈山寺]부터 제23번 영장 야쿠오지[藥王寺]까지 23개소의 절이 있다. 코치현에는 제24번 영장 호쓰미사키지[最御崎寺]부터 제39번 영장 엔코지[延光寺]까지 16개소의 절이 있다. 에히메현에는 제40번 영장 간지자이지[觀自在寺]부터 제65번 영장 산카쿠지[三角寺]까지 26개소의 절이 있다. 카가와현에는 제66번 영장 운벤지[雲邊寺]부터 제88번 영장 오쿠보지[大窪寺]까지 23개소의 절이 있다. 이들 88개소 절에는 해당하는 각 절마다 시코쿠 88영장 제〇〇번〇〇〇절이라는 표식이 붙어있다.³⁴⁾

순례자들은 시코쿠의 입구가 되는 시코쿠 동북단의 제1번 사찰 료렌지에서 출발하여 제88번 사찰까지 시계방향으로 시코쿠섬을 한 바퀴 돌아 1,100km를 순례한다. 거기에 108번뇌를 씻는 의미에서 20개 방카이[番外] 순례를 더하면 1,400km가 된다. 순례자인 헨로[遍路]들은 수의라고 할 수 있는 흰옷차림으로 '南無大師遍照金剛'이라는 문자를 등에 적고 삿갓에 '同行二人'이라고 적어 죽는 순간까지 흥법대사와 함께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흰 옷의 하쿠이를 입고, 스게가사라고 불리는 삿갓모자를 쓰며, 흥법대사를 상징하는 즈에라는 이름의 지팡이를 가지고 걷는다. 절에 들어가면 수돗가에서 입과 손을 행구고 본당에서 향과 초를 바치고 종을 쳐서 도착을 알린다. 이름과 주소, 날짜를 적은 종이인 오사메후다를 함에 넣고 시주를 바치고 반야심경을 읊는다. 이와 같은 순서를 흥법대사를 모신 대사당(大師堂)에서도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남경소에서 남경장에 도장과 서명을 받는다. 전통적으로 행한다면 88개 사원을 도는 데에는 약40일이 걸리며 108개 사원을 모두 순례하는 데는 50~55일이 걸린다.³⁵⁾

34) 星野英紀, 2001, 『四國遍路の宗教學的研究－その構造と近現代の展開』, 法藏館, pp.383~386.

35) Ian Reader, 2005, pp.9~23.



〈지도 1〉 시코쿠 88사원 순례지도

(<http://www.shikokuhenrotrail.com/shikoku/pilgrimagemap.html>)

시코쿠 순례를 민속적인 통과 의례로 보는 관점에서 88개 사원의 의미는 남자가 42세 되는 해에, 여자는 33세 되는 해에, 아이들은 13세 되는 해에 불운이 오므로 그 나이를 합친 88은 액을 물리친다고 한다.³⁶⁾ 1번에서 88번까지 다 도는 것을 계치간(結願)이라고 하며, 근래에는 88번 절에서 1번 절로 다시 돌아와 감사의 참배를 한다. 시코쿠 순례자들은 순례 전이나 순례 후 고야산으로 가서 흥법대사가 입적한 오쿠노인을 참배하며 흥법대사에게 순례의 안녕을 기원하거나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 감사한다. 시코쿠 88사원 순례지도는 〈지도 1〉과 같다.

36) 이은경, 2012, 「일본 '시코쿠헨로(四國遍路)'의 유래와 변천과정 연구」, 『일어일문학연구』 81, 375쪽.

IV. 유달산 88영장의 형태와 기능

유달산 88영장은 시코쿠 88영장을 원형으로 한다. 유달산에 재현된 88영장은 부동명왕과 홍법대사 마애조각을 중심에 두고 88개소의 작은 영장들을 참배하는 형태이다. 현재 일련번호가 있는 불상은 목포문화원 불상 이외 목포 개인 소장 불상, 김포 개인 소장 불상, 진해 심원사 불상, 마산 해은사 불상, 마산 성덕암 불상, 마산 관음사 불상, 부산 칠보사 불상 등을 포함하여 모두 100여 점이다. 조각 형태와 기법으로 보아 이들은 최소 네 개 이상의 유형으로 나뉜다. 다만 심원사와 해은사, 성덕암, 관음사 불상 등은 목포 소재 불상과 그 유형이 달라 보임에도 목포에서 옮겨온 88영장의 불상으로 전한다. 번호는 불상의 광배나 대좌에 새겨지는데 시주자 이름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 모두 88번까지의 번호만 존재하는데 다른 유형에 같은 번호의 불상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88영장 불상의 일련번호와 시코쿠 88개 사원 번호와의 관련성이다. 둘째, 유달산 88영장 이외 다른 지역에도 영장이 만들어졌을까하는 궁금증이다. 셋째, 1930년대 목포에 홍법대사의 영장을 구현한 목적에 대한 의문이다. 먼저, 불상 번호의 의미에 주의를 기울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증을 들고자 한다.



〈그림 10〉 88영장 22번 약사여래상,
부산 승학사 소장

불상의 일련번호가 시코쿠 88개 사원 번호를 가리킨다는 가설은 명확하게 증명된다. 그 첫 번째 예는 목포문화원 소장 22번 불상과 같은 번호의 부산 승학사 소장 22번 불좌상이다. 이 상은 왼손에 약함을 든 약사불이다(그림 10). 시코쿠의 22번 절은 하쿠스이잔 이오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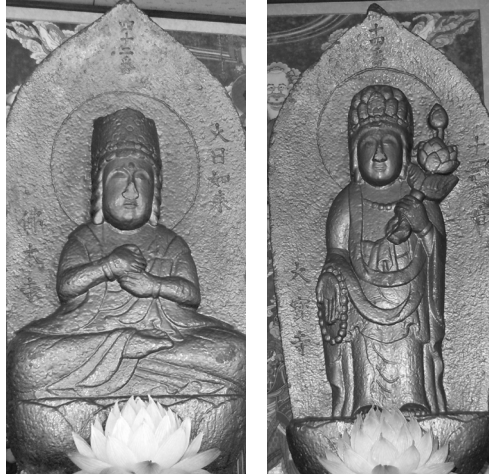


〈그림 11〉 유달산 88영장 14번 미륵보살상(좌)과
38번 삼면천수관음보살상(우), 목포 개인 소장

보도지[白水山 醫王院 平等寺]이며 그 본존은 홍법대사가 조각하였다고 하는 약사여래이다. 보도지의 유래는 홍법대사가 이곳에서 수행할 때 공중에 오색 구름이 일어나 황금 범자(梵字)와 약사여래가 사방을 환히 비추었고, 대사가 우물을 파서 얻은 신령한 물로 몸을 씻고 100일을 수행한 후에 약사여래를 조각하여 안치하였다고 한다. 이 절 이름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구제되기를 기원하며 ‘平等寺’이다.³⁷⁾ 목포문화원 22번 불상은 손이 깨어져 지물 확인이 어렵지만 약사여래일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예는 유달산에서 수습한 목포 개인 소장 14번 미륵보살상이다(그림 11, 좌). 시코쿠의 14번 절이 세이쥬잔 엔메이인 조라쿠지[盛壽山 延命院 常樂寺]로, 본존은 미륵보살이다. 시코쿠 88영장 중 미륵보살을 본존으로 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연기 설화에 의하면 홍법대사는 일본 민속에서 사람

37) 사찰의 본존은 명확한 사실이며, 연기 설화는 역사적인 근거가 부족할지라도 아래의 일문사이트와 영문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이해를 구했다. <http://www.shikokuhenrotrail.com/shikoku/temples.html>; <http://blog.udn.com/angelayen2001/6208343>.



〈그림 12〉 88영장 42번 대일여래좌상(좌)과
44번 십일면관음보살입상(우). 김포 개인 소장

의 일생 중에 재난을 만난다고 하는 42세에 그곳에서 진언수행을 하였다. 이때 많은 보살과 함께 미륵이 현현하여 맞이했으며 대사는 근처의 신령한 나무에 미륵존상을 조각하여 당우를 지어 본존으로 하였다. 목포 개인 소장 14번 상은 탑을 지물로 하는 미륵 도상에 충실하고 그 표정이 깊은 사유의 상태에 있는 듯하다. ‘十四番’의 새김이 또렷하고 광배 끝부분을 시멘트로 보수하였다.

세 번째 예는 유달산에서 수습한 목포 개인 소장 38번 삼면천수관음보살상이다(그림 11, 우). 시코쿠의 38번 절은 사다산 후다라쿠인 콘고후쿠지[蹉跎山補陀洛院 金剛福寺]이다. 본존은 삼면천수관음보살이며 협시는 비사문천, 부동명왕이다. 콘고후쿠지는 시코쿠의 최남단에서 태평양쪽으로 돌출한 곳, 아시즈리미사키[足摺岬]를 내려다보는 언덕의 허리 부근에 있는 큰 절이다. 흥법 대사는 이곳이 관음이 머무는 보타라가산임을 느끼고 사가천황의 칙령으로 절을 개창하였으며 삼면의 천수관음상을 조각하여 안치하였다. 개인 소장 38번 보살상은 삼면이 분명하게 확인되며 보살 본체의 양손은 배 앞에서 보주를 받들고 있다. 1,000개의 손은 간략하게 40수로 표현한 듯하다.

이어서 유달산 88영장의 불상과 다른 유형에서 두 가지 예증을 더 들어보

고자 한다. 첫째, 김포 개인 소장 42번 불상이다. 이 상의 광배에는 ‘大日如來’와 ‘佛木寺’라는 명문이 있다(그림 12. 좌), 시코쿠의 42번 절이 잇카잔 비루사나인 부츠모쿠지[一カ山 毘盧舎那院 佛木寺]이고 본존은 대일여래이다. 부츠모쿠지는 소 등에 탄 홍법



〈그림 13〉 毎日申報 1936. 10. 5.
〈八十八靈場開山式準備〉

대사의 전설이 있는 곳으로 경내에는 가축당(家畜堂)이라는 작은 당우가 있어 가축의 안전을 빈다. 홍법대사가 이곳을 지날 때 큰 녹나무 가지 끝에 빛이 나는 한 개의 보주가 걸쳐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자신이 당나라에서 돌아올 때 인연이 있는 곳에 가도록 금강저와 함께 동쪽으로 던진 보주였다. 그는 이곳이 영험한 땅임을 알고 보주를 백호로 삼아 녹나무로 대일여래를 조성하였고, 가마쿠라 시대에 다시금 본존을 조성하여 원래 홍법대사가 만들었던 본존상과 보주를 복장으로 하였다.

둘째, 42번 불상과 함께 있는 44번 불상을 살펴보면 그 불상의 광배에는 번호와 함께 ‘十一面觀音’과 ‘大寶寺’라는 명문이 있다(그림 12. 우). 시코쿠의 44번 절이 스고산 다이카쿠인 다이호지[菴生山 大覺院 大寶寺]이고 본존이 십일면관세음보살이다. 백제 승려가 일본으로 올 때 십일면관음보살상을 모셔 왔는데, 몬무천황[文武天皇, 재위 697~707]의 칙령으로 작은 초암을 지어 봉안한 것이 절의 유래이다. 그 후 822년에 홍법대사가 시코쿠 88영장의 중간인 44번 사찰로 정하고 천태종을 진언종으로 바꾸었다. 이상의 예증으로 88번까지의 불상 번호는 시코쿠의 88영장을 지시한다.

다음으로, 88영장이 목포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매일신보에 의하면 1936년 10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함경북도 경성군 주을온천장에서 88영장 개산식이 열리니 성황을 이룰 것이라는 기사가 있다(그림 13).³⁸⁾ 주을온천은 약 4백 년 전부터 이용된 북한에서 가장 오



〈그림 14〉 88영장 62번 불상.
진해 심원사 소장

이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돌이다. 불상에는 일련번호만 있을 뿐 시주자로 보이는 이름들은 불상이 아닌 별석에 있다. 그 외 목포에서 옮겨온 것으로 전하는 심원사와 해은사 등의 화강암 재질 88영장 불상은 그것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그림 14). 이에 따라 유달산 88영장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일본불상류들이 있었던 것 같다.

홍법대사와 유달산 88영장은 분명한 의도에 의해 계획된 것으로 추정된다. 1928년에 유달산 전역의 등산도로를 개통하고 1931년에 안치된 88영장은 대규모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었다. 88영장의 중심에는 바위에 새긴 홍법대사와 유달산신사 글씨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진언종의 성지 고야산은 여러 신앙이 공존하는 독특한 산악영장으로 발전하였다. 홍법대사의 입정신앙은 그가 아직도 살아서 선정에 들어 있으므로 참배와 납골 등으로 구원의 인연을 맺는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 대한 본질적 지배를 기대하는 한국거주 일본인들에게

래된 모래온천이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일본불교에 의한 88영장이 유달산과 주을온천 등 최소 두 군데 이상만 들어졌음이 확인된다.

끝으로 1931년에 홍법대사 영장을 목포에 재현한 그 목적에 대한 의문이다. 홍법대사와 부동명왕 마애조각과 유달산에서 수습한 목포 개인 소장 불상 10여 점은 한국불상을 교육받은 환경에서는 나오기 힘든 일본불상이다. 마애조각은 일본인 조각가가 새긴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불상은 시코쿠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38) 「八十八靈場開山式準備」, 『毎日申報』 1936. 10. 5.

는 일본의 정신문화를 이곳에 이식해야 하는 현실적인 목적이 있었다. 1930년 경 그들의 한국거주 기간은 한 세대를 넘어갔고, 그들은 일본이 아닌 조선에 산악영장순례를 재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통이 편리한 개항장이자, 바다로 둘러싸여 시코쿠의 분위기를 낼 수 있고, 산악수행이 가능한 바위산인 유달산이 그들의 사후 구원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고야산 성지를 대체하고 시코쿠 순례를 축소 재현한 영장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후 일본제국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파시즘 체제로 전환하면서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만들었고, 총독부는 정신세계를 장악하는 이른바 심전(心田) 개발운동에 주로 불교계를 동원하였다.³⁹⁾ 도쿄제국대학을 중심으로 조선을 일본화하는 일선동조론의 영향력이 컸던 가운데, 일본 근대역사학자 구로이타 등이 홍법대사의 정신과 업적을 국가불교와 일본정신의 관점에서 강조하였다.⁴⁰⁾ 구로이타 등은 자신의 시대를 바꾸고자 한 존경받는 사상가의 업적을 일본정신의 근원으로 열렬히 주장하였고, 1934년 『朝鮮佛敎』 99집이 홍법대사 봉찬호로 출간되었다.⁴¹⁾ 이를 상기하면 유달산 홍법대사와 88영장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39) 류승주, 2008, 「일제의 불교정책과 친일불교」, 『동아시아 불교, 근대와의 만남』, 동국대학교출판부, 115~118쪽.

40) 송완범, 2009, 「식민지 조선의 黑板勝美와 修史사업의 실상과 허상」, 『동북아역사논총』 26, 95~124쪽.

41)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1934, 「弘法大師と日本精神」, 『朝鮮佛敎』 99, 朝鮮佛敎社; 蓮生觀善, 1934, 「弘法大師の遺跡, 千年前の苦闘, 今輝く教化の光」, 『朝鮮佛敎』 99, 朝鮮佛敎社; 구로이타 가쓰미, 1936, 「日本精神と弘法大師」, 六六新聞社.

V. 맺음말

이 글은 한국근대 불교조각에서 일본불교의 영향과 실재를 파악하려는 연구의 시작이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거의 거론되지 않은 분야였다. 유달산 홍법대사 관련 조각들은 일본불교의 흔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글은 과거 유산에 대한 재조명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조력할 수 있고, 결합으로 여겨지는 유산에 대해서도 인식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유달산 88영장의 모습과 기능을 추적하였다.

목포 유달산의 홍법대사, 부동명왕 마애조각과 88영장은 1931년경에 만들어졌다. 그것은 1928년에 유달산 등산도로를 개통하고 1931년에 완성을 보았던 계획적인 일이었다. 88영장은 1번부터 88번까지의 일련번호가 기입된 불상을 유달산의 중요 자리에 놓음으로써 완비되었다. 산을 돌면서 참배하는 형태를 띠는데 그 중심에는 홍법대사와 부동명왕 마애조각, 그리고 유달산신사 암각 글씨가 있다.

홍법대사는 일본밀교 진언종의 창시자이며 헤이안 시대의 사상가이다. 일본불교에서 홍법대사는 영원한 선정에 들어가 중생을 구제한다고 믿어졌고 보살로 여겨졌다. 고야산은 진언종의 성지이며, 여러 신앙이 공존하는 산악영장으로 발전하였다. 시코쿠섬 88개 사원을 순례하는 시코쿠메구리는 구원의 인연을 맺기 위해 홍법대사가 걸어 다녔던 영장을 순례하는 것이다. 이들 88개소 절에는 제 몇 번 절이라는 표식이 있으며 모두 1,100km에 이른다.

유달산 88영장은 시코쿠 88영장을 원형으로 한다. 88영장의 불상에 기입된 일련번호는 시코쿠 88개 사원의 해당 사찰을 지시한다. 그리고 불상은 그곳의 본존을 표현하였다. 일제강점기 88영장은 유달산 이외 한국 내 다른 지역에도 만들어졌다. 일본불교의 재현으로 이루어진 유달산 홍법대사, 부동명왕 마애조각과 88영장은 1930년경 식민지 조선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식민지 조선에 대한 본질적인 지배를 기대하는 한국 거주 일본인들은 1930년경, 그들의 한국 거주 기간이 한 세대를 넘어감에 따라 일본이 아닌 조선에 산악영장순례를

재현하여 사후 구원의 인연을 맺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바위산이면서 바다로 둘러싸인 개항장 목포의 유달산은 고야산 성지를 대체하고 시코쿠 순례를 축소 재현한 영장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일본불교가 한국 근대 불교미술에 끼친 영향과 흔적에 대한 조사의 시작이다. 한국불교신앙에 바탕을 두지 않은 일본불교의 영향이 한시적이었다고 여기고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지만, 일본불교가 한국 근대 불교미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식과 조사가 필요하다. 이후 보다 확실한 증빙자료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진전된 성과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국문

- 고석규, 2004,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 공간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다시 보는 우리 초상의 세계』.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8, 『동아시아 불교, 근대와의 만남』, 동국대학교출판부.
- 木浦百年會, 1997, 『木浦開港 百年史』, 木浦新聞社.
- 木浦誌編纂會, 金貞燮 역, 1991(원본 1914), 『木浦誌』, 郷土文化社.
- 박규태, 2006, 「일본종교문화기행(8): 일본인과 순례: 시코쿠헨로(四國遍路)를 따라 서」, 『종교문화비평』 Vol. 9.
- 佛敎史學會 편, 1989, 『近代韓國佛敎史論』, 民族社.
- 孫禎睦, 1982, 『韓國開港期 都市變化過程研究』, 一志社.
- 송혜영 · 우동선, 2001, 「부산일본인거류지의 교육시설 및 종교시설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21권 2호.
- 申淳鐵, 1984, 「開港 이후 日本宗教의 國內活動과 그에 대한 反應」, 『원광사학』 3.
- 야마모토 세이이치(山本精一) 編, 1932, 『開港滿三十五年紀念 木浦寫眞帖』, 木浦新聞社.
- 엄승희, 2014, 『일제강점기 도자사 연구-도자정책과 제작구조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 원영상, 2008, 「일본불교의 영장(靈場)과 성지순례문화 연구: 근대의 종교상황에 이르기까지」, 『종교연구』 52.
- 이능화, 이병두 역주, 2003, 『조선불교통사』 근대편, 혜안.
- 李瑛雅, 2000, 「弘法大師說話에 관한 고찰-「入定說話」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45.
- 이은경, 2012, 「일본 '시코쿠헨로(四國遍路)'의 유래와 변천과정 연구」, 『일어일문학연구』 81.
- 이종화 · 양승주의 공저, 2004, 『목포 목포사람들』, 경인문화사.
- 임혜봉, 1983, 『친일불교론』, 민족사.
-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1, 『근대문화유산 조각분야 목록화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 홍윤기, 2002, 「신라인 고승 흥법대사 공해(空海)」, 『불교와 문화』 45, 대한불교진흥원.
- 후지타 고간, 김현옥 역, 2010, 「진언밀교(眞言密敎)의 성지(聖地) · 고야산(高野山)과 그곳에서 열리는 연중행사(年中行事)」, 『경남문화연구』 31.

일문

蓮生觀善(Hasuo Kanzen), 1931, 『弘法大師傳』, 高野山金剛峯寺弘法大師一千百年御遠忌事務所.

蓮生觀善(Hasuo Kanzen), 1934, 「弘法大師の遺跡, 千年前の苦闘, 今輝く教化の光」, 『朝鮮佛教』 99.

北海道立近代美術館·北海道立旭川美術館, 2006, 『空海-マンダラー-弘法大師と高野山』, 北海道新聞社.

星野英紀(Hoshino Eiki), 2001, 『四國遍路の宗教學的研究-その構造と近現代の展開』, 法藏館.

京都國立博物館(Kyoto Kokuritsu Hakubutsukan), 1998, 『王朝の佛畫と儀禮』.

黑板勝美(Kuroita Katsumi), 1934, 「弘法大師と日本精神」, 『朝鮮佛教』 99.

松浦正昭(Matsuura Masaaki), 1983, 「東寺講堂の眞言彫刻」, 『佛教藝術』 150.

森正人(Mori Masato), 2005, 『四國遍路の近現代-「モダン遍路」から「癒しの旅」まで』, 創元社.

森田龍僊(Morita Ryusen), 1929, 『弘法大師の入定觀』, 藤井文政堂.

總本山金剛峯寺(Wakayama-ken Koya-cho), 1989, 『高野山金剛峯寺』.

영문

David C. Moreton, 2008, "About Tatsueji—the 19th temple along the Shikoku Pilgrimage—Its history and miracles tales based in two early 20th Century documents—," *Tokushima bunridaigaku kenkyu kiyo*, no.76.

Eiji Okawa, 2009, "The Development of Shikoku Henro:—The Formation and Dissemination of a Pilgrimage in Pre—Modern Japan," M.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Vancouver).

Hoshino Eiki, 1997, "Pilgrimage and Peregrination: Contextualizing the Saikoku Junrei and the Shikoku Henro,"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Vol. 24, No. 3/4, Nanzan Univ. in Nagoya.

Ian Reader, 2005, *Making Pilgrimages—Meaning and Practice in Shikoku*, University of Hawai'i Press.

Oliver Statler, 1983, *Japanese Pilgrimage*, William Morrow & co.

Ronald S. Green, 2003, "Kukai, Founder of Japanese Shingon Buddhism: portraits of his life," Ph. D. Diss. Univ. of Wisconsin.

[국문 초록]

일제강점기 목포 유달산의
弘法大師像과 88靈場

이경화

이 글은 한국 근대 불교조각에서 일본불교의 영향과 실재를 파악하려는 논의의 시작이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거의 거론되지 않은 분야였다. 유달산 홍법대사 관련 조각들은 일본불교의 흔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 글은 유달산 88영장의 당시 모습을 추적해보고자 하였다. 목포 유달산의 홍법대사, 부동명왕 마애조각과 88영장은 1931년경에 만들어졌다. 88영장은 1번부터 88번까지의 일련번호가 기입된 불상을 유달산의 중요 자리에 놓음으로써 완비되었다. 홍법대사(774~835)는 일본밀교 진언종의 창시자이며, 영원한 선정에 들어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로 여겨졌다. 고야산은 진언종의 성지이다. 시코쿠섬 88개 사원을 순례하는 시코쿠메구리는 구원의 인연을 맺기 위해 홍법대사가 걸어 다녔던 영장을 순례하는 것이다. 유달산 88영장은 시코쿠 88영장을 원형으로 한다. 불상에 기입된 일련번호는 시코쿠 88개 사원의 해당 사찰을 지시한다. 그리고 불상은 그곳의 본존을 표현하였다. 일제강점기 88영장은 유달산 이외 한국 내 다른 지역에도 만들어졌다. 1930년경 식민지 조선에 대한 본질적인 지배를 기대하는 한국 거주 일본인들은 그들의 사후 구원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조선 내의 일본 영장(靈場)이 필요했다. 개항장 목포의 바위산인 유달산은 고야산 성지를 대체하고 시코쿠 순례를 축소 재현한 영장이 되었다.

주제어

한국 근대 불교조각, 목포, 유달산, 88영장, 홍법대사, 시코쿠 순례, 일제강점기, 입정신앙, 부동명왕

[ABSTRACT]

The Kukai image and 88 sacred places on Yudal Mountain of Mokpo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Lee Kyunghwa

This study investigate Japanese Buddhist influence on Korean Buddhist sculpture during the late modern period(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because it has rarely been a focus of formal investigation. The image of Kukai, Budong Myeongwang(Immovable Bright King), and the 88 sacred places on Yudal Mountain, Mokpo, South Korea, are the representative of Japanese Buddhist influence, and this study is the first in investigating it. Kukai image and 88 sacred places on Yudal Mountain of Mokpo were made in 1931. The 88 sacred places were accomplished by placing 88 numbered Buddha images on major locations of Yudal Mountain. Kukai(774~835) was the founder of Japanese Shingon Buddhism and he was considered as a bodhisattva saving sattva by entering the state of Dhyana. Mt. Koya area was the holy place of Japanese Shingon Buddhism. 'Shikoku Meguri' is a pilgrimage to the 88 sacred places that Kukai visited in Shikoku. The 88 sacred places of Shikoku were replicated on the Yudal mountain of Mokpo. Each Buddha image symbolize a main Buddha image in a temple. The 88 sacred places were also replicated elsewhere in Korea. Japanese people who lived in colonial Korea in the 1930s(when Japanese colonialism became explicit) needed the 88 sacred places in Korea for their afterlife. The rock mountain Yudal was a miniature of Shikoku,

Keywords

Modern Buddhist Sculpture, Mokpo, Yudal Mountain, Kōbō Daishi, Master Kukai, Pilgrimage to the 88 Sacred Places of Shikoku,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 Budong Myeongwang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럽통합을 위한 역사교육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운석 | 독일 튀빙겐대학교 한국학과 강의전담교수



I. 머리말

1951년 4월 프랑스 외무장관의 이니셔티브 아래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GKS: Europäische Gemeinschaft für Kohle und Stahl)부터 유럽공동체(EG: Europäische Gemeinschaft)까지의 유럽통합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유럽통합을 주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연상할 것이다. 1980년대까지 서유럽의 교과서들도 유럽통합을 주로 경제적·제도적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그러나 유럽을 통합하려는 유럽계획(Europapläne)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6세기와 17세기의 전쟁들을 겪으면서 초국가적인 결합을 통해서 평화를 보전하려는 사상이 훨씬 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25년에 법률공동체로서의 유럽을 구상했던 국제법학자 그로티우스(Hugo Grotius), 국제중재재판소를 통해 유럽의 평화를 보전하려 했던 철학자 라이프니츠(Wilhelm Leibnitz), ‘영구평화론(1795)’을 통해 유럽의 평화연맹

※ 투고: 2014년 7월 29일, 심사 완료: 2015년 2월 1일, 게재 확정: 2015년 2월 23일

(Friedensbund)을 주장한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그 대표적인 예다. 브리앙(Aristide Briand)이나 쿠덴호베-칼레르기(Coudenhove-Kalergi) 백작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경험한 뒤 내전들 속에서 쇠잔해지지 않는 ‘연방적인’ 혹은 ‘범유럽적인’ 유럽에 대한 비전을 발전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의 극심한 파국을 경험한 뒤 폐허 속에서 유럽통합의 비전을 발전시킨 중요한 동기들 중의 하나도 바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소망이었다.¹⁾ 2004년 유럽연합의 25개 회원국 수반들과 외무장관들이 서명하여 각국 의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유럽연합 헌법은 최우선적 목표가 “평화의 촉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²⁾

우리가 유럽의 통합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발전시키는 데 그것이 귀중한 교훈을 주리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인들이나 정치인들은 동아시아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여러 가지 경제 협력관계에 더 관심이 크고 또 그것들이 구체적인 합의들을 통해 결실을 맺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식인들의 담론에서는 적어도 경제공동체보다는 안보 및 평화공동체로서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는 중국의 경제대국으로의 부상과 그 군사적 잠재력을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그리고 북한 핵 문제 등이 맞물려 불안정한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의 전제인 평화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때문이다. 그러나 안보 및 평화공동체로서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장애물 중의 하나는 상호 신뢰를 가로막는 역사갈등의 문제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민족국가 중심의 배타적인 역사인식을 지양하고 역사인식 공유의 폭을 넓히려는 시민사회 차원의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글은 유럽통합을 교육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유럽의 노력을 특히 독일

1) *Zeiten und Menschen 2*, Paderborn: Schöningh 2006, pp.478~480; *Histoire/Geschichte, Europa und die Welt seit 1945*, Stuttgart: Klett, 2006, pp.116(김승렬 외 옮김, 2008, 『독일·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 1945년 이후 유럽과 세계』, 휴머니스트, 126).

2) *Zeiten und Menschen 2*, 2006, p.486.

의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유럽통합에 대한 연구는 그것의 시대사적 배경, 발전과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럽의식과 유럽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소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유럽 개념들, 유럽의 범위에 대한 인식, 유럽 공통의 문화유산, 유럽적인 정신과 가치 및 제도, 유럽통합의 역사가 교과서에 어떻게 어떠한 비중으로 서술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동아시아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적 정체성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럽의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황소로 변신한 제우스에게 납치되어 크레타에 옮겨진 페니키아 공주로서 유럽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지중해 북부 지역을 유럽이라 일컫는 이후 시대와 지역에 따라 유럽이라는 이름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다.³⁾ 현재에도 유럽연합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에 따라 유럽의 범위는 달리 해석되고 있다. 토마스 마이어(Thomas Meyer)는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더 이상 서유럽적인 공통의 문화전통으로부터가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인권, 자유와 평화, 복지 등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적 정체성이 유럽적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서유럽적으로 각인된 한스-울리히 벨러(Hans-Ulrich Wehler)는 이를 강하게 거부한다. 그에게 있어서 유럽적 본질은 “유대적-그리스-로마적 고대,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계몽사상과 과학혁명”이며 이러한 전통을 공유하지 않은 터키는 물론이거니와 우크라이나, 백러시아와 러시아도 EU에 가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⁴⁾ 볼프강 슈말레는 유럽 개념의 가변성을 인정하지만 현재 유럽적 정체성을 운위할 만큼의 유럽적 통합에 도달한 것은

3) *Kursbuch Geschichte: Von der Antike bis zur Gegenwart*, Berlin: Cornelsen, 2008, p.9.

4) *Zeiten und Menschen 2*, 2006, pp.509~511.

EU 회원국들뿐이라고 본다.⁵⁾ 필자도 유럽 개념에 있어서는 유럽평의회(Europarat, 47개 회원국) 회원국들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사용하지만⁶⁾ 유럽적 정체성은 EU 회원국들 안에서 비로소 의미 있는 정도로 확인될 수 있다고 본다. 유럽적 정체성은 일정한 경계를 가진 공간으로서 유럽에 대한 결속감, 연대의식, 충성심을 갖게 해주는 집단적 자의식을 말하며, 이것은 유럽정치적 행동의 기초를 형성한다. 유럽적 정체성은 이해관계의 대립을 막아 주며 다양한 요소들을 통일시켜 주고, 공동의 역사와 경험으로부터 공동의 가치관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해준다.⁷⁾

이 글에서는 먼저 유럽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공동체와 유럽연합 기구들과 독일 문화부장관회의의 결의들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적 조치를 분석할 것이다. 유럽평의회 결의들과 주요 컨퍼런스의 성과들, 보고서들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이유평과 지면상의 문제로 인해 다루지 못한다. 교과서 분석에 있어서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루어진 몇 가지 중요한 교과서 분석 성과를 참고하고 일부 현행 교과서들을 분석하여 보완하였다. 교과서는 Ernst Kett, Cornelsen, Schöningh, westermann 등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과서를 출간한 출판사들의 것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5) W. Schmale, 2008, "Geschichte der europaeischen Identität,"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http://www.bpb.de/apuz/31492/Geschichte-der-europaeischen-Identitaet>); W. Schmale, 2010, *Geschichte und Zukunft der europaeischen Identität*, Bon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pp. 37~42, 131~146 참고.

6) M. v. Geyr u.a., 2007, *Die europaeische Dimension in den Lehrplaenen der deutschen Bundeslaender*, Berlin: Europaeische Akademie(http://ec.europa.eu/deutschland/pdf/work_study/eab_studie.pdf). 이 보고서의 저자는 유럽을 유럽연합(EU)에 국한시키는 것을 반대하며 유럽평의회가 유럽 개념을 "유럽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목적지향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덧붙여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유럽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M. v. Geyr u.a., 2007, pp.13~14).

7) M. Chardon, 2013, "Europaeische Identitaet," in: Martin Große Hüttmann/Hans-Georg Wehling (Hg.): *Das Europalexikon*, 2., aktual. Aufl. Bonn: Dietz(<http://www.bpb.de/nachschlagen/lexika/177051/identitaet-europaeische>).

II. 본론

1_ 교육정책적인 규정들

1945년 이후 유럽통합을 위한 노력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미국과 소련이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유럽이 약화된 데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통합에 대한 기대는 나라마다 달랐다. 전후 독일의 서방점령지와 그후 서독에서는 처음에 국가주권을 회복하고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려는 기대에서 사람들이 유럽통합운동을 크게 지지하였다. 서독인들의 유럽열광은 또한 나치의 파국과 분단을 경험한 뒤 의문시된 민족적 정체성의 추구에 대한 대안이기도 했다. 1951년 6개국에서 출발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1967년 유럽공동체로 발전하고, 여기에 1973년에는 영국·아일랜드·덴마크, 1981년에는 그리스, 1986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입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유럽통합을 위한 노력이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위기를 겪던 시기였다.⁸⁾

1980년대는 유럽공동체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도개혁을 통해 의욕적으로 발전을 추구하던 시기였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공동체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였고 교육을 통해서 유럽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1980년대에 나온 유럽이사회나 유럽의회의 여러 가지 선언들이나 규정들은 이러한 배경과 함께 유럽공동체가 회원국들의 교육과정들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진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유럽공동체 이사회는 1980년대 초부터 여러 차례의 결의에서 “교육제도에서 유럽적 차원”을 강화시킬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했다. 1985년의 ‘결론’에서는 공동체의 시민들이 “유럽통합의 목표와 유럽공동체의 행동반

8)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어려운 통합과정”에 대해서는 G. Le Quintrec/P. Geiss eds, 2006, *Histoire/Geschichte, Europa und die Welt seit 1945*, Stuttgart: Ernst Klett Schulbuchverlag, pp.124~125 참고.

경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따라서 수업에서 유럽적 차원을 강화하는 것은 유럽의 미래 시민들을 위한 교육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라고 강조하였다.⁹⁾ 유럽의회는 1987년 ‘교육제도에서 유럽적 차원에 대한 결의’에서 회원국들의 모든 의무교육 체계에 유럽적인 차원을 도입하고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유럽의회는 구체적으로 유럽적 차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들을 양성하고 연수시킬 것과 교사들이 역사·지리·사회나 경제 같은 과목에서 유럽적 차원의 양상을 담은 교수법 자료들을 더 많이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¹⁰⁾ 결의는 “청소년 세대에게 유럽공동체가 존재하며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들의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일련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유럽에 초점을 맞춘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하고 사회·문화·정치적인 문제들을 민족적인 양상을 넘어서는 관점에서 보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¹¹⁾ 비전을 제시하였다. ‘교육제도에서의 유럽적 차원을 위한 이사회와 이사회에 통합된 교육부 장관들의 결의(1988년 5월 24일)’는 유럽의회의 결의를 재확인했다. 교육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들로서 유럽적 차원을 더욱 고려하는 외에도 민주주의, 사회정의와 인권의 수호라는 기본 원칙들에 따라 유럽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사회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교육과정과 교사양성 제도를 개선하고 수업자료들을 개발하고 정보교환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¹²⁾

유럽공동체를 유럽연합으로 확장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128조의 ‘문화’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9) F. Pingel, 1995a, “Europa im Schulbuch – Einleitung,” in: F. Pingel ed., *Macht Europa Schule? Die Darstellung Europas in Schulbücher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Frankfurt a.M., p.XII.

10) A. Natterer, 2001, *Europa im Schulbuch*, Grevembroich, pp.13~14.

11) E. Kotte, 2007, “In Räume geschriebene Zeiten,” *Nationale Europabilder im Geschichtsunterricht der Sekundarstufe II*, Idstein, pp.94~95.

12) A. Natterer, 2001, pp.13~14; F. Pingel, 1995a, pp.XII~XIII.

1. 공동체는 회원국들의 민족적 및 지역적 다양성을 보존함과 동시에 공동의 문화유산을 강조하는 가운데 그들의 문화의 전개에 기여한다.
2. 공동체는 그 활동을 통해서 회원국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영역들에서의 활동들을 후원하고 보완한다.
 - 유럽 민족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의 개선과 확산
 - 유럽적 의미를 가진 문화적 유산의 유지와 보호
 - 비상업적 문화교류
 - 시청각 분야를 포함한 미술과 문학작 창작¹³⁾

사회주의 블록의 해체와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과 함께 미래 유럽에 대한 기획은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유럽연합의 대대적인 확장은 ‘유럽적인 것’으로서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유럽적 교육에 새로이 제기된 도전을 팔크 핑겔(Falk Pingel)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설명하고 있다.

- 유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유럽적 공간은 정치적·문화적·지리적·역사적으로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 그것을 결속시키는 것은 무엇이고, 분열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 우리가 ‘유럽의식’을 말할 때 그것은 유럽연합을 의미하는가, 혹은 유럽평의회 회원국들도 포함하는가?
- 유럽은 그 기구들을 통해서 체현되는가, 혹은 이것들은 단지 보다 강한 소속감의 표현 곧 제도적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 우리의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유럽구상은 지리적인 구상과 대조를 이루거나 더 나아가 모순관계에 있는가?¹⁴⁾

13) Rat der europaeischen Gemeinschaft/Kommission der europaeischen Gemeinschaften, 1992,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Art. 128, pp.48~49(http://europa.eu/eu-law/decision-making/treaties/pdf/treaty_on_european_union/treaty_on_european_union_de.pdf).

14) F. Pingel, 2002, “Europäisches in der Schulbuch- und Curriculumentwicklung,” in: K. Schleicher & P. Weber eds., *Zeitgeschichte europäischer Bildung 1970~2000*, Bd. III: *Europa in den Schulen*, Münster, p.247.

독일연방 정부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이후 문화정책(여기에는 교육정책도 포함됨)의 책임은 여전히 회원국들의 소관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조약 128조가 처음으로 유럽연합의 문화활동에 대한 법적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이 교육에서 유럽적 차원을 중시하는 교육을 충분히 실현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이 민족적 및 지역적 조치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¹⁵⁾ 유럽통합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서독은 유럽공동체나 유럽평의회 등 유럽기관들이 제기한 요구에 일찍 부응하였다. 주정부의 소관인 교육 분야에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차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는 1978년 6월 8일 처음으로 ‘학교의 유럽적 교육과제의 기본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가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것을 실행할지 여부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주정부에 달려 있었다. 권고안에서 유럽을 공통으로 각인하는 요소로서 지리적인 것 외에도 공동의 역사적 유산과 공동의 문화전통이 언급되고 있다. 여기에서 지리적인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정치적 유럽’에 대해서는 넓게는 유럽평의회와 국가들, 좁게는 유럽공동체의 국가들로 한정해 중부유럽과 동부유럽의 국가들은 유럽통합사상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정치적 목표로서는 특히 지속적인 유럽 평화질서, 경제적·사회적 관계의 평준화, 유럽의 정치적 비중의 강화가 언급되었다. 문화부장관회의는 다음 사항들을 교육과 수업의 목표로 제시했다.

- 이해의 증진 및 편견의 해소
- 유럽적 다양성의 긍정
- 인권의 실현
- 유럽적 타협들에 대한 긍정
- 유럽과 세계에서 평화의 보전¹⁶⁾

15) F. Pingel, 알 수 없음, pp.XI~XII.

16)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08. Juni 1978, Europa im Unterricht, in: Zentrum fuer Europaeische Bildung (Hg.), *Die europaeische Dimension im Unterricht und Erziehung*, Bonn, 1990, p.97.

학생들에게 “유럽에 함께 속한다는 의식” 뿐만 아니라 “유럽적 결정들과 유럽공동체 시민으로서의 과제를 인지하고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매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럽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사 과목과 사회 과목에서는 유럽적 다양성, 1945년 이후 유럽통합의 발전, 유럽공동체의 의미, 유럽적 의미를 가진 중요한 역사적 요소들, 유럽의 구조들 그리고 세계 다른 국가들과 유럽의 관계에 대한 지식과 통찰을 길러주어야 했다. 문화부장관회의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다음의 조치들을 권하였다.

- 교사와 학생 교환
- 유럽의회 같은 유럽적 기구들의 방문
- 국경 지역에서의 프로젝트
- 유럽적 경시대회(서독에서 1954년부터 시행)¹⁷⁾

1990년 12월 7일의 문화부장관회의의 결의는 1978년 합의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선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중부유럽 및 동부유럽 국가에서의 변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에 소개한 1988년 5월 ‘교육제도에서의 유럽적 차원을 위한 이사회와 이사회에 통합된 교육부 장관들의 결의’도 고려되었다. 1990년 결의는 아직 중부유럽과 동부유럽 국가들의 통합을 전망하고 있지 않고 다만 여타 유럽 지역과의 보다 긴밀한 결속을 계획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유럽연합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유럽 공동의 집을 건설하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회원국들의 문화주권과 유럽공동체의 지원적 지위(Subsidiaritätsprinzip)는 “문화적 독자성과 사회적 다양성의 유지”와 “지역들로 구성된 유럽(Europa der Regionen)”을 가진 연방적 유럽에 대한 지지 속에 표현되었다. 유럽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학교의 교육학적 과제는 “청소년들에게 유럽적 정체성을 일깨운다”는 목표설정을 통해 1978년의 합의에서보다 훨씬 더 명료해지고 광범위해졌다. 1990년의 권고안은 교육과정들이 “보다 섬

17) A. Natterer, 2001, p.29.

세하게 구체적인 목표들과 주제들 그리고 적절한 자료들과 함목적인 작업형식들을” 제시하여 이러한 목표 수행에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역사과목에서는 “유럽 민족들과 국가들의 기원과 그들의 길을 규정한 정치·사회적, 세계관적 및 종교적 운동들, 권력투쟁들, 사상들과 문화창조들”을 다룰 것이 요구되었다. 유럽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안이 제시한 교육학적 조치에는 “교육과정을 개선할 때 유럽적인 문제를 고려할 것”, “교사양성 및 연수에서 유럽적 차원을 고려할 것”, “수업에서의 유럽적 차원”을 교과서 채택 시 검정기준으로 세울 것”이 포함되어 있다.¹⁸⁾

1995년에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하였고 1997년 말에는 룩셈부르크에서 에스토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체코, 헝가리, 사이프러스와의 가입협상이 시작되었다. 1999년 12월 말에는 헬싱키에서 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루마니아 그리고 슬로바키아와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들 중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제외한 10개국 이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에 가입하였고 두 국가도 2007년 1월 1일 뒤를 이었다. 유럽연합의 대규모 확장은 유럽의식의 강화를 위한 1990년 문화부장관회의 권고안에 수정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었다. 2008년 5월 5일의 권고안은 유럽연합의 대폭적인 확장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것은 통합을 위한 교육 분야의 과제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권고안에서 통합 대상으로서 유럽의 공간적 범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맥락상으로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가입국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유럽의 현실과 관련한 정치적 출발점을 다룬 1장에서는 국제적인 경제적 결속 외에도 자원과 환경보호·이주·빈곤퇴치 등 지구적 도전들로 인하여 유럽 국가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 세계적인 문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개진되어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확장과 관련하여 ‘관용’·‘연대’·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덕목이 강조되고 있다.

18) A. Natterer, 2001, pp.26~31.

유럽의 유착은 유럽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민족사와 전통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존중하고, 관용이라는 가치와 연대정신 그리고 다른 언어와 상이한 문화적 관습을 가진 사람들과의 공생을 실천하도록 요구한다. 이로써 유럽인들은 유럽과 세계에서 자유, 평화, 정의 그리고 사회적 평등(sozialen Ausgleich)을 위한 책임을 받아들인다.¹⁹⁾

유럽통합적 교육이 추구해야 할 능력과 태도 가운데는 특히 “이해심, 편견을 제거하고 공통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유럽적 다양성을 수긍하는 자세,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타문화들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²⁰⁾가 들어 있다.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습득해야 할 기능으로서의 다음 항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유럽을 각인한 역사적 세력들, 특히 유럽적인 법 사상, 국가 사상, 자유 사상의 발전과 씨름하고 현재의 발전과 자신의 행동선택과 관련한 시사점을 찾아낸다.
- 공통의 유럽문화의 발전 경로, 특징들과 신물들을 그 다양성 속에서 인지하고 그것을 보호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 다언어성이 제공하는 문화적 풍요를 인식한다.
- 유럽적 사상의 역사와 유럽 국가들의 통합노력들을 존중한다.²¹⁾

학교에서의 유럽교육을 위한 조치들로서는 특히 “두 언어를 통한 수업을 장려할 것”과 “유럽적 테마들에 대해 유럽의 자매학교들과 프로젝트 작업을 장려할 것”이 제안되었다.²²⁾ 두 언어 수업의 경우 이미 영어나 프랑스어를 통한

19) Europabildung in der Schule, Empfehlung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08. 06. 1978 I.d.F. vom 05. 05. 2008, R:/A/bb-Beschlüsse_Berichte/555_Europa_in_der_Schule.doc, pp.4~5.

20) *ibid.*, p.5.

21) *ibid.*, p.6.

22) *ibid.*, p.11.

역사수업을 위한 교육과정도 나와 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인접 국가들과의 역사과목과 연관된 공동 프로젝트도 활발히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2_ 고대와 중세 시기의 유럽적 차원에 대한 서술

독일의 역사과목 교과서들이 유럽적 차원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교과서의 역사서술 경향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팔크 핑엘이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의 교과서 발전에 대해 일반화시켜 설명한 것은 개괄적인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에 따르면 1960년대까지 역사수업과 지리수업은 자기 민족이나 국가에 집중하였으며 역사와 공간에 대한 서술에서 거의 국가 단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일반적이고 국제적이거나 지구적인 접근방식이 점점 더 비중을 얻었다. 흔히 한 시대나 공간의 포괄적인 특징들이 앞에 나오고 이어서 구체적인 사례로서 자기 민족이나 다른 나라들의 몇 개 사례들이 보다 자세히 서술된다. 역사 과목에서는 정치 제도나 지도적인 인물에 맞춰 서술된 것이 사회사나 일상사적인 콘셉트에 자리를 내주었다. 사실이나 사건들에 대해 서술하는 대신 이제 더 이상 반드시 한 민족에 국한될 필요는 없는 공간이나 시간 단위를 포괄하는 장기적인 구조와 과정들로 시선이 이동하였다. 핑엘은 유럽의 교과서 발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장기적인 경향이 세계의 경제와 정치가 점차적으로 국제적으로 긴밀하게 연루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1990년대 초에 동서 진영의 해체로 인한 변화가 새롭게 교과서 서술에 반영할 내용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지면을 더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반화 시키고 선별적 사례를 통해서 혹은 개괄적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²³⁾

지난 몇 십 년간의 독일 역사 교과서의 서술형태 변화를 보면 핑엘의 진단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자국사의 비중이 감소하고, 개설적인 서술의 비중이

23) F. Pingel, 1995a, p.XVIII.

30%나 그 이하로 감소하고 사료와 그림, 도표 등 학습자료들이 절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교과서가 역사학계의 정설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개설서(Textbuch)로부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역사적 사고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학습서(Arbeitsbuch)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료의 제시는 개설적 서술을 예시하는 성격을 벗어나 다중관점(multiperspective)을 예시하려는 방향에서 활용되고 있다. 2000년대 초에 독일의 여러 주들에서 교육과정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교육과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교과서에서 각 시대별로 다루어야 할 내용들에 대한 제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신 일반적인 역사교육의 원리를 큰 틀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새로운 경향은 역사교육이 추구하는 학습목표가 학생들이 그 역사를 배움으로써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길러주어야 하는가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의 독일 역사교육에서는 과거에 유행하던 역사의식(Geschichtsbewußtsein)이라는 개념 대신에 능력(Kompetenzen)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유행어가 되었다. 이것은 1990년대 독일사회가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연구결과에서 받은 충격에 대한 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PISA는 참여국 정부가 교육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들을 제공하기 위한 학생평가 프로그램이다. 15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능력, 수학과 자연과학적 기초교육 그리고 초전공적 역량을 테스트하는 이 국제적 평가에서 독일은 중간 이하의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다. 읽기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독일의 실업학교(Realschule) 학생들은 40~50%가, 그리고 독일의 중등교육 기관(Gymnasium) 학생들은 5~10%가 읽은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히 재생하고, 의미있게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없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독일의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도록 만들었다.²⁴⁾

24) O. Koeller/J. Baumer, "Das Abitur – immer noch ein gültiger Indikator für die Studierfähigkeit?,"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26, 2002(<http://>

1980년대의 독일 교과서에서는 보통 중세를 다루는 단원에서 비로소 유럽이라는 개념이 제목에 출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대폭 확장과 함께 유럽통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유럽의 출발을 이미 고대 그리스로부터 추적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고대사를 다루는 클렛출판사의 중학교용 교과서는 3단원의 제목이 ‘유럽의 그리스적 뿌리’이며 그 10장은 ‘그리스-유럽 문화의 요람’이라 칭하고 있다. 여기서 과학적 사고를 통해 일식을 정확히 예언한 탈레스, 인생의 의미를 탐구한 소크라테스, 그리스의 극장과 교육제도가 서술되어 있다. 6장은 ‘민주주의의 최초의 모델인 아테네’를 다루고 있는데 ‘민주주의-당시와 오늘’이라는 박스 기사에서 아테네와 현재 유럽의 민주주의를 비교한다.²⁵⁾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도 “고대 그리스의 서술은 유럽 문화의 하나의 중심 뿌리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스 문화의 장기적인 영향력과 도시국가의 성격과의 밀접한 연관으로 인하여 수업에서 문화·정치사적인 차원들이 전면에서 부각되고 사회·경제사적인 차원들은 배후로 물러서는 것은 당연하다”²⁶⁾고 본다. 그러나 같은 주의 고등학교용 교육과정은 ‘고대 그리스-우리 정치문화의 실질적 이상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역사가들과 역사적 수사를 이용하는 정치가들이 만들어낸 이상인가? 서양 역사의식 형성에 있어서 페르시아 전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고대 그리스를 유럽 정치문화의 모델로서 보는 전통적인 시각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²⁷⁾

www.bpb.de/apuz/26840/das-abitur-immer-noch-einguetiger-indikator-fuer-die-studierfaehigkeit?p=all); D. Smolka, “PISA-Konsequenzen für Bildung und Schule,”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2, 2005(<http://www.bpb.de/apuz/29164/pisa-konsequenzen-fuer-bildung-und-schule>).

25) *Geschichte und Geschehen 1*,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verlag, 2007, pp.74~131.

26) *Richtlinien und Lehrpläne für das Gymnasium-Sekundarstufe 1-in Nordrhein-Westfalen, Geschichte*, Düsseldorf, 1993, p.60.

27) *Richtlinien und Lehrpläne für die Sekundarstufe II-Gymnasium/Gesamtschule in Nordrhein-Westfalen, Geschichte*, Düsseldorf, 1999, p.89.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은 고대 로마와 현재 유럽 문화의 관계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로마제국의 팽창과 로마 문명의 특성과 영향을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로마와 로마제국의 역사가 르네상스 이후 서양 교육 목록의 확고한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²⁸⁾ 헤센 주의 중학교 교육과정은 로마적-헬레니즘적 사고방식 및 생활양식이 로마의 속주들에서 확산된 것이 유럽문화의 형성에 미친 근본적인 영향에 대해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²⁹⁾ 그러나 독일의 교과서들은 로마제국이 유럽에 남긴 유산에 대해 명확히 서술하고 있지 않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Geschichte plus』는 고대의 유산에 대해 2쪽 분량을 할애하는 데 알렉산드리아의 거대한 도서관, 자연과학과 수학과 기술, 지리학의 발전과 영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로마제국에 대한 56쪽 분량의 서술 중 ‘동로마제국의 로마 유산인 비잔틴’에 대해서는 단지 3쪽만을 할애하고 있다.³⁰⁾ 『Geschichte und Geschehen』은 로마 제국의 유산에 대해 별도로 서술하고 있지 않으며 비잔틴에 대한 서술도 한 쪽에 지나지 않는다.³¹⁾

먼저 핑엘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의 거의 모든 교과서들에서 나오는 유럽 연관성을 가진 목차 항목들을 정리한 것을 참고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유럽’이라는 개념은 주요 장들에서 대부분 시대에 대한 표현으로서 나타나며(예컨대, 중세 유럽) 하부 장들은 그보다는 개별 국가들을 주제화하고 있다.

헤센 주의 교육과정은 7학년 ‘중세인들의 생활조건’이라는 제목의 2단원 도입부에서 “게르만적 전통과 로마적-기독교적 제국사상을 결합하여 구 유럽의 기초로서의 프랑크제국을 파악하라”는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또 다른 중요한

28) *Richtlinien und Lehrpläne für das Gymnasium – Sekundarstufe 1 – in Nordrhein – Westfalen*, pp.65~66.

29) *Lehrplan Geschichte, Gymnasialer Bildungsgang Jahrgangsstufe 6G bis 12G*, Hessisches Kultusministerium, 2008, p.14.

30) *Geschichte plus*, Berlin Brandenburg, Berlin: Cornelsen, 2006, pp.121~176.

31) *Geschichte und Geschehen*, Vol.2, Ernst Klett Sculbuchverlage, 2009, p.93.

〈표 1〉 유럽 연관성을 가진 소단원 제목들

중세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크족의 흥기와 지배
중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건제(농민과 영주) • 교회(교황과 황제, 수도사, 십자군전쟁) • 기사, 일상생활(도시, 시민, 유대인, 농민)
근세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세계, 신시대(지리상 발견, 발명들, 무역) • 절대주의(유럽의 열강체제, 모델로서의 프랑스) • 종교개혁(전쟁과 정치, 황제와 제후)
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사상들(계몽사상, 이성) • 프랑스혁명, 나폴레옹하에서 프랑스의 지배 • 민족주의와 자유주의(1848년 혁명) • 19세기 유럽(영국을 모델로 한 산업혁명, 기술, 문화) • 제국주의(유럽의 외교정책, 식민주의)
현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세계대전, 전간시대(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러시아 혁명) • 제2차 세계대전 • 전후시대, 현재(동서 대립, 냉전, 유럽에서의 협력)³²⁾

학습목표는 세속 권력과 종교적 권력, 곧 왕권과 교황권의 대립을 이해하는 것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중학교 교육과정은 중세의 삶의 형식과 관련하여 특히 분봉제와 장원제에 기초한 봉건사회와 결국 이 신분질서를 해체시킬 부르주아지의 도시사회가 중세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이 교육과정은 또한 중세의 유럽적 특징으로서 교회가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들을 지배한 것, 수도원의 역할, 교권과 왕권의 대립을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립(‘십자군전쟁’과 ‘聖戰’)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및 문화적 교류’ 혹은 ‘이슬람을 통한 유럽의 발전(Bereicherung)’이 운위된다.³³⁾

베스트하이더(Rolf Westheider)는 1980년대에 사용되던 중학교과정의 독일

32) F. Pingel, 1995b, “Befunde und Perspektiven – eine Zusammenfassung,” in: ders. (Hg.), *Macht Europa Schule?*, p.290.

33) *Richtlinien und Lehrpläne für das Gymnasium – Sekundarstufe 1 – in Nordrhein – Westfalen*, pp.72~79.

역사교과서 5종을 분석했는데 유럽의 출발을 카알대제로부터 보기 때문에 프랑크제국에 대한 서술부터 분석하였다. 한 교과서는 매우 축약적으로 유럽의 정치적 출발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카알대제는 8세기 말경 서양(Abendland)의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였다. 그는-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유럽의 지배자가 되었다. 심지어 바그다드의 칼리프인 하룬 아르-라쉬드와도 연결을 가졌다. 동 시대인의 사료들에서 사람들은 그의 제국을 이미 '기독교제국'이라 불렀다 (bsv G 1, 180).

여기서 서양적 정체성, 유럽에 대한 지배, 비유럽 지역과의 접촉 그리고 그 시대의 자기인식 속에서 유럽의 통일이라는 유럽적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다. 1980년대 대부분의 다른 교과서들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와 인간(Zeiten und Menschen)'이라는 교과서는 프랑크제국의 지배와 사회와 경제체제를 유럽적 맥락보다는 시대착오적으로 독일 민족사의 준비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³⁴⁾

중세 성기에 관해서는 많은 유럽 관련 서술들이 들어있다. 베스트하이더는 작센 왕가의 독일적인 왕들과 슈타우펜 왕가의 보다 유럽적인 성격의 왕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중세 왕정 외에도 기독교 세계 내에서 황제와 교황과 기사들 사이의 지배권을 둘러싼 투쟁을 유럽 관련 테마라고 볼 수 있다. 교과서 '우리의 역사'는 독일 기사의 삶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영국의 남작과 프랑스의 대영주(Grandseigneurs)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bsv 역사'에서는 프랑스의 기사제도가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간주하며 "기사제도가 전 유럽의 중세를 각인했다(bsv G 2, 51)"고 서술하고 있다. 기독교와 기사제도를 근본적으

34) R. Westheider, 1995, "Europa ist nicht Europa - Zur Geschichte einer verhinderten Identität. Die Darstellung Europas in ausgewählten Geschichtsbüch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F. Pingel ed., *Macht Europa Schule? Die Darstellung Europas in Schulbücher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Frankfurt a.M, 1995, pp.29~30.

로 통일적인 유럽적 요소들이라고 볼 때 십자군원정은 그 정점에서 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많은 이 사건들에 대해 처음으로 외부의 시각이 소개되고 비판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수의 교과서들에서 제공되었다. 그것은 십자군 원정의 동기가 대단히 도착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었고 그 잔인성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이었다. 이 주제는 처음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진정으로 다중관점적인 시각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우리의 역사’는 “십자군원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당시의 관점에서 아니면 오늘의 관점에서? 십자군의 관점에서 아니면 회교도의 관점에서?”라고 질문을 제기한다(UG 1, 199). “반대편 회교도의 목소리를 분명히 제시할 때 학생들은 비로소 종교적 광신성과 성스러운 전쟁을 기독교인들이 시작했다는 사실을 더 잘 배울 수 있다.”³⁵⁾

후기 중세의 유럽적인 내용의 서술에서 중점은 도시와 예술, 시민층과 원거리무역의 발전과 유대인의 상황에 대한 서술이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에서 이 부분이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이나 농민의 생활이 초민족적인 관점에서 서술되는 반면 중세 도시의 발전에 관해서는 다수가 독일의 사례들만 다루고 있다. 도시의 지배와 법률 체제는 보다 민족사적인 측면에서 서술되는 반면 경제 및 사회에서의 부르주아적 요소들과 관련해서는 다시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시대들과 인간들’은 중세도시의 모든 분야들에서 민족적 시각의 서술이 지배적이다. 다른 교과서들이 원거리 무역의 중심지로서 상파뉴에 주목하거나 한자도시들과 베네치아가 남부유럽에서 한 역할을 비교하는 데 비해 그 교과서는 독일 한자도시들의 서술에 집중하고 있다.³⁶⁾

35) R. Westheider, 1995, pp.31~32.

36) R. Westheider, 1995, pp.31~34.

3_ 근세 초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의 유럽적 차원에 대한 서술

근세 초의 역사에 대한 서술은 그 정점인 휴머니즘과 르네상스에 대한 서술과 함께 전체적으로 유럽적 시각을 가지고 다루어졌다. 종교개혁이 독일적 시각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유럽적 시각은 그 결과를 서술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다른 교과서들과 달리 ‘우리의 역사’는 루터와 민처를 넘어 ‘유럽에서의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의 모든 차원들과 양상들을 적절히 서술하고 있다. 계몽사상은 근대유럽을 형성한 정신적 기반을 의미했다. ‘bsv 역사’에 인용된 사료는 이 정신의 내용을 “계몽사상(Aufklärung)—lumieres, enlightenment, illuminismo, ilustracion—이 모든 다양한 언어의 표현들에 공통적인 것은 사람들이 18세기 유럽 문화를 규정한 세계관에 특정한 것으로서 이성의 빛을 본다는 것이다(bsv G 3, 10)³⁷⁾와 같이 표현한다. ‘시대들과 인간들’은 “관용과 인간성에 대한 요구”의 성과로서 마녀화형의 종식, 자유석공조합, 유럽 유대인의 처지의 개선과 경건주의를 제시했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그밖에도 과학과 기술, 경제와 교양을 첨가하였다. 그러나 ‘역사서(Geschichtsbuch)’는 계몽사상 대신 “유럽인들과 ‘타자들’: 인간이 자신을 인식한다”라는 특별한 장에서 낯선 지역과 그 주민들의 발견이 주는 문화사적 의미에 대한 인류학적 성찰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접촉 과정에서 유럽적 정체성이 상대화될 뿐만 아니라 안정된다는 것이다.

산업화와 사회문제에 관한 서술에서는 다른 교과서들이 서부유럽에서 동부유럽으로의 발전 도식에 따라 산업화의 확산 과정을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서술하는 반면 민족사적인 서술에 치우쳤던 ‘시대들과 인간들’은 여기서 거꾸로 동시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전 유럽에 공통된 현상으로서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의 비참한 상황이나 기업가층, 정치적 집단 형성에 대한 서술은 독일, 프랑스와 영국을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문제의 해결 시도로서의 로버트 오언의 사상이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에 대한

37) 이하에 나오는 교과서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참고문헌 목록 참고.

〈표 2〉 전체 분량에서 유럽 관련 서술이 차지하는 비율(%)

Band(Vol.)	bsv G	GuG	Gb	UG	ZuM
2	38	39	54	[35] (ohne Bd. 1)	40
3	25	13	13	2	32
4	23	13	22	15	10

* R. Westheider, 1995, p.42에서 인용

서술에 있어서도 그렇다.

1917년은 시대적 전환점으로서 1980년대 교과서 서술에서 아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bsv 역사’의 저자들은 ‘유럽적 상황의 변화’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세계사적 사건들로서 미국 참전과 러시아의 10월혁명이 유럽에 주는 의미는 이 교과서의 서술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미국이 “유럽 국가들의 장차의 발전을 주도하고 그 내적 질서를 민주주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에 착수한 반면”, “혁명의 추동력은…… 곧 유럽의 전쟁에 지친 국민들에 이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bsv G 4, 10). 이 교과서는 미국의 영향력 강화와 그에 따른 유럽의 세계정치적 의미상실에 대한 볼프강 몸젠의 평가와 구 동독의 9학년 교과서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이 유럽사에서 갖는 획기적 의미에 대해 서술한 것을 대조하여 자료로서 수록하였다.

베스트하이더는 양적인 분석에서 흥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럽 관련 서술이 중세에 대한 서술에서 가장 많았고 현대사에서는 매우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핑엘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지면상의 이유로 고대로 올라갈수록 축약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또 아직 민족국가가 형성되기 전이라 폭넓게 서술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프랑스 아날학파의 영향으로 중세사를 구조사적·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경향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⁸⁾

코테(Kotte)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2000년 이후 사용되는 독일 역사교과서

에서 유럽적인 차원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서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대의 유럽사적 의미는 특히 민주적 지배형태의 발전에서 고찰된다. ‘시대들과 인간들’은 그밖에도 과학적 사상을 그리스적 유산으로서 간주한다. 그리스인들이 자연의 법칙성을 발견했으며 과학적 사고와 체계적 인식이 신화에 대해 우월권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로마인들의 실용주의도 유럽적 유산으로서 평가된다. 로마인들이 그리스인의 사상을 실천에 옮겨 제도와 관직, 군대와 법률서, 조세제도와 화폐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유럽문화의 기초 중 하나인 기독교의 기본적 의미도 강조된다. 실질적인 유럽사의 출발로서는 프랑크 제국이 다루어진다. 중세의 유럽적 공통성은 특히 봉건제도, 기독교적 각인, 그리고 도시와 상업의 발전에서 찾아진다. 그러나 중동부유럽 및 동부유럽과 비잔틴적 기원의 기독교는 배제되어 있다.

핑엘은 1990년대에 나온 교과서들에서 이슬람에 대한 서술, 그것이 유럽에 미친 영향과 이슬람과 유럽의 대립에 대한 서술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일부 교과서들은 이 주제를 20세기를 다룰 때 비로소 취급하고 그런 연후에 전근대를 회고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는 반면, 중세 세계를 배타적으로 서양적이고 기독교적인 영역으로 파악하지 않는 책들의 수가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 서술에 대한 또 다른 특징으로서 “전근대의 유럽은 공동의 생활양식을 가진 하나의 문명으로서 간주되는 반면, 근대 유럽은 특히 정치적 및 경제적 단위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³⁹⁾

근세 초에서는 문화사적인 테마들에 초점이 맞춰져 휴머니즘과 르네상스가 유럽적인 규모의 운동으로서 서술된다. 계몽사상은 인권전통을 확립한 전 유럽적 의미를 가진 운동으로서 간주된다. 프랑스혁명에 대한 서술에서는 현재까지 유럽인들의 자기이해를 각인하고 있는 기본 권리들과 자유의 가치가 강조된다. 종교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공통성보다 그 후 여러 군사적 충돌 속에서 형성된 유럽의 다국가체제(Staatensystem)의 단초가 보인다.

38) F. Pingel, 1995b, pp.264~265.

39) F. Pingel, 2002, pp.261~262.

19세기 서술에서는 민족운동과 민족국가들의 형성이 중심에 선다. 여기서 특히 다민족국가인 오스트리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부유럽과 동부유럽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일어난 1848년 혁명은 주로 독일의 사건들에 집중하고 있다. 산업화는 유럽적 현상으로 특징지어지지만 독일과 영국에서의 발전에 주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19세기 서술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세력균형 정책과 5강 체제를 평화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으로서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경향이다. 여기서 5개 열강의 세력균형 정책이 유럽의 소국가들의 희생 위에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특히 유럽의 세력균형 파괴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제국주의 시대에 제고된 유럽의 세계적 영향력이 쇠락하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나치 지배에 대한 서술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원인들, 유대인에 대한 박해조치들과 체계적인 집단학살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 독일이 정복한 국가들에서의 점령정책과 특히 중부유럽과 동부 및 동남부유럽에서 자행된 대량학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홀로코스트에 비해 소략하게 다루고 있다. 1945년 이후의 강제이주와 영토상실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독일만 겪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

4_ 전후 유럽통합운동에 대한 서술

전후 유럽통합의 역사에 대한 교과서 서술에 대한 분석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도 유럽통합을 우연적으로 혹은 구체적인 구상 없이 다루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흔히 제기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러한 상황에 분명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나터러(Natterer)는 유럽통합에 대한 22종의 중등과정 역사교과서의 서술을 분석하였는데 전체 서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9.5%로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경제적 통합과 제도적 발전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그 주제들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적어도 개괄적으로는 유럽통합의 역사적

차원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더 이상 유럽통합을 위한 경제적 관점보다는 안정적인 평화의 보장, 민족주의의 극복과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중시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처럼 프랑스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독일·프랑스 화해와 유럽안보협력회의(KSZE)에도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나터러는 그러나 그의 분석에서 몇 가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다양한 유럽모델들이나 미래 유럽 통일에 대한 구상들이 부분적으로만 등장한다. 왜 지금 유럽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있다. 교과서가 공통의 생활감정을 제공하거나 유럽통합과정 속으로 학생들을 결속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 통일에 대한 상이한 시각들은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에 국한하여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군소 회원국들의 여론이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나라들의 유럽적인 사고방식을 알 수 없으며 유럽 통일은 '3거두'의 일이라는 인상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립적인 시각의 대조를 통해서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주려는 시도는 아주 일부의 책에서만 시도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주제별로는 유럽통일의 현행 문제들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들이 제공되고 있고 과거 여러 단계들에서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생략됨으로써 학생들이 유럽연합의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유럽통합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권 포기(Souveränitätsverzicht)의 문제였다. 그런데 이 개념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치적 연합은 국가 주권에 대한 포기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데도 많은 회원국들이 그것을 포기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교과서들이 유럽통합을 환영하면서도 이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지는 않고 있다.⁴⁰⁾

팔크 핑겔은 1990년대 초의 분석에서 동유럽 주제가 여전히 제대로 다루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서유럽적 관점의 집중을 비판하였다. 그는 그 후에 나온 새로운 교과서들이 다문화적인 요소들과 전 유럽적 시각에 관심을 기울이기

40) A. Natterer, 2001, pp.262~264.

시작함으로써 일방적인 서유럽적 정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그는 서방의 교과서들에서 중부유럽 및 동부유럽 국가들에 대한 우월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서유럽 청소년들은 유럽연합의 확장 문제에서 자신들을 피해자로 보고 전 유럽적 통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 보다는 손해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러시아로부터 강하게 거리를 두고, 서유럽과 유럽연합을 준거점으로서 그리고 미래의 희망으로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전통들을 부정할 위험성이 있는 중부유럽과 동부유럽의 교과서들에 대한 우려도 피력하고 있다.⁴¹⁾

그러면 독일의 중등교육기관(Gymnasium) 상급학년 역사교과서에서는 전후시대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전후시대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핵심 대주제는 동서대립과 유럽통합이다. Kotte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서 대립은 일반적으로 소련이 지배하는 중동부유럽 및 동부유럽으로부터 오는 위협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 때문에 서유럽 국가들은 보다 긴밀하게 미국과 결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중동부유럽 및 동부유럽도 다뤄지고 있다. 여기서, 아마도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 더 확신을 가지고, 공산주의 체제가 바르샤바조약 기구의 다수의 국가들에서 국민들에 의해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특히 폴란드와 체코와 헝가리에서 저항잠재력이 높았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공산주의 정권의 몰락에서 정점에 이른 중동부유럽 및 동부유럽에서의 발전이 다루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교과서들에 비해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흔히 거친 단순화나 섬세한 기술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비판적으로 지적되고 있다.⁴²⁾

서유럽에서 1950년대에 시작한 유럽통합과정의 주요 동기를 교과서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괴적인 결과를 드러낸 민족국가들 간의 경쟁 체제를 극

41) F. Pingel, 1999, "Europa im Geschichtsbuch," in: Stiftung Haus de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d., *Europäische Geschichtskultur im 21. Jahrhundert*, Berlin, pp.215~237.

42) E. Kotte, 2007, "In Räume geschriebene Zeiten," *Nationale Europabilder im Geschichtsunterricht der Sekundarstufe II*, Idstein, p.455.

복해야 한다는 필연성에 대한 통찰에서 찾고 있다. 유럽통합과정에 대해서는 각 발전단계들이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고 있지만 제도사적인 서술의 비중이 여전히 크다. 그런데 Kotte는 주로 경제적으로 각인된 초민족적 유럽공동체로부터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서 정부간 정치 조직인 유럽연합으로 이행한 것에 대해서 교과서들이 서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그 밖에도 유럽연합의 동방 확장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를 비판한다. 여기서 유럽 분단 극복으로 인한 기회보다는 확장으로 인한 부담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비판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2000년에 출간되었으며 Kotte도 분석대상으로 삼은 코르넬젠 출판사의 『Kursbuch Geschichte』는 1991년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공동체가 유럽연합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1945년 이후의 세계에서 유럽'이라는 절에서 7쪽에 걸쳐 '1945년 이후의 유럽통합의 역사', '국제정치에서 유럽의 새로운 역할'과 '미국과 유럽'을 소략하게 서술하고 사료를 제시하고 있다.⁴³⁾ 베스터만 출판사의 『Horizonte II(지평선)』도 16장 '통일된 유럽으로의 길'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포함한 유럽통합의 역사를 16쪽에 걸쳐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유럽통합운동의 주요 동기로서 평화의 수호, 문화공동체와 가치공동체, 경제 그리고 환경을 들고 있다.

평화의 수호: 유럽 민족국가들의 역사는 무력충돌의 오랜 연속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그 파괴적인 힘의 절정에 도달했다. 따라서 유럽의 자기파괴를 멈추게 해야만 했다. 그밖에도 유럽공동체는 냉전의 산물이었다. 동방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여 단합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 필요했다. 또 다른-나중에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은-동기는 독일을 정치적으로 묶어두는 것이었다.⁴⁴⁾

43) Kursbuch Geschichte: *Von der Antike bis zur Gegenwart*, Berlin: Cornelsen 2008(1. Auflage, 8. Druck), pp.610~617.

44) *Horizonte II. Geschichte für die Oberstufe*, Braunschweig: westermann, 2003, p.558.

문화 및 가치공동체에 관해서는 “민족적 및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 문화의 공통성이 있다”고 서술하고 특히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의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 1949년 설립된 가장 오래된 유럽 기구인 유럽평의회가 유럽의 법률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성공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이 평가되었다. 또한 그 가장 중요한 문서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 협정’을 높이 평가했다.⁴⁵⁾ 이 책은 거의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유럽통합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럽통합과정에서 각 시기마다의 난관들이나 유럽연합이 동유럽 국가들로 확장된 이후의 문제들 혹은 유럽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씩씩하도록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2006년 간행된 쇠닝(Schöningh)출판사의 고등학교용 『시대들과 인간들 2(Zeiten und Menschen 2)』은 ‘유럽-다양성 속의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라는 제목으로 유럽통합의 역사를 46쪽에 걸쳐 매우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여기서 먼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을 표시한 지도와 함께 유럽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 본문의 서두를 장식한다. 이어서 2절에서는 ‘고전적 유럽: 지리, 발생신화와 중세까지의 발전’이라는 제목 아래, 유럽의 지리적 개념과 어원, 유럽신화, 중요한 상징들이 설명하고 있다. 3절은 ‘20세기까지의 유럽적 전통들과 정치적 발전’을 다루고 있는데, 그리스의 과학적 사상과 민주주의, 로마인들의 실용주의와 로마법, 중세의 기독교와 대학, 르네상스와 계몽사상, 제국주의적 팽창과 유럽중심주의의 강화, 민족국가들의 형성과 각축을 유럽적 전통을 각인한 것으로서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4절 ‘유럽적 계획들과 프로젝트들’, 5. ‘제2차 대전 이후의 출발점’, 6. ‘유럽통합과 유럽경제공동체’, 7. ‘통일적인 유럽적 행동으로부터 유럽연합으로’, 8. ‘미래: 어떤 유럽에서 공동의 헌법?’의 장들에서 유럽통합의 발전과정과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16쪽에서 압축적으로 유럽통합의 역사를 서술한 후 다시 25쪽에 걸쳐 많은 자료들을 제시하여 유럽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견해들과 정보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45) *ibid.*, pp.556~571.

Ⅲ. 맺음말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설립을 통해 유럽통합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으며, 유럽평의회가 일찍부터 학생들의 유럽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독일에서 교육정책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 시도는 1978년 문화부장관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도 독일의 교과서 서술에서 ‘유럽적 차원’은 아직 불충분하게 반영되었다. 여기에 분명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였다.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동서 대립의 종식, 그리고 유럽연합의 대규모 확장은 유럽통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과 유럽정체성의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교과서의 개선은 민족사에 대한 집중으로부터 벗어나 유럽공동의 발전에 대한 서술에 지면을 늘리고, 자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역사와의 비교사적 고찰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유럽의식은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강화되고 안정화 될 수 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대군을 이끌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침략해 들어왔을 때 헤로도토스는 유럽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과 아시아의 억압과 예종 사이의 대립을 보았다.”⁴⁶⁾ 중세 이후 이슬람과의 접촉은 유럽인의 자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또 다른 방식에서 지리상 발견에 뒤이은 식민주의 시대에 신대륙의 원주민들과의 접촉에도 해당이 된다. 독일의 교과서들은 타자와의 접촉에서 유럽인들이 행한 만행, 곧 십자군원정이나 스페인의 잉카제국과 아즈텍제국에 대한 정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통합운동에서 ‘유럽’은 주로 서유럽을 의미했다. 유럽적인 역사발전에 대한 서술은 주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동서 대립과 냉전질서의 해체와 관련하여 중부유럽 및 동부유럽의 국가들이 다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의 역사를 교과서

46) *Zeiten und Menschen 2*, 2006, p.474.

에서 찾기가 어렵다. 유럽적 차원을 고려할 경우 흔히 독일 민족사를 보다 폭넓은 맥락에서 조명하기 위해 그리하며 여기서 독일 민족이 유럽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타 유럽 국가들의 민족사가 보다 포괄적으로 고려될 경우 그것은 흔히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때로 이탈리아에 국한된다. 유럽 개념이 폭넓게 사용될 경우 이전 시기처럼 유럽을 서유럽과 동일시하는 시각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구중심적 유럽사관으로는 독일 청소년들에게 유럽연합의 확장 이후 유럽의 새로운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없다는 것과 동서유럽 사이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새로운 민족적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통합운동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 온 독일(서독)은 유럽연합 및 유럽평의회와 함께 교육에서 유럽적 차원을 강화하는 데도 앞장서 왔다. 유럽통합운동은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 왔으며 1990년 이후로 동유럽의 국가들까지 대거 유럽연합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의 경제적·정치적 통합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유럽 공통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논의들과 학술적 연구들이 있었으며 이것이 교육을 통해 유럽통합운동을 뒷받침하려는 노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공동체의 실현이 아직 어려운 동아시아에서는 거꾸로 공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모색하고 이것을 통해 정치적 공동체의 실현을 견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역사 갈등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독일 교과서에서 유럽적 차원의 서술은 유럽이라는 이름의 기원에 관한 신화로부터 시작한다. 황소로 변신한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가 페니키아의 공주를 유괴하여 크레타 섬에 데려다가 함께 살며 아이들을 낳아 그들이 크레타 섬을 지배했다는 것이다.⁴⁷⁾ 이러한 신화를 배경으로 유럽은 흔히 황소 등에 탄

47) *Geschichte und Geschehen, Sekundarstufe I*, Vol.3,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verlag, 2007, pp.12~13; 자크 르고프, 2006, 『청소년들이 쉽게 읽는 유럽역사 이야기』, 새물결, pp.28~29.

공주의 모습으로 상징화된다. 유럽통합의 현대적 상징은 유럽연합의 깃발이다. 그 밖에도 다양한 방식의 상상력을 동원해 그려진 유럽 지도 역시 상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이러한 상징들이 유럽적 정체성을 실체화하는 도구적 역할에 주목하고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를 상징하는 대상을 찾거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럽보다 훨씬 더 이질적인 문화권들로 구성된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를 상징하는 하나의 대상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아시아를 공통으로 묶어주는 것으로는 아시안게임이 있는데 따라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에서의 전통 만들기는 처음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범위를 넓혀간 유럽통합의 지역적 범위에 따라 처음에는 프랑스와 독일과 이탈리아 등 서유럽 및 중부유럽의 중핵문화를 중심으로 차츰 그 외연을 넓혀간 것이다. 1980년대까지 유럽적 전통의 모색은 따라서 주로 고대 그리스로부터 로마제국을 거쳐 중세기독교 사회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독일의 종교개혁,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앞장선 '지리상 대발견'과 식민주의, 프랑스의 계몽사상을 거쳐 영국이 선도한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에 이르는 서유럽적 문명의 흐름을 부각시키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유럽통합이 동유럽으로 확장되면서 비잔틴제국과 그리스정교회 그리고 이슬람과의 대립과 교류도 유럽적 전통의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제 유럽적인 것을 찾는 작업은 훨씬 더 복잡해졌으며 어려워졌다. 따라서 공통의 문화적 뿌리를 찾는 것과 더불어 유럽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유럽통합의 정치적·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1945년 이후 유럽통합사상과 조직들이 발전해온 역사와 그 기능과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경험이 시사하는 점은 아시아적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동아시아로 보다 범위를 좁혀 공통의 문화적 전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자문화, 유교와 불교 등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것이 한반도와 중국, 일본과 베트남에서 어떤 공통성과 특이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비교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통성뿐만 아니라 차이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제국주의 시대에 외부의 위협과 도전에 대해 이 국

가들이 어떻게 응전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차후의 역사 발전에 어떻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전후 아시아 냉전체제의 형성과 발전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우리가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적 뿌리와 다양한 수용, 외부의 도전에 대한 상이한 응전들을 통해 동아시아의 역사적 전통을 어느 정도 세우게 되면 그 후 점차로 더 지역적 범위를 넓혀 아시아적 차원에서의 문화 및 경제교류로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이 하나의 기독교 문명권 내에서 공통의 문화적 뿌리와 함께 지역적 다양성을 가진 ‘지역들로 구성된 유럽(Europa der Regionen)’을 구상한다면, 아시아는 여러 개의 문명권들이 느슨하게 교섭하는 구도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럽보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아시아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일은 유럽에서와는 다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편으로 아시아 각 문명권들 사이의 문화와 물자의 교류를 보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비단길뿐만 아니라 발해만과 일본으로부터 남중국해와 인도차이나를 거쳐 인도양과 아랍 지역으로 연결되는 해상교역로를 통해 무역과 문화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시아적 연관을 가진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더 나아가서 아시아적 전통을 찾고 만들어가는 학문적 작업뿐만 아니라 역사교육을 통해 그 성과를 매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동아시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적 차원에서도 역사교육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를 만들어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작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학교 교육에서 유럽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게오르그-에커트 국제교과서연구소의 활동들과 개별국가들의 교육정책적 노력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교사와 학생교환, 각 지역들에서의 초국가적 청소년 캠프 등 협력 프로젝트나 경시대회 등을 통해 교사와 청소년들이 국가적 혹은 지역적 경계를 넘어 교류하고 상호 이해를 넓혀가는 것은 동아시아적 정체성 그리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적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bsv Geschichte – Ausgabe 2GN: Vom Frankenreich bis zum Dreissigjährigen Krieg*, Bayrischer Schulbuchverlag, 1994(〈표 2〉에서 bsv G로 표기).
- bsv Geschichte – Ausgabe 3N: Von der Zeit der Aufklärung bis zum Ersten Weltkrieg*, Bayrischer Schulbuchverlag, 1986.
- bsv Geschichte – Ausgabe 4N. Das 20. Jahrhundert*, Bayrischer Schulbuchverlag, 1992.
- Geschichte und Geschehen, Ausgabe B für Baden – Württemberg*, Bd.2,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verlag, 1994(〈표 2〉에서 GuG로 표기).
- Geschichte und Geschehen 1*,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verlag, 2007.
- Geschichte und Geschehen*, Vol.2, Ernst Klett Schulbuchverlage, 2009.
- Geschichte und Geschehen, Sekundarstufe I, Vol.3*,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verlag, 2007.
- Geschichte plus*, Berlin Brandenburg, Berlin: Cornelsen, 2006.
- Geschichtsbuch*, Vol.1–4, Berlin: Cornelsen, 1993/1994(〈표 2〉에서 Gb로 표기).
- Histoire/Geschichte, Europa und die Welt seit 1945*, Stuttgart: Klett, 2006.(『독일·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 1945년 이후 유럽과 세계』, 김승렬 외 옮김, 휴머니스트, 2008).
- Horizonte II. Geschichte für die Oberstufe*, Braunschweig: westermann, 2003.
- Kursbuch Geschichte: Von der Antike bis zur Gegenwart*, Berlin: Cornelsen, 2008(1. Auflage, 8. Druck).
- Lehrplan Geschichte, Gymnasialer Bildungsgang Jahrgangsstufe 6G bis 12G*, Hessisches Kultusministerium, 2008.
- Richtlinien und Lehrpläne für das Gymnasium – Sekundarstufe 1 – in Nordrhein – Westfalen, Geschichte*, Düsseldorf, 1993.
- Richtlinien und Lehrpläne für die Sekundarstufe II – Gymnasium/Gesamtschule in Nordrhein – Westfalen, Geschichte*, Düsseldorf, 1999.
- Unsere Geschichte, Vol.2, Vom Beginn der Neuzeit bis zum Ende des 19. Jahrhunderts*, Diesterweg, 1986(〈표 2〉에서 UG로 표기).
- Unsere Geschichte, Vol.3, Von der Zeit des Imperialismus bis zur Gegenwart*

Taschenbuch, Diesterweg, 1986.

Unsere Geschichte, Vol.4, Von der Oktoberrevolution bis zur Gegenwart,

Diesterweg, 1991.

Zeiten und Menschen 2, Paderborn: Schöningh 2006(〈표 2〉에서 ZuM로 표기).

자크 르고프, 2006, 『청소년들이 쉽게 읽는 유럽역사 이야기』, 새물결.

A. Natterer, 2001, *Europa im Schulbuch*, Grevenbroich.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08. Juni 1978, Europa im Unterricht, in: Zentrum fuer Europaeische Bildung (Hg.), *Die europaeische Dimension im Unterricht und Erziehung*, Bonn, 1990.

D. Smolka, 2005, "PISA-Konsequenzen für Bildung und Schule,"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2(<http://www.bpb.de/apuz/29164/pisa-konsequenzen-fuer-bildung-und-schule>).

E. Kotte, 2007, "In Räume geschriebene Zeiten," *Nationale Europabilder im Geschichtsunterricht der Sekundarstufe II*, Idstein.

Europabildung in der Schule, Empfehlung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08. 06. 1978 I.d.F. vom 05. 05. 2008, R:/A/bb-Beschlüsse_Berichte/555_Europa_in_der_Schule.doc.

F. Pingel, 1995a, "Europa im Schulbuch - Einleitung," in: F. Pinge ed., *Macht Europa Schule? Die Darstellung Europas in Schulbücher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Frankfurt a.M.

F. Pingel, 1995b, "Befunde und Perspektiven - eine Zusammenfassung," in: ders. (Hg.), *Macht Europa Schule?*

F. Pingel, 1999, "Europa im Geschichtsbuch," in: Stiftung Haus de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d., *Europäische Geschichtskultur im 21. Jahrhundert*, Berlin.

F. Pingel, 2002, "Europäisches in der Schulbuch- und Curriculumentwicklung," in: K. Schleicher & P. Weber eds., *Zeitgeschichte europäischer Bildung 1970~2000*. Bd. III: Europa in den Schulen, Münster.

M. Chardon, 2013, "Europaeische Identitaet," in: Martin Große Hüttmann/

Hans-Georg Wehling (Hg.): *Das Europalexikon*, 2., aktual. Aufl, Bonn: Dietz(<http://www.bpb.de/nachschlagen/lexika/177051/identitaet-europaeische>).

M. v. Geyr u.a., 2007, *Die europaeische Dimension in den Lehrplaenen der deutschen Bundeslaender*, Berlin: Europaeische Akademie(http://ec.europa.eu/deutschland/pdf/work_study/eab_studie.pdf).

O. Koeller/J. Baumer, "Das Abitur – immer noch ein gültiger Indikator für die Studierfähigkeit?,"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26, 2002(<http://www.bpb.de/apuz/26840/das-abitur-immer-noch-eingueltiger-indikator-fuer-die-studierfaehigkeit?p=all>).

Rat der europaeischen Gemeinschaft/Kommission der europaeischen Gemeinschaften, 1992,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Art. 128, pp.48~49(http://europa.eu/eu-law/decision-making/treaties/pdf/treaty_on_european_union/treaty_on_european_union_de.pdf).

R. Westheider, 1995, "Europa ist nicht Europa – Zur Geschichte einer verhinderten Identität. Die Darstellung Europas in ausgewählten Geschichtsbüch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F. Pingel ed., *Macht Europa Schule? Die Darstellung Europas in Schulbücher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Frankfurt a.M, 1995.

W. Schmale, 2008, "Geschichte der europaeischen Identität,"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http://www.bpb.de/apuz/31492/Geschichte-der-europaeischen-Identitaet>).

W. Schmale, 2010, *Geschichte und Zukunft der europaeischen Identität*, Bon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국문 초록]

유럽통합을 위한 역사교육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운석

1980년대까지도 독일의 교과서 서술에서 ‘유럽적 차원’은 불충분하게 반영되었다. 여기에 분명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였다.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동서 대립의 종식, 그리고 유럽연합의 대규모 확장은 유럽통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과 유럽정체성의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교과서의 개선은 민족사에 대한 집중으로부터 벗어나 유럽공통의 발전에 대한 서술에 지면을 늘리고, 자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역사와의 비교사적 고찰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중세 이후 이슬람과의 접촉, 식민주의 시대에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접촉 등 타문화와의 접촉이 유럽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비친 영향도 중시되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통합운동에서 ‘유럽’은 주로 서유럽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중심적 유럽사관으로는 독일 청소년들에게 유럽연합의 확장 이후 유럽의 새로운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없다는 비판이 강해졌다. 1990년대에 유럽통합이 동유럽으로 확장되면서 비잔틴제국과 그리스정교회 그리고 이슬람과의 대립과 교류도 유럽적 전통의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제 유럽적인 것을 찾는 작업은 훨씬 더 복잡해졌으며 어려워졌다. 따라서 공통의 문화적 뿌리를 찾는 것과 더불어 유럽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유럽통합의 정치적·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1945년 이후 유럽통합사상과 조직들이 발전해온 역사와 그 기능과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유럽적 정체성의 형성은 인내를 요하는 장기적인 과정이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상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유럽평의회, 유럽연합, 독일의 문화부장관회의, 게오르그-에커트 국제교과서연구소는 청소년들에게 유럽의식을 길러주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우리는 동아시아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과정을 역사교육을 통해서 뒷받침하는 데 이러한 경험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유럽통합, 역사교육, 문화부장관회의, 유럽연합, 유럽평의회, 역사교과서, 유럽정체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History Teaching for European Integration: With Special Attention to Germany

Han Unsuk

Until the 1980s, 'the European dimension' was not represented sufficiently in German history textbooks. This problem improved in the 1990s. The textbooks concentrated no longer on national history, showed a greater interest in the common development of Europe, and enhanced a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the history of other European states and regions. Greater attention was given to the contacts of Europeans with other cultures, such as Islamic civilization or American Indian culture, which enhanced European identity.

In striving for European integration, until the 1908s, 'Europe' primarily meant Western Europe. But with the expansion of European integration into Eastern Europe, the Byzantine empire, Greek Orthodoxy, and, moreover, the conflicts and exchanges with Islam were considered important in the formation of the European tradition. German history textbooks now lay more emphasis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necessity of European integration, the history of thought, and organizations for European integration and their functions and problems.

The formation of European identity has been a long and ongoing process which requires great endurance. It needs not only scientific research but also educational efforts. Reg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European Council and the European Union, national educ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German Kultusministerkonferenz, and private institutions such as Georg-Eckert-Institut for International Textbook Research have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promotion of European consciousness in the youth. We can learn much from these experiences in our efforts to build an East Asian Community and to support this process through history education.

Keywords

European integration, historical education, Kultusministerkonferenz, European Union, Council of Europe, history textbook, European ident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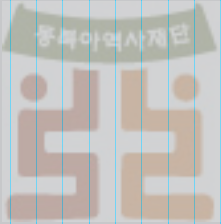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특별 기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아시아사 수업과 평화 인식*

윤세병 | 대전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탄생한 동아시아사는 도입 단계에서부터 많은 진통을 겪었다. 오랫동안 중등 역사과의 기본 틀은 자국사인 한국사와 외국사인 세계사라는 양대 축으로 운영되었다. 자타(自他)가 구별되는 이원 체제에서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베트남사를 포괄한 동아시아사는 상당히 돌출적인 것이었다. 한국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양사와 서양사의 합인 세계사도 아닌, 동아시아사는 첫걸음부터 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교과목의 설립 취지, 내용 구성의 방법, 연구 성과의 축적, 현장 교사들의 역량 등의 문제를 놓고 설전이 오가기도 하였다. 2012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인 동아시아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아시아사에 대한 논의가 처음에는 대개 신생 과목으로서의 내용 구성을 둘러싼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¹⁾ 그러다가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현

※ 투고: 2014년 11월 5일, 심사 완료: 2015년 2월 1일, 게재 확정: 2015년 2월 23일

* 이 글은 2014년도 제57회 전국역사학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장에서 수업이 진행되자 차츰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수업 방안, 동아시아사 과목에 대한 현장에서의 인식 등을 보여주는 논고들이 등장하고 있다.²⁾ 그런데 동아시아사의 교과 목표는 역사과 내 다른 과목에 비해 평화교육으로서의 지향점이 선명하다. 교육과정에서 밝히는 “①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②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는 목표를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진전된 논의를 필요로 한다. ①과 ②는 각각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목표로서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볼 수도 있지만 ①은 ②를 위한 기초 작업이자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①의 과제가 빈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②로 가는 것은 자칫 과도한 의도성만 부각시켜 ‘교화(indoctrination)’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그렇다면 ①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동아시아사가 담고 있는 내용 요소가 학교 현장에서 수용되는 양상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해 본다. 이는 동아시아사가 말 그대로 전 인미답의 길을 걷는 만큼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동아시아사 교육에 적절한 피드백이 요구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②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본질적 목표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 1) 황지숙, 2007, 「상대화 시각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교육 방안」, 『역사교육연구』 제5집; 유용태, 2008, 「한국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구성」, 『歷史教育』 제107호; 정연, 2008,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 체계」, 『동북아역사논총』 제19집; 신성곤, 2008, 「한국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구성과 그 특징」,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지모선, 2013, 「<동아시아사> 과목의 신설과 교육과정 개발」, 『歷史教育』 제128호.
- 2) 정연, 2008,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검토 - 대단원 I, II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제14집; 김정인, 2009, 「『고등학교 국사』 및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동아시아사 서술 분석」, 『歷史教育』 제110집; 박근칠, 2013,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기술 내용과 개선방안: 2012년판 <동아시아사> 전근대 부분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40집; 유용태, 2013, 「동아시아 지역사 서술의 현황과 과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2012) 근현대부분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40집; 이성제, 2011, 「『동아시아사』교과서의 「지역간 인구이동과 전쟁」단원 서술에 대한 시론」, 『歷史教育論集』 제47집; 김유리, 2014,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에 대한 역사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분석」, 『歷史教育』 제130호; 김민수, 2014, 「<동아시아사> 관점에서 구성한 민주주의 수업」, 『역사교육연구』 제19집.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평화 인식과 관련하여 교사와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 보고, 성과적인 측면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해 보기로 한다.

논의의 진행을 위해 그간 논문이나 자료집 등을 통해 나왔던 수업 사례를 참고하였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동아시아사 수업의 경험이 있으며 전국역사 교사모임에서 활동하는 6명의 교사, 즉 A 교사(울산, 여, 35세, 10년 차), B 교사(대전, 여, 36세, 12년 차), C 교사(충남 천안, 남, 37세, 10년 차), D 교사(경기도 안산, 남, 34세, 8년 차), E 교사(대전, 남, 44세, 15년 차), F 교사(전남 함평, 남, 54세, 26년 차)를 인터뷰하였다.

또한 필자가 2012~2013년도에 정규수업이나 보충수업을 통해 만났던 대전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2014년 현재 동아시아사를 수능의 선택과목으로 공부하고 있던 4명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기로 한다. 이 학교는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다.

학생들에 대한 인터뷰는 2014년 9월에 이루어졌다. 교사들에게는 동아시아사 수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동아시아사 과목의 성격(특히 평화의 관점)을 살려 수업한 사례, 수업 후 동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학생 인식의 변화, 평화 인식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들에게는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이유와 많은 학생들이 동아시아사를 기피하는 이유,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힘든 점, 동아시아사 교과가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동아시아사 수업을 전후로 한 중국·일본·베트남에 대한 인식의 변화, 동아시아사 교과가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줌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현재의 동아시아사가 강조해야 할 것 등을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인터뷰가 동아시아사 수업과 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유용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교과서는 2012년에 발행된 천재교육판 동아시아사(이하 천재)와 교학사판 동아시아사(이하 교학)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³⁾

II. 고달픈 동아시아사 수업의 현장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총 6개의 대단원이 있고, 대단원 별로 4~5개의 중단원이 있다. 전체적으로 통사의 흐름을 취하고 있으나, 각각의 대단원 안으로 들어가면 주제사 구성의 경향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주제사로 갈 경우 시대사의 흐름에 취약할 수 있어, II의 '인구 이동과 교류의 증대', III의 '북방민족의 성장', IV의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과 '전통 사회의 완성'처럼 해당 대단원의 정치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단원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동아시아사가 낯선 과목이란 데서 오는 부담감 때문에 교재 연구의 힘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⁴⁾ 동아시아가 도입된 첫해인 2012년도의 3월부터 전국역사교사모임의 홈페이지에는 동아시아사에 대한 꾸밈과 함께 수업 자료나 수업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자구책으로 A 교사의 경우 처음 수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울산 지역의 교사들과 학습 자료를 공유하였다. 고양·파주 지역의 교사들은 2012년에 동아시아사 수업으로 힘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2013년에 동아시아사 수업연구모임을 만들기도 하였다. 2014년 4월 초에 부산의 김민수 교사가 만든 『동아시아사 배움책』이 전국역사교사모임의 홈페이지에 올

3) 안병우 외, 2012,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손승철 외, 2012, 『동아시아사』, 교학사.

4) 2013년에 동아시아사 수업을 담당한 전북 지역의 역사교사들을 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아시아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로서 과목 개설 취지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설 과목이라 수업 부담이 크다는 것이었다. 과목 개설의 취지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2008년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81%가 동아시아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설문 대상의 차이일 수도 있고 동아시아사의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과 후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황지숙, 2008, 「한국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들의 동아시아 교육인식」, 『한중일 동아시아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선인, 172~173쪽; 김유리, 2014, 앞의 글, 8~9쪽.

〈표 1〉 동아시아사의 단원 구조(천재)

대단원명	중단원명
I.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 학습, 선사 문화의 전개, 농경 사회와 목축사회, 국가의 성립과 발전
II.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인구 이동과 교류의 증대,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 율령 체계의 수용, 국제 관계와 외교 활동
III.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북방 민족의 성장, 농업의 발전과 소농 경영, 새로운 지배층의 등장,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
IV. 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인구 증가와 도시화, 전통 사회의 완성
V. 국민국가의 수립	개항과 국민국가 수립 노력, 제국주의 침략과 피해, 민족주의와 민족운동, 평화를 위한 노력, 서구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
VI. 오늘날의 동아시아	전후 처리와 국교 회복, 냉전과 전쟁, 경제 성장과 역내 교역 활성화, 민주화와 사회 변화,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

라오자 많은 교사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는 그간 수업 자료에 대한 갈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교사들마다 편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차츰 교과에 대한 적응력이 생기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B 교사의 경우 2012년도에 집중이수제로 두 학기 가르쳤고, 1년간 육아휴직한 후 2014년 복직하여 다시 동아시아사를 담당하였다. 첫째에는 교과와 전체적인 구조 파악에 급급했고,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각 단원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단원과 단원 간에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눈에 들어온다고 한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사가 힘든 과목이라는 인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듯하다. 동아시아사 수업이 힘들게 이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신생 교과로서 동아시아사에 등장하는 새로운 지식이 교사들에겐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온다.⁵⁾ 교사들은 한국사의 경우 학생들과 교감할 수 있는

5) 일본에서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인다. 1994년부터 새로운 世界史像

다양한 내러티브 요소가 가미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데 반해, 동아시아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식의 외연이 넓지 않을뿐더러 교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가령 수업 시간에 학생이 교과서에 실린 지도를 보고 윈난 지역에 있었던 당 대의 南詔나 송 대의 大理에 대해 질문을 해오면 답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C 교사는 동아시아사에서 한국사 지식은 얽어지고 중국사와 일본사가 두터워지면서 당혹스런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이는 교사 개개인의 능력 문제라기보다는 대학의 전공 과정까지 소급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개의 교사들에게 중국사는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일본사나 베트남사는 거의 접할 기회가 없었다. C 교사는 2004년도에 임용고사에 합격하였다. 합격 당시까지 임용고사에서 동양사에서는 중국사가 출제되었고, 그 이후에 조금씩 일본사가 출제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일본사에 등장하는 묘슈(名主)나 왕원공명제, 베트남사 내용 등은 설명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생소한 내용을 가르치려다 보니 교사들의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마땅치 않은 것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중국사, 일본사, 베트남사 서적을 뒤적여도 교과서에 진술된 내용을 찾기 힘든 경우를 교사들은 종종 만난다고 한다. 도움이 될 만한 몇몇 자료가 출간되기도 하였다.⁶⁾ 그렇지만 교사들의 갈

이 담긴 '세계사'가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도입되면서 辛島 昇은 집필자가 역사교과서에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내용이나 해석을 첨가하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빼버릴 경우 현장으로부터 불만의 목소리에 부딪히게 될 우려를 이야기하였다. 우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도 실려 있으면서 교사들에게 생소한 몽골의 울루스나 한족 중심의 중국사가 아닌 유목 민족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 '유라시아 세계'의 관점, 명·청 대의 사회·경제가 아닌 세계 교역의 차원으로 이해의 범위가 넓어진 은 유통의 문제 등의 내용은 일본 교사들에게도 익숙치 않은 내용이었던 듯하다. 고등학교 세계사에 새롭게 반영된 내용의 이해를 위해 오사카대학이나 센슈대학 등에서는 교사 대상의 연수를 마련하였다. 辛島昇, 1994, 「回顧と展望: 1993年 歴史學界 總說」, 『史學雜誌』 제103권 제5호, 5쪽; 神奈川縣 高等學校 教科研究會 社會科部會 歷史分科會 편, 2008, 『世界史をどう教えるか-歴史學の進展と教科書』, 山川出版社, 92~93쪽.

- 6)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동아시아의 역사』 I·II·III, 동북아역사재단; 김병준 외, 2011,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 교육과학기술부; 유용태·박태균·박진우, 2011,

증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2) 교사가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내용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미 각각 알고 있던 한국사 지식과 세계사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한 예를 들어보자.

①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 무렵 왕을 칭하면서 랴오허 강을 경계로 연과 대립하였으나, 연의 침입으로부터 타격을 받아 중심지를 평양으로 옮겼다. ②진·한 교체기에 연으로부터 위만이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망명하였다. 그는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다가 후에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천재 38~39. 밑줄과 번호는 필자).

①의 연(燕)에 대해서는 책의 날개 단에 ‘춘추전국시대 중국 북부에 있던 나라로 전국 7의 하나’라고 설명해 놓고 있다.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②의 연이 ①의 연과 동일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 그렇지만 ①과 ②에서 언급하는 연이 서로 다르다. 진이 전국시대를 통일하였다는 내용이 인용문의 바로 앞부분에 서술되어 있는데, ‘진이 통일하면서 망한 연이 어떻게 다시 등장하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한 교사는 교재 연구를 하다가 ‘위만이 고조선에 망명하기 전에 살았던 연’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해 온 적이 있다. 같은 소단원에 한이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군국제를 시행하여 왕조의 안정을 꾀하였다’라는 서술이 있음에도 이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세계사의 ‘군국제 시행’과 한국사의 ‘위만의 망명’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의 개국공신이었던 노관을 한 고조가 변방의 제후인 연왕으로 임명하였으나, 제후들이 하나둘씩 제거되면서 노관은 흉노로 도망가고 위만은 고조선으로 망명한 상황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생긴 문제이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1·2, 창비; 미타니 히로시 외 저, 강진아 역, 2011, 『다시 보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까치;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12,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2, 휴머니스트; 박중현, 2012, 『청소년을 위한 동아시아사』, 두리미디어; 유인선 외, 2013, 『자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등.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사와 세계사의 격절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사의 과목 특성에 맞게 양자의 융합이 적절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고조선의 역사 전개를 중원 왕조인 한과 유목 왕조인 흉노와의 관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동아시아적 시각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한 무제가 고조선을 정복하는 한 원인으로써 ‘고조선이 흉노와 연합할 가능성’이라 서술한 부분도(천재 41)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도 고조선-한-흉노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한국사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사 지식이 동아시아사의 이해를 가로막는 경우도 존재한다. 세계사의 중국사와 일본사 내용에 비해 동아시아사에 서는 그 내용이 좀 더 깊이 들어간다. 좀 더 촘촘하게 서술되면서 기존에 보이지 않던 문제점이 노출된다. 가령 성리학과 관련된 부분을 보자.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는 사서에 성선설, 성즉리, 수행의 방법 등 성리학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고, 주석을 달아 『사서집주』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원 대에 과거 시험의 교재로 채택되었고, 이후 수백 년 동안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으로 통용되었다. …… 명은 민족적·전통적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과거제를 강화하고 성리학을 관학으로 수용하였다(천재 121).

일반적으로 학교 현장의 세계사 수업에서 성리학은 남송 시기에 주희가 집대성하였고 명 대에 관학으로서 그 입지가 확고해졌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원 대의 성리학에 대한 서술이 빠진 상태에서 성리학이 관학화하는 시점을 자연스레 명 대로 설정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원 대에는 관리 등용에서 과거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가 명의 건국과 함께 과거제의 비중이 커지고 과거 시험의 내용으로써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는 설명 틀을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더구나 북방민족과의 대치 상황에서 송 대의 성리학이 화이론을 강조한다고 함으로써 이민족 왕조였던 원 대에는 성리학이 위축되었다는 논리적 연결까지도 시도한다. 그런데 성리학은 이미 원 대에 관학이 되었다.⁷⁾ 천재교육

판의 경우 위에 인용한 것처럼 주희의 『사서집주』가 원 대에 과거의 시험 교재로 사용되었다든가 혹은 특별 코너의 이색이 ‘원의 국가감에서 성리학을 배웠다’는 대목을 통해 이미 원 대에 성리학이 관학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 그렇지만 기존에 형성된 관념에 따라 명이 성리학을 관학으로 수용하였다는 서술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되고, 원 대에 이루어진 성리학의 관학화에 대한 설명은 빼먹기 쉽다. 이 문제는 고려 말 안향 등이 성리학을 수입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자칫하면 원 대에 위축되었던 혹은 원이 금기시하던 성리학을 고려 말에 수입한 것처럼 학생들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새로운 내용 간에 충돌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동아시아사의 구성 방식이 국경을 넘어 상호 관련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여러 나라가 함께 얽혀 있는 사실은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4) 교과서가 통사가 아닌 주제사 방식으로 구성됨으로써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주제사의 형태를 띠다 하더라도 천재교육판과 교학사판은 서로 형태를 달리 하고 있다. 전자가 하나의 소단원 안에 각국사의 내용을 혼합하여 서술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각국사별로 소단원을 구성하여 각국사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두 종의 교과서에 대한 전국적인 채택률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없는 것 같다.⁹⁾

그간 역사 학습에서 불교, 성리학 등 하나의 주제를 놓고 깊이 공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교사들은 II 단원의 불교나 III 단원의 성리학을 깊이 있게 수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불교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정된 부파 불교, 밀교, 만다라 등의 개념을 설명하다가 정작 중요한 동아시아의 불교

7)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동아시아의 역사』 II, 동북아역사재단, 156~158쪽.

8) 교학사판의 경우 성리학이 원 대 중엽 이후 관학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교학 108).

9) 교과서를 선택할 때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통합적으로 서술한 천재교육판이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구성 방식이라는 점, 각국사의 형태를 유지한 교학사판이 현실적으로 교사가 가르치기에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도 편리하다는 점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를 공부하기도 전에 힘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성리학의 이론적 내용도 학생들에게 풀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Ⅲ단원의 소농 경제 부분은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교사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그래서 고양·파주 모임의 한 교사는 “Ⅰ단원과 Ⅱ단원까지는 어떻게든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동아시아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리저리 자료를 뒤지고 학생들의 활동을 고민해 보았지만, Ⅲ단원부터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사실 이러한 한계는 Ⅱ단원의 불교, 율령, 국제 관계부터 시작되었고, Ⅲ단원에 가서는 멘붕이 되었다”고 술회하였다.¹⁰⁾

(5) 교과서 서술이 맥락상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해 이해를 가로막기도 한다. 중국사의 전개는 비중도 크고 흐름이 잡힐 수 있도록 서술되었지만 일본사와 베트남사는 그러하지 못하다. 가령 일본사를 이해하는 데 다이묘가 중요함에도 명·청 대의 신사만큼 공을 들여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지배 세력이었던 사대부와 대비시켜 일본의 지배 세력을 무사라는 하나의 범주로 설정하고 서술하다보니 생긴 문제로 보인다.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고케닌을 슈고와 지토로 파견하는 내용은 있으나, 맥락 없이 에도시대의 막번체제나 산킨고타이 제도를 설명하면서 갑작스레 다이묘를 등장시킨다. 슈고가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다이묘로 성장하고(守護大名), 다이묘들 간에 패권 다툼이 전개되는 전국시대를 거쳐(戰國大名), 에도시대에 이른다는 연결성이 미약하다보니 맥락적 이해가 어렵다.

일본에 비하면 베트남의 비중은 훨씬 더 약하다. 한 학생은 베트남사는 나타나고 싶으면 사라지고 잇을 듯하면 다시 등장한다고 말한다. 기초 지식이 부족한 만큼 좀 더 친절한 서술을 요한다. 가령 베트남의 명칭부터 복잡하게 다가온다. 남 비엣(남월), 대월, 베트남이 어떠한 관계인지, 리 왕조나 쩐 왕조 시기의 동아시아 정세를 나타낸 지도에(천재 90·92, 교학 77·80) 베트남을 대

10) 고양파주역사교사모임, 2013, 「동아시아사 수업,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역사교육』 제102호(가을), 143쪽.

월이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다.¹¹⁾ 그리고 베트남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서술의 보장이 필요하다.

중국사의 경우에도 맥락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보인다. 가령 장거정이 각종 정책을 실시하여 명의 재정을 상당히 호전시켰다고 하였지만 이것이 뒤의 일조편법 시행과는 별개의 사실처럼 보인다(천재 132·147). 청, 인도, 영국 간의 삼각무역에 관한 서술은 압축적으로 서술하다보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18세기 중엽에는 영국이 진출하여 청과의 무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면직물과 비단, 차를 사들이고 은과 인도산 목화를 수출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차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영국이 지출하는 은의 규모도 커졌고,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영국은 세기 말부터 은 대신 이편을 청에 팔았다(천재 145, 밑줄 필자).

문맥상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청으로부터 면직물과 비단, 청에 차를 수입하고 은과 인도산 목화를 수출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비단과 차를 청으로부터 수입한 것은 맞지만 면직물은 인도에 수출한 것이고 인도산 목화는 인도로부터 수입한 것이다. 서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6) 학생들의 경우 통사 지식이 빈약한 상태에서 동아시아사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측면이 있다. D 교사는 동아시아사가 교류나 관계사를 중시하지만 학생들은 각국사에 대한 통사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다보니 힘들어했다고 한다. A 교사는 한국사의 경우 단일한 역사가 종적으

11) 짜에우 다(趙佗)가 세운 남 비엣(南越)이 한 무제에 의해 멸망한 이후 1,000여 년간 중국을 지배를 받다가, 딘 보 린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세운 딘 왕조(966~980)는 다이 꼬 비엣(大瞿越)을 국호로 내걸었다. 다이 꼬 비엣은 1054년 리 왕조의 聖宗이 다이 비엣(大越)으로 고칠 때까지 사용되었다. 다이 비엣은 리 왕조, 쩐 왕조, 레 왕조 등의 정식 국호였고 응우옌 왕조가 들어서면서 청조와 합칭한 비엣남(越南)이라는 국호가 1804년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딘, 리, 쩐, 레, 응우옌 등은 왕조의 성씨를 말한다. 유인선,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창비, 129~130, 259~260쪽.

로 전개되는 데 반해, 각국사에 대한 지식도 빈약한 상태에서 여러 나라의 역사가 중흥으로 시선이 교차하다 보니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각국사에 대한 이해가 취약한 상황에서 상호 관계성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동아시아사 이해에 필요한 한국사 외의 지식은 대부분 중학교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에 의존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중학교의 한국사와 세계사가 통합된 '역사'에서 2학년과 3학년에 각각 전근대와 근현대 부분을 나누어 배우는데, 한국사를 앞부분에 세계사를 뒷부분에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는 상세하게 배우는 데 비해 세계사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앞의 한국사에서 진도가 지체될 경우 세계사는 허겁지겁 진도를 나가는 바람에 밀도 있는 학습이 안 되는 상황도 있다. 또한 2학기 기말고사 이후에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실 상황을 감안할 때, 후반부의 세계사가 소홀해지기 쉬운 상황이었다. 가령 중학교에서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던 국공합작이나 국공내전 등의 내용 등은 학생들이 동아시아사 수업 시간에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우고 나서도 크게 남는 것이 없으며, 일본사나 베트남사의 경우에는 교사와 마찬가지로 무척 생소하게 느낀다. 게다가 동아시아사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참고서나 일반 서적을 찾아보지만 시중에서 구하기가 마땅치 않았던 경험을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사 수업을 힘들게 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잠시 언급해 보기로 한다. 첫째, 교사 연수 문제이다. 동아시아사 수업을 위한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많은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이제는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논리 구조와 내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수도 고민해 볼 만하다.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내용상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교사와 학생들은 이를 어수선한 반복이나 복잡성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제사 편성의 특징으로 이해하고 장점으로 살릴 수도 있다. 가령 성리학은 Ⅲ단원에서 크게 다루어지나 Ⅳ단원에서 체제 교학으로서의 의미나 성리학에 대한

반발 사조 등과 관련해서도 언급된다. 그러므로 성리학을 Ⅲ단원에 고정시켜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Ⅲ단원과 Ⅳ단원에서 성리학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가르칠 것인지 수업 친화적인 맞춤형 연수가 필요하다.

둘째, 교과서 서술 문제이다. 교육과정이 처음 등장하고 이에 맞추어 교과서를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일인 만큼, 교과서 전반의 유기적 연결성까지 고려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각국가별로 모아 보았을 때 완벽한 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큰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내용의 연결성에 주목할 수 있도록 매끄러운 연결을 담보할 수 있는 본문 서술이나 표식 등의 안내 장치를 둔다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 시기의 다른 동아시아 국가가 어느 시대인지 학생들이 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연표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2014년판의 교과서는 2012년판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나은 교과서의 형태를 갖추어 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나 학생들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사용’ 사전 혹은 용어 해설집이 발간되었으면 한다. 동아시아사의 내용이 여러 나라의 역사를 모아 놓았으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참고 도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사들의 경우에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교재 연구에 매달린다. 그리고 학생들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많은 고유명사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 문제로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많다. 물론 이 문제는 동아시아사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단어 풀이를 해주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교과서의 제한된 지면 공간에 학생들을 위한 친절할 설명을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참고 도서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용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Ⅲ. 동아시아사 수업의 정착을 위한 노력

동아시아사가 처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과와 특성을 살린 수업의 사례들은 주목해 볼 만하다. 다양한 수업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동아시아사가 현장에 착근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본다. 수업의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_ 동아시아사의 도입부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처음 도입하는 부분에서는 동아시아사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만큼 의욕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과목에 대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흥미도를 높이면서 과목에 대한 안내를 겸하는 시간을 배치하고 있었다. 먼저 A 교사나 고양·파주의 교사들은 동아시아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았다. 학생들은 중국과 일본이 싫어하는 나라이면서도 앞으로 잘 지냈으면 하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륙, 황사, 동북공정, 쌀 물건, 지저분함 등을 떠올렸고, 일본에 대해서는 독도, 일본군'위안부', 애니메이션 등을, 베트남에 대해서는 쌀국수, 베트남 전쟁, 한국에 시집오는 베트남 여성(다문화) 등을 떠올렸다. 학생들 서로가 여러 가지 시선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그리고 수업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주변의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함께 공존하는 법을 모색하는 것이 동아시아 과목이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¹²⁾ 동아시아의 각 나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교과 의 방향 설정을 학생들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방식이다.

12) 고양파주역사교사모임, 2013, 「동아시아사 수업,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역사교육』 제102호(가을), 130~131쪽.

동아시아사 학습의 의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동아시아 문화의 동질성과 차이성을 함께 언급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서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음식 문화나 화폐, 한자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E 교사는 쌀과 화폐를 언급하였다. 동아시아의 나라들에서 공통으로 이용하는 곡물인 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소재였다. 한국의 비빔밥이나 일본의 초밥에 사용하는 쌀은 찰기가 많은 단립종이고, 일본의 차오판(볶음밥)이나 베트남의 쌀국수에 들어가는 쌀은 장립종으로 찰기가 덜하다(교학 23). 쌀국수를 파는 식당이 많아졌고 심지어 쌀국수 컵라면도 판매되고 있어 쉽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었다.

화폐의 경우는 학생들이 친숙하면서도 관심을 보이는 소재였다. 각국의 화폐 단위인 한국의 원(圓, won), 중국의 위엔(元, yuan), 일본의 엔(円, en)은 모두 圓과 같은 것으로 모두 원형의 금속 화폐에서 기원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화폐 단위인 동(đồng) 역시 화폐의 소재인 銅에서 나온 것으로 한·중·일의 ‘원’과 유사한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화폐의 경우에는 각국의 화폐 도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소재였다. 인물들의 면면을 소개하면서 현재 각각의 ‘국민국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인물상이 각 나라별로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었다. 화폐는 학생 발표나 수행평가 형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한자의 경우에는 大學(大学)을 대학(한국), daxue(중국), daigaku(일본)로 발음한다거나 용(龍)이 중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龙, 竜으로 표기하는 사례 등을 들기도 하였다.

동아시아사의 도입부인 I 단원에는 동아시아사의 지형, 기후 등의 자연 환경이 한 꼭지로 들어가 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나 세계사 교과서에는 이런 설정이 없다. 지금까지 없던 과목인 만큼 동아시아사 전개의 공간적 배경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의 자연 환경을 설명할 때도 교사들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가령,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기도를 보여주면서 한반도의 날씨와 기후가 대륙과 해양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황사나 태풍의 예를 들면서 동아시아 각국 간의 긴밀

성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티베트 고원, 고비 사막, 황하, 양쯔강, 랴오둥 반도, 오키나와, 타이완, 시모노세키, 베이징, 홍콩, 하노이 등 앞으로의 수업에서 자주 접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지역을 백지도에 표현하도록 하였다. 교사들은 동아시아사 학습에서 주변국에 대한 지리적 감각이 필요한 만큼 교과서의 본문이나 속표지 등에 지형과 주요 하천이 표현된 백지도가 실리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2_ 각국의 통사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종과 횡으로 역사 지식이 엮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입부를 통해 학생들은 일단 관심과 호기심으로 동아시아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선사시대를 학습할 즈음에는 한국사나 세계사에서 배우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학습에 큰 곤란을 겪지 않는다. 그렇지만 청동기시대 이후 각 지역의 왕조가 등장하면서부터 학생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각국사에 대한 통사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다 보니 지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 안 되면서 학습의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한다. 시대를 내려오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한 교사는 한·중·일을 한꺼번에 보려니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매 수업마다 세 나라 왕조의 흐름을 칠판 한쪽에 적어주고 지금 다루는 내용이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어야 했다”고 말한다.¹³⁾ 일본의 경우 세계사가 필수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세계사를 기피하는 이유가 단선적인 일본사와 달리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역사를 종과 횡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¹⁴⁾

13) 이윤선, 2014, 「나의 동아시아사 수업」, 『나의 동아시아사 수업을 말한다』(전국역사교사모임 동아시아사 수업 워크숍 자료집), 25쪽.

14) 南塚信吾, 2007, 『世界史なんて知らない?』, 岩波書店, 12~14쪽.

〈표 2〉 단원별 시대 구획

구분	I 단원	II 단원	III 단원	IV 단원	V 단원	VI 단원
한국	고조선	삼국 남북국	고려 (조선 전기)	임진전쟁 조선 후기	개항~ 1945	1945~
중국	진-한/ 홍노	5호 16국 남북조-수·당	송/요·금- 원-(명)	청		
일본	야마토	(아스카)-나라 -헤이안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베트남	남 비엣	중국 점령기	응오-리-쩨- 레	응우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단원의 전개에 앞서 필자가 인터뷰한 교사들이나 김유리의 조사에 나타난 교사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왕조 변천이나 및 주요 내용을 개관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⁵⁾ 많은 교사들은 교과서의 내용과는 별도로 해당 대단원 시기의 각국사의 흐름을 정리하고 횡으로 연결시켜 비교해 보았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연표를 활용하는 수업을 전개하였다. 조선의 왕들을 ‘태정태세문단세 ……’ 하면서 외우듯이 전근대 시기 역사에서 비중이 큰 중국의 왕조인 ‘하상주 …… 청’을 모든 학생들이 줄줄이 외우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C 교사는 〈표 2〉와 같은 표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근대의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나 서술 분량 등을 고려해 보면 중국 중심으로 흐를 수 있는데 한국사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면서 다른 지역과의 내용상 연계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가 〈표 2〉를 활용해 I~IV 단원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들어보자.

I 단원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나라가 성립하는데, 한 무제의 공격으로 고조선과 남 비엣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과 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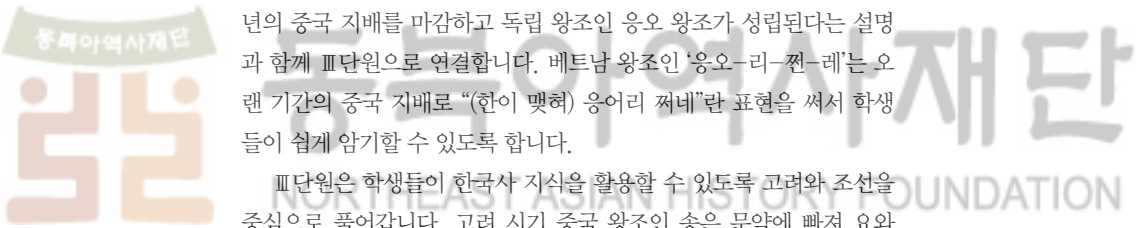
15) 김유리, 2014, 앞의 글, 15쪽.

트남은 역사 전개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암시를 줍니다.

Ⅱ단원은 전쟁과 인구 이동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북방 유목민족과 한족의 갈등으로 시작되는 5호 16국과 남북조시대의 분열 시기가 한반도에서는 삼국시대로 중국만큼이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와 당에 의해 중국에 통일 정권이 들어서고 한반도에서는 당의 힘을 빌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후 동아시아에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장보고, 엔닌, 감진 등의 인물과 울령, 불교, 한자 등의 문물을 예로 듭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백제 등의 문화를 수용하여 아스카 문화가 일어나고 중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한 다이카 개신, 나라~헤이안시대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다가 절도사들의 발호와 황소의 난 등으로 당의 통치체제가 흔들릴 즈음, 신라에서는 호족이 성장하고 일본에서는 국풍 문화가 일어나며 베트남에서는 1000여년의 중국 지배를 마감하고 독립 왕조인 응오 왕조가 성립된다는 설명과 함께 Ⅲ단원으로 연결합니다. 베트남 왕조인 ‘응오-리-쩐-레’는 오랜 기간의 중국 지배로 “(한이 땀혀) 응어리 찌네”란 표현을 써서 학생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Ⅲ단원은 학생들이 한국사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와 조선을 중심으로 풀어갑니다. 고려 시기 중국 왕조인 송은 문약에 빠져 요와 금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고려 역시 이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연관시킵니다. 또한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베트남 왕조가 리 왕조인데 과거를 실시하고 국자감을 설치하는 것이 동일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무신집권기에 몽골이 침략하는데, 몽골 침략 당시 베트남은 쩐(陳) 왕조로 왕실의 종친이었던 쩐 흥 다오(陳興道)가 몽골의 침략을 격퇴하고, 일본은 몽골의 침략을 계기로 가마쿠라 막부가 몰락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중국 왕조는 명이며, 명의 영락제에 의해 베트남이 잠시 중국 지배에 있다가 독립하여 레 왕조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의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남북조의 분열을 종식시키는 시점이 1392년으로 조선이 건국한 연도와 동일하며 이후 무로마치 막부가 명과 감함무역을 실시한다는 설명으로 대략 ‘조선(전기)-명-무로마치 막부-레 왕조’가 비슷한 시기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한편 레 왕조의 타인 푹(성종)이 신유학(성리학)을 보급하는 것과



조선이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으며 과거가 전대에 비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도 유사하다는 설명을 곁들입니다.

Ⅳ단원은 임진·병자전쟁을 계기로 조선은 후기로 설정되는데 중국에서는 청,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막부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좀 무리한 면이 있지만 응우옌 왕조의 시기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인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발달, 서민 문화의 발달, 성리학 비판 등을 ‘청-도쿠가와 막부-응우옌 왕조’ 시기에도 공통의 요소로 묶어 설명을 해봅니다.

당 말, 몽골 침략, 임진·병자전쟁 등을 동아시아사가 하나의 틀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으로 파악하고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는 설명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Ⅱ단원의 당을 중심으로 한 설명은 西嶋定生の 책봉체제론으로 흐를 수 있어 조심스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지나친 단순화도 경계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각국사의 전개에 대한 시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주변국과 상호 연결시키려 한다는 면에서 참고할 만하다. 또한 베트남사를 접하면서 교사나 학생 모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사와의 상호 연관성을 찾아 설명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살려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3_ 수업 시간에 활용할 다양한 내러티브를 어떻게 구성해 볼까?

대개의 역사교사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풍부한 이야기거리나 그것이 내재된 사진·영상 등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수업에 자신감을 보인다. 동아시아사 수업이 처음 시작되던 해인 2012년 3월 21일에 전국역사교사모임의 게시판에 한 교사가 올린 글이다.

올해 처음 동아시아사를 맡아 요즘 교재 연구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세계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사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에피소드 등으로 교양적 의미도 높는데 동아시아사는 딱히 잡히는 것도 없고 내용도 역사적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

현장의 교사들은 동아시아사가 현장에 들어오면서 직전까지 수업을 했던 한국근현대사의 빈 자리를 대체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서 한국근현대사만큼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것은 수준의 선택자 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¹⁶⁾ 7차교육과정과 함께 개설된 당시 신생과목이었던 한국근현대사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었다. 한국근현대사 역시 도입을 앞두고 교사들이 대학에서 배우지 않았던 경우가 많아서 잘 가르칠 수 있을까란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 안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일단 그 구성이 국정교과서의 근현대사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현재와 가까운 과거라는 특징 때문에 역동적인 이야기 소재나 사진·영상(다큐멘터리, 영화 등)이 풍부하였다. 우리가 사는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다는 측면도 작용하였다. 그에 비해서 동아시아사는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활용할 내러티브 요소를 쉽게 찾지 못해 상당히 답답해 한다. 동아시아사 수업을 위한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에피소드’를 발굴해서 수업을 풀어나가는 사례를 보자.

첫째, 관련된 참고 자료에서 이야기 소재를 찾아 수업에 활용하거나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경우이다. D 교사는 II 단원의 인구 이동을 I 단원의 주제 탐구 자료인 ‘중국 지역의 연평균 기온 변화와 정치적 변화’(천재 35)를 활용하여 설명하였다.¹⁷⁾ 유목 민족이 남하하면서 연쇄적인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데,

16) <사회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자 수>

선택과목	인원(명)	비율(%)	선택과목	인원(명)	비율(%)
사회·문화	155,249	46.0	법과 정치	38,203	11.3
생활과 윤리	137,054	40.7	세계 지리	37,684	11.2
한국지리	112,459	33.4	<u>동아시아사</u>	<u>36,982</u>	<u>11.0</u>
윤리와 사상	71,114	21.1	세계사	28,772	8.5
한국사	42,529	12.6	경제	13,420	4.0

『한국대학신문』, 2013년 11월 26일

17) 신성곤, 2010, 「10세기 이전 동아시아의 기후 변화와 인구 이동」, 『동아시아문화연구』 제48집 참조.

3~6세기 화북 지역에 寒冷과 旱害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인구 이동을 자극했던 측면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 변화를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훈족과 게르만족의 이동과도 연결시켰다(천재 52). 또한 북방 유목민족의 남하로 그들의 문화가 한족의 생활과 풍속에 변화를 주었는데, 육류와 유제품을 즐기는 문화, 의자와 테이블 생활(천재 59), 투피스의 복장, 小麥 음식(대표적인 것이 빵) 등이 한족의 생활 속에 자리 잡아 현재 중국의 문화는 일방적인 한족의 문화가 아니라 유목 민족의 문화도 함께 섞여 있음을 강조하였다.¹⁸⁾

두 종의 교과서 모두 석굴암, 원강 석굴의 석불, 일본의 도다이 사가 삽화로 제시되어 있는데, E 교사는 지도 위에서 위치를 확인하면서 (간다라)－둔황 석굴－룽먼 석굴－원강 석굴－석굴암(신라)－도다이 사(일본)를 연결하는 스토리 라인을 구축하였다. 우선 둔황 석굴은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는 통로인 사막길에 위치해 있고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곳이다. 원강 석굴과 룽먼 석굴은 모두 5호 16국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화북 지역을 통일한 북위가 조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전자는 북위 초기의 수도였던 평성 부근에 조성된 것이며 후자는 효문제가 수도를 관중 지역의 뤼양으로 옮기면서 뤼양의 외곽 지역에 조성한 것으로 한화 정책과도 연결되어 의미가 있다.

중국의 석굴사원은 석굴암과 연결되는데 북위가 수도 주변에 석굴 사원을 조성하는 것과 경주의 남산이나 불국사·석굴암과 연결시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교롭게도 석굴암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751년이고 도다이 사의 대불이 개안된 것은 752년으로 동 시기이며 당시는 신라와 일본의 화려한 불교문화가 꽃피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도다이 사는 감진과 관련이 있으며 일본의 나라시대의 대표적 사원으로 당의 장안성을 모방한 헤이조쿄가 수도였다. 이들 대부분이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인 호국불교와 연관되어 있으며 II 단원에 서술된 불교 관련 주요 내용을 재구성하여 연결하는 효과가 있었다.

18) 妹尾達彦, 1999, 「中華の分裂と再生」, 『岩波講座 世界歴史』第9巻, 岩波書店, 73~75쪽.

둘째, 지역사로부터 수업의 소재를 찾아본 경우다. 전남 함평의 F 교사는 新安船을 통한 동아시아 도자기 교류, 안도 청해진의 장보고, 일본의 성리학 과 관련된 인물로서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가까운 영광의 내산서원에 배향된 강항, 나주 사람으로 제주도에서 고향으로 오던 중 표류하여 명 대의 대운하에 대한 기록을 남긴 최부 등을 수업에 활용하였다. 도자기 교류의 경우는 후일 이삼평, 아리타 자기, 일본의 쇠국, 나가사키, 네덜란드, 인상파 화가, 우키요에 등의 내용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F 교사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전남 지역의 인물과 사건을 동아시아사 수업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교류와 교역에서 전남 지역이 갖는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한·중·일 간의 교통로를 볼 때, 한반도 서남단인 전남 지역은 중요한 길목이다. 고려를 방문한 후 『고려도경』을 집필한 송의 서경도 남중국의 닝보를 출발해 흑산도를 거쳐 갔다. 벼농사를 해치는 벼멸구도 중국 남부지방으로부터 남서풍을 따라 이동해 온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항해와 관련된 바람과 조류 등의 자연 조건도 함께 설명하면 좋을 듯하다.¹⁹⁾ 신안선의 경우에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동전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다. 많은 양의 중국 동전이 일본으로 수출되었고, 일본에서 연공 징수의 수단으로 중국 화폐가 사용되었다는 교과서의 내용과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다.

F 교사의 수업은 동아시아사가 지역사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대구의 교사가 대구 달성군의 賜姓 김해 김씨 집성촌인 우록동과 관련된 임진전쟁 시기의 抗倭 사야카를 소재로 수업한 것도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부산에 근무하는 김민수 교사가 만든 배움책에 부산의 초량왜관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도 부산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²⁰⁾

셋째, 인물을 통한 접근이다. 베트남 근현대사의 경우 B 교사는 판 보이 찌우와 호찌민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판 보이 찌우는 그의 나이 19

19) 嚴基白 외, 1988, 「벼멸구의 飛來와 氣象과의 關係」, 『한국응용곤충학회지』 27(4); 김성준, 2013, 「고대 동중국해 사단(斜斷) 항로에 대한 해양기상학적 고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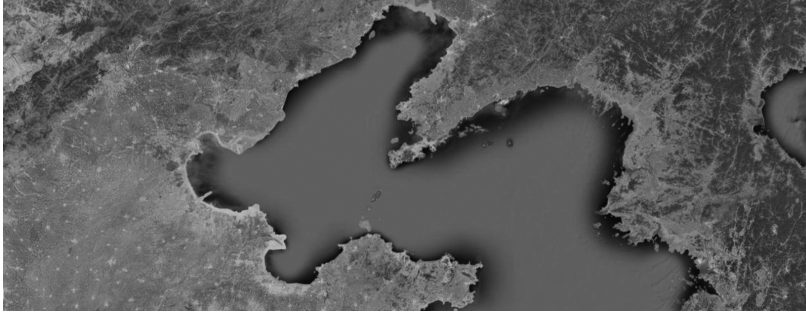
20) 김민수, 2014, 『2014 동아시아사 배움책』, 121쪽.

세에 근왕령이 발표되자 학우 60여 명과 함께 근왕운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유신회를 결성하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베트남 청년들을 일본에 유학시키는 동유운동을 전개하였다. 프랑스의 요구로 일본이 재일(在日) 베트남 조직을 해산하자 태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그는 신해혁명의 소식을 전해 듣고 광저우에서 쑨원의 동맹회를 본보기로 베트남광복회를 조직하였다.²¹⁾ 한국과 관련해서는 그가 일본에 머물면서 만났던 량치차오의 권유에 따라 집필한 『월남망국사』가 1905년부터 한국에 소개되어 읽혀졌고, 그가 독립운동의 전술로서 무장 폭동 방식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소개하였다.

관 보이 쩌우 이후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던 사회주의자들의 민족운동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와 미국과의 전쟁에 이르는 과정은 호찌민과 연결시켜 수업하였다. 그리고 설명 중간에 근왕운동과 한국의 의병운동, 동유운동과 영선사·조사시찰단, 베트남 공산당과 조선 공산당 등을 연결시켰다. 인물사를 통해 구성하다 보니 학생들이 베트남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면이 있으며, 한국사와의 유사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베트남과의 거리감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면이 있었다고 말한다.

넷째, 국가 단위가 아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한 경우이다. E 교사는 구글의 <그림 1>과 같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수업을 이끌었다. <그림 1>은 발해만을 중심으로 한 구도이다. 발해만을 사이에 두고 랴오둥 반도와 산둥 반도 지역은 한국사와 중국사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다. 지도를 확대해 보면 랴오둥 반도와 산둥 반도가 열도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랴오둥 반도의 끝인 뤼순(旅順)은 ‘해상으로의 항해가 순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뤼순을 출발해 열도를 따라 산둥 반도에 닿으면 중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역으로 산둥 반도에서 열도를 따라 랴오둥 반도에 이르면 만주나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고조선-한 전쟁, 고구려-수·당 전쟁, 청일전쟁,

21) 유인선, 2004, 「관 보이 쩌우-방황하는 베트남 초기민족주의자」, 『歷史教育』 제 90집 참조.



〈그림 1〉 라오동 반도와 산둥 반도(구글 지도)

러일전쟁 등이 모두 이곳을 배경으로 한다. 산둥 반도의 경우 칭다오의 독일 조차지, 의화단운동, 5·4운동, 일본의 산둥 출병 등 근현대사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방식은 동아시아의 역사 전개를 현재의 국민국가를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밖에도 오키나와, 타이완, 티베트처럼 이중의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지역을 주제로 수업을 전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²²⁾

IV. 평화교육으로서 동아시아사의 과제

동아시아사는 한국사를 지역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화함으로써 한국사와 세계사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평화와 화해의 역사인식이 교과서에 반영되었다. 그렇지만 교사들 중에는 동아시아사 과목의 의의에 관해 의견이 나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유리의 조사에서는

22) 동아시아의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지역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백영서, 2013, 『핵심 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창비를 참조할 것.

‘동아시아사가 동북아 역사 갈등의 해소, 바람직한 지역공동체의 형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중국이나 일본에도 없는 과목을 우리만 가르친다고 해서 해소될 것 같지도 않다’고 동아시아사 과목의 설립 취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²³⁾ 필자가 인터뷰한 교사들 중에서도 동아시아사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앞서 언급한 교사 측면에서의 수업 곤란도나 학생 측면에서의 이해도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사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동아시아사가 다른 교과목에 비해 ‘평화지향적 성격’을 보다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평화와 관련하여 임진전쟁에 대한 수업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평화 인식을 잘 드러내기 위해 주목하는 단원이 어디인지 질문을 던졌다.

먼저 임진전쟁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은 국제 관계와 전쟁의 참상 등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쟁을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로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간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였다. 가령 시야카(김충선), 이삼평, 김환, 전쟁 기간 일본군에 협력했던 조선인 등이 수업에 등장하였다. 이는 수업에 임하는 교사의 의지가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사 교과서와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임진전쟁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데서 오는 측면도 커 보인다. 한국사가 전쟁의 추이와 전쟁 이후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에 집중한다면, 동아시아사의 경우 명칭부터 ‘왜란’이 아닌 ‘전쟁’으로 전란극복사의 관점에서 벗어나 객관화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며(교학사의 경우에는 한·중·일의 임진전쟁 명칭의 차이를 비교), 전쟁과 관련된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으로 전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견지하는 관점으로 동아시아사 교과가 갖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수업 내용 파악에 허덕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평화의 관점으로 수업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23) 김유리, 2014, 앞의 글, 9쪽.

로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으리라 본다.

평화 인식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단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근현대사 단원인 V·VI단원이란 응답이 나왔다. 그렇지만 F 교사의 경우 동아시아사 교과과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단원은 III·IV단원, 즉 고려~조선(송~청, 가마쿠라 막부~에도 막부)로 보았다. 그는 문화 교류와 인물사에 방점을 찍고 수업을 전개하였다. II단원의 울령처럼 제도사의 경우는 각국의 수용 과정에서 보이는 차이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중국이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전쟁의 경우에는 한국의 역할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갈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동아시아 삼국 간의 관계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대개는 전쟁 관련된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각국의 관계사를 강조할 때 부담스런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근현대사인 V·VI단원이 평화의 관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단원이며 그래서 보다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첫째, 동북공정 문제나 독도 문제 등이 터질 때마다 계기 수업이나 특별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던 것이 정식 교과 속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현재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영토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써 동아시아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동아시아의 정세를 다룬다는 점이다. 기존의 역사교육에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는 잘 다루어졌지만 전쟁 종결 이후 현재까지의 동아시아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사나 세계사에서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었다. 가령 일본에 관해 한국사나 세계사 어느 곳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은 없었다. 동아시아 각국의 냉전과 전쟁, 민주화와 경제 성장, 국교 정상화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셋째, '베트남의 재발견'이다. 특히 베트남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베트남사가 왜 동아시아사에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한국사에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성장 등과 관련하여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곤 하였다. 그런데 동아시아

아시아 교육으로 베트남 전쟁과 그 시기가 유사하게 교차하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나, 베트남 전쟁 중 이루어진 닉슨의 중국 방문 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베트남전쟁을 포함한 한국전쟁과 국공내전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가 겪었던 '냉전 속의 열전' 속에서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짜여 있었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의 전개를 동아시아라는 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국근현대사에서도 잘 다루지 않던 방식이기 때문에 의미있는 시도다. 일부 교사들은 오히려 베트남을 동아시아로 설정하는 문제에서 II단원과 같이 유교, 불교, 한자, 율령을 공유하는 당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베트남을 포함시키는 문화권적 접근보다 동아시아사의 방식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근현대사 단원과 관련하여 B 교사는 제국주의 침략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일본의 침략, 핵 문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 대해서는 각각 2시간 이상 배정하여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였다. 베트남전쟁은 영상 자료인 <미안해요, 베트남>을 시청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은 '닭은꼴(냉전 하의 국제전, 이념 대립, 민간인 학살, 전쟁의 참상 등)'에 유의하였다. 그는 VI단원은 학생들이 제일 재미있어 하고 관심을 둔 부분이었다고 말한다. 현재의 정치적 부분과 연결된 사안이라 민감성도 있지만 교사가 의미 부여하는 방식에 의해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으리라 보인다. 특히 VI단원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시험 후 교사들이 가볍게 처리하기도 하고,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학생들도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사는 한국과 더불어 이웃한 동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화적 감수성을 기르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 환언하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①과 ②의 목표에 얼마나 근접하고 있을까? 교사와 학생들 모두 동아시아사 수업을 통해 ①의 목표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동의하였다. 학생들에게 동아시아사 수업을 전후로 중국, 일본, 베트남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세 나라 중 베트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제일 크다는 반응이었다. 베트남의 역사를 거의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

전히 동아시아보다는 동남아시아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이 있어 거리감이 있고, 현재로서는 베트남을 이해하기에는 서술의 분량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였다. 베트남이 동아시아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은 전근대 부분에서 더 강하다는 입장과 근현대 부분이라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전자의 경우는 한자, 불교, 유교, 과거제 등의 문화를 공유하는 측면이나 한이나 몽골의 침입 등 한국과 유사한 역사적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식민지화, 민족운동, 분단과 전쟁이 한국이 밟아온 궤적과 유사한 면을 예로 들면서 베트남 전쟁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중국 역시 새롭게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동아시아사를 학습하면서 학생들은 막연한 비하나 멸시감을 조금씩 극복해 가는 모습도 보인다. 중국에 관한 두 학생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와 본다.

전은○: 동아시아사를 배우기 전에는 중국은 무조건 후진? 뒤쳐진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고대사부터 배우면서 중국이란 나라가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였음을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 우리나라보다 아니지만 그래도 만주사변 등 일본때문에 비슷한 아픔을 겪은 것과 3·1운동에 영향을 받았다는 5·4운동 등을 보면서 예전처럼 ‘짙게’라는 인식은 사라진 것 같아요.

김○○: 원래 중국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없었는데 배워도 뭐 …… 나를 솔직한 답변이에요. 동아시아사에서 느끼는 중국은 아주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거죠. 과거 동아시아를 이끌어 나가던 전제국가. 문화를 전달해 주다가 마음에 안 들면 침략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유목민들한테 당하기도 하고 …… 그러다 근대화 이후로는 주춤했는데 요즘 성장하는 나라.

일본에 대한 이해도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다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복잡한 심경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배○○: 일본은 우리나라와 애증관계인 것 같아요. 증오 관계가 더 크

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과 협력관계가 있기도 하고 일본에게서 배울 점도 있고요. 동아시아사를 배우면서 일본을 단편적으로 독도 문제, 신사 참배 문제 가지고만 판단하면 안되겠다는 생각했어요. 단순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판단으로 일본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혜○: 동아시아사를 배우고 나니까 저는 일본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졌어요. 다만 앞으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는 똑바로 서술되길 바랍니다. 동아시아사를 통해 느끼는 인상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하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건데 괜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 같아 그 점은 안타까워요. 동정심은 생기지만 그래도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한 두 학생의 언급에서 보듯이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②의 목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운선 교사의 경우 ‘평화를 위한 노력’ 단원에서 학생들이 일본인 중에도 침략을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놀라게 받아들였으며 지금도 역사 화해를 위해 애쓰는 일본인들이 있다는 사실에도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왜구나 식민통치자로서 ‘침략자’의 이미지가 고착화된 것에 따른 충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아시아사 수업을 통해 ‘알면 알수록 일본이 더 미워진다’는 반응이었다는 것이다.

필자가 학생들과 인터뷰한 결과, 동아시아사 수업 이후 나타나는 이웃 나라들과의 공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아시아 국가 간에 교류의 폭이 확대되고 상호 의존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후반부로 갈수록 억울하거나 분통터지는 일들이 많아요”, “중국과 일본한테 실컷 얻어맞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라면서 화해와 공존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 주변국들이 영토와 역사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배려와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냉담한 반응이 있었다. 학생들은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팽창정책을 내세우는 사람들끼리 싸운다’라고 하거나 ‘동북공정을 하던 중국이 상하이의 임시정부 청사를 복원하는 것은 가식’이라고 말한다. 독도, 일본군‘위안부’, 동북공정 문제 등의 요인으로 반목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의 보다 진전된 인식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둘째, 기존에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형성된 주변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강해 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교, 대중매체 등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크게 머릿 속에 남아 있다고 이야기한다. 한 학생은 교사들 중에서 “나는 일본 사람을 일본×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고 수업 시간에 공공연히 말하는 경우도 경험했다고 말한다. 셋째,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동아시아사 과목이 오히려 주변국에 대한 반목 의식을 더 크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다.

여기서 중국과 일본의 영토 갈등 내지 역사 갈등, 기존에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형성된 주변국에 대한 부정적 관념 등은 교과 외적 상황이지만 동아시아사 공부를 통해 반목 의식이 강화된다면 큰 문제이다. A 교사는 결론적으로 교과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일본에 대한 증오가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다. “갈등과 분쟁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접하면서 더 많이 더 잘 싸우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수업이 공존과 배려, 평화로 귀결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더구나 현재의 정치 상황이 호락호락한 것 같지 않은 점이 학생들의 역사 인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언급한다. ‘주변의 나라들은 별로 평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 우리만 왜 평화를 생각해야 하는지’와 같은 학생들의 불멘소리도 나온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평화 인식과 관련한 학생들의 전망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동아시아사를 배우고 나서 중국, 일본, 베트남의 사람들과 만날 경우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단순히 초밥이나 쌀국수 같은 음식, 애니메이션, 연예인을 이야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진지한 정치 이야기나 현안 문제가 나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수준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에 관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화해를 위한

노력'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 단원이다 보니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교사들도 '여긴 시험에 나오면 상식으로 풀면 돼. 착한 답을 고르면 된다' 혹은 'TV나 신문에 나오는 상식 수준으로 풀면 된다'라는 식으로 쉽게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는 근현대사 부분만 배우고 애매한 단계에서 교과가 종결된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현장의 교사로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은 동아시아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 인식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교류와 대화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A 교사는 체험을 통한 사례를 들었다. 2013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의 한·중·일 3국 청소년 캠프에 A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3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캠프에 다녀온 이후 학교에 돌아와 학생들이 발표한 체험담은 사뭇 감동적이었다고 한다. 한·중·일의 학생들이 서로 만났는데 처음에는 한국과 중국의 학생이 함께 일본의 침략전쟁 시기에 자행한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일본 학생을 공격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본의 학생은 당황해 하면서 자기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다고 하였으나, 차츰 한국과 중국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울음을 터트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한국과 중국의 학생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다. 학교로 돌아와서는 그 경험을 발표하여 다른 학생들과 나누었다고 한다.

학생과 교사들은 현재의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V·VI 단원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대한 서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사의 학생 흥미도나 현재적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단원 구성에서 I~III단원의 비중을 줄이고 전통 사회의 난숙기라 할 수 있는 IV단원부터 근현대사의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I~III단원의 편성이 지루한 편이며, 현재의 단원 편성은 상당히 기계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동아시아 나라들의 전통적인 모습은 주로 IV단원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V·VI단원에서 동아시아 나라들의 근현대사와 직

면한 현안을 보다 선명히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사 과목의 개설이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한국이 동아시아 각국 중에서 제국의 식과 제국성이 가장 적은 국가로서²⁴⁾ 동아시아사를 개설하는 의미는 크다. 또한 동아시아 젊은이들 사이의 ‘취미화된 내셔널리즘’을 극복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인식과 감수성을 계발하는 차원에서 동아시아사 과목의 개설은 의미있는 시도이다.²⁵⁾ 학생과 교사들 사이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갈등 상황 때문에 동아시아사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듣곤 하는데 이는 매우 안이한 발상이다. 정치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방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는 해안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 특히 역사교육에서 동아시아의 평화 문제를 놓고 학생들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평화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교과서가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동아시아의 영토와 역사를 둘러싼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과제이자 동아시아 평화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과 평화 문제는 빠져 있는 형국이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한국사나 인접 교과에서도 다루는 문제이지만 하나 동아시아사 교과에 맞게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남북 간의 평화 문제에 주변국의 입장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동아시아적 견지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아니면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이후 한국, 중국, 베트남 모두 분단 상황을 경험했거나 분단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든 혹은 한반도 상황을 특별 꼭

24) 유용태, 2013, 앞의 글, 206쪽.

25) ‘취미화된 내셔널리즘’에 관해서는 다카하라 모토야키 저, 정호석 역, 2007, 『한중 일 인터넷 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 삼인, 121~165쪽 참조.

지 형식으로 다루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동아시아사 수업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 그 속에서도 신생 동아시아사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평화 인식의 제고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 보았다. 동아시아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렇지만 아직 전체적인 구성 방식이나 구체적인 서술 내용, 교수·학습 등과 관련해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동아시아사를 하나의 ‘과정형’으로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동아시아사 과목이 많은 교사들에게 ‘불편한’ 과목이다.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적대적으로 동아시아사에 대한 편견을 늘어놓기도 한다. 동아시아사 교과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한국사’ 교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학교사에게도 쉽지 않다는 이과 영역의 ‘수학 II’처럼 ‘세계사’를 역사교사 안에서도 특수 영역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타 교과와 교사가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수업을 하는 필자의 모습을 보고 “대학에서 한국사 외에 다른 역사도 배우나요?”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다. 현실적으로 세계사와 떨어진 교사가 많다. 하물며 세계사와는 또 다른 동아시아사라는 낯선 과목을 새롭게 공을 들여 교재 연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해 한다. 본문의 ‘동아시아사 수업의 안착을 위한 노력’은 다소 장황할 수 있지만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동아시아사 수업의 활로를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교사의 경우 동아시아사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가운데 좀 더 평화의 관점에 입각한 다양한 수업의 실현도 필요해 보인다. 이미 3년간 수업이 진행되

었으므로 전국적으로 그 경험을 모아 보면 적지 않은 사례들이 나올 것이다. 수업 사례를 모아 보급하면 동아시아사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착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나은 수업의 촉진제로도 작용할 것이다.

동아시아사 교육은 평화 교육이고 평화 교육은 폭력적 관계를 서로를 살리는 관계(상생)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며, 나와 다른 남의 문화를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것을 방관하거나 상대방이 해결 의지가 없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손을 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령 앞서 학생들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고착화하고 평화 인식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대중 매체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동아시아사에서 역사학의 학문적 요소뿐만 아니라 대중 매체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 단원이나 VI 단원의 본문에 반영할 수도 있고 본문 서술이 어색하다면 탐구 과제의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평화 인식의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 공간의 교과 영역과 더불어 여러 가지 채널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형식의 역사 대화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이 글에서는 평화 인식과 관련하여 동아시아사가 가지는 확장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동아시아사를 통한 이웃 나라의 이해라는 것이 남의 나라를 이해하는 차원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화와 함께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에 대한 멸시 의식 등 특정 사회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보편적 인권의 견지에서 우리 사회의 내부로 돌릴 필요성이 있다. 동아시아 사회에 대한 평화적 감수성과 한국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인권 의식은 서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 손승철 외, 2012, 『동아시아사』, 교학사.
- 안병우 외, 2012,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 김병준 외, 2011, 『자료로 보는 동아시아사』, 교육과학기술부.
- 다카하라 모토아키 저, 정호석 역, 2007, 『한중일 인터넷 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 삼인.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동아시아의 역사』 I·II·III, 동북아역사재단.
- 미타니 히로시 외 저, 강진아 역, 2011, 『다시 보는 동아시아 근대사』, 까치.
- 박중현, 2012, 『청소년을 위한 동아시아사』, 두리미디어.
- 백영서, 2013,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창비.
- 유용태·박태균·박진우, 2011,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1·2, 창비.
- 유인선,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창비.
- 유인선 외, 2013, 『자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12,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2, 휴머니스트.
- 고양파주역사교사모임, 2013, 「동아시아사 수업,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역사교육』 제102호(가을).
- 김성준, 2013, 「고대 동중국해 사단(斜斷)항로에 대한 해양기상학적 고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19(2).
- 김유리, 2014,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에 대한 역사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분석」, 『歷史教育』 제130호.
- 신성근, 2010, 「10세기 이전 동아시아의 기후 변화와 인구 이동」, 『동아시아문화연구』 제48집.
- 嚴基白 외, 1988, 「벼멸구의 飛來와 氣象과의 關係」, 『한국응용곤충학회지』 27(4).
- 유용태, 2013, 「동아시아 지역사 서술의 현황과 과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2012) 근현대부분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40집.
- 유인선, 2004, 「판 보이 찌우-방황하는 베트남 초기민족주의자」, 『歷史教育』 제90집.
- 이운선, 2014, 「나의 동아시아사 수업」, 『나의 동아시아사 수업을 말한다』(전국역사교

사모임 동아시아사 수업 워크샵 자료집)

황지숙, 2008, 「한국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들의 동아시아 교육인식」, 『한중일 동아시아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선인.

南塚信吾, 2007, 『世界史なんていない?』, 岩波書店.

神奈川縣 高等學校教科研究會 社會科部會 歴史分科會 편, 2008, 『世界史をどう教えるか－歴史學の進展と教科書』, 山川出版社.

妹尾達彦, 1999, 「中華の分裂と再生」, 『岩波講座 世界歴史』 第9卷, 岩波書店.

辛島昇, 1994, 「回顧と展望:1993年 歴史學界 總説」, 『史學雜誌』 제103권 제5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 초록]

동아시아사 수업과 평화 인식

윤세병

2007개정 교육과정으로 탄생한 동아시아사는 도입 단계에서부터 많은 진통을 겪었다.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베트남사를 포괄한 동아시아사는 기존의 한국사나 세계사와 비교할 때 상당히 돌출적인 것이었다. 논란 속에서 태어난 동아시아사는 2012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아시아사 학습의 애로점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동아시아사의 안착을 위한 현장 교사들의 노력들을 소개해 보았다.

동아시아사가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지식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감, (2) 기존에 알고 있던 한국사 지식과 세계사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어려움, (3) 교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사 지식이 동아시아사의 이해를 가로 막는 문제, (4) 교과서가 통사가 아닌 주제사 방식으로 구성됨으로써 생기는 적용의 곤란함, (5) 내용의 맥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는 교과서 서술, (6) 주변국의 통사 지식이 빈약한 상태에서 동아시아사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사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입 단원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소재로 접근하기도 하고, 각국의 역사를 종과 횡으로 엮어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참고 자료에서 찾은 소재의 활용이나 스토리의 재구성, 지역사나 인물을 통한 접근, 국가 단위가 아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접근 등으로 다양한 내러티브를 개발하고 있다.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는 것이 교육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평화 인식의 제고라는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교사와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성과적인 측면과 함께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를 살펴 보았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평화 인식과 관련하여 근현대사 단원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은 동아시아사 수업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주변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은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 원인으로서는 현재 진행 중인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역사와 영토 갈등 문제, 기존에 미디어 등으로부터 형성된 주변국에 대한 관념 등이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동아시아 근현대사 학습을 통해 침략과 지배 문제를 접하고 나서 오히려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평화인식을 위해 보다 많은 연구와 실천이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

동아시아사, 주제사, 근현대사, 타자, 평화 인식



[ABSTRACT]

Teaching East Asian History and Peace Recognition

Yoon Sebyong

East Asian History was first established as a high school subject in the 2007 curriculum, and its inclusion has brought about many controversies. Chinese history, Japanese history, and Vietnamese history, as well as Korean history, are included in East Asian History. This subject's contents and structure are extraordinary in contrast to those of Korean History or World History. There was much debate concerning East Asian history among scholars. Subsequently, East Asian History textbooks were composed. Students have studied East Asian History since 2012.

This article analyzed the difficult aspects of teaching and studying East Asian History, and introduced the efforts of history teachers. Many teachers and students consider East Asian history as a difficult subject. That is because of (1) the burden of new knowledge for teachers, (2) the difficulty in connecting the knowledge of Korean history and World history logically, (3) preventing the knowledge of World history studied beforehand from being the basis for understanding East Asian history, (4) the difficulty in adapting to the topical history of the textbook, (5) the descriptions which make it difficult for readers to grasp the textbook's contents, and (6) the lack of knowledge among students of Chinese history, Japanese history, and Vietnamese history.

Teachers have made many efforts for the efficient teaching of East Asian History in the face of difficult conditions. They are trying to use

resources that stimulate student interest as they introduce the classes or explain the chronology and connections linking each nation's history. In addition, they are developing many sorts of narratives by searching for references, by re-organizing the story, and by approaching local and personal history and dealing with special regions.

The aim of East Asian History is to understand the history and culture of East Asia and to respect others. Regarding the enhancement of the peace understanding of students, this article confirmed such achievements and tasks for solving this issue in the East Asian History class. Teachers emphasized the unit of modern history with regard to raising peace recognition. Students stated that they could understand the history and culture of neighboring nations more deeply. But they did not agree with the idea of respecting neighbors, that is, China, Japan, and Vietnam. That is because of the conflict of history and territory among East Asian nations and a fixed idea formed by the social environment, especially by the mass media. On the other hand, negative recognition of neighboring nations is ironically intensified in spite of studying the imperial invasions and colonial domination of modern history. More study and practice are required for peace recognition by students.

Keywords

East Asian History, topic history, modern history, non-Korean others, peace recognition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 · 제척 · 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역사재단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를 총괄할 편집이사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 (A, A, A)
 -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B, C) (B, B, C)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nahf.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연민수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장

- 편집이사

박선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편집위원

공석구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구선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김광열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김문자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김은숙 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남상호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중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중수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현혜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임상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정병삼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혜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태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동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47호(2015. 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초판 1쇄 인쇄 2015년 3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5년 3월 31일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